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45 輯

大 韓 中 國 學 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13. 8. 31

< 大韓中國學會 >

고 문 : 성파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이철리(경남대)
부 회 장 : 김세환(부산대) 서석홍(부경대) 오창화(경성대) 임수암(경남정보대)
감 사 : 김태관(동의대) 이재하(경성대)
연구이사(겸 위원) : 김용운(동아대)
연구윤리위원 : 강경구(동의대) 김창경(부경대) 박재진(동서대) 유병태(인제대)
하영삼(경성대)
총무이사 : 김혜진(경남대) 이주형(창원대)
학술이사 : 진광호(부산외대:총괄) 서창배(부경대:사회과학) 이종민(경성대:현대
문학) 정윤철(부산외대:어학) 최형록(부산대:고전문학)
편집이사(겸 위원) : 김창경(부경대)
편집위원 : 강경구(동의대) 문병순(경남대) 오만중(전남대) 장호득(단국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규일(영동대) 이정남(고려대)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하영삼(경성대)
섭외이사 : 김윤정(창원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문혁(세명대) 이중희(부경대)
기획이사 : 김언하(동서대) 김진영(부산외대) 김태식(경남대)
손성문(경남과학기술대) 이웅길(동서대)
출판이사 : 강경구(동의대) 신흥철(동아대) 정옥근(동의대) 한상덕(경상대)
운영이사 : 김민정(부산정보대) 김소현(동아대) 김인호(동의대) 김종현(동아대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현태(경남대) 남덕현(부산대)
류영표(경성대) 정원호(동의과학대) 박경송(영산대) 박기현(인제대)
박부열(진주보건간호대) 박안수(창신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손성문(경남과학기술대) 신석찬(부산여대) 왕옥지(동명대)
왕충의(부산외대) 이경미(동서대) 이상도(울산대) 이치한(창원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정태엽(부산외대) 서창배(신라대) 정현철(경상대)
최세윤(고신대) 한종호(동주대)
연 락 처 : 김현태 055-249-2128, 010-4569-8302 dochtkim@kyungnam.ac.kr
이주형 055-213-3264, 010-5012-6728 leejh@changwon.ac.kr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45輯

2013年 8月

目 次

김효정·金文의 여성칭위로 본 여성상	1
김영경·《新撰字鏡》註釋 體例 研究	35
－ 한자 字形屬性情報을 중심으로 －	
손해서·채영희·한중 의태어 어순 비교 연구	73
－ 한국의 AXBX형과 중국의 XAXB형을 중심으로 －	
남덕현·《삼국연의(三國演義)》 關羽형상의 의미	99
오창화·湯顯祖의 [茶馬]詩 小考	121
김명석·婁煒영화 『頤和園』의 시공간적 의미	149
박춘식·장양(張揚)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여정과 현실의 간극 고찰	183
박민웅·A Selected Bibliography of Daoism	207
공재형·손성문·중국의 물류정책 추세와 대내외 물류통합	235
金明俊·金成哲·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255
김형근·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81
－ 산업연관분석 적용 －	

■ 부록

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외)	303
----------------------------	-----

CHINESE STUDIES

Volume 45

Aug.2013

A Study of Women image in Female name of inscription on Bronze / Kim, Hyo-Jeong	1
The Research of “ <i>Shinsenjikyo</i> ”’s Commentary style-centered on property in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shape / Kim, Lyong-Kyong	35
A Comparative Study on the Word Order of Mimetic words in Chinese and Korean--Focused on AXBX Type in Korean and XAXB Type in Chinese / Sun, Hai-Rui, Chae, Young-Hee	73
A Study on the Meaning of <i>GuanYu</i> (關羽) Image in the 《 <i>SanGuoYanYi</i> 》 / Nam, Duk-Hyun	99
An Exegetical View on Tang Xianzu's < <i>Chama</i> 茶馬> Poetry(軼) / Oh, Chang-Hwa	121
The Spatiotemporal Meaning of <i>Louye</i> 's Film <i>Summer Palace</i> / Kim, Myung-Suk	149
The Gap of the Journey and Reality in <i>Zhang Yang's</i> Road Movie / Park, Chun-Sik	183
A Selected Bibliography of Daoism / Park, Min-Woong	207
China's Logistics Policy Trends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Logistics Integration / Kong, Jae-Hyung & Son, Seong-Mun	235

An Empirical Analysis on Determinants of Outward Direct Investment by China's Enterprises / <i>Kim, Myung-Jun & Jin, Cheng-Zhe</i>	255
The Role of logistics industry in China national economy - An Input-Output analysis / <i>Kim, Hyung-Geun</i>	281
 ■ Appendix	
Editorial Rules of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303

金文의 여성칭위로 본 여성상

김효정*

〈목 차〉

1. 서 론
 2. 혼인여성의 칭위
 3. 사후여성의 칭위
 4. 신분칭위
 5. 결 론
- 참고문헌
[中文提要]

1. 서 론

칭위는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친족제도 및 가족 관계 등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당시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헌에는 《儀禮》, 《爾雅·釋親》 등에 다양한 여성칭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금문에 나타나는 주대 여성 칭위는 혼인시의 칭위, 시호, 제사의 대상으로써 칭위, 친족을 나타내는 칭위,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성칭위는 女, 妣, 母, 祖母, 姑, 母, 妣, 婦, 妻, 妾, 姒, 姆, 天君, 小君 등으로 이들은 모두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

祖母, 姑, 母, 妣 등은 제사를 받는 대상에 쓰였고, 상대와 서주 초기 금문에는 제사의 대상인 여성을 일간과 같이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성에게도 사용하던 칭위이다.

또한 주대에 제후 및 기타 귀족의 딸이 출가할 때 혼수품으로 만들어

* 慶星大學校 韓國漢字研究所 研究員(sodam2277@hanmail.net)

준 청동예기인 잉기가 다량 나타나고 이러한 기물에는 孟, 伯, 宗, 仲, 叔, 季 등으로 형제자매의 항렬과 성을 표시하고 자신의 출생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대 이전의 금문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대는 상나라를 멸하고 새로이 나라를 세우면서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예제문화를 탄생시키면서 책명과 하사 조상에 대한 제사 등에 각 신분 지위에 따른 차등의 예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신분칭위도 다양하게 나타나 계급사회의 면모를 보여 주게 되며, 특히 여성에 관한 칭위는 상대에 비해 다양해진다.

주대는 모계사회의 흔적과 부계사회의 흔적이 동시에 남아 있으며, 남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이 정립되던 시기로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에 대한 연구는 당시 가족관계 친척관계 등의 형성과 여성의 지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며 당시 여성의 지위는 칭위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여성칭위에 대한 연구는 사회 제도와 여성지위의 연관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당시 사회의 주요한 제도 형성과 함께하였으며 1차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를 통해 당시 여성의 지위와 여성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금문 자료는 《金文語料庫》¹⁾를 토대로 하고 기존의 여성칭위 연구와 문헌자료를 참고로 하되, 여성 칭위 연구 범위는 주대를 위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를 이용하고 예문은 기본적인 것으로만 함을 밝혀둔다.

2. 혼인여성의 칭위

주대 혼인 여성에 대한 칭위는 혼인하는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정보가 되는데 출신국과 성 그리고 항렬이 나타나고 청동기 중에는 혼수

1) 上海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研究與應用中心에서 《殷周金文集成》의 11,985건을 토대로 하고 《金文總集》과 새로 출토된 청동기 명문과 자형자료와 연구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총 13,250건의 청동기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만든 것이다.

품인 잉기에 혼인여성의 정보가 가장 잘 기록되어 있으며 《金文語料庫》에는 잉(媵)자가 기록된 잉기가 169건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105건이다. 이 잉기에 여성은 성으로 칭하고 있으며 혼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칭위가 있다.

2.1 女子稱姓

주대의 금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성에게 성(姓)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姓)은 《說文》 여(女)부수에는 “성(姓)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다. 옛 신성한 어머니가 하늘에 감응하여 아들을 낳았으며 여(女)와 생(生)으로 구성되었다(姓, 人所生也. 古之神聖母, 感天而生子, 從女從生).”라고 하였으며, 《白虎通·姓名》에는 “성(姓)은 낳는 것이다(姓者, 生也).”라고 하여 성(姓)은 혈족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문에는 성(姓)을 ㅍ로 쓰고 있어 생(生)과 같으며, 백성(百姓)은 모두 百生으로 쓰고 있어 여(女)와는 연관이 없는 글자이며 전국 시기의 청동기 「」에 성(姓)은 ㅍ로 쓰고 있으며 의미부에 인(人)을 쓰고 있다.

주대 금문에 나타나는 성(姓)은 姜、姬、姁、嬀(婁)、嬴、姑、子、
嬭、妊、姁、媿、嫫、嬖、妣、妃、嬖、嬗、姚、好、嬖、嬖、嫫、
嬖、嬖 등으로 여(女)자가 들어 있는 성(姓)이 대부분이며 여성관련 기
물에 쓰이고 있다.

이는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던 모계사회의 흔적이 남아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으며 모계 씨족 사회 때는 각 씨족이 각기 다른 족칭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족칭은 씨족의 혈통을 표시하는 부호가 되고 그 씨족 구성원의 성(姓)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王國維는 《觀堂集林》 「殷周制度論」에서 남녀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녀의 구별에서도 주대는 전대와 비교하면 엄격했다. 남자는 씨(氏)로 부르고 여자는 성(姓)으로 부르는 것이 주나라 때 통용되던 제도였다. …… 동성불혼제는 주대에 생긴 제도로 여자를 성(姓)으로 칭한 것은 주대에 시작된 것이다(男女之別, 周亦較前代爲嚴. 男子稱氏, 女

子稱姓，此周之通制也。……或可通婚，而同姓不婚之制，實自周，女子稱姓，亦自周人始矣。”²⁾

라고 하여 주대에 성으로 칭한 것은 주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며 당시 혼인제도인 동성불혼제도는 꼭 성(姓)을 밝히는 이유가 되었으며 또한 이는 외혼제를 표방하였다는 것이다. 《禮記·喪服小記·正義》에는 “은대는 세대 계보가 없어 6대가 지나면 흐려지게 되므로 부인은 성(姓)을 모르게 되는데 주나라는 그렇지 않았다(殷無世系，六世而昏，故婦人有不知姓者，周則不然).”고 하여 여성에게 성(姓)으로 칭한 것은 주대에 생겨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金文語料庫》에 수록된 잉(媵)자가 있는 잉기 105건 중 기물을 만든 사람과 기물을 받는 여성이 동성인 잉기는 73건으로 여자를 성(姓)으로 불렀지만 성(姓)은 모두 부계를 따르고 있으며, 그 중에 아버지 명의를 기물이 가장 많다는 점은 성(姓)이 부계를 표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曹兆蘭은 여성이 혼인할 때 가져가거나 보내는 잉기를 만든 사람을 8종으로 나누었는데,³⁾ 그 중 부모명의, 부친명의를 잉기가 많은데, 이들 잉기를 만든 사람과 기물을 받는 사람은 동성이며 제후국의 여성은 모두 출신국의 성(姓)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부계를 따른다는 증거가 된다.

이로써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씨의 개념은 이 시기에 정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대의 엄격한 종법제도와 여성이 남성 쪽으로 시집가는 혼인제도하에서도 여성은 자신의 성(姓)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속한 족의 성(姓)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2 長幼를 나타내는 여성칭위

주대의 혼인예물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칭위로 향렬 칭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위를 나타내는 칭호로 쓰이기도 했다.

2) 王國維, 《觀堂集林》(北京: 中華書局, 1959), 473~474쪽

3) 曹兆蘭, 《金文與殷周女性文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156~158쪽.
“父母名義, 父名義, 母名義, 兄名義, 姪名義, 主嫁國名義, 來媵國名義, 宗主國名義.”

(1) 孟·伯·宗

맹(孟)의 《說文》 해석은 “장자이다(長也).”라고 하였으며, 《白虎通·姓名》에는 “적장자(嫡長子)는 백(伯)이라 하고, 서장자(庶長子)는 맹(孟)이라 한다(嫡長曰伯, 庶長曰孟).”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적자 가운데 장자를 백(伯)이라 하고, 서자 중에 장자를 맹(孟)이라 칭한다는 말이다. 백(伯)과 맹(孟)으로 적서의 구별이라 할 수 있는데 금문에는 장자에 대해 맹(孟)과 백(伯)을 함께 쓰고 있다.

《孔子家語》에 의하면, 공자는 同父異母의 큰 형이 있었는데 이름은 맹피(孟皮)이고 자는 백니(伯尼)라 하였다.⁴⁾ 이로 보아 맹(孟)과 백(伯)이 집안의 장자에 대한 칭호라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105건의 혼인 관련 잉기 가운데 맹(孟)으로 장녀를 표한 경우는 28건이며 백(伯)으로 표한 경우는 2건 밖에 없어 맹(孟)과 백(伯)으로 적서를 구별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금문은 「孟簋」에 맹(孟)이 인명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항렬 칭위로 사용되고 있다.

「伯家父鬲」 “백가보가 큰딸 강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白(伯)家父乍(作)孟姜朕鬲).”

「黃子鐘」 “황(黃)나라의 큰딸 희를 위해 기물을 만들었다(黃子乍(作)黃孟姬行器).”

「齊侯作孟姬盤」 “제(齊)나라의 임금의 황씨에서 시집오는 큰딸 희를 위한 기물을 만들었다(齊鐘(齊)侯(侯)乍(作)皇氏孟麗(姬)竝(寶)敝(盤)).”

「毛叔盤」 “모(毛)나라의 숙(叔)이 잉으로 혼인하는 큰 딸을 위해 만든 예기이다(毛弔(叔)朕(朕)彪氏孟麗(姬)竝(寶)敝(盤)).”

「僕孟姜匜」 “왕노(王攸) 기(僕)나라의 맹강이 예기를 만들었다(王攸僕孟姜乍(作)旅也(匜)).”

「魯大司徒子仲伯匜」 “려(厲)로 출가하는 서녀 중 장녀 희를 위한 잉기를 만들어 보낸다(庶女厲(厲)孟麗(姬)).”

4) 王德明 主編, 《孔子家語譯注》(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卷9, 405쪽. “雖有九女, 是無子. 其妾生孟皮, 孟皮字伯尼, 有足病, 於是乃求婚於顏氏.”

「齊侯作孟姬盤」의 제(齊)나라는姜姓(姜姓)인데 희성(姬姓)을 위한 기물을 만들었으므로 제나라로 시집오는 희성(姬姓)의 혼인 배우자를 위해 만든 기물로 볼 수 있다.

「魯大司徒子仲伯匱」는 “서장자는 맹(孟)으로 부른다(庶長曰孟).”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금문의 다른 예는 보이지 않는다.

백(伯)이 향렬로 쓰일 때는 맹(孟)과 같이 장자를 의미하고 백(伯)으로 향렬을 나타낸 명문은 다음과 같다.

「𣎵叔𣎵姬簋」 “할(𣎵)나라의 숙(叔)과 희(姬)가 큰딸 괴(媿)를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𣎵弔(叔)𣎵麗(姬)乍(作)白(伯)𣎵(媿)卅(滕)𣎵(簋)).”

「孟弔父簋」 “맹필보는 환(幻)으로 시집가는 큰 딸 임(妊)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 모두 8점이다(孟弔父乍(作)幻白(伯)𣎵(妊)𣎵(滕)𣎵(簋)八).”

종(宗)은 면(宀)과 시(示)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문에 종(宗)은 宗室, 宗周, 皇宗, 宗家, 大宗, 宗伯, 宗彝, 宗老, 多宗, 宗婦, 宗廟, 宗小子 등으로 종가, 종묘, 대종, 관직명, 종묘 제사에 쓰이는 예기, 왕족 등을 나타내는데 쓰이며 「縣妃簋」의 ‘伯室’은 백(伯)이 종(宗)과 같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혼인 예기에 여성의 향렬로 종(宗)을 성 앞에 붙인 경우는 큰 딸 또는 종부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季良父簋」 “계량보가 큰딸 운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季良父乍(作)宗𣎵(姁)𣎵(滕)𣎵(簋)).”

「季宮父簋」 “계궁보가 큰 딸을 위한 잉기를 만들었다(季宮父(作)宗𣎵(姁)𣎵(滕)𣎵(簋)).”

「晉公盆」 “비가 종부를 위해 만든다(否(丕)乍(作)元女).”

「晉公盆」에 ‘元女’는 종부 또는 큰 딸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혼인관련 금문 중에는 맹(孟)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맹(孟)과 백(伯)으로 적서를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仲

《說文》에는 “중(仲)은 가운데를 뜻한다(仲, 中也).”라고 하였으며,

《釋名》에는 “아버지의 아우를 중보(仲父)라고 한다. 중(仲)은 중(中)과 같고 가운데라는 뜻이다(父之弟曰仲父. 仲, 中也, 位在中也).”라고 하였다. 갑골문과 금문에는 중(仲)을 중(中)으로 쓴다. 《左傳·隱公》 원년 조의 “그래서 중자는 나에게 시집왔다(故仲子歸於我).”에서도 중(仲)은 항렬을 나타내고 있다.

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𣥂叔盥」 “부숙(𣥂叔)이 둘째 딸 희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부숙은 중희가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𣥂弔(叔)乍(作)中(仲)𣥂(姬)旅盥. 𣥂弔(叔)侔(其)萬年永𣥂(及)中(仲)𣥂(姬)實用).”

「王作仲姜鼎」 “왕이 중강을 위한 예기 정을 만들었다(王乍(作)中(仲)姜寶鼎).”

「仲姜鬯」 “중강이 예기를 만들었다(中(仲)姜乍(作)尊(尊)鬯).”

「𣥂叔盥」의 기물을 받는 사람은 혼인하는 딸이며, 「王作仲姜鼎」의 왕은 주나라 왕으로 기물을 받는 사람은 강성(姜姓)으로 희성(姬姓)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왕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가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仲姜鬯」은 어머니가 딸을 위해 만들었거나 또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 만든 기물로 중강의 신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3) 叔

형제 항렬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셋째를 뜻하고, 부친의 남동생을 칭하는 말이며 부친과 같은 항렬 중 나이가 어린 남자를 칭하는 말로 ‘소(少)’로 가차되어 어리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儀禮·觀禮》에는 “동성(同姓)의 작은 나라는 숙보(叔父)라 하고 이성(異姓)의 작은 나라는 숙구(叔舅)라고 한다(同姓小邦, 則曰叔父, 異姓小邦, 則曰叔舅).”라고 하여 숙(叔)은 백(伯) 이외를 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금문에 숙(叔)으로 항렬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作叔嬴鬯」 “셋째 영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乍(作)叔(叔)嬴世(滕)鬯).”

「鄭登伯鬯」 “정나라의 등백(登伯)이 셋째 婦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

(佗(鄭)登白(伯)乍(作)弔(叔)敵(婦)簋(薦)鬲).”
 「傳盥」“숙방보가 셋째 길이 영원히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弔(叔)邦父弔(叔)敵(姑)邁(萬)年子子孫孫永寶用).”
 「京叔姬簋」“경숙희가 보배로운 예기 보를 만든다(京弔(叔)敵(姬)乍(作)寶簋(簋)).”

(4) 季

계(季)는 형제 항렬 중 막내를 의미한다. 《說文》에는 “계(季)는 어린 것을 칭한다(季, 少稱).”고 하였고, 《左傳·昭公》 2년 조에 “진(晉)나라의 소강(少姜)이 죽어 소공이 진(晉)나라로 갔다(晉少姜卒, 公如晉).”라고 하여 소(少)가 계(季)의 의미로 쓰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춘추시기의 「欒書缶」에는 “정월 늦은 봄(正月饑(季)饒(春))”이라고 하여 늦은 때를 의미하고 있으며 지금도 초봄[季春], 초여름[季夏] 등으로 쓰이고 있다.

계(季)가 항렬을 나타내는 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趙簋」“趙가 엎드려 절하고 왕의 은혜를 칭송하였다. 이로 계강(姜)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趙拜)頤首. 猷(對)頤(揚)王休. 用乍(作)季姜尊(尊)彝.”
 「王伯姜鼎」“왕백강이 희성의 막내 희복녀(姬福女)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王白(伯)姜乍(作)季敵(姬)福(福)女尊(尊)鼎).”
 「伯索史孟」“백색사가 막내딸 강(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白(伯)索史乍(作)季姜寶孟).”
 「鄭義伯匜」“정나라의 의백이 막내 강(姜)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佗(鄭)義白(伯)乍(作)季姜寶也(匜)用).”

「趙簋」의 계강(季姜)은 趙의 어머니일 수 있고, 「王伯姜鼎」의 季姬는 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나라 왕실에 시집 온 강성(姜姓)의 여성 백강(伯姜)은 계희(季姬)의 어머니일 수 있으며, 희성(姬姓)과 강성(姜姓)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으며 그 딸은 부계의 성을 따라 희성(姬姓)이다. 「鄭義伯匜」의 정(鄭)나라는 희성(姬姓)의 나라이므로 계강(季姜)은 강성(姜姓)의 나라에서 시집오는 사람을 위해 남편의 나라에서 만든 기물로 볼 수 있다.

2.2 稱字

남성과 여성은 이름 외에 자(字)를 갖게 되는데, 여성이 자(字)를 갖게 되는 경우에 대한 문헌기록은 《禮記·曲禮上》에 “여자가 허혼을 하면 비녀를 꽂고 자를 준다(女子許嫁, 笄而字).”와 《儀禮·士婚禮》의 “여자가 허혼을 하면 비녀를 꽂고 예를 올리고, 자를 부른다(女子許嫁, 笄而醴之, 稱字).”라고 하여 허혼을 하고 나면 자(字)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子

여성과 관련된 금문에도 자(字)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자(子)’가 있다. 李學勤은 “금문의 여성 칭위 중 ‘자(子)’는 작칭 또는 미칭으로 쓰였고, 주대 여성도 이름과 자를 함께 사용하였다.”⁵⁾고 하였다.

문헌에는 ‘자(子)’가 아들과 딸을 모두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또 시집으로 간 후에 붙인 칭위로 사용되고 있다.

《穀梁傳·文公》 12년 조에 “자숙희(子叔姬)라고 하는 것은 귀하게 여긴 것이다. 노문공의 어머니와 자매이기 때문이다. 일설에는 허혼하고 죽었기 때문에 혼인한 예로 대우한 것이다(其曰子叔姬, 貴也. 公之母姊妹也. 其一傳曰許嫁以卒之也).”라고 한 것과 《左傳·文公》 14년 조에 “자숙희(子叔姬)는 제(齊)나라 소공의 부인이 되었다(子叔姬妃齊昭公).”와 “제(齊)나라에서 자숙희(子叔姬)를 잡았다(齊人執子叔姬).” 등 모두 항렬 칭위 앞에 ‘자(子)’를 붙이고 있다. 杜預는 “자숙희(子叔姬)는 이미 시집 간 사람을 칭하는 게 명백하다.”고 했는데, 《左傳·宣公》 5년 조의 “가을 9월에 제나라의 고고가 숙희를 맞이하러 왔다(秋九月, 齊高固來逆叔姬).”와 같은 해 “겨울에 제(齊)나라 고고가 자숙희(子叔姬)를 맞이해갔다(冬, 齊高固及子叔姬來).”가 그 증거로 허혼을 하고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면 ‘자(子)’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자(子)’를 여성의 자(字)로 볼 수 있는데,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자(子)’를 항렬자 앞에 붙인 경우는 10건이며, 문헌의 예에 의

5)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歷史考察》(成都: 成都出版社, 1992), 110쪽.

하면 아래 기물은 이미 혼인한 후에 만들어 보낸 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慶叔匱」“慶叔^叔이 잉으로 가는 자 맹강을 위해 기물을 만들었다(慶叔(叔)^叔(作)^叔(媵)子孟姜盥^盥(匱)).”

「匱君壺」“큰 딸 비(妃)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匱(鑄)子孟鮒(妃)媵匱壺).”

「齊侯孟」“제나라 임금의 잉으로 가는 둘째 딸 강(姜)을 위한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齊(齊)侯(侯)乍(作)朕(媵)子中(仲)姜寶孟).”

「壽鍾」“제나라 중의 자 ^壽가 둘째 딸 강(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曳中(仲)之子^壽乍(作)子中(仲)姜寶鍾).”

「長子沐臣簠」“큰 딸 내(嬭)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乍(作)其子孟嬭之母^媵(媵)臣(簠)).”

「築可忌豆」“築가기가 둘째 딸 길(姑)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築可忌乍(作)畢元子中(仲)姑媵杞(曄)).”

「番匱生壺」“잉으로 가는 큰 딸 비(妃)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媵(媵)畢元子孟妃^茶).”

「復公仲簠蓋」“養부인을 위해 잉기 껍을 만든다(用乍(作)^復子孟^婦婦(婦)□^尊(尊)媵(媵)毀(簠)).”

「紀公壺」“기나라의 임금이 셋째 딸 강(姜)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紀(紀)公乍(作)爲子弔(叔)姜□盥壺).”

「魯少司寇盤」“노나라 소사구 봉손택이 큰 딸 희(姬)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魯少^司(司)寇^封(封)孫宅乍(作)其子孟^姬姬(姬)傲朕(媵)般(盤)也).”

(2) 母

다음 명문들에 ‘모(母)’는 성(姓)과 이름 또는 자 뒤에 쓰이고 있으며 여성을 ‘성과 이름+ 모(母)’ 형식으로 칭하고 있는데 ‘모(母)’는 어머니나 딸로 쓰인 경우가 아니고 여성에 대한 총칭이거나 자(字)로 볼 수 있다.

「甌伯鬲」“픽나라의 임금이 희대모(姬大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甌白(伯)乍(作)姬(姬)大母^尊(尊)鬲).”

「姬芳母鬲」“희잉모(姬芳母)가 예기 력을 만든다(姬(姬)芳(芳)母乍(作)俗鬲).”

「姬趁母鬲」 “희음모(姬趁母)가 예기 렉을 만든다(姬趁母乍(作)𠄎(尊)鬲).”

「辛仲姬皇母鼎」 “辛나라의 중희황모(仲姬皇母)가 예기를 만든다(辛中(仲)𠄎(姬)皇母乍(作)𠄎(尊)鼎).”--서주말기

「蔡大師鼎」 “채(蔡)나라의 태사 昺이 허(許)나라에 잉으로 시집가는 叔姬可母 飮(𠄎)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蔡大市(師)𠄎(昺)𠄎(腰)𠄎(許)弔(叔)姬可母飮(𠄎)).”--채(蔡)나라는 희성의 나라이고 허(許)나라는 강성으로 희성과 강성의 통혼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應侯簋」 “응(應)나라의 임금인 희원모(姬原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𠄎(應)𠄎(侯)乍(作)𠄎(姬)𠄎(原)母𠄎(尊)𠄎(簋)).”

「姬寔母豆」 “희환모(姬寔母)가 大公, 章公, 口公, 魯中(仲), 鬻白(伯), 孝公, 𠄎公을 위한 예기 두를 만든다(𠄎(姬)寔母乍(作)大公章公口公魯中(仲)鬻白(伯)孝公𠄎公豆).”

「干氏叔子盤」 “干氏叔자가 仲姬客母를 위해 잉기 반을 만든다(干氏弔(叔)子乍(作)中(仲)姬客母𠄎(腰)𠄎(盤)).”

「曹公盤」 “조(曹)나라의 임금인 잉으로 가는 큰 딸 姬𠄎母를 위해 예기 반을 만든다(𠄎(曹)𠄎(公)𠄎(腰)孟姬匠母𠄎(盤)).”

「姑胥母方鼎」 “길홀모(姑胥母)가 꺄(𠄎)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 정을 만든다(𠄎(姑)胥母乍(作)𠄎(寶)𠄎(尊)鼎).”

「姑互母觶」 “길공모(姑互母)가 예기를 만든다(姑互母乍(作)𠄎(寶)).”

「姑口母匱」 “길口모(姑口母)가 예기 대야를 만든다(𠄎(姑)口母乍(作)寶𠄎(匱)).”

「仲姑義母匱」 “중길의모(仲姑義母)가 예기 대야를 만든다(中(仲)𠄎(姑)義母乍(作)旅也(匱)).”

「蘇治妊盤」 “소(蘇)나라의 야임(治妊)이 꺄(號)나라의 비어모(妃魚母)를 위해 예기 반을 만든다(𠄎(蘇)晚(治)妊乍(作)號妃魚母般(盤)).”

「蘇治妊鼎」 “소(蘇)나라의 야임(治妊)이 꺄(號)나라의 비어모(妃魚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𠄎(蘇)治(治)妊乍(作)𠄎(號)妃魚母𠄎(腰)).”

「鑄公簠蓋」 “주(鑄)나라 임금인 맹임거모(孟妊車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鑄(鑄)公乍(作)孟𠄎(妊)車母𠄎(腰)𠄎(簠)).”

「陳侯鼎」 “진(陳)나라 임금인 口媯罔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陳(陳)𠄎(侯)乍(作)口媯罔母𠄎(腰)鼎).”

「伯侯父盤」 “백후보(伯侯父)가 숙규사모(叔媯母)를 위해 예기를 만

든다(白(伯)戾(侯)父胙(媵)弔(叔)媿母鑿(盤)).”

「陳侯盤」 “진(陳)나라의 임금인 왕실로 시집가는 仲媿母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陳侯(戾)乍(作)王中(仲)媿母胙(媵)般(盤)).”

「陳伯元匱」 “진(陳)나라의 임금인 劬의 아들 백원(伯元)이 서맹규주모(西孟媿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陳(陳)白(伯)劬之子白(伯)元. 乍(作)西孟媿母胙(媵)鉶(匱)).”

「陳子匱」 “진(陳)나라의 자자(子子)가 齊孟媿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陳(陳)子子乍(作)齊孟爲(媿)母胙(媵)鉶(匱)).”

「榮有司母」 “영(榮)나라의 유사(有司) 칭(母)이 예기를 만든다. 嬴母를 위한 잉기로 사용하였라(司(榮)又(有)嗣(司)母乍(作)倕母. 用朕(媵)嬴(母)).”

「榮有司母」 “영(榮)나라의 유사(有司) 칭(母)이 예기를 만든다. 嬴母를 위한 잉기로 사용하였라(司(榮)又(有)嗣(司)母乍(作)倕母. 用朕(媵)嬴(母)倕(母)又(有)嗣(司)母乍(作)倕母. 用朕(媵)嬴(母)).”

「許男鼎」 “허(許)나라의 임금인 成姜媿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無(許)男乍(作)成姜媿母朕(媵)倕(尊)鼎(鼎)).”

「許魯生鼎」 “허(許)나라의 魯生이 수모(壽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無(許)魯生乍(作)壽(壽)母朕(媵)貞(鼎)).”

「長子沐臣簠」 “맹내지모(孟嬭之母)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乍(作)其子孟嬭之母胙(媵)臣(簠)).”

(3) 大小

여성의 칭위 가운데 대(大)와 소(小)는 동성의 여러 여자가 같은 남편과 결혼한 경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적처와 서처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에는 항렬 앞에 대(大)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다.

「蔡侯缶」 “채(蔡)나라의 임금인 큰 딸 희(姬)을 위해 잉기를 만들었다(蔡侯(侯)甬乍(作)大孟姬媿(媵)缶).”

「蔡侯尊」 “이에 큰딸 희(姬)를 위한 잉기를 만든다(用詐(作)大孟姬媿(媵)彝(尊)).”

이 두 기물은 채(蔡)나라의 소후(昭侯)가 자신의 딸에 대해 대맹희(大

孟姬)라고 하여 출가하는 딸에 대해 대(大)를 미칭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虢伯鬲」 “궤(虢)나라의 임금인 큰 딸을 위해 예기를 만들었다(虢伯(伯)乍(作)敬(姬)大母尊(尊)鬲).”
 「大師子大孟姜匱」 “태사의 딸 대맹강(大孟姜)이 예기를 만드니 제사에 사용하여 효도하여라(大師子大孟姜乍(作)般(匱). 用(享)孝).”

소(小)는 미칭 또는 시호로 볼 수 있다.

「衛鼎」 “위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중강씨(仲姜氏)를 위한 예기를 만드니 자자손손 소중하게 사용하기 바란다(衛乍(作)文考小中(仲姜氏)孟鼎. 衛(其)萬年子子孫孫永寶用).”

3. 사후 여성의 칭위

청동기는 대부분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문에는 제사를 받는 대상이 등장하는데 그 중 여성이 제사를 받는 경우는 母+일간, 妣+일간, 祖妣+일간, 文母(文母), 皇母(皇母), 高(姑), 祖母(祖母), 王母(王母), 文王母(文王母) 등에 성을 더하거나 미칭 또는 시호 등을 더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대에는 주로 모(母)와 비(妣)에 일간을 더해 사용하던 것에 비해 칭위가 다양해진 것으로 이는 주대에는 조상제사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郭沫若은 왕모(王母)는 할머니나 왕(王)과 모(母) 또는 서왕모(西王母)가 아니라 모계사회 때의 주장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모계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하였다.⁶⁾

《爾雅·釋親》에는 “아버지의 아버지는 왕부(王父)가 되고 아버지의 어머니는 왕모(王母)라고 한다(父之考爲王父, 父之母爲王母).”라고 하여 왕모(王母)는 아버지의 어머니로 할머니를 뜻하고 왕은 높이는 의미로

6) 郭沫若, 《中國古代社會研究》(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54), 35쪽. 《周易》(晉六二)의 “晉如, 愁如, 貞吉. 受茲介福, 於其王母.”

붙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금문에는 서주 중기 또는 서주 말기의 기물에 나타나는데 서주말기의 「伯康簋」에 “王父王母”와 서주말기의 「史伯碩父鼎」에 “皇考始(釐)父王母.” 등에서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1 여성의 시호

남편과 부인의 시호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가 있다. 먼저 부부의 시호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左傳》에는 정무공(鄭武公)의 부인 무강(武姜), 위장공(衛莊公)의 부인 장강(莊姜), 진목공(秦穆公)의 부인 진목희(秦穆姬), 成公 4년 조의 조삭(趙朔)의 시호는 장(莊)인데 그의 처는 조장희(趙莊姬)이며, 위정공(衛定公)의 부인 정강(定姜), 위선공(衛宣公)의 부인 선강(宣姜) 등이 남편의 시호 같이 쓰고 있다. 이로써 춘추시기로 가면서 여성은 남성에게 귀속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 중국 여성이 혼인 후 남편의 성(姓)을 따르게 되는 것과 연관하다고 할 수 있다.

금문에 부인을 남편의 시호로 칭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伯多父鬲」 “백다보가 성희(成姬) 다모(多母)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白(伯)多父乍(作)成_姬(姬)多母_鬲口).”

「哀盤」 “나의 아버지 전백(奠伯)과 어머니 전희(奠姬)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奠白(伯)奠_姬(姬)寶般(盤)).”

「六年召伯虎簋」 “나의 아버지 유백(幽伯)과 어머니 유강령((幽姜令)我考幽白(伯)幽姜令).”

「師趯鼎」 “사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를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師趯乍(作)文考聖公文母聖_姬(姬)尊_鼎).”

「師趯鬲」 “사음이 돌아가신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를 위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師_趯乍(作)文考聖公文母聖_姬(姬)尊_鬲). 其(其)萬年子孫永寶用. 其(其).”

「麟縛」 “돌아가신 할아버지 성숙(聖叔)과 할머니 성강(聖姜)에게 제사를 드려 효를 행하고 할아버지 성혜숙(成惠叔)과 할머니 성혜강(成惠姜)에게 효를 행하라(用_享(享)用孝於皇祖聖_弔(叔). 皇_妣(妣)聖姜. 於皇祖又成惠_弔(叔). 皇_妣(妣)又成惠姜).”

「膳夫梁其簋」 “돌아가신 아버지 惠仲과 돌아가신 어머니 惠妣을 위한 예기를 만들었으니 제사에 사용하여 효를 행하라(肅(膳)夫荆(梁)其乍(作)朕皇考惠中(仲). 皇母惠妣(尊)殷(簋). 用追享(享)孝).”

「余刺之疋子虞鼎」 “오호 슬프구나 자숙과 자부인이여. 만세토록 사용할지어다(烏(鳴)呼哀哉. 刺弔(叔)刺夫人. 萬世用之).”

「仲剝父簋」 “돌아가신 아버지 遲伯과 돌아가신 어머니 遲姬에게 제사드릴 예기를 만든다(中(仲)慆(剝)父乍(作)朕皇考遲伯(伯)王母遲姬(姬)尊(尊)殷(簋)).”

「頌鼎」 “이로써 돌아가신 아버지 공숙(棼叔)과 어머니 공사(棼姒)의 제사에 사용할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用乍(作)朕皇考棼弔(叔)皇母棼姒(姒)寶(尊)鼎).”

「伯多父鬲」은 부부가 다(多)를 시호로 하고 있으며, 「寰盤」에는 작기자의 부모에게 전(奠)을 시호로 사용하였고, 「六年召伯虎簋」은 부부가 幽를 시호로 같이 사용하였다. 「師趁鼎」과 「師趁鬲」 두 기물은 아버지 성공(聖公)과 어머니 성희(聖姬)께 제사드릴 예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음(趁)의 어머니는 남편의 시호 성(姓)을 따랐다. ㄱ는 족휘로 본다.

「頤鍾」은 춘추 중기 혹은 말기의 기물이며 할아버지 성숙(聖叔)의 배우자인 성강(聖姜)과 할아버지 성혜숙(成惠叔)의 배우자 성혜강(成惠姜)은 각각 성(聖)과 성(成)으로 남편의 시호를 사용하고 있다.

「膳夫梁其簋」의 혜중(惠仲)과 혜익(惠映)은 부부로 각각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余刺之櫛子虞鼎」의 날숙(刺叔)과 날부인(刺夫人)도 부부로 시호가 같다.

「仲剝父簋」는 서주 중기의 기물로 지희(遲姬)는 희성(姬姓)이며 지(遲)는 남편의 시호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頌鼎」, 「頌簋」, 「頌簋蓋」, 「頌壺」, 「頌簋蓋」 등에도 기물을 만든 송(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호는 공(棼)이며 남편의 시호를 따르고 있는 경우이다,

남편과 다른 시호를 사용하는 금문의 예는 「師詢簋」 “이로써 위대한 할아버지 을백(乙伯)과 동익희(同益姬)와 같이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었다.(用乍(作)朕刺(烈)且(祖)乙白(伯)同益姬寶(簋).)”가 있다.

남편과 시호가 같거나 다른 경우에 대해 李學勤은 적치인 경우는 남

편과 같은 시호를 사용하고 서처는 다른 시호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⁷⁾, 금문에는 여성이 사후에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되었을 때 남편의 시호를 사용한 경우가 더 많으며 이때는 부모가 아닌 자식이 만드는 것으로 여성이 혼인 후에 남성 쪽에 소속됨과 동시에 자식들에게는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써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

3.2 여성의 제사 대상 칭위

제사 대상의 칭위에 있어서도 주대 여성 칭위는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 여성이 제사를 받는 대상인 경우의 칭위는 妣+ 일간, 母+ 일간 등으로 나타나는 반면 주대는 考母, 文母, 皇母, 姑, 皇妣, 文妣+ 일간, 妣+ 일간, 母+ 일간 형으로 나타난다. 考母, 文母, 皇母 등은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써의 어머니로 금문에는 기물을 만드는 사람 자신의 어머니인 경우, 또는 혼인 배우자에게 만들어 주어 시어머니인 경우, 딸이나 여동생에게 만들어 준 것으로 남편 쪽의 어머니 즉 기물주의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고(姑)는 공(公)과 함께 쓰여 부부를 의미하는데 고(姑)는 시어머니로 비(妣)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의미로 쓰였다.

「陳逆簠」 “대종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제사를 드려 효를 행하라(台(以)烹(享)台(以)孝於大宗_{主(皇)稷(祖)主(皇)妣(妣)主(皇)考(考)主(皇)母})).”

「宰獸簠」 “나의 열조 유(幽)와 중익강(仲益姜)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用作(作)朕刺(烈)且(祖)幽中(仲)益姜寶_{區(簠)})).”

「頌壺」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 공숙(葬叔)과 어머니 공백사(葬故姒)에게 제사 드릴 예기를 만든다(用作(作)朕皇考葬弔(叔)皇母葬_{故(姒)寶(尊)鼎})).”

「叔夷鐘」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用烹(享)於其皇妣(祖)皇姁(妣)皇母皇考).”⁸⁾

「叔叔_叔姬_姬簠」 “할숙과 할희가 큰 딸을 위한 잉기를 만드니 그 시부

7)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歷史考察》(成都: 成都出版社, 1992), 108쪽.

8) 「叔夷鐘」은 춘추 말기 齊靈公 때의 기물인데 23개가 한 벌인 중이다. 그 중 3건에 조부모와 부모의 합제에 대한 기록이 있다.

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𠩺𠩺(叔)𠩺𠩺(作)白(伯)媿𠩺(媿)𠩺𠩺(媿). 用𠩺(享)孝於其姑公).
「犀鬲」 “서(犀)가 姜價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 시부모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여라(犀𠩺(作)姜𠩺(媿). 用𠩺(享)考(孝)於故(姑)公).”

황모(皇母)에게 고(考)자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칭으로 쓰이고 있으며, 「𠩺叔 𠩺媿」와 「犀鬲」의 고공(姑公)은 기물 주인의 남편 쪽 부모 즉 시부모 뜻한다.

4. 신분 칭위

신분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일컫는 말로 금문에는 여성 신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칭위가 있는데 친족의 칭위와 사회적 신분칭위로 나눌 수 있어 여성의 역할에도 계층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여성의 친족 칭위

(1) 女·母

금문 자형은 𠩺 𠩺 𠩺 𠩺로 초기 금문에는 두 손을 머리 앞에 교차하고 꿇어앉은 모습이나 후기로 갈수록 꿇어앉은 모습은 없어진다.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女자가 나오는 기물은 468件이다. 그 중 은대 42건, 은대 혹은 서주 초기 3건, 서주시기 336건, 춘추시기 65건, 전국시기 17건이다. 이 가운데 여(女)자가 여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은대의 기물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고, 대부분 너[汝]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주대의 금문에 여(女)자가 너[汝]의 의미로 쓰인 경우는 330점이며 서주와 춘추시기에 주로 나타난다.

이외 「者𠩺鐘」에는 “너가 편안하기를 …… 女(汝)女(安) ……”으로 편안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모(母)의 금문 자형은 𠩺 𠩺로 여(女)자의 𠩺에 두 점을 찍어 여성의 유방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되어 젖을 먹인다는 뜻이 있으며 넓은 의미

로 여성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여(女)가 모(母)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다.

「**母**鼎」 “기(**母**)가 어머니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母**女(母) **母**(尊)彝).”
 「**亞** **母** 辛 簋」 “**亞**{**母**}**母**가 어머니 신을 위한 예기를 만든다(**亞**{**母**}**母** 辛 簋(寶)彝).”

(2) 妣

《爾雅·釋親》에 “살아계실 때는 부모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고비(考妣)라고 한다(生曰父母, 死曰考妣).”라고 하였으며, 《禮記·曲禮下》에는 “왕의 어머니를 황조비(皇祖妣)라고 한다(王母曰皇祖妣).”하여 모두 어머니를 뜻한다.

비(妣)자 금문 자형은 𠂔 𠂔로 여(女)와 비(匕)로 구성된다.

금문에는 할머니 또는 어머니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二** 祀 **其** 乙」 “마침 음(彤)제사를 거행하던 날이었다. 제례 중에 대을(大乙)의 배우자인 할머니 병(丙)께도 제사를 드렸다(遘 **其** 於 **妣** 丙 多(彤)日大乙爽).”

「**武** 乙 爽 簋」 “무을의 아내 무(戊)의 제사를 드리다(遘 **其** 於 **妣** 戊 武乙爽(儼)).”

「**我** 方 鼎」 “어(禦)는 할아버지 을(乙), 할머니 을(乙), 할아버지 기(己), 할머니 계(癸)께 제사 드리고, 이어서 두 분 할머니께 제사 드렸다(我 乍(作) **御** 禦 且 乙, 匕(妣)乙, 且 己, 匕(妣)癸 **延** 祔 祭(貳)二女).”

「**我** 方 鼎」 “이에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어 밤낮으로 여진 덕이 있는 할아버지 을공(乙公)과 할머니 일무(日戊)께 제사 드려라(其 用 夙 夜 享(享)孝於 畢 文 且 祖)乙公於 文 妣(妣)日戊).”

「**武** 乙 爽 簋」에 비무(妣戊)는 작기자 **武**의 어머니이고, 「**二** 祀 **其** 乙」, 「**我** 方 鼎」, 「**我** 方 鼎」에는 비(妣)가 할머니를 뜻하고 있어 금문에 비(妣)는 할머니 어머니를 뜻하는데 모두 제사를 받는 대상이며 일간을 사용하고 있다.

(3) 姑

친족 칭위 중 고(姑)는 《爾雅·釋親》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의 어머니를 고(姑)라고 한다(婦稱夫之母曰姑).”라고 하였고, 또 “아버지의 자매는 고모[姑]가 된다(父之姊妹爲姑).”라고 하였다. 《禮記·坊記》에는 “혼례는 사위가 친히 맞이하고 구고(舅姑)를 뵈는(昏禮, 壻親迎, 見於舅姑).”라고 하였다. 鄭玄은 “구고(舅姑)는 처의 부모이다. 처의 아버지는 외구(外舅)이고, 처의 어머니는 외고(外姑)이다(舅姑, 妻之父母也. 妻之父爲外舅, 妻之母爲外姑).”라 하였고, 또 《禮記·坊記》에 “구고(舅姑)는 여자의 부모이다. 부인은 남편의 부모를 구고(舅姑)라 하고, 남자는 처의 부모를 역시 구고(舅姑)라고 한다(舅姑, 女之父母. 婦人謂夫之父母曰舅姑. 男子謂妻之父母亦曰舅姑).”라고 하였다.

이로 보면 고(姑)는 부부가 서로의 어머니를 칭하는 말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모라는 뜻이 있다.

《左傳》에 의하면 “질녀[姪]가 고모[姑]를 따라가서 남편이라고 한다(姪其從姑, 謂丈夫也).”고 했으며, 또 《左傳·襄公》 23년 조에 “처의 자리를 그 질녀가 이어 받는다(繼室以其姪).”라고 하여 적처로 가는 여성이 자신의 질녀를 잉으로 데리고 시집가서 유사시에는 질녀에게 자신의 자리를 잇게 하였는데 여기서 태어나는 자식들의 친족칭위는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제도는 고(姑)가 고모, 시어머니, 장모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강성(姜姓)의 여성(姜1)과 회성의 남성(姬1)이 혼인하면 그 자식 중 딸은 회성(姬2)이 되고 다시 강성(姜2)의 남성과 혼인하게 되면 姜2의 남성은 姜1의 여성이 장모이면서 자신의 고모일 수 있고, 이와 반대의 경우엔 姬2의 여성에게 회성(姬姓)인 姜2의 어머니는 고모이면서 시어머니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종사촌과 외사촌간의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고(姑)와 구(舅)는 함께 쓰이며 구(舅)는 시아버지이자 장인이자 외삼촌으로 불리게 되며 고(姑)는 장모이자 고모이며, 시어머니이자 고모가 될 수 있는 근친혼적인 혼인제도와 관계가 있다.

금문에는 ‘고(姑)’와 ‘질(姪)’의 친족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

으며 문헌에도 모계에 의한 형제자매의 호칭은 어느 여성의 ‘同母弟’ 등으로 어머니 쪽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고(姑)’라는 호칭이 부부 양쪽의 어머니를 뜻하고 또 고모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주대에도 내혼제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이해해야만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해 어머니인지 아내인지 딸인지 해석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금문에 고(姑)가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庚嬴卣」 “文姑의 제사에 쓸 진귀한 예기를 만든다(用乍(作)卣文姑寶卣(尊)彝).”

「伯庶父簋」 “백서보가 왕고 범강을 위해 보배로운 예기 궤를 만든다(白(伯)庶父乍(作)王姑凡姜卣(尊)彝(簋)).”

「伯庶父簋」의 왕고(王姑)는 주 왕실과 혼인관계에 있는 강성(姜姓)의 여성으로 왕의 장모나 어머니 또는 고모라고 볼 수 있는데 고모로 보려면 여기서 왕은 주나라 왕이므로 주대의 여성칭위에 있어 모계의 성(姓)을 따르지 않고 부계의 성(姓)을 따르므로 회성(姬姓)이어야 하는데 강성(姜姓)이다. 그러므로 ‘王姑凡姜’은 고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범강(凡姜)은 왕의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姬作卣姑日辛鼎」 “희가 어머니 일신을 위한 보배로운 예기를 만들었다(姬(姬)乍(作)卣姑日辛鼎(尊)彝).”

「晉姜鼎」 “진나라 강성의 여성이 말하길, 너는 나의 선고군의 진나라 땅을 관리하라(晉姜曰, 余佳(唯)司(嗣)朕先姑君晉邦).”

「復公子簋」 “등(鄧)나라로 시집가는 나의 고모 맹피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乍(作)我姑鄧(鄧)孟媿卣(媿)彝(簋)).”

(4) 姪·姪

질(姪)에 대해 《說文》에는 “형의 딸이다(兄之女也).”고 하였으며, 《釋名·釋親屬》에는 “고(姑)는 형제의 딸을 질녀[侄]라고 한다(姑謂兄弟之女爲侄).”라고 하여 질(侄)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며, 《國語·周語》에 “나의 어머니 태강의 질녀이다(則我皇妣大姜之姪).”라고 하였는데

注에는 “여자가 형제의 자식을 말하며 남녀 모두 姪이라고 한다(女子謂昆弟之子, 男女皆曰姪).”라고 하였으며, 《爾雅·釋親》에는 “여자가 형제의 딸을 질녀[姪]라고 한다(女子謂兄弟之子爲姪).”라고 하여 질(侄)과 질(姪) 모두 질녀를 의미하고 있으며 질(侄)은 처음에는 여자에게 쓰이던 말이었으므로 여(女)를 의미부로 썼다. 후에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남녀를 통칭하게 되었으며 자형상 의미부에 인(亻)을 사용하여 남녀를 구별하게 되었으며 질(侄)과 질(姪)은 모두 지(至)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은 고모를 따라 남편의 집으로 간다고 풀이할 수 있다. 《釋名·釋親屬》에는 또 “질(侄)은 갈마드는 것이다. 함께 가서 남편의 아내가 되고 다시 번갈아 들어 가는 것이다(侄, 迭也. 共行事夫, 更迭進御也).”라고 한 것이 증명이 된다.

문헌 자료에 의하면 주대 혼인제도에 질녀와 고모가 함께 한 남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금문에 질(侄)은 「乖伯歸逢簋」의 “귀괴백(歸乖伯)에게 비후의 가족으로 만든 옷을 보내게 하셨다(王命中(仲)侄(致)歸乖白(伯)𠄎(貔)裘).”에서 보내다는 뜻으로 쓰이고, 「同簋」에는 “북쪽으로 현수(玄水)까지이다(畢逆(朔)侄(至)於玄水).”라고 하여 이르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嬭자는 또한 질(姪)로 볼 수 있다.

「齊縈姬盤」 “제나라 영희의 질녀가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齊(齊)縈(姬)之嬭乍(作)寶(寶)𠄎(盤)).”

「齊嬭姬簋」 “제나라로 시집가는 희성의 질녀가 보배로운 예기를 만든다(齊(齊)嬭(嬭)姬(姬)乍(作)寶(寶)𠄎(簋)).”

「齊縈姬盤」은 제나라 영희(縈姬)의 질녀(嬭)가 고모와 함께 제나라로 시집왔다는 말로 여기서 嬭은 잉(媵)이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 혼인에 의한 신분 칭위

주대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는 처(妻), 잉(媵), 왕의 아내에 대한 칭위, 제후와 사(士)의 아내에 대한 칭위 등으로 여성의 신분 칭위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 妻

妻의 금문 자형은 妻로 끓어앉은 여자의 뒤쪽에서 머리를 손질해 주는 모습으로 《禮記·曲禮》에 의하면 “여자는 15세에 계례를 하고 20세에 출가한다(女子十有五年而笄, 二十而嫁).”고 하여 혼인하기 전에 계례를 하고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며 계례는 여자의 머리를 손질하여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인데 글자에 이러한 의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혼인한 여성을 칭하는 말이다.

《禮記·曲禮下》에 의하면 “천자의 아내는 후(后)라 하고, 제후의 아내는 부인(夫人)이라 하고, 서인의 아내는 처(妻)라고 한다(天子之妃曰后,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 庶人曰妻).”라고 하여 서인의 아내를 칭하는 말로 남편의 지위에 따라 여성의 칭위도 다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지위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금문에도 처(妻)가 나타나지만 혼인하는 여성에 대해 성과 국명, 미칭, 자, 시호, 신분 칭위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처(妻)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금문에 처(妻)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子_妻君妻鼎」 “子_妻君의 아내를 위한 예기(子_妻君妻).”

「徐太子鼎」 “徐의 태자 白□□가 좋은 아내를 위해 예기를 만든다(余(徐)大(太)子白□□爲_妻(其)好妻□□).”

「夫_妻申鼎」 “정월 초길 정해일에 보처자심륙(甫處者甚六)의 처 부_妻申(夫_妻申)이 청동을 택해서 예기를 만든다(唯正月初吉乙亥. 甫處者甚六之妻夫_妻申. 𠄎(擇)畢吉金. 乍(作)鑄(鑄)鼎).”

「農_妻」 “王_令白(伯)场曰. 母(母)卑_妻(農)弋. 事(使)畢_妻(友)妻_妻(農).”

「父_妻丁鼎」 “父_妻가 아버지 정의 처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父_妻乍(作)父_妻鯁(盟)).”

(2) 媵

서주와 춘추시기의 청동기 중에 잉(媵)자가 새겨져 있는 기물이 다량

출현하는데 잉(媵)자가 있는 기물은 서주 중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서주 말기와 춘추시기의 청동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잉(媵)은 《釋名》에는 “질녀와 여동생을 잉(媵)이라 한다. 잉은 잇는 것을 말하는데 적처의 자리를 잇는 것을 뜻한다(姪弟曰媵, 媵承也, 承事嫡也).”라고 했으며, 《爾雅》에는 媵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送也).”고 하였다.

글자의 형태로 보아 曹兆蘭은 𡵓은 잉(媵)자로 변했는데, 그 관건은 인(亻)자가 여(女)자로 변해 후에는 잉(媵)자로 통용되었으며 인(亻)자가 있는 경우는 노복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⁹⁾

본인이 잉기를 살펴본 결과 인(亻)자를 형부로 하고 있는 잉(媵)자의 이체자는 「季宮父簠」 “계궁보가 중 烜두회를 위해 잉기를 만든다(季宮父乍(作)中(仲)嬖兜(姬)𡵓(媵)尅(簠)).”의 𡵓과 「季良父簠1」 “계량보가 종운을 위한 잉기를 만든다(季良父乍(作)宗結(妣)𡵓(媵)丘(簠)).”의 𡵓, 「季良父簠2」의 “계량보가 종운을 위한 잉기를 만든다(季良父乍宗結(妣)𡵓(媵)丘(簠)).”의 𡵓 등 3건이 있는데 문장을 풀이하면 노복이라고 볼 수 없고, 「季宮父簠」의 𡵓과 「季良父簠」의 𡵓은 모두 잉기의 뜻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으며, 「季良父簠2」의 𡵓 자는 𡵓자에 亻의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헌에는 《左傳·僖公》 5년 조에 “우(虞)나라 임금과 대부 형백(井伯)을 체포하여 진(秦)나라로 시집가는 진(晉)나라의 딸 목희(穆姬)의 노복으로 팔려 보냈다(執虞公及其大夫井伯以媵秦穆姬).”라고 하여 잉(媵)이 노복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금문에는 노복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고, 잉기 또는 잉(媵)으로 가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左傳·襄公》 19년 조에 “제(齊)나라 임금이 노나라에 장가들어 그 부인을 안의희(顔懿姬)라 했는데 아들이 없어 그의 질녀 종성희(鬲聲姬)가 광(光)을 낳아 태자로 삼았다(齊侯娶於魯, 曰顔懿姬, 無子, 其姪鬲聲

9) 前掲書, 154~155쪽. “營與割二字很可能指兼男女, 特別是指男性. 從‘亻’或指施事者, 或指受事者(媵者). 貴族嫁女必陪送男女奴僕, 也是題中應有之義, 但這種陪送男女奴僕的情況金文尚未明見.”

姬生光, 以爲太子).”고 하여 잉(媵)의 역할을 알 수 있는데, 잉혼은 종으로 대를 잇는 종법제도 하에 적장자를 보장해 주는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左傳·成公》 8년 조에도 “딸을 시집보낼 때 동성의 잉(媵)을 보내는 데 작위 또한 잉(媵)이다(嫁女, 同姓媵. 爵亦曰媵).”라고 하여 첩과는 다른 신분이었으며 혼인 전에는 적처와 같은 신분이었지만 혼인한 후에 잉(媵)의 지위는 적처 다음이다. 더 나아가 잉(媵)은 적처가 이혼하면 자신도 같이 물러나야 했는데 《左傳·文公》 12년 조에는 “기(杞)나라 환공이 조회 들었는데 처음 문공을 조회한 것이다. 또한 숙희와 이혼하는데 잉(媵)에 대해서는 단절하지 않을 것을 청하여 문공은 허락하였다(杞桓公來朝 始朝公也. 且請絕叔姬而無絕昏, 公許之).”고 하여 ‘絕叔姬’는 그 혼인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고, 杜預의 주에 의하면 “그 여동생을 부인으로 삼았다(立其娣以爲夫人).”라고 하여 成公 5년 조의 숙희(叔姬)는 ‘絕叔姬’의 여동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또한 적처에게 자식이 없어 잉(媵)의 자식이 부계를 이르면 지위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적처의 지위에 오를 수도 있게 되어 이후에 여성이 자식의 뒤에서 정치에 참여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天君·王+출신국의 姓

금문에는 왕의 아내에 대한 칭위로 천군(天君)과 왕(王)+출신국의 성(姓)의 형으로 쓰고 있다.

「征人鼎」 “천군께서 정인에게 斤(斤)지역의 조개화패를 하사하셨다(天君來(賞)征人斤貝).”

「公姑鬲」 “천군의 은혜를 칭송하고 예기를 만들었다(對_{天君}揚)天君休. 用乍(作)鬲).”

「_趙孟」 “천군께서 _趙에게 _皇를 섬기도록 하였다(天君事(使)_趙(_趙)事_皇).”

「尹姑鬲」 “목공이 윤길을 위해 요림에 종실을 지었다. 때는 6월 기생

10) 前揭書, 585쪽.

패 을묘일이다. 휴왕의 천군께서는 목공 성의 선왕을 밝게 보필한 것을 잊지 않았다(穆公乍(作)尹故(姑)宗室於繇林. 佳(唯)六月既生霸乙卯. 休天君弗望(忘)穆公聖明(明)張(弼)專(輔)先王).”
 「王姜鼎」 “왕의 아내 강성의 여성이 공사(弊嬖)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王姜乍(作)弊故(嬖)寶尊(尊)彝).”
 「王伯姜壺」 “왕의 아내 백강(伯姜)이 예기를 만든다(王伯(伯)姜乍(作)寶尊(尊)壺).”

주대의 문헌과 금문에는 주왕실의 딸과 주왕실로 시집간 여성에게는 王을 붙이고 있다.

(5) 小君·内君·夫人·君夫人

《左傳·定公》 14년 조에 “나를 따라 소군을 뵈고, 소군이 나를 보았다(從我而朝少君, 少君見我)”라고 했는데 여기서 少君은 위나라의 남자(南子)이며 제후의 부인을 뜻한다.

《左傳·文公》 5년 조에 “나의 부인 성풍(成風)의 장례를 치루었다(葬我小君成風).”라고 했는데 성풍은 원래 노장공(魯莊公)의 서처였는데 희공(僖公)을 낳아 부인의 반열에 들었으며 제후와 같은 예로 장례를 치루어 소군(小君)은 제후의 부인을 칭하는 말이다.

《左傳·隱公》 2년 조에 “부인 우씨가 죽었다(夫人於氏薨).”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부인은 혜공(惠公)의 적처를 가리키는 말로 제후의 적처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적처 이외의 여성에게는 卒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에 대해 薨(薨)이라고 한 것도 제후와 같은 지위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다.

「鄧公簋蓋」 “둔부인 사가 등공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屯夫人亼(嬖)乍(作)併(鄧)公).”
 「衛文君夫人叔姜鬲」 “위나라 문공의 군부인 강숙이 이동용 예기를 만든다. 鬲을 따라 순행할 때 사용하여라(衛文君夫人弔(叔)姜乍(作)其行鬲. 用從稊正(征)).”
 「宋公簋簠」 “송나라 임금 簋가 그 누이 구어부인이 되는 계자를 위해 영기를 만든다(宋公簋乍(作)其妹句致(致)夫人季子滕匡(簠)).”
 「子叔羸内君盆」 “자숙영 내군이 보배로운 기물을 만들었다(子弔(叔)

嬴內君乍(作)寶器.”

「子叔嬴內君盆」의 ‘內君’도 제후의 부인을 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論語·季氏》에는

“군주가 국군의 아내를 부를 때에는 부인이라 하고, 부인이 스스로 일
컬을 때에는 소동이라 하며, 그 나라 사람이 부인을 부를 때는 군부인
이라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부인을 말할 때에는 과소군이라 하
며 다른 나라사람들이 부인을 일컬음에 군부인이라 한다(邦君之妻,
君稱之曰夫人, 夫人自稱曰小童, 邦人稱之曰君夫人, 稱諸異邦曰寡小君,
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라고 하여 군주가 자신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칭하는 것과 나라 사람들
이 군부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군주 부인의 지위도 군주와 동등하게 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婦

《說文》에는 “부(婦)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女)를 의미부로 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물을 뿌리며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婦, 服也. 从女, 持
帚, 洒埽也).”라고 하였으며, 부(婦)의 금문 자형은  등으로 빗자
루를 들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曲禮》에는 “사의 아내를 부인(婦人)이라고 한다(士之妃曰婦人).”라
고 하여 士의 아내에 대한 칭위이고, 《爾雅·釋親》에는 “아들의 아내를
부를 때 쓰는 말이다(子之妻爲婦).”라고 하여 며느리라는 뜻이 있어 혼
인한 여성에 대한 칭위로 쓰이며 혼인한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글자
이다. 《金文語料庫》에 의하면 부(婦)자가 있는 기물이 210건인데 그
중에 은대의 기물이 152건, 춘추시기 2건, 나머지는 서주의 기물로 부
(婦)는 은대와 서주시기에 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君盃」 “군의 부인 귀가 예기를 만드니 孫이 사용하기 바란다
(君婦媿嬪(作)其孫用).”
「義伯簋」 “의백이 궁부인 육길을 위해 예기를 만든다(義白(伯)乍(作)

妻(宮)敵(婦)陸敵(姑)).”

「復公仲簋蓋」“子孟~~婦~~ 부인을 위해 잉기를 만든다(用乍(作)子孟~~婦~~(婦)□~~子~~(尊)卅(腰)殷(簋)).”

4.3 여성의 사회 신분칭위

금문에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은 다양한데 그 중 첩(妾)과 모(姆)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첩(妾)에 대해서는 처(妻)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금문에는 노비의 신분으로 적처와 상대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주대 이후로 볼 수 있다.

(1) 妾

妾의 금문 자형은   이며, 《金文常用字典》에는 “於省吾는 사람의 머리 위에  등을 더한 모습으로 자가 되었는데 머리를 장식하거나 관 위의 뿔 종류의 모양이다. 동(童)과 첩(妾)은 모두  또는 가 있어 죄가 있는 표지 가 아닌가 한다.”¹⁴⁾고 하여 여자 노예를 뜻한다고 하였다. 하영삼교수는 “신(辛)과 여(女)가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로 첩(辛)은 원래 목형을 가하던 칼을 형상화하여 힘들다 또는 고통스럽다는 뜻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래서辛이 들어가는 글자는 대부분 목형과 관련이 있으며 첩은 목형을 당한 천한 여인 또는 노예를 나타내는 말이었다.”¹⁵⁾고 하였다.

《左傳·僖公》 17년 조에 “장차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을 겁니다. 아들은 신하가 될 것이고 딸은 시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은 어(圉)라 짓고 딸은 첩(妾)이라 불렀다(將生一男一女. 招曰然. 男爲人臣, 女爲人妾, 故名男曰圉女曰妾).”고 했는데 杜預는 “신첩의 본뜻은 노비를 뜻한다(臣妾之本義爲奴婢).”라고 하였다.

《左傳·昭公》 25년 조에 “계사와 옹인이 서로 사통하여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시녀에게 시켜 매질하게 하였다(季嬖與襄人檀通, 而懼, 乃使

14) 陳初生 編著, 《金文常用字典》(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271쪽.

15) 河永三, 《연상한자》(서울: 예담, 2004), 104쪽.

其妾扶己).”라고 하였으며 楊伯峻도 “첩은 시녀이다(妾, 婢女也).”¹⁶⁾라고 주하여 첩의 본의는 노비라고 하였다.

또한 《釋名》에는 “첩은 사통하는 것으로 천하게 사통하여 즐기는 것을 말한다(妾, 接也, 以賤接幸也).”고 하였으며, 《禮記·內訓》에는 “혼인에 예를 갖추면 처이고 예를 갖추지 않으면 첩이다(聘則爲妻, 奔則爲妾).”라고 하여 예를 갖추지 않고 취한 여성을 말하는 것으로 춘추 말기에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측실을 첩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公羊傳·僖公8年》 “부인을 강씨라 칭하지 않은 것은 폄하하여 첩을 처로 삼은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다(夫人何以不稱姜氏貶. 曷爲貶, 譏以妾爲妻也).”

《穀梁傳·僖公8年》 “부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씨성으로 말하고, 씨성으로 말하지 않으면 부인이 아니다. 첩으로 세웠다는 말이며 옳은 것이 아니다(言夫人必以其氏姓, 言夫人而不以氏姓非夫人也. 立妾之辭也. 非正也).”

《穀梁傳·僖公9年》 “첩을 처로 삼지 말고 부인에게 나라 일을 하게 하지 말라(毋以妾爲妻, 毋使婦人與國事).”

등에서 춘추 후기에는 이미 첩이 처가 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점점 妻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해갔다고 볼 수 있다.

《禮記·曲禮上》에는 “아내를 맞이할 때는 동성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첩을 살 때 그 성을 모르면 첩을 쳤다(娶妻不娶同姓, 故買妾不知其姓則卜之).”라고 하였으며, 呂思勉은 잉과 첩의 차이에 대해, “남자의 권한이 무한했으므로 가정의 여성은 모두 통간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 처로부터 온 여인은 잉이 되었으며 집에 원래 있던 여자는 첩이라고 하였다. 고대에는 잉과 첩을 병칭했는데 후세에는 시집갈 때 여성을 함께 보내는 제도가 없어지고 잉이라는 명칭도 없어지고 모두 첩이라고 부르게 되었다.”¹⁷⁾고 하여 잉과 첩을 병칭하고 있는데 금문에 나타나는 첩은 잉과는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문에 첩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8건이다.

16) 前掲書, 1460쪽.

17) 呂思勉, 《先秦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255쪽.

「伊簋」“강궁의 왕의 신첩과 백공을 관리하라(𡵓(兼)官(司)康宮王臣妾百工).”

「宰獸簋」“강궁의 왕가 신첩과 노복을 관리하라(𡵓(兼)官(司)康宮王家臣妾(庸)).”

「師卣簋」“나의 동편 서편 노복과 백공목과 신첩을 관리하라(𡵓(司)我西扁(偏)東扁(偏)僕(駟)百工牧臣妾).”

「逆鐘」“집안의 노복, 신, 첩, 소자 등과 집안을 관리하여라(用(司)於公室僕庸臣妾(小子)室家).”

「大克鼎」“너에게 정가(井家)의 田於說과 신과 첩을 상으로 준다(易(賜)女(汝)井家田於說. 兵(以)卒臣妾).”

「趙君壺」“趙君은 첩을 계도하라. 언나라 임금에게 복문(復門)을 상으로 준다(趙君(啓)妾. 匱(燕)僕(侯)商(賞)復門).”

「復父乙尊」“의복, 노복, 첩, 조개화패를 상으로 준다. 이로 아버지를 위한 예기를 만든다(衣臣妾貝. 用乍(作)父乙寶(尊)彝. 美).”

「叔德簋」“왕이 숙덕에게 노비 10명과 조개화패 10봉, 양 100마리를 상으로 내리다(王易(賜)帛(叔)德)臣(數十人貝十朋羊百).”

위의 금문에 나타나는 첩은 모두 노복을 지칭하고 있다.

「叔德簋」의 敎는 복사에는 보이지 않으나 문헌에는 예가 보인다. 《左傳·昭公》 7년 조의 “僕臣儻”의 儻는 금문 중의 敎와 닮았으며 하인을 뜻한다. 그러나 금문에는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여(女)자를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陳夢家是 《西周銅器斷代》에서 대(儻)는 신하의 일종으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하사할 때 줄 수 있는 사람이다.”¹⁸⁾고 하였다. 명문 내용을 보면 상의 물목을 적은 순서가 먼저 조개화패와 양을 내리고 다음에 남자노복 신(臣)을 내리고 다음에 여성 노비의 순으로 하여 그 위치가 물건 다음에 있어 그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과 금문의 기록을 통해 보면 첩은 사회적인 신분은 원래 낮은 하층 노예로 잉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8) 陳夢家, 《西周銅器斷代》(北京: 中華書局, 2004) 제2권, 108쪽.

(2) 姆

《禮記·內則》에는 여자가 혼인하기 전에 익혀야 할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¹⁹⁾, 모(姆)는 출가하기 전의 여성을 교육 시키는 사람으로 일상 생활에 관한 것, 제사와 손님접대 등 전반적인 교육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귀족 집안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모(姆)라고 할 수 있다. 모(姆)는 《說文》에는 “모(姆)는 여스승을 뜻한다. 여(女)는 의미부이고 모(母)는 소리부이며 모(母)라고도 읽는다(姆, 女師也. 從女母聲, 讀若母).”고 하였다.

주대 금문에는 모(姆)가 나타나지 않고, 전국시기의 기물 「中山王_寶鼎」에 “佳(唯)備(傅)梔(姆)氏(是)從.”라고 하여 부(傅)와 모(姆)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금문 자형은 로 의미부에 인(亻)이 쓰이고 있다.

《左傳·襄公》 30년 조에 “송나라 공공의 부인 송공희가 화재로 죽었는데, 유모를 기다린 때문이다(宋伯姬卒, 待姆也).”라고 했는데, 杜預는 모(姆)를 여스승이라 풀이했다.²⁰⁾ 또한 《公羊傳》 何休의 注에는 “예기에는 제후의 부인은 반드시 유모가 있는데 그 행동을 바르게 하고 몸을 보호한다. 노대부를 가려 남자 스승으로 삼고, 노대부의 처를 가려 유모로 삼는다(禮, 后夫人必有傅母. 所以輔正其行, 衛其身也. 選老夫爲傅, 選老夫妻爲母).”고 하여 모(母)는 모(姆)로 볼 수 있으며 상류층의 딸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보면 杜預가 여사(女師)라고 한 사람은 시중드는 사람, 옆에서 모시는 사람, 유모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이든 여성으로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결 론

칭위는 개인적인 특징 뿐 아니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

19) “女子十年不出, 姆教婉, 婉聽衆, 執麻枲, 治絲茧, 織紵組紃, 學女事, 以供衣服, 關於祭祀, 納酒漿笱豆, 菹醢, 禮相助奠.”

20) 前掲書, 1147쪽.

이 되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주대 금문에는 전대에 비해 더욱 다양한 여성칭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시의 칭위, 사후의 칭위, 친족 칭위, 신분 칭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혼인 시의 칭위를 알 수 있는 기물에는 여성의 자 또는 이름, 미칭, 성과 향렬 등을 기록하였고 여성에게는 남성과 달리 꼭 성을 사용했는데 이는 일부다처형이었던 혼인제도 중에 동성불혼을 공고히 하여 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후의 칭위는 시호와 제사를 받는 대상의 친족칭위와 일간 등이 나타나는데 여성 개인의 시호를 사용하는 경우와 남편의 시호를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의 시호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다. 이외 祖母, 姑, 母, 妣, 文母, 皇母 등의 친족칭위와 서주 초기에는 여기에 일간을 더해 사용하는데 이 점은 남성과 같은데 사후의 예기는 자식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의 관념에는 차별이 없다는 점과 제사를 받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같은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신분을 나타내는 칭위는 친족 칭위와 혼인으로 변하는 칭위와 사회적인 지위를 알 수 있는 칭위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혼인과 혼인전의 칭위를 알 수 있는데 혼인한 여성은 남편의 지위에 따라 신분칭위가 달라지고 혼인한 후에는 남편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남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친족 칭위 중 姑는 장모, 시어머니, 고모 등에 대한 칭위로 이는 혼인제도의 특징을 담고 있는 말로 외혼제를 표방하던 주대에도 내혼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말이다.

잉(媵)은 주대 혼인제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말이며 적처로 시집가는 여성을 따라 가 적처와 함께 한 남성의 아내가 되던 사람으로 질녀 또는 동생이 잉(媵)이 되었다. 잉(媵)의 신분은 혼인 전에는 적처와 같은 신분이었으나 혼인 후에는 적처 다음의 지위이며 종법제도를 유지해주는 제도였다고 할 수 있던 잉혼제가 제후국간의 정치적인 이해에 의한 정략적 혼인이 이루어지면서 잉(媵)은 점점 지위가 낮아지기도 하고 자식의 지위에 따라 권력을 가지는 현상도 나타나면서 여성의 활동범위는 자식이나 남편의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첩(妾)은 원래 목형을 당하던 천한 신분이었으나 춘추 후기로 가면서 적처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금문에는 妾에 대한 기록이

모두 노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모(姆)는 원래 집안의 어른이나 경험이 많은 여자 어른이 귀족 집안의 딸을 교육하고 보호하던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전국시대 금문에 나타나고 문헌에도 춘추 후기에 보이는데 이후에 유모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주대 금문에 나타나는 여성칭위를 통해 알 수 있는 여성은 대부분 귀족 신분이며 혼인 전에는 딸로서 부모의 영향아래 있으며, 혼인 후에는 혼인 배우자의 지위에 따라 왕후, 제후의 부인, 대부 또는 사 등의 아내로써 다른 지위를 지니게 되고, 사후에는 자손들에게 제사를 받는 대상이 된다. 주대에 여성칭위가 다양해지고 세분되는 것은 사회의 변화와 계층의 분화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봉건 정치제도에 의해 적장자를 중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파생된 부계 중심의 혼인제도는 여성의 지위에도 영향을 끼치고 각 칭위에는 그 지위에 따라 다른 여성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대 여성은 남성 쪽으로 시집가는 혼인제도 하에서도 독립적인 자신의 성과 이름 등을 유지했는데 이 또한 부계사회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여성은 점점 남성에게 귀속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사회 제도적인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금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 칭위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상징적인 지위는 남성과 차별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郭沫若, 《兩周金文辭大係圖錄考釋》, 北京: 科學出版社, 1957.
郭鼎堂, 《中國古代社會》, 北京: 中華書局, 1954
羅振玉 編著, 《三代吉金文存》, 北京: 中華書局, 1982
童書業, 《春秋左傳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0
呂思勉, 《先秦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白川靜 著, 溫天河, 蔡哲茂 合譯, 《金文的世界》, 臺灣: 聯經出版事業公司, 1989
謝維揚, 《周代家庭形態》,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曹兆蘭, 《金文與殷周女性文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4

- 趙 誠, 「諸婦探索」, 《古文字研究》, 北京: 中華書局, 1985
- 陳 立 撰,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 1994
- 楊樹達, 《積微居金文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2009
- 楊 寬, 《古史新探》, 北京: 中華書局, 1965
- 王国维, 《觀堂集林》, 北京: 中華書局, 1959
- 王進鋒, 「叔德簋銘‘姪’字釋讀」, 上海: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 4
- 王德明 主編, 《孔子家語譯注》, 廣西: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8
- 王 力 主編, 《古代漢語》, 北京: 中華書局, 1995
- 王念孫(清), 《廣雅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4
- 容 庚 編著,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1985
- 劉 正, 《金文廟制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 劉 源, 《商周祭祖禮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劉 熙 撰, 畢沅疏證, 王先謙 補, 《釋名疏證補》, 北京: 中華書局, 2008
- 李仲操, 「兩周金文中的婦女稱謂」, 《古文字研究》, 北京: 中華書局, 1992, 18輯
- 李學勤, 「先秦人名的幾個問題」, 《社會問題的歷史考察》, 成都: 成都出版社, 1992
- 李學勤, 「考古發現與古代姓氏制度」, 《考古》 第3期, 1987
- 李玄伯, 《中国古代社会新研》, 上海: 上海藝文出版社, 1988, 據1949年開明書店本影印
- 陳初生 編著, 《金文常用字典》,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 陳 絜, 《商周金文》, 北京: 文物出版社, 2006
- 《十三經注疏》 전8권, 臺灣: 藝文印書館, 1989
- 陳夢家,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2004
- 陈昭容, 「兩周婚姻關係中的“媵”與“媵器—青銅器銘文中的性別·身分與角色研究之二」,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2006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北京: 商務印書館, 1937
- 崔明德, 《先秦政治婚姻史》, 山東: 山東大學出版社, 2004
- 河永三, 《연상한자》, 서울: 예담, 2004
- 胡進駐, 「商周婦女稱謂及婚姻制度淺探」, 《殷都學刊》 第10期, 2002

张淑一,「金文族姓研究中的常見問題」,《古籍整理研究學刊》第4期,2008

<中文提要>

本论文主要考察了关于金文上所出现的女性称谓。周代金文中出现的女性称谓比前代多样化而细分化,这跟社会制度的变化和婚姻制度有关。

金文上出现的女性称谓,可分为婚姻称谓、死後称谓、亲族称谓、身分称谓等等。以婚姻时带走的媵器来可以看出它是关于婚姻称谓的器物。媵器上所记录的女性称谓有婚姻女性的姓、名、字、美称、辈行 等等, 也有作器者母亲时母名义。

死後女性的称谓有谥号、受祭祀对象的亲族称谓、干支 等等, 其中有独立用个人谥号的和随她丈夫谥号的。女性身分的称谓作为亲族称谓, 从而可知女性的婚姻和婚姻前的称谓, 婚姻女性的称谓随她丈夫的地位不同。亲族称谓有女、母、妣、姑、侄、姒 等等, 婚姻後的身分称谓有妻, 媵, 妇 等等。这些都属于婚姻女性的一般称谓, 随她丈夫所得到的称谓如下: 王的妻子称天君, 诸侯的妻子称小君、内君、夫人、君夫人, 士的妻子称妇。

女性的社会身分称谓有妾、姆。正妻以外统称妾, 可金文上所出现的妾都表示奴婢, 通过这可知正妻以外的女性地位都低, 周代封建制度和宗法制度重视嫡长子。从而产生男性中心的婚姻制度, 这反映随着社会制度的不同, 妇女地位也受影响。

通过周代金文中的女性称谓可知女性婚姻前身分上并没有差别, 但是婚姻後, 随这丈夫的地位和正妻或媵, 其身份和作用都产生变化, 进入春秋後期女性渐渐归属於男性。作为妻子和死後母亲的身分, 女性所享受的地位是跟男性同样的。

關鍵詞 : 女性 姓氏 婦人 媵 親族 婚姻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新撰字鏡》 註釋 體例 研究*

--한자 字形屬性情報을 중심으로

김영경**

〈 목 차 〉

1. 들어가며
2. 표제자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3. 상호 연관된 표제자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4. 주석을 통한 자형 속성 관계 규명
5. 나오며

1. 들어가며

《新撰字鏡》의 가장 큰 특징은 字書와 類書, 韻書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字樣書와 비슷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선 標題字에 여러 가지 이체자형을 일일이 나열하는 방식은 《干祿字書》를 비롯한 자양서의 모습과 흡사하다. 특히 標題字에 여러 이체자형을 나열할 때 되도록 널리 쓰이는 자형을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 正字를 배치하는 방식은 《干祿字書》와는 다르나, 당시에 통용되던 자형을 먼저 배열하고 그것의 正字를 밝히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외 인접한 標題字끼리 긴밀한 자형관계를 가질 때에는 正字를 위에 배치하고 俗字를 그 아래에 두었으며, 필요에 따라 다시 古文을 그 밑에 두었다. 따라서 필자는 《新撰字鏡》의 標題字를 배열하는 방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의(교육과학기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2-A00040)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전임연구원(ling72@hanmail.net)

식과 배열순서, 標題字 간의 상호연관성에 주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1)자양서와 필적할 만큼 여러 가지 이체자를 나열해 놓고, 그들의 이체 관계를 기술하는 체례와 (2)인접한 標題字끼리 긴밀한 자형 관계를 가져, 각자의 독립영역을 가능한 자유롭게 넘나들며 그간의 이체관계를 설명하려 한 체례를 독립시켜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방대하며, 학술적 연구가치가 가장 높은, (3)주석을 통해 標題字나 주석 중에서 언급한 모 글자의 異體字, 正字, 俗字, 古字, 今字 등과 같은 세밀한 속성까지 기술하는 체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標題字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新撰字鏡》을 처음 펼치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여러 가지 이체자형을 일렬로 배열해 놓은 것이다. 이런 방식은 한 標題字 아래 주석이 달리고 그 주석 안에서 여러 가지 자형 정보와 다른 글자와의 상호관계를 전달하는 다른 자서와는 사뭇 다른 형태이다. 《新撰字鏡》의 이러한 특징은 한자의 이체자 자료를 상당히 많이 품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아주 크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이체자를 標題字로 삼아 그 이체관계를 설명하는 체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形/形作

이러한 체례는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標題字로 나열한 다음,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나열한 이체자 만큼의 이체자형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상황에 따라 標題字의 수를 표시하고 그 뒤에 ‘形’이나 ‘形作’을 붙인다.

2.1.1 標題字+글자수+形

茈菀, 二形. 七矢反. 上. 生山, 其味甚苦, 人能食尔, 古多. 又云加乃尔介. 《新撰字鏡 卷7 艸部》

‘芪’자는 ‘芪’의 俗字體이다. 《新撰字鏡》은 ‘芪’와 ‘芪’를 자형이 다르지만 동일한 글자로 보고 있다. ‘芪’는 《唐韻》, 《正韻》에 따르면 巨와 支, 渠와 宜의 반절로 其로 발음되며, 황기 즉 약초이름(《唐韻》巨支切 《正韻》渠宜切, 并音其. 黃芪, 藥名)¹⁾ 한편 《佩觿·卷下42》의 풀이에 따르면 ‘茂芪芪芪’의 맨 윗 글자는 莫과 候의 반절이며, 풀이 무성함을 이른다. 두 번째 글자는 徒와 再의 반절로 풀의 모습을 가리킨다. 세 번째 글자는 扶와 父의 반절로 풀의 모습을 가리킨다. 네 번째 글자는 防과 曰의 반절로 桴楫을 이른다.(茂芪芪芪上莫候翻艸盛, 二徒再翻艸兒, 三扶父翻艸兒, 四防曰翻, 桴楫)²⁾고 하였다. 즉 ‘芪’는 ‘茂’자의 이체자이지 ‘芪’와는 전혀 상관없는 글자다. 그렇다면 왜 《新撰字鏡》에서는 이 두 글자를 이체자로 보았을까? 앞서 《佩觿》의 해설에서도 말했듯 ‘芪’는 ‘茂’와 ‘芪’의 이체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訛變字라고 할 수 있다. 《新撰字鏡》의 ‘芪’자에서 ‘氏’의 ‘ノ’과 ‘レ’이 ‘イ’변으로 변하고 나머지 획은 ‘代’자의 ‘弋’이 된 것이다. 이처럼 部件의 재조합을 통한 訛變은 俗字 생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新撰字鏡》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생성된 ‘芪’자가 원래의 쓰임이 아닌 ‘芪’의 이체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용자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2.1.2 標題字+글자수+形作

洩洩洩, 三形作. 正所牛反. 平. 洩洩, 淅米聲. 借所丸反. 漬汰也. 小便也. 麵也. 《新撰字鏡 卷6 水部》

《新撰字鏡》은 ‘洩’·‘洩’·‘洩’를 이체관계로 보고 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글자를 구성하는 ‘𣎵’·‘𣎵’·‘𣎵’의 자형 관계를 분석해

1)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211쪽.

2)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48.htm>에서 재인용.

야 한다. 먼저 ‘窆’자는 《說文》에서는 ‘늪은이다. 又와 災로 구성되었다(老也. 从又从災)’고 하였다. ‘窆’의 갑골문 자형을 보면 𠂔(前4.29.1)로 손에 불을 들고 구덩이 안을 비추는 모습이다. 《康熙字典》에도 ‘窆’자를 고문 ‘叟’자라고 하였다³⁾.

‘叟’자는 《集韻》·《韻會》·《正韻》에 따르면 ‘疎와 鳩의 반절로 搜음(《集韻》《韻會》《正韻》疎鳩切, 音搜)’이며, 叟叟로 쓰여 쌀 씻는 소리를 형용한다. 《集韻》에 따르면 ‘潏로 쓰기도 하며, 洩로 통용된다(叟叟, 淅米聲. 《詩·大雅》釋之叟叟, 蒸之浮浮, 《註》釋, 淅米也. 叟叟, 聲也. 《集韻》或作潏, 通作洩)’고 하였다. 《新撰字鏡》의 의미풀이 중 ‘潏潏’를 쌀 씻는 소리라고 한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즉 《新撰字鏡》은 ‘潏潏’를 ‘洩洩’와 동일한 글자, 즉 이체자라고 보았다. 또한 《康熙字典》에 따르면 ‘潏’자는 ‘小便을 뜻하기도 하며, 洩자의 이체자’라고 하였다.⁴⁾ 이 역시 《新撰字鏡》의 풀이와도 일치하며, 이러한 종류의 연관관계를 통해 ‘洩’와 ‘潏’는 ‘叟’의 고문 ‘窆’를 성부로 하는 이체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자형인 ‘灋’는 와변으로 생긴 속체자로, 《新撰字鏡》을 비롯한 필사본 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자형이다. 俗字에서는 ‘叟’나 ‘冎’자에서 나타나는 ‘臼’를 ‘臼’이나 ‘旧’로 간주하고, ‘冎’자를 ‘冎’자와 동일하게 본다. ‘灋’자는 원래 ‘臼’와 ‘丨’으로 된 자형을 ‘旧’로 줄여 써야 俗字의 자형 규율에 맞지만, 이 경우에는 ‘冎’자의 訛變字形인 ‘伯’자로 변형되어 ‘灋’의 자형을 가지게 되었다.

2.2 同/形同/同作/形同作

《新撰字鏡》의 주석에서는 ‘同’·‘形同’·‘同作’·‘形同作’ 등의 용어로 나

3) 《唐韻》《集韻》并古文叟字.(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23쪽.)

4) 《廣韻》所鳩切《集韻》疎鳩切, 音搜. 小便也. 《晉語》少洩於豕牢, 而得文王.《註》少, 小便, 言其易也. 或作所遭切, 音騷. 亦作洩.(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713쪽.)

열린 다수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라는 자형 정보를 전달한다. 구체적인 체례는 아래와 같다.

2.2.1 標題字+同

글자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일련의 이체자가 같은 글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형식이다.

𦗇𦗇, 同. 昌悅反. 又哲音也. 《新撰字鏡 卷2 口部》

‘𦗇’과 ‘名’은 각각 ‘𦗇’과 ‘𦗇’의 俗字이다. 《篇海》에 따르면 ‘𦗇’자는 ‘昌’과 ‘悅’의 반절로, ‘口不正’이라는 뜻이고⁵⁾, ‘𦗇’은 ‘𦗇’자와 음이 같으며, ‘마시다’, ‘많이 마시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⁶⁾. 표면적인 의미 풀이로만 볼 때는 각기 다른 의미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글자의 자형구조를 파악해 보면 유사한 部件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의 자형구조 분석 관점에서 보면 ‘𦗇’은 ‘口’와 ‘𦗇’, ‘酉’를, ‘𦗇’은 ‘𦗇’, ‘酉’와 ‘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문자 자형을 통해 보면 ‘𦗇’은 사람이 술독에 입을 대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형상화한 𦗇(菁4·1)자가 변화한 ‘𦗇’의 생략형과 음을 나타내는 ‘𦗇’이 결합된 글자이다. 입을 크게 벌린 모습을 본 뜬 ‘欠’자로 ‘口’를 대체했을 뿐, ‘𦗇’자에도 ‘𦗇’자를 구성하는 ‘술독(酉)’과 음을 나타내는 ‘𦗇’의 자소가 남아있으므로 의미 부의 교환을 통한 이체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2.2.2 標題字+글자수+字同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5) 《篇海》昌悅切, 音啜. 口不正也.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176쪽.)

6) 《廣韻》昌悅切《集韻》《韻會》姝悅切, 音啜. 《說文》飲也. 《禮·曲禮》毋飲醢. 《楚辭·漁父》餽其糟而飲其醢. 又大飲也. 《禮·曲禮》毋流飲. 《鄭註》流飲, 大飲, 嫌欲疾也. 《枚乘·七發》小飮大飲, 如湯沃雪.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636쪽.)

형식이다.

瘞瘞, 二字同. 其郢反. 項強病也. 《新撰字鏡 卷3 疒部》

‘瘞’은 ‘瘞’자의 간화 이체자이다. ‘瘞’을 이루는 字素 ‘조’은 《新撰字鏡》뿐만 아니라 위진 남북조 시기 碑刻문자를 비롯하여, 《一切經音義》 등 다른 俗字 문헌 자료에도 상당히 자주 보이며, 《新撰字鏡》에도 이미 ‘莖’, ‘涇’, ‘勁’ 등 ‘조’을 포함한 자형들이 다수 나온다.

2.2.3 標題字+글자수+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筭筭筭, 三同. 楚尤反. 平. 筭酒. 或作𪔐. 《新撰字鏡 卷8 竹部》

‘筭’, ‘筭’ 두 글자는 모두 ‘筭’의 俗字이다. 俗字에서는 ‘筭’자를 ‘𪔐’, ‘𪔐’, ‘𪔐’, ‘𪔐’, ‘𪔐’ 등으로 줄여 쓴다. 《字彙補》에 따르면 ‘筭’는 ‘初’와 ‘鳩’의 반절로 ‘鄒’음이다. 술이다. ‘筭’와 같다(初鳩切, 音鄒. 酒也. 同筭).⁷⁾ 즉 ‘筭’는 ‘筭’의 자형이 축약되어 생성된 省體 俗字이며, ‘筭’자와 이체관계가 있다. 한편 ‘筭’ 자형은 약간 독특하다. 이 자형은 《新撰字鏡》의 저본 중 하나인 《一切經音義》에서도 나타나는 자형으로 ‘크’가 두 번 반복되는 ‘𪔐’자형을 기본으로, 위의 部件이 ‘𪔐’로 대체되어 생긴 이체자형이다. 《新撰字鏡》에서는 이 자형과 ‘크’가 공존한다.

2.2.4 標題字+글자수+形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7) 吳任臣 著, 《字彙補》(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155쪽.

柒漆柒𣎵, 四形同. 七音. 木汁也. 林也. 水也. 《新撰字鏡 卷6 水部》

위의 네 한자는 모두 ‘漆’자의 이체자형이다. ‘漆’은 원래 물 이름이었으나 ‘漆’자로 가차되어 통용되었다⁸⁾. ‘柒’은 ‘漆’의 俗字이며⁹⁾, ‘漆’은 ‘漆’의 ‘木’ 部件이 ‘求’의 속자체로, ‘水’ 部件이 ‘小’자로 바뀌어 나타난 이체자이다. 《偏類碑別字》에 수록된 〈唐楊氏合葬殘墓誌〉의 ‘漆’자와 《新撰字鏡》의 ‘漆’자를 보면 자형상 유사한 점이 많다.¹⁰⁾ ‘柒’자형은 중국의 俗字에는 없는 자형이라서 그 연원을 밝히기가 조금 까다롭다. 《新撰字鏡》의 이체자에는 인접한 部件의 병합을 통한 변형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바, 필자의 생각으로는 ‘漆’자의 ‘漆’ 部件이, ‘木’과 그 아래의 ‘人’ 部件이 병합되어 ‘求’ 部件으로 바뀌고, ‘水’의 필획이 서로 연결되어 ‘木’으로 변형되었다고 추측해 본다. 마지막으로 ‘𣎵’ 역시 ‘漆’의 이체자형이다. 이 자형은 《古文四聲韻·入聲·質韻》에 수록된 ‘𣎵’자와 관계가 깊다. ‘漆’의 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漆’과 ‘坐(𣎵)’는 서로 대체되기도 하고¹¹⁾, 《新撰字鏡》에서 ‘𣎵’자를 ‘𣎵’로 쓰는 등, ‘𣎵’을 ‘久’으로 변형한 자형이 자주 나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𣎵’자나 ‘𣎵’의 오른쪽 部件 ‘𣎵’이 ‘久’로 변형되어 생성된 이체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2.5 標題字+同作

8) 搃[漆]《唐韻》親吉切《集韻》《韻會》《正韻》戚悉切. 音七. 水名.《說文》水出右扶風杜陵岐山.....又木汁可槩物. 《書·禹貢》厥貢漆絲. 又物之黑者曰漆. 《周禮·春官》巾車漆車藩蔽. 《註》漆車, 黑車也.....又《集韻》七四切, 音次. 與柒同. 以漆塗器也. 本作漆, 亦作柒.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723쪽.

9) 柒, 《廣韻》俗漆字. 《開山圖》長安西有渠, 謂之柒渠. 又木名. 《山海經》剛山多柒木. 又《集韻》戚悉切. 義同.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563쪽.

10) 《偏類碑別字·水部·漆字》引用〈唐楊氏合葬殘墓誌〉(中華民國 教育部 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2311.htm>)에서 재인용.

11) 《玉篇·水部·漆字》: 𣎵, 古文. 《字彙補·水部》: 𣎵, 古文漆字. 위와 같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𤝵𤝵, 同作. 許救居久二反. 加久又久作志. 《新撰字鏡》卷2 口部》

‘𤝵’는 ‘口’와 ‘鼻’로 이루어진 ‘嗅’의 俗字이다. ‘鼻’는《玉篇》에서 ‘嗅’의 俗字라고 했는데, 《偏類碑別字》에서 인용한 〈魏冀州刺史元壽安墓誌〉의 𤝵를 보면 ‘𤝵’의 ‘鼻’자와 자형이 같다. 한편 ‘嗅’는 ‘口’와 ‘臭’의 이체자형인 ‘𤝵’로 구성되었다. 《說文》의 ‘臭’를 ‘짐승이 도망가면 냄새로 그 흔적을 아는 것이 犬(臭, 禽走, 臭而知其迹者, 犬也. 从犬从自)’이라고 한 풀이나, 𤝵(鐵196·3), 𤝵(睡虎秦簡) 같은 고문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臭’는 ‘自’와 ‘犬’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犬’자는 후에 ‘友’ 자형으로 많이 변한다. 그 예로 ‘突’자 같은 글자는 𤝵(古陶), 𤝵, 𤝵(睡虎秦簡) 등의 고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穴’과 ‘犬’으로 구성되었지만 예번 이후 ‘犬’ 部件이 ‘友’이나 ‘友’ 등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¹²⁾ 《新撰字鏡》의 ‘𤝵’ 자형은 ‘自’와 ‘犬’의 俗字인 ‘友’이 결합된 형태이다. 이 자형은 ‘友’이나 ‘友’의 자형과 유사하므로, 《新撰字鏡》에서 ‘友’과 ‘犬’ 字符의 俗字 형태와 항상 혼용되어 왔으므로¹³⁾, ‘𤝵’자형도 ‘友’의 변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嗅’의 이체자이며, ‘嗅’ 역시 ‘嗅’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2.2.6 標題字+글자수+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12) 《隸辨》이 〈張納功德敘〉에서 𤝵 인용, 𤝵(《龍龕手鏡》), 《偏類碑別字》가 〈魏敬史君碑〉에서 𤝵 인용, (中華民國 教育部 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2958.htm>)에서 재인용.

13) 《新撰字鏡》에 나오는 擇는 淚의 이체자이다. 擇의 友는 犬으로 변했고, 《新撰字鏡》에서는 笑의 犬을 犬으로 바꾸어 笑로 쓴다.

筭筭筭, 三同作, 蘇換反. 籌矢也. 數也. 計也. 《新撰字鏡 卷8 竹部》

《新撰字鏡》의 해설에 따르면 이 세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의 다른 이체자형이다. 먼저 ‘筭’자를 보자. 《說文》에서 따르면 ‘筭’은 수를 셀 때 쓰던 산가지를 말한다.¹⁴⁾ 《說文·竹部》에서는 이 글자와 유사한 음과 뜻을 가진 ‘算’자가 나오는데, 그 풀이를 보면 ‘算, 셈하다. 竹과 具를 따르며 筭으로 읽는다. ‘蘇’와 ‘管’의 반절(算, 數也. 从竹从具. 讀若筭. 蘇管切)’이라고 하였다. 단옥재는 이에 ‘竹部를 따름은 산가지로 셈하기 때문이며, 具를 따르는 것은 수를 갖추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筭’과 ‘算’은 의미와 음도 ‘蘇貫切’로 똑같은 글자로, 서로 통용되어 왔다.¹⁵⁾ 이러한 연유로 ‘筭’은 ‘筭’과 ‘算’ 두 글자 모두의 이체자로 전해진다. 예를 들어 《玉篇》에서는 “筭, 蘇亂切, 計筭也. 數也.” 또 “筭, 同上. 亦竹器也.”라고 하였고,¹⁶⁾ 《金石文字辨異》에서는 이 글자를 ‘算’의 이체자로 보았다.¹⁷⁾ 따라서 ‘筭’은 ‘筭’과 이체자 관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筭’ 자형은 《新撰字鏡》에서 나타난 독특한 자형으로 그 연원을 밝히기 쉽지 않지만, 漢〈張遷碑〉에 나오는 ‘筭’의 이체자인 ‘筭’과 자형 상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다.¹⁸⁾ ‘筭’자의 ‘𦰩’ 部件과 ‘筭’의 ‘𦰩’은 ‘𦰩’의 아랫부분이 ‘开’형태이고, ‘筭’은 ‘𦰩’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新撰字鏡》 이체자에서 보이는, 연결된 部件을 단절하여 다른 비슷한 部件의 형태와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이체규율로 비추어 볼

14) 《說文解字·竹部》: “筭, 長六寸, 計歷數者. 从竹从弄, 言常弄乃不誤也. 蘇貫切.”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1028쪽)

15) 《字彙》: “筭, 同算”(梅膺祚, 《字彙》(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년, 343쪽.)

16) 顧野王, 《玉篇》(《字典彙編》편집위원회, 《字典彙編》11권(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년), 70쪽.

17) 北齊臨淮王象碑或其弗沙等名竿億, 案算作筭. (《金石文字辨異·去聲翰韻·算字》, 中華民國教育部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_a03013.htm)에서 재인용.

18) 《金石文字辨異》에서 〈漢張遷碑〉의 자형 인용. (中華民國教育部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때 충분히 자형 상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글자도 ‘筭’의 이체자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筭’·‘筭’·‘筭’ 자형은 ‘筭’이 일반적인 이체자 형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모두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2.2.7 標題字+글자수+形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錙錙, 二形同作. 側飢反. 銖六則錙二. 錙則錙, 二則兩也. 《新撰字鏡》卷6 金部》

‘錙’는 ‘錙’의 이체자형이다. 《隸辨》에서는 ‘𨾏’에 대해, ‘바로 𨾏자이다. 여러 碑銘에서 ‘𨾏’자를 ‘𨾏’자로 쓰고 있으므로, ‘𨾏’는 ‘𨾏’로도 쓴다(即𨾏字. 諸碑𨾏作𨾏, 故𨾏亦作𨾏)’고 해설했다. 즉 ‘𨾏’는 ‘𨾏’의 이체자이다. 따라서 ‘錙’와 ‘錙’는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실제로 동일한 異體部件이 글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과 訛變되는 경우가 많은 《新撰字鏡》에서 ‘𨾏’와 ‘𨾏’部件을 포함한 이체자형 조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정형화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3. 상호 연관된 標題字간의 자형 속성 관계 규명

앞서 언급했듯이 《新撰字鏡》의 체제는 타 자서에 비해 상당히 독특하다. 심지어 불안정하기까지 하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유롭고 글자해설의 유연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자서에서는 각 標題字의 해설이 독립성을 가지고 최대한 서로의 영역을 범하지 않는 데 반해 《新撰字鏡》은 특별한 표시 없이도 인접한 標題字끼리 자형 상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星, 司零反. 平. 散也. 精也. 羅也. 列也. 位布散也. 萬物精也.”, “星, 同作.”, “乖, 古文.”을 보면, ‘星’·‘星’·‘乖’세 글자는 각각 標題字로 지정되어 있는데, ‘星’

을 기준으로 ‘星’은 ‘星’의 이체자고, ‘乖’은 고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자서의 체례에 맞추면 “星, 司零反. 平. 散也. 精也. 羅也. 列也. 位布散也. 萬物精也. 星, 同作. 乖, 古文.” 이라고 했어야 했지만, 《新撰字鏡》에서는 正字를 위에, 俗字를 중간에, 古文을 맨 아래 두는 등 표제자간의 긴밀한 자형 속성 정보를 나름대로 정형화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인접한 標題字가 이처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때는 대부분 ‘上’이나 ‘上字’ 같은 고정된 용어를 사용하여 標題字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한다.¹⁹⁾

3.1 上同/上同字/上同作/上字/上字同

3.1.1 上同

이 형식은 標題字를 나열하고, 그것이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같은 글자, 즉 그 글자의 이체자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累, 正力錐反. 平. 繫也. 甲藏也. 索也. 綸也. 借力彼反. □. 又力瑞反. 去. 黨屬也. 連及也. 重也.
 纍, 三上同. 《新撰字鏡 卷4 糸部》

위 예시의 결론은 ‘纍’·‘索’·‘糸’ 세 글자는 위에서 해설한 ‘累’자와 같다는 것이다. 우선 ‘纍’와 ‘累’의 본의를 파악하여 두 글자의 관계를 살펴해보도록 한다. 《說文》에 따르면 ‘纍’는 ‘綴得理’와 ‘大索’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²⁰⁾ 《段注》에서 ‘綴得理’를 ‘合箸’로 풀이하였고,²¹⁾ 《前

19) 특히 上字라는 용어는 이체자가 아닌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나온 글자와 의미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엄정하지 못한 것이 《新撰字鏡》 주석 체례의 맹점이다.

20) 《說文解字新訂·糸部》: “纍, 綴得理也. 一曰大索也. 从糸畀聲. 力迫切.”(許慎著, 臧克和王平 校點, 《說文解字新訂》(北京: 中華書局, 2002年, 870쪽)

21) 段玉裁, 《說文解字注·糸部》: “綴得理也. 綴者, 合箸也. 合箸得其理, 則有條不紊. 是曰纍. 樂記曰. 纍纍乎端如貫珠. 此其證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656쪽(下).

漢·李廣傳》의 “以劒斫絕纆.” 구절의 주에서 ‘纆란 밧줄을 말한다(纆, 索也)’고 한 것처럼 ‘纆’는 ‘엮어매어 나타나는 무늬·‘밧줄’ 등을 뜻한다. 후에 이 두 의미소의 기초에서 ‘묶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²²⁾ 한편 ‘累’자는 《說文》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데, ‘力委切(《廣韻》)’로 읽힐 때는 《老子》제64장의 ‘구층의 높은 누대도 흙을 쌓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九層之臺, 起於累土)’라는 구절에서처럼 ‘쌓다’를 뜻한다. 또 ‘倫迫切(《集韻》)’로 읽힐 때는 《莊子·外物篇》의 ‘작은 낚싯대와 가는 줄로 도랑에 가서 송사리나 붕어를 노리는 낚시를 하면서 큰 고기를 잡는 것은 어렵다(揭竿累, 趣灌瀆, 守鯢鮪, 其於得大魚難矣)’는 구절과 같이 ‘줄’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다시 ‘묶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²³⁾ 이처럼 ‘纆’와 ‘累’는 의미상 서로 ‘줄’과 ‘묶다’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자형 면에서도 동일한 자소가 중첩된 복잡한 자형이 생략을 통해 간략한 글자로 변하는 한자자형의 진화규칙에도 걸맞으므로, ‘纆’의 중첩 자소가 생략되어 ‘累’라는 이체자가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두 글자를 서로 같은 글자라고 본 昌住의 견해는 옳다.

‘𣎵’는 《說文》에서 ‘더해지다’는 뜻이다. 𣎵와 糸로 구성되었다. 𣎵는 또 十黍의 무게를 뜻한다(增也. 从𣎵从糸. 𣎵十黍之重也)’로 해설하고 있다. 즉 이 ‘𣎵’자는 《說文》에 같이 수록된 ‘纆’자와 별개의 글자로 무게단위였다가 후에 ‘纆’와 ‘累’로 통용되어 왔다.²⁴⁾ 顏師古 같은 학자는 소전에서 ‘𣎵’형태였던 部件이 隸變을 거치면서 ‘田’으로 변하여 ‘累’이 되었으며, ‘𣎵’이 ‘累’의 古字가 된다고 하였는데, ‘𣎵’자가 ‘累’의 이체자가 된 과정의 한 단면을 알 수 있게 한다.²⁵⁾

22) 《玉篇》繫也. 《廣韻》係也. 亦作縲. 《左傳·僖三十三年》不以纆臣斃鼓. 《註》纆, 囚繫也. 《前漢·司馬遷傳》幽于纆紲. 《註》纆, 係也. (陳廷敬·張玉書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103쪽.)

23) 《禮記·儒行》: “不累長上.” 鄭玄注: “累, 猶係也.” 《呂氏春秋·觀世》: “齊人累之, 名為越石父.” 《史記·趙世家》: “侵暴吾地, 係累吾民.” (徐中舒,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湖北辭書出版社, 1993年, 1409쪽.)

24) 《玉篇》: “纆, 力佳切. 繫也. 綸也. 得理也. 黑索也. 又力偽切. 延及也. 又力捶切. 十黍也. 亦作𣎵.” 또 “累, 同上.” (顧野王, 《玉篇》(《字典彙編》편집위원회, 《字典彙編》11권, 國際文化出版公司, 125쪽.)

25) 〈綏民校尉熊君碑〉 蔡葉休隆. 按《漢書·劉向傳》 蔡世蒙漢厚恩. 師古曰, 𣎵古累字, 《說文》 𣎵本從𣎵變隸從田. (顧藹吉, 《隸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

《說文》에 따르면 ‘𡵓’는 ‘가래로 떠낸 흙을 쌓아 벽을 쌓는다(桑坡土爲牆壁)’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흙을 ‘쌓아’ 벽을 만든다는 의미가 ‘累’, ‘纍’와 의미상 공통점이 있으므로, ‘累’와 ‘纍’의 이체자로 간주된다.²⁶⁾

3.1.2 上同字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것이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같은 글자임을 나타낼 때 쓰는 형식이다.

年, 奴田反. 平.

𡵓, 二上同字. 《新撰字鏡 卷12 雜字部》

‘𡵓’자의 갑골문 자형은  (佚54),  (佚531),  (佚679) 등으로 사람이 머리에 벼를 이고 있는 형상을 그렸다. 즉 곡식이 익어 추수하는 모습인데, 곡식이 익어 추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로 삼아 시간을 기록했으므로 ‘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𡵓’는 《說文》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禾’와 사람의 형상이 변형된 ‘千’이 결합한 구조(从禾千聲)이므로 갑골문의 자형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𡵓’자는 隸變을 거치면서 한 대와 위진 남북조 이후의 비각에서부터 점차  (華山廟碑),  (鄭固碑),  (朱龜碑) 등의 자형으로 변하게 되어 지금의 年 형태까지 변천되었다.²⁷⁾ 《新加九經字樣》에서는 ‘𡵓·年’ 두 글자 중 위 글자는 《說文》에 나온 禾와 소리부 千을 따르는 그 것이고, 아래 글자는 경전에서 이어받아 쓴 예변자(𡵓年, 上說文從禾從千聲, 下經典相承隸變)’라고 하였다.²⁸⁾ 《新撰字鏡》의 저본인 《干祿字書》에서도 이 두

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112.htm>에서 재인용.

26) 《龍龕手鏡》: “累, 力偽切. 累帶連及也. 古作桑, 𡵓同. (行均, 《龍龕手鏡》,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27) 顧藹吉, 《隸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1194.htm>에서 재인용.

28) 위와 같음.

글자가 같은 글자(季年竝同)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牽’은 ‘ㄱ’·‘刀’·‘刀’·‘干’의 네 部件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슷한 자형으로 《金石文字辨異》에서 인용한 〈唐岱岳觀碑〉의 ‘牽’이나, 《集韻》의 ‘牽’, 《龍龕手鏡》의 ‘牽’ 등을 들 수 있는데²⁹⁾, ‘ㄱ’ 部件이 이들 자형의 것과 다르고, 중국의 이체자에는 ‘刀’가 ‘力’으로 대체된 것도 있으며, ‘丨’이 글자 전체를 관통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部件의 공통성을 가지므로 두 그룹간의 자형 연관성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형에 대해 《龍龕手鏡》은 ‘牽’자가 ‘年’자의 고문(古文年字)이라고만 한 데 반해, 《集韻》은 ‘牽’자가 당 대 측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라고 그 연원까지 밝혔다³⁰⁾. 따라서 이 세 자형은 이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3 上同作

이 역시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먼저 나온 標題字와 같은 자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형식이다.

逮, 徒載反. 及也. 逮也. 与也. 遁也. 衆也.

逮, 上同作. 雖然音訓別也. 力穀反. 《新撰字鏡 卷9 辵部》

‘逮’는 《說文》에 따르면 의미부 ‘辵’과 소리부 ‘隶’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미치다(及)’를 뜻한다.³¹⁾ 소전의 𨔵자형은 예변을 거쳐 ‘隶’형태로 변하여 ‘逮’와 같은 자형으로 정형화 되었다가, 다시 소전과 비슷하지만 세로획이 다 관통하지는 못하고 생략된 ‘录’ 형태의 省體 이체자, 즉 ‘逮’과 같은 자형이 생겼다. 이 ‘逮’자가 오히려 소전의 자형과 더 비슷하므로 ‘逮’자의 古字라고 보기도 한다.³²⁾ 사실 두 번째 標題字 ‘逮’은

29) 위와 같음.

30) 《集韻》……季或作年, 唐武后作牽, 亦書作秆. (宋祁·鄭戡 著, 《集韻》,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위와 같음.)

31) 《說文·辵部》: "逮, 唐逮, 及也. 从辵隶聲."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勘,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106쪽)

32) 《集韻·代韻》: "逮, 及也. 古作逮." (徐中舒 撰, 《漢語大字典》(成都: 四川

원래 ‘遂’의 이체자이다. 《說文》에서는 ‘遂’을 ‘걸음걸이가 매우 조심스러움’을 뜻하며 ‘盧谷切’로 읽히는 글자라고 풀이하였다. ‘遂’자의 소전 자형은 ‘𨔵’로 의미부 ‘辵’과 소리부 ‘𠂔’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𠂔’의 ‘扌’은 ‘ㄱ’ 형태로 많이 바뀌므로, 이 글자도 ‘𠂔’ 형태로 변형되어, ‘逌’이라는 이체 자형이 나타났다.³³⁾ 이처럼 ‘逌’과 ‘遂’은 별개의 글자였으나 자형의 변천과정에서 ‘逌’이라는 동일한 이체자형이 나타나, 음과 훈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용되었다.

3.1.4 上字/上字同

3.1.4.1 上字

‘上字’라는 용어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해설한 글자의 이체자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다.

河, 故歌反. 水名, 出稽山.

𣶒, 上字. 《新撰字鏡 卷3 水部》

‘𣶒’자는 《新撰字鏡》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자형으로, 중국의 이체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新撰字鏡》의 풀이에 따르면 이 글자는 ‘河’의 이체자로 구성 部件은 ‘水’와 ‘可’로 같지만 위치가 다르다. 漢 魏晉 南北朝 이래 수많은 이체자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部件의 위치이동도 중요한 이체 규율이었다. 이 때 좌우구조의 형성자가 상하구조로 바뀔 때 보통 소리부를 위로 올리고 의미부를 아래로 내렸다.³⁴⁾ 이 ‘𣶒’자도 ‘𣶒’나 ‘𣶒’처럼 좌우구조에서 상하구조로 변형되어 생성된 이체자이다.

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년, 1604쪽 재인용)

33) 《重訂直音篇卷三·辵部》: “逌, 音綠. 謹行貌. 又象也.” 또 “逌, 同上.”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5087.htm>에서 재인용)

34) 毛遠明, 《漢魏六朝碑刻異體字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12年), 197쪽 참조.

3.1.4.2 上字同

‘上字同’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나온 글자의 이체자로 두 글자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이다.

鑒, 古懺反. 炤也. 照也.

暨, 上字同. 鏡也. 察也. 戒也. 《新撰字鏡 卷6 金部》

‘鑒’은 ‘鑒’자에서 한 점이 더 늘어난 增劃 이체자이다. 서사 과정에서 별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점이나 획을 더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글자의 영향을 받아 그 글자와 닮아가는 경우도 있다.³⁵⁾ 이 ‘鑒’자도 ‘冬’자처럼 상하 두 점을 찍는 습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이체자가 아닌가 한다. 또 이 ‘鑒’은 ‘鑒’의 俗字이다³⁶⁾ 금문 자형에서 보면 물이 가득 담긴 대야에 얼굴을 비추어 보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𣎵(攻吳王鑑), 𣎵(吳王光鑑), 𣎵(智君子鑑) 등으로 썼다. 고문자 자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鑑’과 ‘鑒’은 ‘監’과 ‘金’ 두 字符를 구조만 달리 썼을 뿐 같은 글자이다.³⁷⁾

3.2 正作/上正作

‘正作’이라는 용어는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正字’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3장에서 기술하는 예는 모두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관련지어 正字임을 밝힌 유형을 말한다.

35)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87-89쪽 참조.

36) 《干祿字書》: "暖鑒, 又古懺反. 上通下正." (《字典彙編》編委會 편집, 《字典彙編》13권 중 顏元孫 《干祿字書》(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年), 4쪽)

37) 《重訂直音篇》: "鑑, 古陷切. 鏡也. 察也. 又音緘. 鑑鑒, 並同上. 鑑鑒, 亦同上(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4359.htm>에서 재인용)

𨇖, 除殄反. 止也. 履也. 趁也.

𨇖, 上正作. 《新撰字鏡 卷2 足部》

《新撰字鏡》에서는 ‘𨇖’을 거의 대부분 ‘久’의 형태로 변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이체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중화민국 교육부 이체자사전’에서 수록한 ‘𨇖’부의 글자 중 《佛教難字字典》에서 인용한 ‘𨇖’자 정도가 있다. ‘𨇖’자의 ‘𨇖’ 역시 ‘𨇖’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𨇖’ 형태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𨇖’은 ‘𨇖’의 正字이다.

3.3. 上俗作/上字俗作.

‘俗作’이라는 용어는 앞서 기술한 ‘正作’과 대비되는 용어로,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俗字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 소절에서 기술하는 예 역시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관련지어 正字임을 밝힌 유형을 말한다. ‘上’이나 ‘上字’와 같이 써서 위에서 해설한 글자와 正俗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諄, 薄背反. 又蒲沒反. 入. 言亂也. 逆也. 悖字.

諄, 上字俗作. 《新撰字鏡 卷3 言部》

《新撰字鏡》은 ‘諄’나 ‘悖’ 등, ‘悖’ 字符가 들어간 글자를 ‘悖’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金石文字辨異》가 〈北魏孝文帝比干墓文〉³⁸⁾에서 수록한 ‘悖’ 자형과 《新撰字鏡》의 중요 저본인 《玉篇零卷》에서도 이 자형이 나타나고 있어 ‘諄’의 俗字체인 ‘諄’자형이 魏晉 南北朝 碑刻文字에서부터 저자가 《新撰字鏡》을 찬술하던 시대까지 면면하게 계승되어 온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³⁹⁾

3.4 上古文

38) 中華民國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1360.htm>에서 인용.

39) 顧野王, 《原本玉篇殘卷》(北京: 中華書局, 2004年), 16쪽 참조.

이 형식은 해설하고자 하는 글자가 위에서 해설한 글자의 고문이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다.

曝, 補木反. 入. 日乾也. 曬.
 曝, 上古文. 《新撰字鏡 卷1 日部》

《龍龕手鏡》은 ‘暴’·‘曝’·‘曝’을 俗字로, ‘暴’을 正字로 규정짓고 있다.⁴⁰⁾ 또 《說文·日部》에서는 ‘暴’를 ‘별에 말리다. 日과 出, 収과 米로 구성되었다. 曝, 高문 暴은 日을 의미부로하고 鹿를 소리부로 한다(晞也. 从日从出, 从収从米. 曝, 古文暴从日鹿聲)’고 하였다. 따라서 ‘曝’는 ‘暴’자의 俗字이고, ‘曝’는 ‘暴’자의 고문이므로, ‘曝’의 고문이라고 한 《新撰字鏡》에서 밝힌 ‘曝’의 자형 속성 정보는 옳은 것이 된다.

4. 주석을 통한 자형 속성 관계 규명

《新撰字鏡》의 주석은 앞선 2,3장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규율성 있는 체례와 용어로 각 글자의 正字, 俗字 등의 자형 속성 정보를 밝히고 있다. 본 장에서 다룰 체례는 앞 장에서 기술한 체례들이 표제에 다양한 이체자를 나열하거나, 아래위로 배열한 標題字 자체가 마치 자양서에서 俗字와 正字를 아래위로 나누어 배치 하듯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달리, 독립된 한 標題字에 대한 해설과정에서 그 글자와 관련 있는 다양한 이체자를 제시하고 正字, 俗字, 古今字 등 세부적인 문자속성 정보를 밝힌 것들이다.

4.1 字同/形同

40) 中華民國 教育部 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1821.htm>에서 인용.

4.1.1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字同

이런 체례는 하나의 標題字 아래 다른 이체자들을 제시하고 標題字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임을 밝히는 형식이다.

謠, 葛羅反. **歌哥二字同**. 《新撰字鏡 卷3 言部》

《說文》의 ‘歌’ 해설을 보면 ‘노래한다는 뜻이다. 欠을 의미부로 하고 哥를 소리부로 한다. 歌는 言部를 따르기도 한다(詠也. 从欠哥聲. 歌, 或从言)’고 하였다.⁴¹⁾ 《玉篇》의 ‘謠’ 해설은 ‘歌로 쓰기도 한다(謠, 亦作歌)’고 하였다. 즉 ‘謠’는 ‘歌’의 이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두 글자가 같다고 한 점은 옳다.

다음으로 ‘歌’와 ‘哥’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哥’는 소리이다. 《說文》에서는 ‘두 可를 따르며, 고문에서는 이를 謠자로 하기도 한다(聲也. 从二可. 古文以爲謠字)’고 하였다.⁴²⁾ ‘可’의 갑골문자형은 𠂔(甲 3324)로 농기구와 입, 즉 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哥’는 ‘可’를 중첩하여 원래의 ‘노래하다’의 의미를 더 강화하였다. 《段注》에서 ‘지금은 형의 호칭으로 쓰이고(今呼兄爲哥), 《漢書》에 歌를 哥로 많이 쓴다’고 밝혔듯이 여러 문헌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 ‘哥’이 형의 호칭으로 가차되면서 원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 ‘欠’이 덧붙여졌다. 따라서 ‘哥’와 ‘歌’는 古今字로 같은 글자라고 할 수 있다.

4.1.2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形同

이런 체례는 하나의 標題字 아래 다른 이체자와 그 수를 제시하고 標題字와 이 글자들이 같은 글자임을 밝히는 형식이다.

41)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574쪽.

42)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309쪽.

蹀, 祖到反. 蹀蹀二形同. 不安靜也. 佐和反. 《新撰字鏡 卷2 足部》

‘蹀’의 필사법은 《新撰字鏡》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蹀’와 점의 위치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지만 같은 글자로 볼 수 있다. ‘蹀’자는 또 ‘蹀’의 俗字인데, 《干祿字書》는 ‘蹀’를 俗字로 ‘蹀’는 正字로 규정짓고 있다.⁴³⁾ 또 《說文解字》‘蹀’자의 풀이를 보면, ‘빠르다. 走를 의미부로 따르고, 臬를 소리부로 한다(疾也. 从走臬聲)’고 하였고, 徐鉉 등은 오늘날 俗字에서 ‘蹀’로 쓴다고 하였다.⁴⁴⁾ 《集韻》도 ‘蹀蹀’은 《說文》에서 빠르다고 풀이했다. ‘蹀’로 쓰기도 한다(蹀蹀, 《說文》疾也. 或作蹀.)’고 하며 ‘蹀’를 ‘蹀’의 이체자로 보았다. 《五經文字》에서는 ‘蹀蹀’ 두 글자는 같다. 子와 到의 반절이며, 위의 글자는 《周禮》에 나온다(蹀蹀, 二同. 子到反. 上見《周禮》)’고 하였다. 따라서 ‘蹀’와 ‘蹀’, ‘蹀’ 세 글자는 이체관계가 성립된다.

4.2 同作

4.2.1 標題字+이체자형+同作

이 형식은 ‘同作’의 앞에 標題字의 이체자를 제시하고 두 글자가 같은 글자임을 설명한다.

謔, □𠂔張流二反. 平. 狂也. 相欺惑也. 謔同作.

‘謔’는 ‘謔’의 이체자이다. 《說文》‘謔’ 풀이를 보면, ‘저주하다. 言部를 따르고 壽를 소리부로 하며, 𠂔로 읽는다(誚也. 从言壽聲. 讀若壽)’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誚’라고 풀이하었는데, ‘誚’는 ‘저주하다(誚)’는 뜻이다. 따라서 ‘謔’는 ‘誚’이기도 하다(誚也. 按誚,

43) 《干祿字書》: 蹀蹀, 并上俗下正. (《字典彙編》編委會 편집, 《字典彙編》13권 중 顏元孫 《干祿字書》(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년), 8쪽)

44) 許慎, 《說文解字》大徐本: “蹀, 疾也. 从走臬聲. 則到切. 臣鉉等曰: 今俗別作蹀, 非是.”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4048.htm>에서 재인용)

詛也. 則壽亦詛也)’고 보충하고 있다. 《集韻》의 ‘嘯’ 해설에서 ‘壽’, ‘疇’로 쓰기도 한다고⁴⁵⁾ 했으므로, ‘壽’와 ‘嘯’는 같은 글자라고 볼 수 있다.

4.2.2 標題字+이체자형+글자수+同作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鼗, **鞀** **鞀** **鼓** **三形同作**. 徒刀反. 跳如鼓而小, 持其柄搖桴之者也. 《新撰字鏡 卷5 鼓部》

‘鼗’는 ‘兆’의 增劃 이체자인 ‘𣎵’와 ‘鼓’의 俗字인 ‘鼓’로 이루어졌으며, ‘鼗’의 이체자형이다. 《集韻》은 ‘鼗’를 ‘徒와 刀의 반절이며, 음은 陶이다. 북과 비슷하나 작고, 자루를 잡고 흔들면 양쪽 귀가 왔다 갔다 하며 저절로 두드린다(徒刀切, 音陶. 如鼓而小, 持其柄搖之, 兩耳還自擊)’고 풀이했다. 《廣韻》에 따르면 ‘鞀’와 ‘鞀’는 모두 ‘鼗’와 같은 글자다.⁴⁶⁾ 《玉篇》에서도 ‘鞀’와 ‘鞀’를 같은 글자로 본다.⁴⁷⁾ 즉 ‘鼗’의 의미부인 ‘鼓’는 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가죽이라는 점에서 ‘革’으로 대체되었고, 음을 표시하는 ‘兆’는 그대로 유지한 채 ‘鞀’가 되었다. ‘鞀’자는 ‘鞀’자와 비슷한 음가를 가진 ‘𣎵’로 성부가 바뀌어 나타난 이체자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鼓’는 나머지 세 글자의 이체자가 아니라 동의자로 보아야 한다.

4.3 (與)某字同

45) 《集韻》嘯, 與壽同. 詞也. 或作疇壽.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75쪽에서 재인용.)

46) 鼗, ……鞀, 鞀并上同.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5617.htm>에서 재인용.)

47) 《玉篇》: 鞀, 與鞀同. 如鼓而小, 持柄搖之, 旁耳還自擊.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689쪽에서 재인용.)

이 형식은 직접 일대일로 標題字가 어떠한 글자와 이체자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防, 坊字同. 扶方反. 徭也. 當也. 敝也. 禁也. 郭也. 和也. 《新撰字鏡 卷 9 阜部》

《說文》에 따르면 ‘防은 제방이며, 冂부를 따르고 方을 성부로 한다. 防은 墜처럼 土부를 따르기도 한다(防, 隄也. 从冂方聲. 墜, 防或从土)’고 했다. 《段注》에서는 ‘土부를 따르는 防의 或體를 俗字에서 坊으로 쓰는 근거(防或从土. 俗字所由作坊也)’라고 보았다. 《玉篇》에서도 ‘防’을 ‘坊’으로 쓰기도 한다고 했다. 따라서 《新撰字鏡》에서 ‘防’을 ‘坊’의 이체자로 보는 것도 근거가 있다.

4.4 亦作/或作/又作

‘亦作’·‘或作’·‘又作’ 같은 형식은 다른 자서에서도 자주 나오는 체레이며, 《新撰字鏡》에서도 標題字와 이체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물론 주석 속에서 모 글자와 그 이체자를 언급할 때에도 자주 쓰인다.

4.4.1 亦作

4.4.1.1 亦作某/亦作某某

이 형식은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밝히는데,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한다.

氣, 亦作炁. 去既反. 去. 鬱也. 息也. 《新撰字鏡 卷1 气部》

《玉篇》에서는 ‘炁’를 ‘氣’의 古字라고 했다. 하지만 《玉篇》에서 말한 것처럼 ‘氣’의 古字라고 간단하게 규정짓기에는 ‘炁’·‘氣’·‘气’ 사이의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 《集韻》에 보면 ‘气’는 《說文》에서 雲氣라고 하였다. 상형이다. 무릇 气에 속하는 자는 气를 따른다. 息이라고도 하는데, 氣나 炁로 쓰기도 한다(气, 《說文》雲气也. 象形. 凡气之屬皆从气. 一曰息也. 或作氣炁)’고 하였다. 《集韻》에 따르면 ‘氣’나 ‘炁’는 모두 ‘气’의 이체자이지만, 좀 더 엄격하게 보면 ‘氣’는 ‘气’의 今字이며, ‘炁’는 ‘气’의 或體로 보아야 한다.⁴⁸⁾

4.4.1.2 亦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상황에 따라 同이 붙기도 한다.

愼, 亦作寢言二形. 于劇魚祭二反. 眠內不覺. 妄言也. 《新撰字鏡 卷2 心部》

‘愼’는 《說文》에서 ‘잠결에 하는 말로 충기가 없다. 心부를 따르고 衛를 소리부로 한다(寢言, 不慧也. 从心衛聲)’고 하였다. 즉 잠꼬대를 이르는 말이다. 《集韻》에서는 ‘于’와 ‘劇’의 반절이며 衛음이다. 《說文》에서 잠결에 하는 말로 충기가 없다고 하였다. 言部를 따르는 자형도 있다(于劇切, 音衛. 《說文》"寢言不慧也." 或从言)’고 하였다. 바로 ‘讐’자를 말한다. 따라서 ‘愼’를 ‘讐’로 쓰기도 한다는 《新撰字鏡》의 주석 내용은 틀림이 없다. 寢는 《說文》에 따르면 ‘瞑言이다. 寢의 생략형을 의미부로 따르고 臬을 소리부로 한다(瞑言也. 从寢省, 臬聲.)’고 하였다. 《段注》는 ‘瞑은 눈을 감았다는 말이다. 명언은 수면 중에 말을 하는 것을 뜻한다(瞑, 目翕也. 瞑言者, 寐中有言也.)’고 설명했다. ‘寢’는 ‘愼’, ‘讐’와 뜻이 같다. 게다가 《廣韻》의 ‘愼’ 풀이에 따르면 ‘魚와 祭의 반절이다. 嚙음이다. 寢와 같다. 역시 잠꼬대를 이른다(魚祭切. 音嚙. 與寢同. 亦睡語也)’고 하였다.⁴⁹⁾ ‘寢’의 음가 역시 ‘魚祭切’로, 《廣韻》에 따

48) 气氣古今字. 自以氣爲雲气字. 乃又作飢爲廩氣字矣. 气本雲气. 引伸爲凡气之僞.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20쪽 인용)

49)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991쪽 재인용.)

르면 ‘懲’, ‘癰’ 두 글자의 음과 뜻은 동일하다. 따라서 ‘懲’를 ‘癰’와 ‘讐’ 두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4.4.2 或作

4.4.2.1 或作某

이 형식 역시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형식이다.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한다.

𪎭, 去玄反. 麥莖也. 稯也. 或作稭. 在禾部. 《新撰字鏡 卷11 麥部》

‘𪎭’자는 《集韻》의 풀이에 따르면 ‘圭와 懸의 반절로, 涓음이며, 보리 줄기(𪎭, 圭懸切, 音涓. 麥莖也)’를 말한다. 또 《六書故》에서는 ‘麥稯이다. 稯으로 쓰기도 한다(麥稯也. 別作稭)’고 하였다.⁵⁰⁾ 두 사실을 종합하면 ‘𪎭’과 ‘稯’은 이체자가 된다. 《說文》의 ‘稯’ 풀이를 보면, ‘보리 줄기이다. 禾부를 따르고 𪎭을 소리부로 한다(麥莖也, 从禾𪎭聲)’고 했다. ‘𪎭’은 ‘稯’에서 의미부가 ‘麥’으로 교체되어 형성된 이체자로 보인다.

4.4.2.2 或作+異體字形+同/或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

이 형식 역시 標題字를 어떠한 다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는 것을 말하는 형식이다. 때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체자를 나열하기도 하며, ‘或作+異體字形+글자수+形同’처럼 글자수를 표시하기도 한다.

暉暉, 二字同. 或作輝輝同. 虛席肝飛二反. 平. 光也. 猶光明也. 氏良須. 《新撰字鏡 卷1 日部》

50)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865쪽 재인용.

‘暉’는 《說文》의 풀이에 따르면 ‘빛이며, 日부를 따르고 軍을 소리부로 한다(暉, 光也. 从日軍聲.)’. 《廣韻》에 따르면 ‘許歸切이다. 한편 《說文》 ‘暈’에는 ‘日月의 기이다. 日부를 따르고 軍을 소리부로 한다(日月氣也. 从日軍聲)’고 하였으며, 《廣韻》·《集韻》·《韻會》 등에 따르면 ‘王問切’의 음가를 가진다. 이 두 글자는 음은 다르지만 의미에서는 ‘光’, ‘日旁氣’ 등으로 유사한 점이 있다. 《段注》에서는 ‘전서체는 당연히 暉를 暈으로 썼을 것이다. 《周禮》에서는 暈을 輝로 썼는데, 고문假借字이다.……맹강은 暈은 ‘日旁氣’다. 전서체에서는 日이 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옆으로 옮겨 쓰는 자형도 있었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자형이 暉로 바뀌었고, 訓도 빛으로 바뀌었다. 사실 火부의 輝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篆體暉當作暈. 周禮暈作輝. 古文段借字. ……孟康曰, 暈, 日旁氣也. 篆體日在上. 或移之在旁. 此篆遂改爲暉. 改其訓曰光. 與火部之輝不別)’고 하며, ‘暉’와 ‘暈’이 원래는 한 글자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暉’·‘暈’·‘輝’·‘輝’ 사이의 관계를 보자. 우선 ‘暉’자는 《玉篇》 ‘暉’ 풀이에서 “暉, 或作輝”라고 했듯이 ‘輝’자의 이체자이다. 또 陸德明的 《經典釋文》에서도 ‘暉는 輝로도 쓴다(暉, 又作輝)’하였으므로, ‘暉’·‘輝’·‘輝’ 세 글자의 이체자 관계는 증명된다.⁵¹⁾ ‘輝’·‘輝’ 두 글자 중 역대 자서에서 ‘暈’의 이체자라고 기술한 것은 ‘輝’자 정도이다. ‘輝’는 揮音과 運音 두 가지 음이 있는데, 運音으로 읽힐 때 ‘暈’과 같이 쓰인다.⁵²⁾

4.4.3 又作

4.4.3.1 又作某

이 역시 標題字의 이체자형을 제시할 때 쓰는 체례이다.

51)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642쪽 재인용.

52) 《釋文》暈, 本又作輝. 亦作運. (徐中舒 편, 《漢語大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642쪽 재인용.)

𧰨, 都礼反. 又作𧰨. 抵也. 角觸也. 《新撰字鏡 卷5 牛部》

‘𧰨’자는 ‘抵’의 俗字이다. ‘抵’는 《說文》에서 ‘들이받다. 牛部를 따르고 氏를 소리부로 한다(觸也. 从牛氏聲)’로 풀이하고 있다. 《段注》는 角部에서 ‘觸은 ‘抵(들이받는다)’라는 뜻이다. 抵와 𧰨로 쓰기도 한다(角部曰, 觸, 抵也. 亦作抵𧰨)’고 설명하였다. 즉 ‘抵’와 ‘𧰨’는 ‘觸’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康熙字典》에 따르면 ‘𧰨’는 ‘抵’와 같다고 했다.⁵³⁾ ‘抵’와 ‘𧰨’는 둘 다 ‘뿔로 무언가를 들이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음도 같다. 다만 들이받는 주체인 소(牛)와 직접 들이받는 부위인 뿔(角)이 상호 대체되었다고 본다면, 이 두 글자는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4.4.3.2 又作+異體字形+同/又作+異體字形+글자수+形/又作+異體字形+글자수+同

이 역시 標題字를 나열한 후 그 수량을 밝히고 모두 동일한 글자임을 알리는 형식이다.

躓, 又作顛越二形. 丁賢反. 眞倒也. 《新撰字鏡 卷1 足部》

《說文》에서 ‘躓’은 ‘밟다. 足部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跋也. 从足眞聲)’고 해설한다. 이에 《段注》는 ‘跋也. 《左傳》의 “子都가 아래에서 활을 쏘아 그것을 고꾸라뜨렸다”처럼 경전에서 주로 顛字로 가차된다(跋也, 經傳多段借顛字爲之. 如左傳子都自下射之顛是也)’고 설명했다.⁵⁴⁾ 따라서 《新撰字鏡》주석의 ‘躓’은 ‘밟다’의 의미가 아니라 ‘顛(넘어지다)’로 가차된 의미로 쓰였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集韻》의 ‘顛’ 해설에서 ‘顛’은 ‘眞, 躓과 같다.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다(《集韻》

53) 《廣韻》都禮切《集韻》《正韻》典禮切, 音邸. 與抵同. 觸也. 《韓愈·進學解》𧰨排異端.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點,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1373쪽.)

54)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83쪽 인용.

顛, 與眞蹟同. 蹟也)’고 한 부분과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간다. 한편 ‘趙’자는 《說文》에서 ‘走頓이다. 走부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 顛과 같이 읽는다(走頓也. 从走眞聲. 讀若顛)’고 하였고, 《段注》에서는 ‘足部에서蹟이 跋이라고 하였다. 이와 음과 뜻이 같다. 走부를 따르고 眞을 소리부로 한다(足部曰, 蹟, 跋也. 此與音義同. 从走, 眞聲. 讀若顛)’고 했다. 일반적으로 ‘讀若’는 그 뒤의 글자와 같이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走頓’이란 바로 ‘顛(넘어지다)’을 뜻한다. 즉 ‘蹟’자가 ‘顛’으로 가차되어 쓰인 것과 같이 ‘趙’ 역시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蹟’과 ‘趙’이 이체자 형성과정에서 자주 호환되는 足부와 走부의 글자라는 점에서 두 글자가 이체자라는 것을 더 확연하게 알 수 있다.

4.4.3.3 又作某同

秬, 又作𪎭同. 气音. 堅米也. 謂米之堅梗春擣不破者也. 《新撰字鏡 卷8 禾部》

秬는 《說文》에서 ‘稻이다. 禾부를 따르고 气를 소리부로 한다(秬, 稻也. 从禾气聲)’라고 하였다. ‘稻’에 대해 《說文》에서는 ‘春粟不潰也’라고 했는데, 《集韻》⁵⁵⁾같은 후세의 자서와 《段注》에서는 이를 ‘春粟不潰也’, 즉 ‘쪄어도 물러지지 않는 곡식’으로 고쳤다. 한편 ‘𪎭’자는 《說文》에서 ‘𪎭은 堅麥을 이른다. 麥부를 따르고 气를 소리부로 한다(𪎭, 堅麥也. 从麥气聲)’고 하였다. 《段注》에서는 ‘堅麥이란 보리 중 단단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史記》와 《漢書》에 나오는 ‘역시 糠覈이나 먹을 따름이다’라는 구절에서 孟康은 覈이 바로 맥강 중에서 빵아지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謂麥之堅者也. 史漢皆云, 亦食糠覈耳. 孟康曰. 覈, 麥糠中不破者也)⁵⁶⁾고 설명하고 있다. 즉 ‘堅麥’이란 빵아지지 않은 곡식(보리)를 말한다. 의미적으로 볼 때 ‘秬’과 ‘𪎭’은 서로 통한다. 《字彙》에서 ‘秬’를 ‘秬’의 訛變字라고 하였고, 《集韻》에서는 이를

55)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3299.htm>에서 재인용.

56)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231쪽 인용.

‘거친 부스러기이다.麥을 따르기도 한다(麤屑也. 或从麥)’고 풀이하고 있는데⁵⁷⁾, 바로 ‘𪎭’의 이체자라고 볼 수 있다. 즉 ‘𪎭’자는 ‘𪎭’의 본자이고, ‘𪎭’의 이체자다. 이 때문에 《康熙字典》에서 《韓愈詩》‘선비를 거친 밥을 저어하지 않는다(士不厭糠𪎭)’의 ‘𪎭’을 ‘𪎭’로 쓰기도 한다고 풀이하였다.⁵⁸⁾

4.5 正作/俗作

《新撰字鏡》의 주석에서 이체자를 제시하고 각 글자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모두 주지하고 있는 바일 것이다. 이체자 역시 세분하면 더 많은 속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新撰字鏡》이 찬술될 때 중요저본으로 삼았던 《干祿字書》와 《正命要錄》을 활용해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여 두 자형의 차이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널리 통용되던 俗字의 실용성과 正字의 嚴正性 및 正統性을 동시에 중시하였다. ‘正作’은 《新撰字鏡》이 正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正作’, 즉 正字로 쓰인 글자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책은 승려였던 저자가 스스로 경전을 읽고 수도할 때 실용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당시 통용되고 있던 자형을 최대한 많이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新撰字鏡》은 이미 중국 俗字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므로, 아예 이체자형을 모아 標題字로 삼거나 주석으로 俗字라고 밝히지 않은 곳에서도 수많은 俗字가 전문에 걸쳐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후자의 예는 후속 연구과제인 《新撰字鏡》의 用字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新撰字鏡》에서 正字와 俗字로 규정짓는 체례와 그 실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5.1 正作/正字

57)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983-984쪽.)

58)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勘,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년), 1864쪽.)

4.5.1.1 正作

《新撰字鏡》이 正字를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正作’, 즉 正字로 쓰인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若, 而灼反. 入. 訓也. 汝也. 如也. 儻也. **若, 正作.** 當也. 猶也. 《新撰字鏡 卷2 口部》.

《說文》에 따르면, 若은 ‘푸성귀를 고른다(擇菜)’는 뜻이며, 艸와 右를 의미부로(若, 擇菜也. 从艸右)’하는 글자이다. 隸變을 거치면서 이 ‘艸’는 점차 ‘艸’로 변해갔고, 여기에서 다시 더 간략하게 ‘ㄹ’로 변했다. 이에 따라 ‘若’의 자형도 若(孔龢碑)에서 若(鄱閣頌化流若碑)로 변천했다.⁵⁹⁾ 이에 《干祿字書》에서 ‘ㄹ은 통용되는 글자고, 若은 正字(必若, 上通下正)’라고 규정하였다.

4.5.1.2 正字

이는 모 글자를 다른 글자의 正字라고 설명하는 형식이다.

𢓐, **躬字正字.** 《新撰字鏡 卷2 身部》

‘𢓐’은 ‘躬’의 이체자이다. 《說文》에 보면 ‘躬은 몸이다. 身과 呂를 의미부로 한다. 躬처럼 躬가 弓을 따르기도 한다(躬, 身也. 从身从呂. 躬, 躬或从弓)’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躬’은 ‘𢓐’의 이체자가 된다. 《五經文字》에는 정확히 ‘躬를 躬의 俗字이며 경전에서 통용하고 있다(躬, 俗躬字. 今經典通用)’고 규정짓고 있다.

4.5.2 俗作/俗作某

59)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50.htm> 에서 재인용.

《新撰字鏡》이 俗字로 표시하는 용어로 해당 글자가 ‘俗正’, 즉 俗字로 쓰인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4.5.2.1 俗作

稍, 所角反. 鋒也. 長一丈八尺. 槩, 上俗作. 《新撰字鏡 卷10 矛部》

槩는 《說文》에서 ‘창이다. 木부를 따르고 朔을 소리부로 한다(矛也. 从木朔聲)’고 하였다.⁶⁰⁾ 또 《釋名》은 ‘稍’을 ‘길이 팔 척 되는 창을 稍이라고 한다(矛長八尺曰稍)’고 하였다.⁶¹⁾ 《廣韻》은 ‘稍의 음을 所角切이라 했고, 창 의 한 종류다. 《通俗文》에서 길이 팔 척 되는 창을 일컬어 稍이라고 했고, 槩는 위(稍)와 같다.(矛屬. 《通俗文》曰, 矛丈八者之謂之稍. 槩, 同上.)’고 했고, 《集韻》에서도 그 음을 ‘色角切이라고 했고, 稍槩는 長矛이다. 槩이라고도 쓰고, 金부를 따르기도 한다(稍槩, 長矛, 或作槩, 亦從金)’고 하였다.⁶²⁾ 종합하면 ‘槩’과 ‘稍’은 이체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新撰字鏡》의 말처럼 ‘槩’이 ‘稍’의 俗字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 이체자는 한 글자의 여러 가지 자형(음과 뜻이 같은)을 일컫는 말이라서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지만 俗字는 正字와 상대되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는 자형을 말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正俗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5.2.2 俗作某

俗字로 某 자형을 취함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60) 許慎 著, 臧克和·王平 校,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年, 396쪽.

61) 陳廷敬·張玉書 著, 王宏源 校, 《康熙字典》(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948쪽.)

62)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b/frb/frb01809.htm에서 재인용.

叨, 他榮吐高二反. 平. 食也. 殘也. 貪也. 俗作饕.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에서는 ‘叨’를 ‘饕’의 正字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는 정속관계가 뒤바뀐 것이다. 《說文》‘饕’의 풀이를 보면, ‘먹다. 食部를 따르고 號를 성부로 한다. 叨는 饕의 或體로 口부를 따르고 刀를 성부로 한다(貪也. 从食號聲. 叨, 饕或从口刀聲)’고 하였다. 즉 ‘叨’는 ‘饕’의 이체자이다. 이에 《段注》에서는 이 글자를 ‘饕의 俗字며, 俗字에서는 饕와 구별하여 달리 사용하고 있다(俗饕. 从口, 刀聲. 今俗與饕分別異用)’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叨’가 ‘饕’의 俗字라고 정정해야 할 것이다.

4.5.3 正俗區分

《新撰字鏡》은 《干祿字書》나 《正命要錄》같은 자양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체자를 나열하고 그간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은 이미 자양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正字와 俗字를 구별하고, 기술했다는 점이다.

《新撰字鏡》은 실제로 《干祿字書》에서 제창한 俗·通·正의 三體 개념을 적용하여 글자의 정속관계를 파악하였다. 顏元孫은 《干祿字書》에서 한자를 俗·通·正 세 가지로 분류하며, ‘俗은 장부·문서·계약서·약방문 등에서 볼 수 있는 글자체로, 雅言이라고는 없어 써도 개운하지 않다. 通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上疏나, 牋啟·尺牘·判狀 등에 써도 저급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다. 正은 그 자형근거가 명백하니 저술이나, 문장·對策·碑碣 등에 써도 좋을 만한 것이다(所謂俗者, 例借淺近, 唯籍帳, 文案, 券契. 藥方非涉雅言, 用亦無爽……所謂通者, 相承久遠, 可以施表奏, 牋啟, 尺牘, 判狀, 固免詆訶. 所謂正者, 並有憑據, 可以施著述, 文章, 對策, 碑碣, 將為允當)’라고 설명했다.⁶³⁾ 본 소절에서는 《新撰字鏡》에서 이 개념을 적용하여 正俗을 분별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4.5.3.1 俗作, 正作

𠂔 𠂔召, 上俗作, 二正作.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의 기술에 따르면 이 세 글자 중 ‘𠂔’는 俗字이고, ‘𠂔’·‘𠂔’는 正字이다. 《說文》은 ‘𠂔’를 ‘부르다. 口부를 따르고 刀를 소리부로 한다(呼也. 从口刀聲)’고 하였다. 우선 ‘𠂔’ 자형은 ‘𠂔’의 ‘刀’가 두 획으로 줄어 나타난 省體 이체자이다. ‘𠂔’는 ‘刀’의 고문자 자형이 보존되어 내려온 이체자로 보인다. 𠂔(大徐本 說文解字)나 𠂔(魯峻碑)의 자형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⁶⁴⁾ ‘𠂔’는 俗字로 보아도 될 것 같으나, 《干祿字書》에서는 위의 글자는 俗字, 중간 글자와 아래 글자는 正字(上俗中下正)’라고 하였다. 《新撰字鏡》도 이를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4.5.3.2 上通, 下正

若 𠂔, 上通, 下正. 《新撰字鏡 卷2 口部》

《新撰字鏡》이 ‘若’과 ‘𠂔’를 上通과 下正으로 구분한 것은 《新撰字鏡》이 가지고 있는 서사 편의 重視의 개념을 잘 나타낸 것이다. 필자가 《新撰字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었던 것이 바로 ‘古’와 ‘右’, 심지어 ‘占’ 자형이 포함된 한자를 서로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新撰字鏡》은 필사본이고 당시 일본의 인쇄술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의 문헌은 거의 손으로 직접 필사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수당시기 중국에서 유학했던 학승들이 문헌을 들여갈 때도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것을 제외하면 거의 필사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민간 俗字가 다량으로 일본에 유입되었고, 그 영향이 《新撰字鏡》은 물론 지금의 일본 한자에까지

63)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1쪽.

64)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0484.htm>에서 자형 인용.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 ‘古’와 ‘右’의 문제로 돌아가자. 필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사의 속도와 수고를 줄이는 것이다. 중국의 俗字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도 필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玉篇》이나 《集韻》의 ‘古’자를 보면  (《玉篇》)나  (《集韻》)⁶⁵⁾와 같이 두 번째 획인 ‘丨’이 약간씩 왼쪽으로 빠져있다. 똑바로 내려 긋는 것보다 사선으로 빠져 쓰는 것이 더 쉽고 다음으로 쓸 ‘口’자의 첫 획인 ‘丨’을 쓰기에도 빠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新撰字鏡》에서는 거의 ‘口’자의 밖으로 나갈 정도로 빠침을 길게 쓰고, 반대로 ‘右’자를 쓸 때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口’자와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빼치고 만다. 결과적으로 필사된 ‘口’와 ‘右’는 거의 차이가 없게 되고 상하문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판단해야만 하는 부정확성이 생기게 되었다. 즉 속자자형인 ‘若’이 정자인 ‘苦’를 대신하여 널리 통용되고만 것이다. 이에 저자는 《干祿字書》의 俗·通·正 三體의 개념을 차용하여 ‘若’을 ‘苦’의 통용자로, ‘苦’를 ‘若’의 正字로 규정하였다.

4.5.3.3 通作

‘通作’은 안원손의 ‘通’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 ‘通’은 사실 ‘俗’과 큰 차이가 없다. 그저 俗字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전해 내려온 시간이 길 뿐, 바꾸어 말하면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俗字라고 보면 된다.⁶⁶⁾

𨾏, 他眼反. 踐遽也. 𨾏字.

𨾏, 上通作. 《新撰字鏡 卷2 足部》

‘𨾏’는 《說文》에서 ‘밟은 곳이다. 足部를 따르고 斷의 생략형을 소리부로 한다(踐處也. 从足, 斷省聲)’고 하였다. 《集韻》에 따르면 ‘杜管切’, 斷음이라고 하였다. 이 글자는 ‘足’과 ‘斷’의 생략형 ‘𨾏’으로 이루어

65)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yitia/fra/fra03448.htm>에서 자형 인용.

66)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1쪽.

졌다. 이 ‘𨾏’형은 ‘繼’의 간화 속자 ‘繼’에도 나타나며, 현재 ‘𨾏’의 간체자로 정착되었다. 《新撰字鏡》에서도 이 간화형태가 나타나는데, ‘迷’의 형태로 약간 변형되어 있다. ‘𨾏’자는 중국의 俗字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足’과 ‘𨾏’의 간화 형태가 결합된 간화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新撰字鏡》은 ‘𨾏’가 ‘𨾏’의 통용되는 자형(通作)이라고 하였다.

4.6 기타 체례

지금까지 《新撰字鏡》에서 正字와 俗字, 古文과 今文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체례들을 알아보았다. 앞에서 든 예들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형식이고 《新撰字鏡》주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니만큼 《新撰字鏡》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이 책을 이용하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사실들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체례 설명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형식들이 있고, 편폭의 제한으로 다음 연구에서나 제대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古文’·‘古文作’·‘古作’ 등의 용어로 고문 자형을 제시하고 그 속성을 밝힌 예나 (2)‘今為某’·‘今為某字’·‘今作某’·‘今作某字’ 등의 형식과 (3)‘古作某, 今作某’·‘上古作, 下今作’·‘古文作某, 今作某’·‘古文(作)某某(글자수+形), 今作某’·‘某上古文, 今作某’ 등으로 古今字의 관계를 밝히는 형식 등이다.⁶⁷⁾

4.6.1 古文 자형을 제시하고 속성을 밝힌 예

- 晄晃, 二字同作. 古文亦作熿煌. 同胡廣反. 明也, 暉也, 光也, 光明也, 曜也, 照也.
- 𠂔𠂔𠂔𠂔[天], 四字皆天古文.
- 𠂔, 渠基反. 期古文.
- 股, 古文骹. 公戶若二反. 上. 固也. 為強固也. 倭古於反. 字豆毛毛.
- 𠂔𠂔, 二同. 古證反. 古文孕字, 懷字.

67) 본 소절에서는 편폭의 제한으로 이러한 체례들의 예들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新撰字鏡》의 古文과 古今字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 𡗗, 齒赤反. 古文赤字.
- 固, 古文作𡗗. 古口. 堅也. 文也. 必也. 故也.
- 軌, 記洧反. 車之轍也. 法跡也. 恣, 上同. 古文作𡗗. 居美反.
- 聳, 古文作𡗗. 所頃湏奉二反. 聳也. 竦也. 上也. 跳也. 欲也. 高也. 曾比介.
- 糴, 古文作𡗗. 拏救反. 飴, 雜也. 糴, 雜飯也.
- 𡗗, 啓字古文. 苦禮反. 開也. 踞也. 闕字. 同刻也. 發也. 跪也. 小踞也.
- 鍼, 支湛反. 平. 刺也. 鍾也. 諫也. 針也. 針箴. 箴綴衣也. 教也. 戒也. 針箴二字古作.
- 話, 古作𡗗. 胡快反. 諠譁也. 善言也. 調也. 訛也.
- 酷, 古作𡗗. 口木反. 急也. 極也. 熟也. 酒味. 加良志.

4.6.2 今字를 제시하여 古今字 關係를 밝힌 예

- 莫, 正芒昨反. 入. 弗也. 元也. 莫莫為也. 散也. 莫府也. 大也. 冢布也. 也古作𡗗. 借亡故反. 去. 菜也. 說景宜也. 冥也. 今為暮字.
- 憊, 今作脅. 虛業反. 怯也. 於比也. 須.

4.6.3 今字와 古字를 같이 제시하여 古今字 關係를 밝힌 예

- 𡗗, 上古文𡗗. 今作阿字. 烏可反. 下乃可反. 柔弱兒. 亦草木盛也.
- 𡗗, 古作𡗗. 今作冤. 於元反. 上. 亦作統. 屈也. 枉也.
- 无無, 同字. 平. 非有也. 上古作, 下今作. 間也. 言也. 母字.
- 預, 古文作𡗗. 今作豫. 余據反. 安也. 先弁也. 入也. 開也. 脩也. 早也. 交也. 怠也.
- 𡗗, 古文𡗗. 今作𡗗. 又作𡗗. 食而反.
- 𡗗, 遺上古文. 今作𡗗. 徒木反. 相狎習謂之𡗗. 𡗗者志比止女.

5. 나오면서

이상 《新撰字鏡》의 주석 체례와 그것이 제시하는 자형정보의 실재를 알아보았다. 《新撰字鏡》의 저자 창주는 이 책이 독자의 한자 해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마음에서인지 다양한 자형을 수록하

고 각 자형간의 관계를 다양한 용어와 체례로 정리하였다. 실제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 번째 《新撰字鏡》은 책의 체례와 주석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 면에서 字樣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新撰字鏡》이 가지고 있는 이체자 자료가 대단히 풍부하고 자형의 근거도 탄탄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新撰字鏡》의 用字 연구를 통해 이체 유형이나 자형의 근거 등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보겠지만, 부수를 정하고 귀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자 창주의 한자학적 소양이 그리 깊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許 慎 著, 臧克和·王平 校點, 《說文解字新訂》, 北京:中華書局, 2002年
徐中舒 主編, 《漢語大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湖南辭書出版社, 1993年
中華民國教育部異體字字典, <http://dict.variants.moe.edu.tw>
顧野王, 《原本玉篇殘卷》, 北京: 中華書局, 2004年
顏元孫, 《干祿字書》(《字典彙編》편위원회 편집, 《字典彙編》), 서울: 國際文化出版公司, 1996年
陳廷敬·張玉書 지음, 王宏源 校點, 《康熙字典》,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年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年
吳任臣, 《字彙補》,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1年
張涌泉, 《漢語俗字研究(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年
張書巖 主編, 《異體字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7年
張 磊, 《新撰字鏡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年

〈中文提要〉

《新撰字鏡》為一部日本의 古辭書, 此書一本均保有有字書·韻書·類

書的特徵，於是具有非常獨特的體例。而且此書本身就是俗體的寶藏，因為作者會集了《玉篇》·《一切經音義》·《切韻》·《干祿字書》·《正命要錄》以及當時在日本文人的文獻力的漢字，並按照自己的原則類聚大量的異體字，附加適當的註釋。

《新撰字鏡》的體例受到《干祿字書》之類字樣書的影響，有關異體字均集中排列在一處當字頭，其下用‘形“形作’，‘同作’，‘同’；若干形同‘等的術語，解釋其字形之間的關係，在下列了字釋和其他信息。“如茈苳，二形七矢反。上。生山，其味甚苦，人能食尔，古多。又云加乃尔介。”，淩淩淩，三形作。正所牛反。平。”，”筭筭筭，三同。楚尤反。平。筭酒。或作替。”等。

第二個特徵就是，字頭之間活躍性相對來強，上下字頭緊緊聯繫的情況頗多。比如‘上個字頭是正字，下面的字頭就是俗字，再下面的字就是其古文’之類的例子不難查到。更顯著的用‘上’‘上字’‘上同作’，‘上古文’等的定形術語來說明字頭間的關係。如：“年，奴田反。平。牽季，二上同字。”，“河，故歌反。水名，出稽山；𣶒，上字。”，𣶒，除殄反。止也。履也。趁也；𣶒，上正作。”，“諄，上字俗作。”，“曝，補木反。入。日乾也。曬；𣶒，上古文。”

最後就是在陳述的註釋裏面，提示字頭的不同屬性的異體字，如正字，俗字，古字，今字等。並且用‘上通下正’，‘上俗下正’等的格式闡明某字的正俗辨認。如：“譌，葛羅反。歌哥二字同。”，“躁，祖到反。躁趯二形同。不安靜也。”，“譌，笱張流二反。平。狂也。相欺惑也。疇同作。”，“𣶒，鞞鞞鼓三形同作。徒刀反。跳如鼓而小，持其柄搖擗之者也。”，“防，坊字同。扶方反。徧也。當也。”，“氣，亦作炁。去既反。去。鬱也。息也。”，“憊，亦作癡𣶒二形。于劇魚祭二反。眠內不覺。妄言也。”，“𣶒 去玄反。麥莖也。稟也。或作稊。”，“𣶒，都礼反。又作𣶒。抵也。角觸也。”，“𣶒，又作𣶒𣶒二形。”，“𣶒，躬字正字。”，“稍，所角反。鉞也。長一丈八尺。𣶒，上俗作。”，“叨，他榮吐高二反。平。食也。殘也。貪也。俗作𣶒。”，“𣶒召召，上俗作，二正作。”，“若苦，上通，下正。”，“𣶒，上通作。”

關鍵詞：新撰字鏡 新撰字鏡註釋體例 異體字 正字 俗字
正作 通作 俗作

72 · 中國學 第45輯(2013.8)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한·중 의태어 어순 비교 연구

--한국의 AXBX형과 중국의 XAXB형을 중심으로

손해서* · 채영희**

〈목 차〉

- I. 서 론
- II. 의태어의 개념과 종류
 - 1. 한중 의태어 개념
 - 2. 한중 의태어 종류
- III. 한국 AXBX의태어와 중국 XAXB의태어 어순
 - 1. 음운론적 구조
 - 2. 어휘론적 구조
 - 3. 한중 의태어의 이동
 - 4. 한중 의태어의 관계
- IV. 결 론

I. 서 론

언어는 의미와 형식을 지닌 기호이다. 모든 언어가 자의적이라는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모국어 화자에게 의성어와 의태어는 의미와 형태의 유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 어휘는 한자어가 69.32%를 차지하고 있고, 외래어가 6.28% 차지하고 있으며, 고유어가 24.4%정도라고 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 중 25% 정도만이 고유어인데 그 중 의성어와 의태어가 고유어 영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채완(2003)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자어에 빼앗기지 않은 고유어의 마지막을 영토이면서 국어 어휘의 특징적인 면을 여러 가지로 보여 주는 소중한 어휘재”라고 했다. 의태어는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어느 나라 언어에서도 흔히 쓰이는 것이며 언어의 생동감, 미감, 직관성 등을 나타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구어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언어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많이 쓰인다. 의성어는 실제의 소리를 모방하여 언어화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과 실제 소리 간에 필연적인 유연성(有緣性)을 지닌다.

언어의 표현 효과를 강화하고 사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의태어가 많이 사용된다. 의태어를 통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사물의 형태를 간단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의태어를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있어 세밀한 느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 (1) ㄱ. 그는 슬금슬금 접근하고 있다.
 ㄴ. 그는 접근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은 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접근한다는 의미이다. (1, ㄱ)에서는 의태어 ‘슬금슬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1, ㄴ)보다 사람의 동작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느낌을 준다. 중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2) ㄱ. 他大搖大擺地朝我們走過來.(그는 우리 쪽으로 건들건들 걸어왔다.)
 ㄴ. 他朝我們走過來.(그는 우리 쪽에 걸어왔다.)

이 두 문장 다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 문장들이다. (2, ㄱ)는 의태어를 통해 사람의 걷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의태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자기의 감정을 잘 전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청자는 의태어가 있는 문장에서 상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의태어를 잘 구사할 경우 언어 표현 실력을 더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성 의태어가 韓·中 언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국에서는 의성 의태어의 형태 음운론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의태어가 반복을 통해 형태를 확장해온 사실이 주목 받고 있다.(손달임:2012:2) 그러나 중국어는 의태어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관련 연구가 한국처럼 발달하지 않고 최근예야 비교언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의태어라는 개념을 쓰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韓·中 언어 교류의 영향을 받아 韓·中 의태어에 관련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이러한 자료들에서는 의태어와 의성어를 함께 다루거나 음운, 의미, 형태,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 많다. 어순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다 문장 구성의 순서로 진행한 것이 많고 단어의 어순 및 의태어에 대한 비교 연구는 거의 없다. 蘇聰¹⁾(2012)에서는 한국어 중성의 원리에 의거하여 중국 의태어 성조 어감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편이다. 韓·中 두 언어는 계통을 달리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韓·中 어느 한 언어 원리를 기준으로 공통점을 찾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제2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 의성, 의태어를 잘 구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의성 의태어는 어휘 자체의 어순이 복잡해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싱글빙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성 의태어를 접촉한 외국인이 ‘빙글싱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싱글빙글’이라는 단어 있지만 ‘빙글싱글’이라는 단어가 없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이다. 앞에 예문에 나오던 ‘大搖大擺’를 잘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大擺大搖’라는 어휘가 없다.

한국에서 ‘AXBX’과 같이 어순이 고정된 의태어가 많고 중국에서도 ‘XAXB’처럼 어순을 도치할 수 없는 의태어가 있다. 어순이란 것은 주로 언어 습관에 의거하고 있지만 전체 어휘를 분석하면 언어 규칙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기술의 편의를 위해 한국의 ‘싱글빙글’과 중국의 ‘大搖擺’ 각자 ‘AXBX’와 ‘XAXB’로 표시할 것이

1) 蘇聰, 〈韓中擬聲擬態詞對比研究〉 중국 青島大學 석사논문, 2012年, 26쪽.

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韓·中 두 언어의 다름을 고려하여 의태어의 어순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채완(2003)에 나타난 AXBX식 의태어 102개와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1983)에 수록된 ‘不B不C’, ‘有B有C’, ‘大B大C’ 등 종류의 ABAC식 형용사²⁾ 52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한·중 의태어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어 AXBX형과 중국어 ABAC형 의태어의 어순은 고정화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AXBX형 의태어를 CBAB형으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중국어 ABAC형 의태어 또한 ACAB형으로 바꿀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이 글에서는 한중 두 언어 의태어 어휘 중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형태를 반복하는 경우와 음운의 일부 요소를 변형하여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비교를 해볼 것이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의태어와 같이 AXBX형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에서 ‘有一得一(yǒuyīdéyī)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있는 그대로’라는 단어의 경우나 사람들이 자주 쓰던 ‘有一說一, 有二說二(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말이 다 이런 형식이다. 여기서 ‘有’, ‘得’, ‘說’ 다 동사이고 대명사 ‘一’, ‘二’하고 ‘술목’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인 면에서 ‘有’와 ‘得’ 및 ‘有’와 ‘說’은 선후 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AXBX식 어휘들이 보통 의태어와 같은 기능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XAXB식 의태어만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II. 의태어 개념과 종류

1. 한중 의태어의 개념

의태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 어 ‘onomatopoe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물이나 행동의 형태를 모방 표현한다는 말이다. 오노마토어는 그리스어의 ‘이름(onomat)’과 ‘만들다(opoeia)’가 결합된 형태로, 인구에

2) 중국에서는 의태어가 보통 형용사에 속하기로 정하고 상관 연구들이 다 형용사의 입장에서 진행한다.

에서는 주로 실제 세계의 소리를 따라 만든 낱말을 의미한다(강인선, 1993:5) 그런데 영어권 사전의 경우 의성어에 대한 설명만이 있을 뿐 의태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흔히 의성어와 의태어를 함께 다루는데 ‘의성어, 의태어’ 이외에 ‘음성상징어, 흉내말³⁾, 시늉말, 상징어, 상징부사’ 등의 용어로 불리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도 의성어와 의태어를 정의에 있어 ‘모방, 시늉, 흉내, 상징, 본뜨다’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쓰인다.

《새 우리말 큰 사전》(1986)에서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이나 대도, 행동 등의 양태를 묘사한 말로 ‘꼬불꼬불, 아장아장, 허위적 허위적’ 등을 ‘짓시늉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윤희원(1993:14)은 “의태어란 시각 영상을 청각 영상으로, 그리고 그 청각 영상을 분절음으로 바꾸어 나타냄으로써 만들어진 낱말”이라고 했다. 박동근(1997:4)은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된 ‘소리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신중진(1998:8)은 “의성의태어는 소리나 모양을 언어형식으로 본떠서 표현화된 것으로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속하는 일정 부류의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도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뉘앙스 차이만 갖는 자립 어휘소이다.”라고 하였으며, 채완(2003:17-22)은 “의태어도 일반 상대성 어휘와 마찬가지로 그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며, 음성과 의미의 자의

3) 흉내말은 자연계의 소리를 그와 유사한 음성으로 모방하여 관습화된 ‘소리흉내말’과 소리 이외의 모양이나 상태를 특정한 음운으로 모방했거나, 모방했다고 인식되는 ‘모양흉내말’을 두루 일컫는 국어의 특수한 낱말군이다.

4) 안인숙, 〈의성어 의태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p.56 참조.

《우리말 큰 사전》(1992)에서는 “의태어란 사물이 움직이는 것이나 모양을 흉내 내어 하는 말로 ‘간들간들’, ‘꼬불꼬불’ 따위를 이른다.”

《국어학 언어학 용어 사전》(1994)에서 의태어는 사물의 동작이나 모양을 음성 연속을 빌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을 이른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는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이다.”

《연세한국어사전》(1999)은 “의태어는 ‘방울방울’, ‘꾸벅꾸벅’ 따위와 같이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내어 만든 말이다.”

적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였다. 안인숙(2007)은 “의태어는 청각이외의 감각정보를 언어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분절로 바꾸는 낱말군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의태어에 대해 정의한 바를 정리하면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경우는 중국에 있는 사전이나 번역 자료에서 의성어는 ‘擬聲詞’ 혹은 ‘象聲詞’라고 번역해서 한국어 의성어와 대응관계가 있다. 한국어 의태어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象形詞’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어에는 ‘象形詞’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⁵⁾. 또한 한국어 의태어를 그대로 번역한 중국어는 擬態語이며 擬態語라는 용어는 한·중 의태어 대조나 중·일 의태어 대조에 관한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어 사전이나 논저에서 찾지 못했다. 한국어 의태어의 기능과 대응하는 어휘는 보통 중국어에서 형용사와 성어(成語)로 사용하고 있다. 《現代漢語》(2002)에는 형용사는 성질과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라고 하고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이고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는 상태형용사라고 한다. 朱德熙(1956, 1982)에는 현대 중국어 형용사는 간단한 형식과 복잡한 형식을 나눈다. 간단한 형식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이고 복잡한 형식형용사는 상태형용사라고 한다. 의미면에서 볼 때, 성질형용사는 단순히 사물 속성을 표시하고, 상태형용사는 사물에 대하여 명백한 묘사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상태형용사를 제의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다. 耿二嶺(1986)에서 중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품사 종류에 대해 의태어는 형용사에 속하고 의성어는 부사, 형용사, 감탄사, 그리고 따로 나뉘야 되는 특수사류(特殊詞類)에 속한다고 보았다. 黃萱(1990)에서는 한국어 의태어와 대응할 수 있는 용어로 묘사라는 단어를 제시하였다. 그 표현 대상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5) 《現代漢語詞典》(1983): 象形詞是模倣人或事物的動作和狀態的詞. 如: 亮晶晶, 笑呵呵(상형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과 상태를 모방하는 말로 정의하고 반짝반짝, 싱글벙글 등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成語是人們長期以來習用的, 形式簡潔而意思精辟的, 定型的詞組或短語. 漢語的成語大多由四個字組成, 一般都有出處(성어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습에 따라 사용해온 것이다. 형식은 간결하나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반영하고 있는 정형화된 구이며, 중국어 성어는 일반적으로 4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출처가 있다.)

촉각 등으로 세분화한다. 劉月華·潘文娛·故韋華(2005)에서 중국어의 형용사는 성질형용사와 상태형용사로 나눈다. 상태형용사는 사물의 양태를 표현하며 묘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중첩형용사는 상태형용사의 구성형식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趙惠(2006)에서는 생동형용사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는데 현대 중국어의 생동 형용사는 글자 중첩, 접미사 등의 방식으로 실현되며 이런 형용사가 더 생동적으로 사물을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 張婷(2008)에서는 의태어를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물의 형태나 모습을 묘사하는 말로 정의하였다.

이상 韓·中 의태어 개념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는 의태어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 정의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어의 의태어는 상태형용사로 분류되고 연구나 정의가 한국의 경우보다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한 중 두 나라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개념이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을 묘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 글에서는 한중 두 어휘 중 용어를 통일하여 의태어로 하기로 한다. 아주 가끔 한국어에서는 의성어를 의태어로 겸용한 것이 있다.

- (3) ㄱ. 물이 줄줄 흐른다.
 ㄴ. 말이 줄줄 나온다.

(3, ㄱ)에서는 ‘줄줄’을 의성어로 볼 수 있지만 (3, ㄴ)에서는 의태어이다. 한국어에 이러한 사물 사이에 비슷함을 이용하여 의성어를 의태어로 사용한 경우 흔히 보인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2. 한·중 의태어의 종류

가. 음운적

한국어 표음문자로서 음절이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며 모음은 양성모음과 음성 두 가지 있고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눌 수 있다. 모음은 일반적으로 양성모음(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과 음성모음(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양성모음

과 음성모음에 따라 어감과 의미가 달라진다. 양성모음에 의해 밝음, 가벼움, 작음, 예리함, 옅음, 빠름, 강함, 맑음의 어감을 주는 가하면, 음성모음에 따라 어두움, 무거움, 큼, 둔함, 두터움, 더딤, 약함, 탁함의 어감을 느끼게 한다⁶⁾.

- (4) ㄱ. 그 아이는 겨우 한 돌이면서 온 테를 아장아장 걸어 다닌다.
 ㄴ. 그 사람은 어정어정 걸어온다.

(4)에 나온 ‘아장아장’이 사전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찬찬히 걷는 모양’라고 ‘어정어정’은 반대로 ‘키가 큰 사람이나 짐승이 이리저리 천천히 걷는 모양’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런 뜻풀이는 양성모음보다 음성모음이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 (5) ㄱ. 綠油油的麥苗(싱싱한 초록빛 싹)
 ㄴ. 綠茵茵的草坪(파릇파릇한 잔디밭)

(5)에 나온 ‘綠油油(lǜyóuyóu)’와 ‘綠茵茵(lǜyīnyīn)’이 다 녹색을 표시하고 전자가 후자보다 ‘빛이 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더 생기 찬 느낌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어도 한국어처럼 모음(운모) 변화에 의해 어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綠幽幽(lǜyōu yōu)’는 ‘綠油油’와 같은 발음이지만 ‘綠幽幽’는 밤에 동물들의 분 혹은 도깨비불 같은 사물을 묘사한다. 따라서 중국어는 고립어이어서 의태어의 표시가 근본적으로 어소가 결정하고 한국만큼 음운적으로 어감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 통사적

한·중 의태어가 통사적 측면에 보면 다 부사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의태어+동사’의 형식으로 동사를 수식하고 중국어 의태어는 직접 동사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때로 ‘의태어+地+동사’의 형식으로 사용한다.

6) 정인승, 《모음상태법칙과 자음가세법칙》, 한글6-9, 동권60. 1938. 참고

- (6) ㄱ. 그는 허둥지둥 도망쳤다.
 ㄴ. 他連滾帶爬(地)逃跑(그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6)에서는 한국어 문장은 ‘의태어+동사’의 순서로 구성하고 의태어 ‘허둥지둥’은 후행하는 동사 ‘도망치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 문장은 ‘의태어+동사’ 혹은 ‘의태어+地+동사’ 두 가지 다 가능하고 ‘連滾帶爬(liángǔndàipá)’은 뒤에 동사 ‘逃跑(도망치다)’를 수식한다.

또한 한·중 의태어는 모두 문장의 관형어가 되고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접미사 ‘-하다, -거리다, -대다, -이다’를 붙이고 관형어 기능을 담당한다. 중국어 의태어는 보조사 ‘的’을 결합하여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

- (7) ㄱ.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다.
 ㄴ. 金燦燦的陽光灑滿大地(금빛 찬란한 햇빛이 온 대지를 비추다)

한·중 의태어가 다 서술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어 의태어는 단독으로 서술어의 자리에 나타날 수도 있고 접미사 ‘-하-’, ‘-거리-’, ‘-이-’와 결합하여 서술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 의태어가 서술어로 사용할 때 보통 뒤에 보조사 ‘的’을 붙인다.

- (8) ㄱ. 이 노래의 곡조는 나긋나긋하다.
 ㄴ. 屋子里亂糟糟的(방안에는 엉망으로 어지럽다)

한·중 의태어의 차이점은 중국어에서는 의태어가 목적어와 보어의 성분으로 기능할 수도 있으나 한국어 의태어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보면, 我喜歡亮晶晶的(나는 반짝반짝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 문장에 의태어 ‘亮晶晶’이 보조사 ‘的’을 붙이고 명사 성분으로 변화하여 목적어가 되었다. 走路慢吞吞的(느릿느릿 길을 걷다)에서는 의태어 ‘慢吞吞’가 동사 ‘走(걷다)’의 보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의태어의 특징 중 하나는 반복형으로 쓰이는 점이다. 중국에 연구를 따르며 많은 학자들은 중첩형용사(重疊形容詞)라는 용어를 많이

쓰이는 것을 보인다. 의태어가 외형상 일반 어휘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반복의 형태로 쓰이는 일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의태어의 경우는 단독으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반복됨으로써 자립성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의태어는 단독형으로 단어가 되는 경우 대부분 자유롭게 반복형을 구성한다⁷⁾.

채완(2003)에서는 반복 기준으로 의태어를 분류하였다. 반복형은 어기 전체가 반복되는가, 어기 일부가 반복되는가에 따라 전체 반복과 부분 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어기의 형태가 그대로인가어기의 일부가 변하여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음반복과 유음반복으로 바꿀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의태어라는 용어가 잘 쓰이지 않는데, 중첩형 형용사라는 개념이 의태어에 해당되고 있다. 중첩형용사의 구성 형태는 주로 AA형, ABB형, AABB형, ABAB형, A里AB형⁸⁾ 등이 있다. 또한 張婷(2008)에서 분석하던 ‘ABAC’형 사자어(사자성어)이라 일컫는 熟語, 固定語⁹⁾는 의태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不干不淨, 有板有眼, 大搖大擺 등 있다.

아래 <표1,2>를 보면 한·중 의태어는 형태로 보아서는 서로가 거의 대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단독형 측면에는 음절수의 차이가 있고 파생형에는 한국의 경우가 종류가 많고 복합형에는 중국의 경우가 한국보다 종류가 많다. 부분반복은 중국의 경우가 많고 한국의 동음반복과 중국의 전체반복이 서로 대응하고 한국의 유음반복과 중국의 추가반복은 두 언어에 모두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제외하면 한·중 의태어가 종류면에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 ‘A+X+AB식’은 중국에만 있는 독특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석하지 않고 남은 ‘X+A+X+B식’과 한국 유음반복 두 가지 의태어의 어순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7) 채완(2003:56),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8) A里AB형은 현대 중국어에서 보통 AB식 형용사의 반복방식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糊塗, 糊里糊塗등.

9) 固定語는 고정된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므로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조어방법으로 분석할 수도 없다.

<표 1> 한국어 의태어 종류와 예문

단독형	1음절	A식: 꼭	
	2음절	AB식: 달짝	
	3음절	ABC식: 꼬부랑	
	4음절	ABCD식: 양가조춤	
반복형	전체반복	동음 반복	AA식: 감감, 슬슬
			ABAB식: 아장아장, 반짝반짝
			ABCABC식: 두리번두리번, 어슬렁어슬렁
		유음 반복	모음교체 ¹⁰⁾ 식: 싱송생송, 비들배들
			자음교체 ¹¹⁾ 식: 울뚝불뚝, 알콩달콩
			음절교체 ¹²⁾ 식: 다짜고짜, 흥청망청
	부분반복	ABCC식: 버지르르, 알금삼삼	
복합형	AB+ CD식: 얼렁뚱땅, 알랑뚱땅		
파생형	AB+ 접미사식: 반짝거리다		

<표 2>중국어 의태어 종류와 예문

단독형	2음절	AB식: 蒼茫(cāngmáng)
	4음절	ABCD식: 稀里糊塗(xīlihútú)
반복형	전체반복	AA식: 翩翩(piānpian)
		AABB식: 花花綠綠(huāhuālǜlǜ)
		ABAB식: 扑棱扑棱(pūlēngpūlēng)
	부분반복	ABB식: 赤裸裸(chīluǒluǒ)
		AAB식: 欣欣然(xīnxīnrán)
		ABCC식: 威風凜凜(wēifēnglǐnlǐn)
		CCAB식: 滔滔不絕(tāotāobùjué)
		ABCB식: 倚老賣老(yǐlǎomàilǎo)
		ABCA식: 微乎其微(wēihūqíwēi)
	추가반복	A+X+AB ¹³ 식: 傻里傻氣(shǎlishǎqi),
		X+A+X+B ¹⁴ 식: 善始善終(shànshǐshànzhōng)
복합형	AA+B식: 團團轉(tuántuánzhuàn)	
	B+AA식: 亮晶晶(liàngjīngjīng)	
	AB+CD식: 酩酊大醉(mǐngdǐngdàzui)	
	AC+BD식: 東拼西湊(dōngpīnxīcòu)	
파생형	A+然식: 欣然(xīnrán)	

한국의 유음반복 의태어는 두 번째와 네 번째에 같은 글자가 나타나

- 10) 한국어 의태어는 모음 교체에 따라 의미와 어감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예: 실룩실룩, 티격태격 등.
- 11) 자음 교체형: 한국어는 자음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대로 변해가며 의미가 강조된다. 예: 울긋불긋, 알쏭달쏭 등
- 12) 음절 교체형: 예를 들어 들락날락, 오락가락, 싱글병글 등
- 13) A+X+AB식 의태어에 'X', 'AB'는 한국어의 'AB+ 접미사'식 의태어의 접미사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14) X+A+X+B식 의태어에 AB가 현대 중국어에서는 한 단어로 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不干不淨에 干淨, 동시 한 단어로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有板有眼的 板眼이다. 그리고 X가 보통 不, 有, 太, 一, 如, 人, 自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 때문에 한국 유음반복 의태어를 ‘AXBX’식으로 표시하며 중국의 ‘A+X+X+B식’을 ‘XAXB’식으로 표시하면 둘이 다 같은 글을 쓰던 것을 쉽게 파악한다. 한국의 ‘AXBX’가 ‘BXAX’로 중국의 ‘XAXB’가 ‘XBXA’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단어의 어순 문제가 ‘언어습관으로 보기도 하지만 습관으로만 보고 언어현상을 다루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과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III. 한국 AXBX 의태어와 중국 XAXB 의태어 어순

언어란 인류의 사유표현형식으로 정보와 사상이 담긴 결정체이다. 언어의 생산에는 두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대뇌와 발음기관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사고능력과 복잡한 소리를 조합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고고학자와 인류학자가 옛사람들의 발음기관을 해부한 결과 4,50만 년 전에 구두 언어가 나타났고, 최초의 단어가 창조되었다고 본다. 대뇌발육과 발음기관의 제한으로 인해 옛 인류의 단어는 감탄사 정도일거라 추정된다.

병음문자는 소리와 뜻의 결합체로 그 기초는 ‘음과 뜻의 결합¹⁵⁾’이다. 대뇌와 신체의 진화에 따라, 후두발음의 크기, 높이, 장단 변화의 종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구강, 혀, 이빨, 입술이 후음에 대한 제어능력이 점차 정교해지고, 대뇌의 논리사유능력과 지배능력이 동시에 제고되어 인류가 내는 소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이 교류해야 하는 정보내용도 점차 많아지고 언어를 기록하는 문제 또한 많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같은 글자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같은 음이 다른 글자에 대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운론적 구조

15) 음으로 뜻을 표시하고 뜻이 다르면 다른 음으로 사용하여 그 뜻을 표시한다. 즉 다른 어음 형태와 음절로 여러 가지 의미를 표시한 규칙이다. 卽以音表意、意不同音就不同, 用不同的語音樣式和不同的音節來表示不同語意的規則

한국어의 모음과 자음을 순서대로 나열하다.

위에 나열한 음성에 따라 한국 ‘AXBX’의테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7. A와 B는 모임이 같다.

ㄴ. A와 B는 모임이랑 받침이 다 같다.

알: 알근달근, 알록달록, 알쏭달쏭, 알뜰살뜰, 알콩달콩,
어: 어근버근, 어금버금, 어롱더롱, 어정버정, 어칠비칠, 어슷비슷,

어영부영,
언: 언거번거, 언죽번죽, 언틀먼틀
얼: 얼기설기, 얼룩덜룩, 얼멍덜멍, 얼쑹덜쑹, 얼키설키,
엄: 엄병덤병,
울: 울강불강, 울긋불긋, 울근불근, 울룩불룩, 울쑹불쑹, 울망줄망,
울퉁불퉁,
울: 울근불근, 울퉁불퉁, 울룩불룩, 울렁출렁, 울랑출랑, 울쑹불쑹,
울통불통,
웅: 웅기중기,

ㄷ. A와 B는 모음이 다르지만 받침이 같다.

옥: 옥신각신,
옥: 옥실덕실→옥실득실

ㄹ. A와 B는 모음이랑 받침이 다르다.

애: 애걸복걸, 애면글면,
안: 안달복달, 안절부절,
왜: 왜뜰삐뜰,

2) A와 B는 다 자음 있는 경우:

ㄱ. A와 B는 모음이 다르지만 받침이 같다.

갈광질광, ‘갈’과 ‘질’의 받침은 모두 받침 ‘ㄱ’이고 모음에 보면
‘아’가 ‘이’ 보다 먼저 나타나 단어 ‘갈광질광’으로 쓰인다.

ㄴ. A와 B는 모음이 다르면서 B만 받침이 있다.

뒤죽박죽, ‘뒤’와 ‘박’의 모음은 각각 단모음 ‘위’와 단모음 ‘아’이므로
사용하고 있다. 단모음 ‘아’가 단 모음 ‘위’ 앞에 놓여야 하는데 ‘박’에
받침 ‘ㄱ’이 있어서 뒤에서 놓였다. 그래서 단어 ‘뒤죽박죽’으로 쓰고
있다.

ㄷ. A와 B는 받침이 다 없지만 B의 모음이 모음 표에 뒷부분에 있다.

‘귀락퍼락’에 단모음 ‘위’가 이중모음 ‘여’보다 앞자리에 있다.

‘다짜고짜’에 ‘아’가 ‘오’의 앞에서 나열하고 있다.

‘허겁지겁’과 ‘허둥지둥’에 ‘이’보다 ‘어’가 먼저 나열한다.

나. 중국어

중국어의 모음과 자음의 순서이다.

단모음: a, o, e, i, u, ü

이중모음: ai, ei, ui, ao, ou, iu, ie, üe, er, an, en, in, un, ün,

삼중모음: ang, eng, ing, ong

개모 있는 경우: ia, iao, ian; ua, uai, uan, uo,

자음: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 y, w

위에 나열한 음성에 따라 중국 ‘XAXB’의태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와 B의 모음이 완전히 똑 같지만 자음이 다르다.

有板有眼(yǒubǎnyǒuyǎn), 不離不弃(bùlíbúqì)

모음이 같으면 자음 순서대로 정하는 경우이다.

2) A와 B는 모음 종류가 같은 경우:

ㄱ. A와 B 다 단모음이다.

不破不立(búpòbùlì)

ㄴ. A와 B 다 이중모음이다

不肥不瘦(bùféibúshòu),

3) A와 B는 모음 종류가 다른 경우:

ㄱ. A는 단모음이고 B는 이중모음이다.

大是大非(dàshìdàfēi), 大慈大悲(dàcí dàbēi), 不知不覺(bùzhībùjué), 不理不睬(bùlǐbùcǎi), 不依不饒(bùyībùráo), 不屈不撓(bùqūbùnáo), 不折不扣(bùzhébùkòu),

ㄴ. A는 단모음이고 B는 삼중모음이다.

有始有終(yǒushǐyǒuzhōng), 大模大樣(dàmúdàyàng),

ㄷ. A는 이중모음이고 B는 삼중모음이다.

不干不淨(bùgānbùjìng), 不卑不亢(bùbēibùkàng),

4) A와 B는 모음 종류가 다르면서 B에 개모음 있는 경우:

ㄱ. A는 이중모음이다.

不聲不響(bùshēngbùxiǎng), 不方不圓(bùfāngbùyuán),

ㄴ. A는 삼중모음이다.

不上不下(búshàngbúxià), 有頭有臉(yǒutóuyǒuliǎn),

2. 어휘론적 구조

어휘는 음과 의미의 결합체-문자로 만들어진다. 어휘 생성 역사를 보면 후기에 생산하던 어휘들이 분명히 기존 생성된 어휘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 AXBX식과 중국 XAXB식 의태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휘 생산 방식에 따라 현재의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한국어 AXBX식 의태어가 앞 음절 AX와 뒤 음절BX는 감정적인 방면에서 강약의 정도를 지니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띄거나 AX의 생산력이 BX보다 강하다. 그러나 시간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화하면서 의태어의 앞뒤 부분 중 하나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도 흔히 보인다.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애초에는 각 한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언어가 발전하면서 글자와 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이되거나 심지어 소멸되어 새로 만든 단어들에서는 본래 의미가 소실되었다. 예를 들면 형용사 ‘明白(명백)하다’의 ‘明’과 ‘白’이 《現代漢語詞典》에서 다 ‘明白(알다/이해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단어 ‘明白’이 의태어 ‘不明不白’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不明不白’은 형용사 ‘明白’ 사이에 부사 ‘不’를 반복하여 만들어졌다. 형용사 ‘明白’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습

관에 따라 의태어 ‘不明不白’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기존 어휘 영향의 분석은 의미뿐만 아니라 또 음절이 변형시킬 수 있는 조어능력이 강한 여부에 달려있다. 보통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어능력이 강한 음절이나 의태어의 전체 의미와 더욱 가까운 음절이 AX위치에 놓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어의 경우

첫째, 조어력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모음 이 → 우

시들부들 → 시들거리다, 시들하다, 시들다, 시들시들

ㄴ. 모음 이 → 아

진탕만탕(-宕-宕) → 진탕(-宕)

ㄷ. 모음 으 → 아

들락날락 → 들락거리다

흔전만전 → 흔전거리다, 흔전대다

홀깃할깃 → 홀깃홀깃, 홀깃거리다, 홀깃

홍청망청 → 홍청거리다, 홍청홍청

ㄹ. 모음 이 → 애

비똥배똥 → 비똥비똥, 비똥거리다, 비똥다, 비똥어지다, 비똥이

비죽배죽 → 비죽, 비죽비죽, 비죽거리다 / 배죽거리다

빼똥빼똥 → 빼똥거리다, 빼똥다, 빼똥빼똥, 빼똥어지다, 빼똥이/
빼똥어지다

싱숭생숭 → 싱숭하다

티격태격 → 티격, 티격나다

실룩실룩 → 실룩, 실룩거리다, 실룩실룩

실쭈실쭈 → 실쭈¹⁶⁾

16) 국립국어원 인터넷 사전에서 ‘실쭈’는 ‘실그러지게’ ‘썰쭈’는 ‘썰그러지게’ ‘움직이는 모양’라는 뜻이다. 다시 ‘실그러지다’와 ‘썰그러지다’ 검색하면 각자 ‘비똥어지다’와 ‘배똥어지다’로 나타난다. ‘비똥’의 조어능력이 강하기에 여기서 ‘실쭈’로 정했다.

일긱알긱 → 일긱¹⁷⁾

둘째, 전체 의미와 긴밀 정도에 따라

뜨끔따끔 → 뜨끔(사전에서 ‘뜨끔’의 의미가 ‘따끔’보다 ‘뜨끔따끔’
과 더 가깝다.)

싱글벙글 → 싱글(‘싱글’의 의미가 ‘벙글’보다 ‘싱글벙글’의 의미와
가깝다.)

셋째, 사람이 사물에 대해 인식 혹은 사물 선후 순서에 따라

괴발개발 →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괴발’과 ‘개발’은 각자 고양이와 개의 발과 대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는 옛날부터 한국에 있는 다른 가축과 비슷한 동
물로 키워왔다. 고양이는 개를 키운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동
물이다. ‘물건은 적을수록 귀하다’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 ‘괴발’이 ‘개
발’보다 앞에 위치한다.

들쭉날쭉 → ‘들다’와 ‘나가다’의 반복으로 ‘들다’가 ‘나다’보다 앞에
위 치한다.

2) 중국어의 경우

‘不明不白’처럼 단어 AB가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재는 한 단어로 사용되지 않지만 문헌에 한 단어로 사용
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XAXB식 의태어를 만든다.

첫째, AB가 현대 중국어에서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ㄱ. X가 ‘不’로 쓴 경우

不清不楚(bùqīngbùchǔ)어리송하다. → 清楚

17) ‘일긱거리다’와 ‘알긱거리다’의 검색결과 두 가지의 의미는 각각 ‘비뚤어지
다’와 ‘배뚤어지다’로 나오기 때문에 상용 빈도 높은 ‘비뚤어지다’를 참고하여
‘일긱’으로 정했다.

不言不語(bùyánbùyǔ)아무 말도 하지 않다. → 言語
 不多不少(bùduōbùshǎo)많지 않고 적지 않다. → 多少
 不大不小(bùdàbùxiǎo)크지 않고 작지 않다. → 大小
 不慌不忙(bùhuāngbùmáng)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이르는 말.
 → 慌忙

ㄴ. X가 ‘有’로 쓴 경우

有聲有色(yǒushēngyǒusè)연기·말·동작 등이 매우 생생하다./생동감이 넘치다. → 聲色
 有血有肉(yǒuxuèyǒuròu)이미지가 생동적이고 내용이 충실하며 구체적이다. → 血肉

ㄷ. X가 ‘大’로 쓴 경우

大吹大擂(dàchuīdàléi)마구 떠벌리다./큰소리치다. → 吹擂
 大搖大擺(dàyáodàbǎi)어깨를 으쓱거리며 걸은 모습. → 搖擺

ㄹ. X가 ‘一’로 쓴 경우

一心一意(yìxīnyíyì)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 心意
 一針一縷(yìzhēnyíxiàn)아주 보잘것없는 재물. → 針縷
 一點一滴(yídiǎnyíyī)극소수의 양. → 點滴

ㄹ. X가 ‘人’로 쓴 경우

人來人往(rénláirénwǎng)사람들이 북적거리다. → 來往

ㅁ. X가 ‘自’로 쓴 경우

自言自語(zìyánzìyǔ)중얼거리다. → 言語

둘째, AB가 고전문헌에 한 단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不偏不倚(bùpiānbùyǐ)어느 쪽으로도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다. → 偏倚 《禮記·中庸》
 不痛不痒(bùtòngbùyǎng)일 처리가 시원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 痛痒 《中論·考偽》
 不明不暗(bùmíngbùàn)밝지 않고 어둡지 않다. → 明暗 《漢書·劉向傳》
 不管不顧(bùguǎnbùgù)사람이 거칠고 경솔하다. → 管顧 宋 王禹偁

《獨遊南靜川》

不倫不類(búlúnbùlèi)이 부류도 아니 저 부류도 아닌 듯하다. → 倫類
《荀子·勸學》

如痴如狂(rúchīrúkuáng)정신이 나가고 미친 듯하다. → 痴狂
《淮南子·俶真訓》

如泣如訴(rúqìrúsù)소리가 매우 애절하다. → 泣訴 (宋 沉作喆 《寓
簡》

人山人海(rénshānrénhǎi)모인 사람이 대단히 많다. → 山海 《史記·吳
王濞列傳論》

一步一趨(yíbùyīqū) → 남을 따라하는 모양. 步趨 《漢書·王吉傳》

셋째, 사람이 사물에 대해 인식 혹은 사물 선후 순서에 따라 XAXB
식 의태어를 형성한다.

ㄱ. 숫자의 나열한 순서에 따라

不三不四(bùsānbùsì)인품이 너절하다. → 三과 四

一五一十(yīwúyīshí)하나도 빠짐없이. → 五와 十

ㄴ. 기존 사물에 인식에 따라

一草一木(yīcǎoyīmù)평상시 물건을 이르는 말. → 花草樹木

如詩如畫(rúshīrúhuà)시의 회화적인 아름다움. → 詩詞書畫

大紅大綠(dàhóngdàlǜ)울긋불긋하다. → 紅과 綠은 ‘赤(紅)橙黃綠青
藍紫’의 순서에 부합한다.

동시에 ‘如火如荼(rúhuǒrútú)불처럼 붉고 띠꽃처럼 하얗다’의 오행에
는 ‘火’가 홍색을 표시하고 있다. ‘荼’는 ‘띠’이고 회색을 표시한다. 그리
고 홍색은 바로 ‘赤’이다. 따라서 XA‘如火’가 앞에 쓴다.

ㄷ. 사건 발생의 선후 순서에 따라

不見不散(bújiàn bùsàn)약속한 장소에서 서로 만날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 見과 散

不即不離(bùjíbùlí)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다. → 卽과 離

自問自答(zìwènzìdá)자문 자답. → 問과 答

‘見(만나다)’ → ‘散(헤어지다)’, ‘卽(접근하다)’ → ‘離(떨어지다)’, ‘問(질문하다)’ → ‘答(대답하다)’에 선후 순서가 있다.

3. 한중 의태어의 이동

앞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AXBX형 의태어와 중국 XAXB형 의태어의 어순은 음운적으로 보면 자기 나라의 음운체계에 따르는 경향이 많다. 어휘적으로는 기존의 단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생성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있던 어휘에 음운의 교체에 따라 비슷한 음절을 붙여 AXBX형 의태어를 만든다. 중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던 단어에 다른 자를 붙여 반복을 하여 XAXB형 의태어를 만든다.

그리고 두 언어의 AXBX형 의태어와 XAXB형 의태어의 어순이 각자 자기 나라 언어의 체계에 따라 음운이나 의미적인 영향의 비중이 차이가 있다. 한국 AXBX형 의태어 어순이 중국에 비해 음운적인 특징을 강한 반면에 중국 XAXB형 의태어 어순이 의미 혹은 구조 측면에 보면 더 편안하다. 채원(2003)에서는 음운 측면을 통해 한국의 의태어를 모음교체, 자음교체 등 표시하고 있다.

4. 한중 의태어의 관계

한국어의 의태어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부사이다. 의태어가 처음 만들어질 때 앞의 AX와 뒤의 BX는 각자 구체적인 의미를 지녔는데 언어의 발전에 따라 부분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어 의태어의 AX와 BX는 애초에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물을 묘사한 형용사이었다. 따라서 한국어 조어법에 의거하면 A와 B는 ‘어간’ X는 ‘접미사’이다. 예를 들어 ‘싱글병글’에서 ‘글’이 접미사이고 ‘싱’과 ‘병’이 옛날에는 어간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괴발개발’등과 같은 의태어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거나 한자에서 유래한 단어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忽弱忽弱’에서 형태가 변하여 된 ‘호락호락’은 유연성을 상실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들은 그 어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고유어로 인식될 만큼 원어로부터 멀어졌다(채원, 2003:60). 이 관점을 증명하기 위

하여 먼저 중국어 쌍음절 단어의 구조를 분석보자고 한다.

쌍음절 중국어는 보통 ‘주술’, ‘수식’, ‘술목’, ‘술보’구조 관계이다. 본 연구에서 예문으로 쓰이던 ‘自’, ‘人’, ‘不’, ‘有’, ‘大’등 의태어의 XA와 XB는 다 이러한 형식이다. 예를 들면 ‘自’는 ‘자기’뜻이라서 뒤에 ‘言’ 및 ‘語’와 결합한 후 주술구조 성립된다. ‘人’은 명사이고 뒤에 명사 ‘山’과 ‘海’ 결합 이후 각자 수식구조 성립된다. ‘不’은 부사이며 동사 ‘管’, ‘顧’ 수식 가능하고 형용사 ‘慌’, ‘忙’ 수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의태어 ‘不管不顧’, ‘不慌不忙’등이 된다. ‘有’는 중국어에서 동사로서 명사와 결합하면 ‘술목’구조가 된다. 예를 들면 ‘有声有色’등 의태어들이다. ‘大’는 형용사로서 명사 ‘模’, ‘樣’, 동사 ‘搖’, ‘擺’, 형용사 ‘慈’, ‘悲’를 다 수식할 수 있기에 의태어 ‘大模大樣’, ‘大搖大擺’, ‘大慈大悲’ 생겼다.

한국 AXBX형 의태어가 보편적으로 중국어처럼 구조 분석 불가능한 편이다. 그러나 한자어로 표시 가능한 경우에는 구조분석도 가능하게 된다. 애절복절(哀乞伏乞)의 경우 ‘哀’는 ‘애절하다’라는 뜻이고 ‘伏’은 ‘땅에 엎드리다’라는 뜻이며, ‘乞’은 ‘빌다, 애원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哀乞’은 ‘애절하게 빌다’라는 뜻으로 감정적인 측면의 설명이고, ‘伏乞’은 ‘땅에 엎드리게 빌다’라는 뜻으로 양상 측면의 묘사이다. ‘哀乞’과 ‘伏乞’은 다 ‘부사어+동사’구조이고 수식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의 의태어와 같이 AXBX식으로 생성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現代漢語詞典》에서 나타나던 ‘有一得一(yǒuyídéyí)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있는 그대로’라는 단어, 또 사람들이 자주 쓰던 ‘有一說一, 有二說二(있는 그대로 말한다)’라는 말이 다 이런 형식이다. 여기서 ‘有’, ‘得’, ‘說’ 다 동사이고 대명사 ‘一’, ‘二’하고 ‘술목’구조화 되었다. 그리고 의미적인 면에서 ‘有’와 ‘得’ 및 ‘有’와 ‘說’은 선후순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AXBX식 어휘들이 보통 의태어와 같은 기능을 가지 못해서 이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IV. 결 론

한국어는 표음문자이고 중국어는 표의문자로 각각 다른 문자 체계에 속하지만 음과 의미가 결합하여 구성하는 언어 자체로서 두 언어가 공

통점이 있다. 의태어는 사물의 모양을 묘사한 수식어로 어순은 상대적으로 발음이 쉬운데서 어려운 순서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았다. 한·중 의태어에 이러한 발음의 경제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중언어의 의태어는 각 언어의 모음과 자음의 배열 순서에 의거하여 생성한다.

중국어는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중국어 의태어가 기존 어휘의 영향에 따라 생성된 규칙을 한국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에 연구대상으로 삼은 XAXB형 의태어가 전체적으로 병렬구조이고 XA와 XB는 같은 주술이나 수식 혹은 술목 등 구조로 정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중국 의태어는 쌍음절 단어AB의 기초에서 형성되어졌기에 어순 또한 AB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국어의 의태어의 AX와 BX는 처음에 각자 독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의 발전에 따라 AX와 BX 중 일부분의 뜻이 소실되었거나 심지어 모두 소실되었다. 그 과정이 물론이고 이 결과도 증명하지 못하고 단지 추측만 할 뿐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AXBX식 의태어들은 조어능력이 강하거나 혹은 전체 단어의 의미와 가까운 부분이 AX로 된다. 또한 한국어 의태어 중 대부분은 한국어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 또한 적지 않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알았다.

[참고문헌]

- 김중섭, 1996, <韓國語 擬態語 語源研究 方法論>, 高鳳論集, Vol.17
 ———, 1997, <類韻重複 擬態語의 意味構造 研究>, 論文集, Vol.26
 김홍수, 2003, <국어 파생 의태어근의 형태통사론적 특성 연구>, 국민대학교
 배현숙,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수법 연구>, 이중언어학, Vol.31
 박철주, 2007, <신조 의태어의 실태와 문제>, 한국어학, Vol.35
 손달임, 2012,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안인숙, 2007, <의성어와 의태어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 윤희원, 1993, <의성어의태어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3-2, 국립국어원
- 李癸玉, 1995, <擬音語·擬態語の意味論的小考>, 培花論叢, Vol.14
- 이기원, 2007,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한국문화사
- 이문규, 1996, <음성교체와 상징어의 어감 분화>, 어문학57집
- 이명강, 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태어 대조 연구>, 대구대학교
- 이종훈, 1987, <의성·의태어 표현의 묘미>, 국어생활, Vol.- No.10
- 장 망, 2011, <한·중 신체 동작 의태어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 장언청, 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의태어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 채 완, 2000, <국어 의성어 의태어 연구의 몇 문제>, 진단학보, Vol.- No.89
- 채 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대학교출판부
- Zhang Zhen, 2009, <한·중 의성어 대조 연구>, 고려대학교
- 王元媛, 2010, <한중 의성어와 의태어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 蘇 聰, 2012, <韩中擬聲擬態詞對比研究>, 中國青島大學
- 中國社會科學院言語研究所詞典編輯室編, 1983, <現代漢語詞典>
- 劉月華·潘文娛, 1993, <實用現代漢語語法>,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 黃伯榮, 1996,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Abstract>

Native vocabulary is more basic and common words in every language system. As an important part of native vocabulary, mimetic words is the word group changed the other senses except auditory sense to segmental sound which can express human emotion and smoothly describe objects. Therefore, in order to strengthen performance effects of language, Korean and China people use a lot of mimetic words in their daily life. Even in Chinese language, mimetic words is not as well-developed as Korean.

Many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mimetic words, which a large number of related papers exist, becaus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whole language. Most of which, however, are only the research on phonology, significancy, sentence syntax, there is no evidence that word order exist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in both Korea and China, this thesis intends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vergences of word order in mimetic words.

주제어 : 의태어 유형 구조 어순 유사 관계

Key Words : mimetic words, type, structure, word order, similar relation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삼국연의(三國演義)》 關羽형상의 의미

남덕현*

〈 목 차 〉

1. 머리말
2. 관우형상의 특징
 - 1) 영웅적 모습
 - 2) 신적인 모습
3. 맺음말

1. 머리말

관우숭배문화에서 관우의 신격형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관우숭배문화 속의 관우형상은 역사적 인물 관우의 행적에 그 원형이 있지만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상화 되어진 것이다. 민간 문화와 종교영역을 거치며 시대의 상황과 요청에 따라 역사적 실제 모습과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져 갔다. 특히 역사 연의소설 《삼국연의》에 이르러는 역사 속 인물이 문학 예술적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 역사적 진실에 예술적 허구가 서사구조 속에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이상적 관우 인격형상이 창출되어 진다. 동시에 이후 관우숭배문화의 핵심인 관우 신격형상 조성의 단서를 제공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오랜 세월의 공력을 거쳐 역사소설로 완성되어진 《삼국연의》 중 관우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지난 역사와 문학 속에서 그 원형을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dhnam@pusan.ac.kr)

찾을 수 있다. 삼국의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여 민간신앙과 민간문학을 거쳐 역사문학의 기초 위에 민간 예술인의 가공을 통해 소설 속에서 그 형상이 창출되어졌기 때문이다. 이 소설 속의 문학 예술적 관우형상은 이후 관우숭배문화 속의 신격화된 관우형상의 기본적 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소설 《삼국연의》 속의 완벽한 이상적 관우형상의 특징을 형식적 면에서 형상 창출을 위해 사용되어진 서사구조와, 내용적 면에서 작가가 추구하고자 한 지향점의 본질을 살펴 관우형상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이후 관우숭배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관우형상의 특징

1) 영웅적 모습

역사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우형상이 지닌 두드러지는 특징은 과거 역사적 행적에 근거하여 영웅적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영웅적 모습은 소설에서 관우 이야기를 서술함에 있어 영웅전기식 서사구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상적 관우 인물형상은 영웅전기와 같은 서술을 통해 줄거리를 전개하며 형상화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웅전기식 서술이란 전체 이야기 줄거리 전개를 통해 역사 속 영웅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에 역사 연의소설 《삼국연의》 속 관우이야기는 역사적 근거와 그 이야기의 원형이 존재하게 된다.

《삼국연의》는 중국의 장편 역사연의소설로서 오랜 기간 축적된 민간 문학적 토대 위에 나관중(羅貫中)의 예술적 완성을 거쳐 만들어졌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주요한 한 특징은 줄곧 촉한(蜀漢)중심의 관점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이상적 인물로 창조해나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삼국연의》에서 관우형상을 창출해가는 이야기 구조를 지닌 부분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가는 ‘항조귀한(抗曹歸漢)’ 이야기이다. 이 ‘항조귀한’ 이야기를 살펴

보면, 제25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제28회에까지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작은 이야기들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다. 하비(下邳)성을 잃은 부분, 토산에 주둔하며 세 가지 약속을 하는 부분, 쫓불을 잡고 아침을 기다리는 부분, 안량(顔良)과 문추(文醜)을 베어버린 부분, 직위와 재물을 마다하는 부분, 다리에서 이별하는 부분, 주창(周倉) 채양(蔡陽) 이야기 부분,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여섯 장수를 베는 부분, 그리고 고성(固城)에서 뜻을 함께하는 부분 등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제28회에서 일단락되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 의미에 있어서 이 이야기 줄거리의 마지막은 적벽대전 후 관우가 화용도(華容道)에서 조조를 놓아주는 부분에서 끝을 맺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 전개과정을 통해 관우는 평생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의의 화신으로 그 형상이 드높여져 후일 관우문화 속에서 모든 이로부터 숭배 받고 추존 되는 요인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 관우의 상징인 의가 완성되어진 것이다. 물론 이 대목의 이야기는 다른 민간문학 작품에서도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관우의 비중이 《삼국연의》에 미치지 못한다.¹⁾ 이 이야기처럼 《삼국연의》는 이상적인 관우형상 창출을 골간으로 소설의 전체 줄거리가 이어지고 있다. 즉 관우이야기를 서술함에 영웅전기를 창작하는 서사구조를 취하면서 역사연의 소설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역사 속 사실을 원형으로 하여 변형하고 보완하며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 창출의 역사적 근거와 그 이야기의 원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관우의 영웅전기적 ‘항조귀한’ 이야기의 핵심 내용인 ‘고성회(固城會)’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를 태동시키게 한 역사속의 근거와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

1) 《三國志平話》(이하 약 《平話》)와 元 雜劇 《關雲長千里獨行》에도 실려 있는데, 두 가지 모두 ‘五關斬將’과 ‘服周倉’의 이야기는 없다. 明 傳奇 《固城記》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다. 劉海燕, 《從民間到經典》(上海: 上海三聯書店, 2004), 158쪽, 張志江, 《關公》(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84~85쪽 참조.

羽傳)》을 보면,

건안 5년, 조조가 동쪽 정벌에 나서자 유비는 원소에게로 달려갔다.
조조는 관우를 생포하여 돌아왔다.
(建安五年, 曹公東征, 先主奔袁紹. 曹公禽羽以歸.)²⁾

라고 적혀 있고, 또 《삼국지·선주전(三國志·先主傳)》에도

건안5년, 조조가 동쪽으로 유비를 정벌하자 유비는 대패하였다. 조조
는 그 병력을 다 손에 넣었으며, 유비의 처자식을 포로로 잡고 아울러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왔다.
(五年, 曹公東征先主, 先主敗績. 曹公盡收其衆, 虜先主妻子, 并禽關羽
以歸.)³⁾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삼국지·무제기일(三國志·武帝紀一)》에도

마침내 조조는 동쪽으로 가서 유비를 공격하여 무찌르고 그 장수 하
후박을 생포하였다. 유비는 원소에게 도망갔고 그 처자를 포로로 잡
았다. 유비의 장수 관우가 하비에 주군하고 있었는데 다시 진격해 공
격하자 관우는 투항하였다. 창희가 배반하여 유비를 도운 적이 있었
기에 또 공격하여 무찔러 버렸다.
(遂東擊備, 破之, 生禽其將夏侯博. 備走奔紹, 獲其妻子. 備將關羽屯下
邳, 復進攻之, 羽降. 昌豨叛爲備, 又攻破之.)⁴⁾

라고 적혀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구성되어진 ‘고성회’ 이
야기는 건안 5년 조조가 동쪽으로 유비를 정벌하는 역사적 배경에서 기
인하게 된다. 이 기록들을 볼 때, 관우가 생포된 건지 투항한 건지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관우는 조조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곤경에 처했던 것이다. 역사서 속의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설에서 작가는 이야기를 파생시켜 만들어 낸 것이다. 즉 관

2) 陳壽 撰, 裴松之 注, 《三國志》(上·下)(長沙: 岳麓書社, 2006), 633쪽.

3) 陳壽, 《三國志》, 앞의 책, 589쪽.

4) 陳壽, 《三國志》, 앞의 책, 14쪽.

우가 조조에게 잡혀있다 조조를 떠나 고성에서 유비, 장비와 다시 만나게 된다는 ‘고성회’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그 원형을 두고 꾸며진 것이다.

(2) ‘항조귀한’ 이야기의 한 전환점이 되는 ‘자안량(刺顔良)’ 이야기도 그러하다. ‘항조귀한’ 이야기의 한 대목으로 《삼국연의》 제25회를 보면 관우가 조조 진영에 머물러 있던 시절 원소(袁紹)의 대장군 안량을 베어 버린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삼국지·무제기일(三國志·武帝紀一)》의

이월, 원소가 곽도 순우경 안량을 보내어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치게 했다.

(二月, 紹遣郭圖, 淳于瓊, 顔良攻東郡太守劉延於白馬.)⁵⁾

라는 기록과,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의 기록을 보면

원소가 대장군 안량을 보내어 백마에서 동군태수 유연을 치게 했다. 조조는 장료와 관우를 선봉에 세워 공격하게 했다. 관우는 안량의 깃발과 수레덮개를 멀리 바라보다 말에 채찍질하여 달려 수만의 군사들 속에서 그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의 장수 가운데 관우를 당해낼 자가 없어 마침내 백마의 포위를 풀었다.

(紹遣大將軍顔良攻郡太守劉延於白馬, 曹公使張遼及羽為先鋒擊之. 羽望見良麾蓋, 策馬刺良於萬眾之中, 斬其首還, 紹諸將莫能當者, 遂解白馬圍. 曹公即表封羽為漢壽亭侯.)⁶⁾

라고 적혀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관우가 안량을 참한 사실은 《삼국지(三國志)》 정사에 기록된 관우의 훌륭한 용맹스런 전공이다. 관우는 건안 5년 조조에게 사로잡혀 그의 편장군(偏將軍)이 된다.⁷⁾ 백마전투에 참가해 수만 대군 속에서 적장 안량의 머리를 베어 단숨에 조조의

5) 陳壽, 《三國志》, 앞의 책, 14쪽.

6)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7) 《三國志·關羽傳》: “建安五年, 曹公東征, 先主奔袁紹. 曹公禽羽以歸, 拜為偏將軍.”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인정을 받게 되어 한수정수(漢壽亭侯)에 봉해진다. 정사에 기록된 역사적인 이 사건은 관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앞뒤 줄거리의 연관성을 위해서, 또한 서사의 생동감과 영웅전기적 서사를 위해 이야기를 충분히 늘여서 서술하였다. 유비가 원소를 충동질하여 조조와 전쟁을 하게 하여 안량이 출정하게 되는 것, 조조가 여러 가지 계산 하에 관우를 출전시키는 것, 관우가 수천수만의 군사 속에서 용맹을 발휘하여 안량의 목을 베는 것, 관우가 동생 장비를 백 만 군사 속에서 적장의 머리 베기를 주머니 속의 물건 취하듯 한다고 칭찬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를 더 넣어 흥미와 긴장감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역사원형에 근거해 훨씬 더 멋있는 이야기로 파급시킨 대표적 이야기이다. 《삼국연의》 소설에서 이 이야기에 이어 꾸며져 있는 문추 이야기는 민간문학에서 다뤄지던 내용이 《삼국연의》에 반영되어진 것이다.⁸⁾

(3) ‘토산에 주둔하여 세 가지 일을 약속하다(屯土山約三事)’ 이야기를 살펴보자. 이 이야기 역시 역사 속에 그 이야기를 태동시킨 원형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우의 역사적 기록에서가 아니고, 관우를 설득한 장료와 관계있는 기록으로 《삼국지·장료전(三國志·張遼傳)》을 보면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장료가 하후연과 동해에서 창회를 포위하였다. …… 사람을 보내 창회에게 이르길 : “조공이 명령을 내렸으니 장료가 조공의 뜻을 전할 것이요.” 창회가 과연 내려와 장료와 대화를 나누었다. 장료가 그에게 권했다. “조공은 신과 같은 위엄과 무용을 갖고 있으며 인자한 덕으로 천하를 편안히 다스리고 있소. 먼저 그에게 의탁하는 자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이에 창회는 투항하기로 하였다. 장료는 마침내 단신으로

8) 宋 洪邁《容齋續筆》卷 11《名將晚謬》에 “關羽手殺袁紹二將顏良、文醜于萬衆之中.”라는 기록이 있고(劉海燕, 앞의 책, 161쪽), 《平話》에는 ‘關公刺顏良’이야기에 이어 ‘關公誅文醜’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소가 官渡로 되어 있고, 묘사가 자세하지 않다.(種兆華, 앞의 책, 419쪽) 이후 《三國演義》 소설에서는 장소가 延津으로 바뀌어져 있다.

삼공산에 올라 창희의 집으로 들어가 그 처자를 만났다. 창희는 기뻐하며 그를 따라가 조조를 만났다.
(與夏侯淵圍昌豨于東海, …… 乃使謂豨曰: “公有命, 使遼傳之.” 豨果下與遼語, 遼爲說太祖神武, 方以德懷四方, 先附者受大賞. 豨乃許降. 遼遂單身上三公山, 入豨家, 拜妻子, 豨歡喜, 隨詣太祖.)⁹⁾

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장료가 고립되어 있던 창희(昌豨)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투항하게 하였다. 비록 그 상황이 관우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지만 《삼국연의》 소설 속 이야기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역사 속에서 장료가 혼자 삼공산(三公山)에 올랐다는 기록이 소설 《삼국연의》 속에서는 혼자 토산에 올랐다는 것으로 살짝 변형되긴 하였지만 아주 흡사하다. 또한 장료가 상대를 설득하여 투항시켰다는 것도 비슷한 점이다. 이런 장료와 창희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착안하여 관우와 장료의 토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삼약(三約)'을 내세우며 항복하는 줄거리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역사적 원형을 소설에서 바꾸어 이야기로 꾸며내었음을 알 수 있다. 허나 이 '삼약'의 내용 부분은 소설에서 지어진 허구로서 민간에 유행하였던 여러 작품에서 다루어진 이야기를 《삼국연의》에 반영한 것이다.¹⁰⁾

(4) '참채양(斬蔡陽)' 이야기 역시 역사적 원형을 변형한 것이다. '항조귀한' 이야기 전개과정에 《삼국연의》제28회를 보면 관우가 채양의 목을 베어 용맹을 보여주는 '참채양'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도 역사적 원형이 존재한다. 《삼국지·선주전(三國志·先主傳)》을 보면,

원소가 유비를 보내 병력을 거느리고 다시 여남으로 가게 하니 도적공도 등과 합류하여 그 병력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조조는 채양을 보내어 그를 공격했는데, 채양은 유비에게 죽음을 당한다.
(紹遣先主將本兵復至汝南, 與賊龔都等合, 衆數千人. 曹公遣蔡陽擊之,

9) 陳壽, 《三國志》, 앞의 책, 357쪽.

10) 《平話》, 元 雜劇 《關雲長千里獨行》, 明 傳奇 《固城記》에 각각 비슷한 내용의 '三約'이 있다. 劉海燕, 앞의 책, 160쪽 참조.

爲先主所殺.)¹¹⁾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에게 돌아온 후 원소는 유비에게 군사를 이끌고 다시 여남을 되찾으라 하였고, 유비는 공도(龔都) 등과 수천 명을 규합하여 전투에 나선다. 이에 조조는 채양을 보내 대적하게 하였으나 유비에게 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렇게 유비가 채양을 물리쳐 죽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채양을 목 베는 ‘참채양’ 이야기가 되어 유비 · 관우 · 장비 세 사람의 고성취의(古城聚義) 전, 모이는 과정에서 관우와 장비가 대립하여 갈등하는 장면 속에 놓여진다. 채양의 출현이 관우를 의심하고 있던 장비에게 더 큰 오해를 낳자, 관우는 채양을 참하여 장비에게 본심을 분명히 밝히고 형제의 의를 확인시킨다. ‘항조귀한’ 이야기 전개의 위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장비가 관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을 오히려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관우와 장비가 갈등하는 대목에 채양을 이용하여 이들의 갈등과 불신을 봉합하고 고성에서의 만남을 이루게 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원형을 소설의 이야기 전개에 잘 변형하여 활용한 것이라 하겠다.

또 《삼국연의》 제5회를 보면 간적 동탁(董卓)을 토벌하기 위해 나선 반동탁군이 동탁의 장수 화웅(華雄)의 용맹과 위세에 눌려 어찌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개 궁수의 신분엔 불과한 관우가 나서 위용을 떨치고 있던 적장 화웅을 술이 채 식기 전에 베어머리고 돌아오는 멋진 이야기가 있다.¹²⁾ 이 이야기 역시 역사적 원형이 있다. 《삼국지·손괴노전(三國志·孫破虜傳)》을 보면 사실 화웅을 죽인 것은 관우가 아니라 바로 손견(孫堅)이었다. 살펴보면

손견은 다시 병사들을 모아 양인에서 적과 싸워 동탁의 군대를 크게 무찌르고 동탁의 도독 화웅 등을 죽였다.

(堅復相收兵，合戰于陽人，大破卓軍，梟其都督華雄等.)¹³⁾

11) 陳壽, 《三國志》, 앞의 책, 590쪽.

12) 羅貫中, 《三國演義》(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26쪽.

13) 陳壽, 《三國志》, 앞의 책, 735쪽.

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관우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해 그 공로의 주인공을 관우로 바꾸어 버린다. 그리고 손견은 오히려 반대로 낭패를 당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동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손견이 화웅을 죽여 올린 전공을 관우가 술이 채 식기 전에 화웅을 베어버리는 엄청난 용맹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바꾸어 멋있게 서술한 것이다. 이 역시 역사적 원형을 전용하여 관우의 용맹 부각에 활용한 것이다.

(5) ‘항조귀한’의 이야기 속의 ‘천리독행’과 ‘오관참장’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방식의 역사적 원형 활용을 살펴보자. 역사 속의 기록을 보면 관우는 조조에게 투항한 이후 조조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조조는 관우를 사로잡아 돌아와 그를 편장군으로 삼고 매우 후하게 예우했다. …… 조조는 곧바로 표를 올려 관우를 한수정후로 봉했다. (曹公禽羽以歸, 拜為偏將軍, 禮之甚厚. …… 曹公即表封羽為漢壽亭侯.)¹⁴⁾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보면 조조 진영 속에서의 그의 위치와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다. 조조로부터 후한 예우를 받으며 아쉬울 것 없는 시절을 보내던 그가 유비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또한 역사 속 사실이다.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 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조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뒤쫓으려고 했지만 조조가 말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주인이 있으니 뒤쫓지 마시오.” 관우는 유비를 따라 유표에게 기탁했다. (羽盡封其所賜, 拜書告辭, 而奔先主於袁軍. 左右欲追之, 曹公曰:“彼各為其主, 勿追也. 從先主就劉表”¹⁵⁾

14)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15)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634쪽.

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 관우가 유비를 찾아 돌아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조조의 군영이며 종착점은 유비가 있는 곳이다. 이 짧은 몇 구절의 기록이 원형이 되어 소설 《삼국연의》에서는 작가에 의해 엄청난 여러 가지 이야기로 꾸며지게 된다. 산문 문학 중에 역사산문은 줄거리 없이 간단한 사실적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비에게로 달려갔다는 역사 속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없다보니 후대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을 가능하게 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창조해 만들어 내게 했다. 여기에서 ‘천리독행’ ‘오관참장’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후대사람들은 이 공간에 근거해 많은 상상을 더하고 오랜 기간의 전해 내려온 민간 전설 등을 참고하여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전체 이야기 줄거리에 흥미와 긴장감을 주는 서술일 뿐만 아니라 관우인물의 뛰어난 용맹과 남다른 의기 등을 부각시키는 이야기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그 발상은 얻었지만 역사적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소설 속에 다른 작은 이야기들을 넣어 사실적인 이야기로 꾸며놓고 있다. 그래서 《삼국연의》 소설에서는 ‘천리독행’이라는 큰 줄거리 속에는 약간의 작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괘인봉금(掛印封金)’ 이야기가 그러하다. 이 또한 《삼국지·관우전(三國志·關羽傳)》을 보면,

관우는 조조가 내린 상을 모두 봉하고 고별의 편지를 써 놓고 원소 군대 속의 유비에게로 달려갔다.

(羽盡封其所賜, 拜書告辭, 而奔先主於袁軍.)¹⁶⁾

라고 하는 짧은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삼국연의》 제26회에서는 이 짧은 기록에 근거해 관우가 조조로부터 받고 있던 물질적 풍요로움과 여유 있는 생활을 마다하고 아무런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멋있는 이야기로 꾸며져 묘사되고 있다. 동한 말엽의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관우의 역사 속 행동은 엄청난 모험이자 결단이기

16)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3쪽.

에 이에 대해 어떤 지지와 찬사를 보내도 욕됨이 없는 것이다. 소설의 작가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더 많은 구상과 수식을 더해 이야기를 멋있게 꾸며내어 관우를 지지함에 보태었던 것이다. 그래서 ‘괘인봉금’ 이야기를 꾸며내 관우의 명리에 대한 초연함과 조조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의리 있고 품격 있는 인물로 만들고 있다.

(6) 역사적 원형을 유추하여 이야기를 지어 내기도 하였는데 ‘병촉달단(秉燭達旦)’ 이야기가 그러하다. 《삼국연의》 제25회의 ‘병촉달단’ 이야기는 역사 속 관우의 모습에 그 근거를 두고 유추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관우는 유가적 가치관을 지니고서 춘추를 가까이 한 문인적 풍모를 지닌 장수이었다.¹⁷⁾ 그런 그가 유가적 도덕관념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착안 하여 꾸며낸 이 이야기는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낸다. 촛불을 부여잡다는 뜻의 ‘병촉’ 구상은 중국 전통문화 속 남녀유별의 도덕적 예절 관념에서 나온다. 관우가 조조에게 요구한 ‘삼약’ 중의 두 번째 ‘상하를 막론하고 일절 문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나 조조가 내어 준 허창의 집을 형수들과 나누어 거주 한 ‘일택분양원(一宅分兩院)’의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다. 특히 촛불을 부여잡고 밤새 책을 읽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관우의 절개를 말해주는 것으로,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명리에 초연한 그의 모습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만드는 대목으로 이를 통해 관우의 품격은 더 높아져 가게 되었다.

이 이야기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만들어 ‘괘인봉금’ 이야기를 보완하고, ‘항조귀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차게 해주었는데, 제27회의 파릉교의 이별이야기와 ‘오관육참장(五關六斬將)’ 등의 이야기가 그러한 것이다. 이 중 조조와의 파릉교에서의 이별장면 이야기는 조조와의 단호한 결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었고, ‘다섯 관문을 지나면서 여섯 장수를 목 벤 ’오관육참장’ 이야기 역시 조조와의 결별임과 동시에 ‘귀한’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 구성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항조귀한’ 이야기는 소설 《삼국연의》에서 꾸며진 이야기이지만, 관우라는 인물의 영웅전기와 같으며 그 원형은 과거의

17) 陳壽, 《三國志》, 앞의 책, 636쪽. "江表傳曰：羽好左氏傳，諷誦略皆上口."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에서 꾸며진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은 축한중심적 관점에서 관우라는 인물을 부각시켜 이상적 인물로 창조해나가는 과정에서 정형화 되어진 것이다. 모든 즐거리가 관우의 단점은 보완하여 가려주고 장점은 부각시켜 미화하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형상화되어진 이상적 관우형상은 관우 인격 정신의 조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대단한 예술적 매력과 감응력을 갖추고 있다.

이 '항조귀한' 이야기 외에도 부주의하여 형주를 잃었다는 '대의실형주(大意失荊州)' 이야기 역시 영웅전기적 서사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제66회 '단도부회'에서 시작하여 제77회 맥성에서 패하는 부분까지이다. 관우의 영웅적 기개를 지닌 모습, 두려움 없이 충과 의로써 헌신하는 정신, 마지막 순간에도 의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장면 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영웅전기적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특히 '항조귀한' 이야기가 더욱 영웅전기적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관우형상의 영웅적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2) 신적인 모습

소설 《삼국연의》에서 관우 형상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모습이 있다는 점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우선적으로 역사 속 인물의 모습에 근거해 가장 완벽한 관우의 이상적 인격 형상을 창출해놓고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세계 속의 현실적 인물형상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을 벗어난 초현실적인 형상조성의 단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삼국연의》 소설 속에는 관우가 신이 되어 가는 영험하고 신령스러운 즐거리를 허구로 구상해 넣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신앙에서의 귀신같기도 하고 종교영역에서의 신 같기도 한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암시하고 묘사해주어 후일 관우를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사실상 관우숭배의 한 단서가 제공된 대목인 것이다. 물론 소설이 태동하기 전부터 관우는 민

간전설에서 신격화 되고 있었지만, 이 소설이 나와서 세상에 영향을 떨침으로 해서 그 신격화를 가속시켜 주었던 것이다. 소설 속에서 관우 신격화의 단서가 되는 신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보정(普淨) 스님과의 인연이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와의 만남을 먼저 살펴보자. 신적인 모습이란 인간세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개념이기에 우선 인간세계를 벗어나야 그 존재가 가능하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 관우가 인간세상을 떠나 신이 되는 모습과 연관된 인물이 바로 보정(普淨) 스님이다. 《삼국연의》 제27회에서 보정과 관우는 사수관(汜水關)에서 처음 만날 때부터 과거의 인연을 얘기하며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듯 묘한 느낌을 준다. 보정은 진국사(鎭國寺)의 승려로 관우와 동향사람이다. 그들의 대화는 간단하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살펴보면,

“장군께서는 포동을 떠난 지 몇 해나 되었습니까?” 관공이 말하기를 : “거의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보정이 말하길: “빈승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관공이 말하길 :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정이 말하길 : “빈승의 집과 장군의 집은 단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 보정스님에게 감사해하며 말하길 “만약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놈들에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보정이 말하길 : “빈승도 이곳에 있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의발을 수습하여 다른 곳으로 가서 떠돌아다니렵니다. 훗날 아마 다시 뵈 기회가 있겠지요. 장군께서는 부디保重하십시오.”
(“將軍離浦東幾年矣?” 關公曰: “將及二十年矣.” 普淨曰: “還認得貧僧否?” 公曰: “離鄉多年, 不能相識.” 普淨曰: “貧僧家與將軍家只隔一條河.” …… 謝普淨曰: “若非吾師, 已被此賊害矣.” 普淨曰: “貧僧此處難容, 收拾衣鉢, 亦往他處雲游也. 後會有機, 將軍保重.”)¹⁸⁾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관우가 조조를 떠나 유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섯 관문을 지나며 여섯 장수를 베는 대목에서 나온다. 세 번째 관문 사수관에서 이처럼 관우는 갑자기 등장한 동향인 보정과 뜻

18)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140~141쪽.

밖의 만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보정의 도움에 의해 변희(卞喜)의 계락을 피해 그를 베어버리고 사수관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보정은 이별을 하면서 아마 다음에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는 여운의 말을 남긴다. 이 말이 바로 후일 관우가 죽은 후 옥천산(玉泉山)에서의 재회를 암시한 것이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관공의 혼백은 흩어지지 않고 유유히 떠올라가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 곳은 형문주 당양현에 있는 옥천산이었다. 그 산위에 한 노승이 있었는데 범명은 보정이었다. …… 3경이 지나 보정이 암자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별안간 공중에서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내 머리를 돌려다오!” …… 보정은 그가 관공임을 알아보았다. (關公一魂不散, 蕩蕩悠悠, 直至一處: 乃荊門州當陽縣一座山, 名爲玉泉山. 山上有一老僧, 法名普淨. …… 三更已後, 普淨正在庵中默坐, 忽聞空中有人大呼曰: “還我頭來!” …… 普淨認得是關公.)¹⁹⁾

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관우와 보정은 다시 만나게 된다. 이 관우 현성 대목이 후일 관우숭배의 근원적 한 출발점이 된다. 옥천산에서 보정스님은 종교적 힘을 발휘하여 관우를 신으로 승화시켜 버린다. 여기에서부터 현실을 떠난 모습의 관우는 이후 신적인 모습으로 소설의 주요 줄거리 대목마다 나타나 그 영험함을 보여주며 점차 점차 그 형상이 신격화되어져 간다.

(2) 관우는 신적인 모습으로 인과응보의 응징에 나타난다. 신으로 승화되어진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먼저 그를 해친 적들에게 나타나 응분의 보복을 가하며 그 위력을 발휘한다. 《삼국연의》 제77회에 관우가 신이 되어 나타나 손권을 욕하는 대목이 있다. 살펴보면,

손권은 친히 술을 따라 여몽에게 주었다. 여몽이 술을 받아서 마시려다 별안간 잔을 땅에 내던지고 한 손으로 손권의 먹살을 쥐며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욕하며 말하길 : “이 눈깔 푸르고 수염 붉은 쥐새끼 같은 놈아! 나를 알겠느냐?” …… “내가 황건적을 무찌른 후로 천하를

19)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7쪽.

횡행하기 30여 년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네 놈의 간계에 빠지고 말았으니 내가 살아서 네놈의 육신을 씹지 못한다면 죽어서 네놈의 혼을 쫓아다닐 테다. 나는 한수정후 관운장이다.”

(親酌酒賜呂蒙. 呂蒙接酒欲飲, 忽然擲杯于地, 一手揪住孫權, 厲聲大罵曰: “碧眼小兒! 紫髯鼠輩! 還識我否?” …… “我自破黃巾以來, 縱橫天下三十餘年, 今被汝一旦以奸計圖我, 我生不能啖汝之肉, 死當追呂賊之魂! 我乃漢壽亭侯關雲長也.”²⁰⁾

라도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여몽의 몸을 빌려 나타나 자신을 죽인 원수 손권을 혼나게 해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여몽은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들어 버린다. 관우의 신적 위력이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여몽의 목숨을 앗아 적을 응징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계속하여 또 다른 원수 조조를 응징함에도 그 신적인 모습은 위력을 보여준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사자가 목갑을 바치자 조조가 받아 뚜껑을 열고 보니 관공의 얼굴이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조조가 웃으며 말하길 : “운장공, 그간 별고 없으셨소?” 말을 마치자마자 관공이 입을 벌리고 눈알을 굴리며 수염과 머리털을 몽땅 곤두세우니, 조조가 놀라서 가무러쳤다.

(呈上木匣, 操開匣視之, 見關公面如平日. 操笑曰: “雲長公別來無恙!” 言未訖, 只見關公口開目動, 鬚髮皆長, 操驚倒.)²¹⁾

라고 서술되어 있다. 동오는 관우를 참수한 후 유비의 보복이 두려워 관우의 머리를 조조에게 보내게 된다. 이에 조조는 기쁜 마음으로 관을 열어 보게 되는데 관우가 인간을 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처럼 혼줄을 빼놓은 것이다. 관우는 앞서 손권을 혼내더니 조조 앞에 나타나 조조를 실신하게 만들어 결국 두 원수를 모두 응징하여 버린다. 실로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관우의 신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관우는 신적인 모습을 통해 형님 유비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형님 유비의 꿈에 나타나 그 억울한 죽음

20)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8쪽.

21)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9쪽.

을 알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삼국연의》 제77회를 보면,

별안간 방안에 찬바람이 일며 등불이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켜지기에, 현덕이 고개를 들어보니 등불 아래 한사람이 서 있었다. 현덕이 묻기를 : “너가 누구이기에 이 깊은 밤중에 내 내실에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다. 현덕이 의아해 일어나 자세히 보니 그는 관공인데 등불 그림자 아래 어둠 속을 왔다 갔다 하며 자꾸 몸을 피했다. 현덕이 말하길: “아우, 그간 별고 없었나? 깊은 밤중에 여기를 왔으니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겠네.” …… 관공이 울며 말하길: “원컨대 형님께서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 현덕이 놀라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었고 때는 3경이었다.
(就室中起一陣冷風, 燈滅復明, 擡頭見一人立于燈下. 玄德問曰: “汝何人, 夤夜至吾內室?” 其人不答. 玄德疑怪, 自起視之, 乃是關公, 于燈影下往來躲避. 玄德曰: “賢弟別來無恙! 夜深至此, 必有大故. …… 關公泣告曰: ”愿兄起兵, 以雪弟恨!“ …… 玄德忽然驚覺, 乃是一夢: 時正三鼓.²²⁾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후 유비의 꿈에 나타난 것이다. 그 혼령이 그의 죽음을 알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유비에게 군사를 일으켜 아우의 한을 풀어 달라 한 것이다. 이 꿈은 실제로 후일 동오와의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의 신령스런 영험성은 효력을 발휘한 셈이 된다. 이후 관우는 다시 한 번 유비의 꿈에 나타나는데, 유비가 동오와의 전쟁에서 대패하고 백제성으로 돌아와 그 후유증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 《삼국연의》 제87회를 살펴보면,

홀연히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 등불이 꺼질 듯 깜박거리다 다시 밝아졌다. 등불 그림자 아래에 두 사람이 시립해 있는 것이 보였다. …… 선주가 일어나 살펴보니 좌편은 운장이요 우편은 익덕이었다. …… “신 등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 형님과 아우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선주가 그들을 붙잡고 목을 놓아 울었다. 문득 놀라 깨어나 보니 두 아우가 보이질 않았다.
(忽然陰風驟起, 將燈吹搖, 滅而復明. 只見燈影之下, 二人侍立. …… 先主起而視之, 上首乃雲長, 下首乃翼德也. …… “臣等非人, 乃鬼也. ……

22)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389쪽.

哥哥與兄弟聚會不遠矣。”先主扯定大哭。忽然驚覺，二弟不見。)²³⁾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와 장비가 유비의 꿈에 함께 나타나 이미 귀신이 되었음을 알리며 곧 함께 모이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 두 번의 꿈에서 볼 때, 관우는 현실을 떠난 상황에서도 신적인 모습을 통해 유비, 장비와 현재와 내세를 뛰어넘은 깊은 형제의 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아직은 인간적 모습이 짙게 깔려있어 완전한 신으로서의 성격형상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신적인 모습이 중첩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4) 관우는 신적인 모습으로서도 변함없이 자식을 보호하고 있다. 이 역시 인간적 모습을 아직 탈피하지 못한 것인데 살펴보면 신분만 신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 아직은 인간적 모습이 더 강하고 절실히 보이는 대목이다. 관우는 현실을 떠났음에도 신적인 모습을 통해 두 번씩이나 나타나 아들 관홍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여준다. 《삼국연의》 제83회를 보면, 관우는 그의 신상(神像)을 받들고 있는 어느 한 산간의 인가에서 나타나 아들 관홍이 반장(潘璋)을 참하고 청룡언월도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데 살펴보면,

관홍이 그를 보고는 곧 칼을 손에 들며 큰 소리로 꾸짖으며 이르길 :
“네 이놈, 도망칠 생각마라!” 반장이 몸을 돌려 나가려 하였다. 바로 문 앞에서 한 사람이 무르익은 대추 같은 안색, 봉의 눈, 누에 눈썹에 세 가닥의 아름다운 수염을 펴리며 녹색 전포, 황금 투구차림으로 검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반장은 관공이 현성한 것을 보자 크게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며 혼비백산하였다. 다시 몸을 돌려서 피하려 했으나, 이미 관홍의 손이 칼을 들어 올리자 땅위에 쓰러졌다.
“關興見了，按劍大喝曰：‘歹賊休走!’”璋回身便出。忽門外一人，面如重棗，丹鳳眼，臥蠶眉，飄三縷美髯，綠袍金鎧，按劍而入。璋見是關公顯聖，大叫一聲，神魂驚散：欲待轉身，早被關興手起劍落，斬于地上。²⁴⁾

23)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26쪽.

24)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15쪽.

라고 서술되어 있다. 죽어서 까지도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자식을 도와주는 부모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관우의 인격과 신격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 《삼국연의》 제94회를 보면, 관홍이 강족의 장수 월길원수(越吉元帥)와의 싸움에서 물속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자 관우가 신이 되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살펴보면,

관홍은 스스로 저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당연히 만나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달려 뒤쫓아 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운무 속에 희미하게 한 대장이 있는데 그의 얼굴은 무르익은 대추 빛이요, 눈썹은 누운 누에 같고 초록 전포에 황금 투구를 썼고, 손에 청룡도를 들고 적토마에 앉아서 손으로 아름다운 수염을 쓰다듬고 있었다. 관홍은 그가 분명 자기 부친 관공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문득 관공이 손으로 동남쪽을 가리키며 말하길 : “내 아들이 빨리 이 길을 향해 가거라. 내가 너를 보호하여 네 영채로 돌아가게 해주마.” 말을 마치자 보이지 않았다.

興自思此人救我性命，當與相見，遂拍馬趕來。看看至近，只見雲霧之中，隱隱有一大將，面如重棗，眉若臥蠶，綠袍金鎧，提青龍刀，騎赤兔馬，手綽美髯。分明認得是父親關公。興大驚。忽見關公以手望東南之曰：“吾兒可速望此路去。吾當護汝歸寨。”言訖不見。²⁵⁾

라고 서술되어 있다. 관우가 역시 그의 아들 관홍을 긴박한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간 세계를 떠났음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과 모습을 잃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전지전능하고 초연한 신적인 모습보단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에서 잘 느껴볼 수 있다.

(5) 관우의 신적인 모습은 한편으로 전쟁신으로서의 신격도 보여주고 있다. 관우는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적인 모습으로 전투의 상황에 두 번이나 나타난 셈이다. 비록 아들 관홍을 위해서이긴 하지만

25) 羅貫中, 《三國演義》, 앞의 책, 477쪽.

결과적으로는 분명 전쟁터에서 승리를 도와주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이 되어 전쟁터에 나타난 관우의 엄숙한 용모와 정중한 태도는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전쟁신의 모습은 관우의 가장 기본적인 신성중의 하나이다. 후세에 나타난 관우의 신적인 모습의 많은 부분은 호국안민과 연관이 있다. 물론 관우는 소설이 태동되기 전 송대 민간전설에서부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던 치우(蚩尤)를 관우신이 물리쳐 세상을 보호했다는 전설²⁶⁾이 있을 정도로 이미 전쟁신으로 신격이 보여 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소설이 유행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신으로 모셔지게 된다. 이후 민간인은 물론이고 문인들 역시 관우의 전쟁신으로서의 신격을 그들의 시가를 통해 인정하였다.²⁷⁾

이상에서 살펴 본 소설 속 관우형상의 신적인 모습은 역사적 원형이나 근거는 없다. 이는 분명 민간에서의 관우에 대한 인기와 그에 따른 민간문화 영향과 민간인들의 종교적 욕구와 바람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회 종교 문화적 분위기에 합리적인 허구를 더하여 《삼국연의》에 관우의 신적인 모습이 반영되어 녹아든 것이다. 그래서 관우는 사람과 신의 신분과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역사연의소설 《삼국연의》 속에 등장하게 된다. 결국 이리하여 소설 속 관우형상은 인격형상에 신적인 모습이 겹쳐져 있게 되는 것이다. 관우라는 인물은 소설 속에서 평생토록 의를 잃지 않고 실천한 도덕적 면에서 가장 숭고하고 완벽한 이상적인 인물로 예술성을 갖추어 그려져 있기에 이런 다중적 의미의 소설 속 관우형상이 현실과 초현실의 혼재 속에서도 독자들에게 황당무계한 혼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전통사회 도덕문화에 잘 부합하며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관우형상의 의미를 넓히는 기초가 되어 이후

26) 候學金 主編, 〈關公戰蚩尤〉, 《解州關帝廟》(解州: 解州關帝廟文物保管所, 1988), 189~191쪽 참조.

27) 明 郭子章 〈紀夢〉: “夜夢壯繆侯, 車騎儼相過. 倒屣延之八, 席分賓主坐. 論賊無足虞, 秣糠易揚簸.” 《關帝事迹徵信編》卷二十九〈詩詞〉, 劉海燕, 앞의 책, 145쪽 참조. 明 張恒 〈平泉紀異〉: “君不見, 赫赫英靈如常在, 佑國誅賊顯台海. … 又不見, 小子患瘤危篤時, 夢中常得帝扶持.” 줄고 〈文人詩歌에 반영된 關羽형상〉, 《中國研究》(2013.3), 12~13쪽 참조.

중국 민족 전통문화를 수용하며 관우형상이 더 큰 다중적 모습을 지닌 신격형상으로 가게 되는 토대가 된다. 이런 현상은 중국 전통사회 문화의 여러 요소가 바탕이 되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기에 후일 자연스레 관우숭배문화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연의》 속의 다중적 의미의 관우형상은 곧 과거에 근거한 수준 높은 인격형상의 완성을 통해 미래의 신격형상으로의 승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관우숭배문화 속에서 지니는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은 과거 인간 관우에 대한 정리와 완성이며 동시에 미래 신적 관우의 시작이라 하겠다.

3. 맺음말

역사 속 인물 관우의 실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다만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내재적 실재를 좀 더 발전되어진 문화가 다른 관점과 언어 표현으로 그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삼국연의》의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요인이 관우형상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런 까닭에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역사와 문학적 서사의 절묘한 만남은 역사 인물에 대한 예술적 매력을 더욱 증가시켜 주었다.

이렇게 변화되어 창출되어진 《삼국연의》 속의 관우형상은 분명 영웅적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 모습은 형식적 면에서 영웅전기적 구조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영웅전기적 서술을 통해 창출되어진 영웅적 관우형상은 중국민족의 보편적 정서에 잘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우형상 속의 신적인 모습은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신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모든 중국 사회와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과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결국 소설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은 여러 면에서 중국 민족적 정서와 전통사회 도덕 문화에 잘 부합되는 특징을 두루 지니었기에 관우숭배문화 형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관우숭배문화에서 《

삼국연의》 속 관우형상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는 관우의 과거 역사 속의 행적에 근거하여 영웅적 모습을 구현하고, 미래 신격화를 위한 신적인 모습을 체현시켜 후일 관우숭배문화의 큰 바탕이 되게 한 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羅貫中, 《三國演義》,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1
種兆華, 《元刊全相平話五種校注》, 成都: 巴蜀書社, 1989
정원기 역주, 《三國志平話》, 서울: 청양, 2000
陳壽撰 裴松之注, 《三國志》(上·下), 長沙: 岳麓書社, 2006
陳壽, 김원중 역, 《삼국지》, 민음사, 2010
朱一玄 劉毓忱 編, 《三國演義資料彙編》,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83
張志江, 《關公》,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劉海燕, 《從民間到經典》,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4
宋萬忠 武建華 標點注釋, 《解梁關帝誌》,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2
于朝貴, 《三國演義探論》,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胡小偉, 《關公崇拜溯源》, 太原: 北岳文藝出版社, 2009
蔡東洲 文廷海, 《關羽崇拜研究》, 成都: 巴蜀書社 2001
馬書田 馬書俠, 《全像關公》, 南昌: 江西美術出版社, 2008
黎東方, 《細說三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7
馬昌儀 編選, 《關公傳說》, 北京: 中國社會出版社, 2008
朱正明, 《關公聖迹》,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04
劉錫誠 等著, 《關公信仰》, 北京: 學苑出版社, 1993
남덕현, <文人詩歌에 반영된 關羽형상>, 《中國研究》, 2013.3

<中文提要>

目前关羽信仰和关羽崇拜已经成为中国社会的一种特殊文化现象。关羽形象随着三国历史而走进中国社会, 他的故事也在悠久的中国历史和广范的

地区上流传了将近两千年。随着时代的推移, 关羽形象也有了变化。在关羽形象演变过程中, 长篇历史演义小说《三国演义》所塑造的历史人物关羽完成了其形象的文学定型。本论文考察《三国演义》所塑造的关羽人物形象的特点, 以探讨了在关羽崇拜文化现象上其特点所反映的价值和意味。

關鍵詞： 關羽 關羽形象 《三國演義》 關羽崇拜 關羽崇拜文化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湯顯祖의 〈茶馬〉詩 小考*

오창화**

〈목 차〉

1. 들어가면서
2. 탕현조와 茶詩
3. 역대 茶政과 ‘茶馬互市’
4. 〈茶馬〉詩 考析
5. 나가면서

1. 들어가면서

唐宋 이래 四川, 陝西 일대 서북 변방에는 ‘茶市’와 ‘茶馬司’를 두어 관치를 통한 민간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明代에 이르러 이전보다 훨씬 쌍방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교역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明史》권80 〈茶法〉에서 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茶馬〉시¹⁾는 극작가이자 시인, 학자로서 뛰어난 족적을 남긴 湯顯祖(1550~1616)가 남긴 작품으로서 바로 명말의 ‘茶法’, ‘茶政’을 소재로 하고 있는 특이한 시이다. 湯顯祖는 생전에 ‘비성인’의 책을 애독하고 ‘기의’가 있는 선비들과 널리 교제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등 외향적인 성격을 보여주었으나 성품이 정직하고 강직한데다가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청렴한 관직생활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여러 한직을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중국대학 교수(o1129@ks.ac.kr)

1) 湯顯祖 撰, 徐朔方箋校, 《湯顯祖詩文集》第二十卷, 玉茗堂詩之十五, 上海古籍出版社, 1982, pp.808~809에 수록된 것을 저본으로 하였음. 〈茶馬〉시는 언제 지어진 것인지 분명치 않다.

전전하다가 “不如掩門自貞(집안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정절을 지키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독서와 시문창작 등에 몰두하다가 일시 浙江 遂昌의 知縣에 임명되어 선정을 펼치기도 했으나 이 역시 고관대작들과의 교제가 없었던 탓에 6년 동안이나 승진을 하지 못하자 과감하게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臨川으로 돌아가 玉茗堂을 짓고 훗날 明清 傳奇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는 《牡丹亭》을 완성한다. 그때가 湯顯祖 나이 49세였다. 湯顯祖가 처한 시대는 문단이 擬古思潮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었다. 前七子를 계승한 後七子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湯顯祖가 21세 때 後七子の 리더였던 李攀龍이 세상을 떠났으나 王世貞이 득세하여 문단의 맹주가 되고 20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켰다. 탕현조는 그들의 형식적인 복고풍조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한대와 송대의 문장은 제 나름대로 그 풍취를 다하고 있다(漢宋文章, 各極其趣)”는 것이 탕현조의 생각이었고, ‘自然靈氣’의 묘를 추구하였다. 탕현조의 詩창작은 젊은 시절에 六朝의 화려한 시풍의 영향을 받아 ‘詩必盛唐’의 당시 풍조에 대항하는 입장이었으나 宋詩의 난삽한 풍격을 답습하는 등 의고파의 문풍이나 시풍을 극복하는데 그다지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의 고문은 주제담론이나 변론에 장기를 보인 의론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그의 서간문은 감정이 풍부하고, 문필이 유창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다만 탕현조의 성가는 후대로 갈수록 시문보다는 희곡작품에 무게가 실리는 통해 그의 시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茶馬>시 역시 원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한 작품이었으나 최근 ‘茶馬古道’가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차의 통상루트를 방증하는 자료로 부각되어 일반에게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이 시에는 당대부터 역대 왕조를 거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차의 인문지리학적 배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통해 목민관으로서 당당했던 탕현조의 경륜과 애국적인 시국관, 명대 조정의 茶政과 관민의 의식구조 등을 두루 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을 하자면 이 시는 탕현조의 시

풍을 대변할 만큼 예술성이 두드러진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흔치 않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차를 둘러싼 시사적인 문제를 정곡을 찌르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진솔한 어조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일고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2. 탕현조와 茶詩

탕현조의 고향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자 송대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王安石이나 曾鞏과 마찬가지로 江西省 臨川이다. 이 臨川 주위의 撫州나 遂昌은 차의 산지로 예로부터 유명한 지역이다. 탕현조 자신이 차를 즐기고 차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그가 堂號를 玉茗堂이라고 명명하고 그 자신을 玉茗堂主人이라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탕현조 자신이 遂昌의 知縣으로 있을 때 그곳의 차를 음미하고 남긴 <竹院烹茶>시는 그가 평소 얼마나 차를 즐겨 마셨는지를 가늠케 해준다.

君子山前放午衙, 관아 일을 마친 오후 군자산 앞,
濕烟靑竹弄雲霞. 안개 자욱한 푸른 대나무 숲으로 노을이 지네.
燒將玉井峰前水, 옥정봉 감천수로 찻물을 끓여,
來試桃溪雨後茶. 도계산 우후차의 맛을 보세나.

늦봄, 여름의 문턱에서 비가 개이고 안개가 자욱이 낀 어느 날 오후 군자산 앞 관아 안에 있는 죽원에서 玉井峰에서 길러온 甘泉水를 끓여 桃溪産 햇차인 雨後茶를 마시는 여유로운 모습이 이 시에 담겨있다. 이 시는 情景交融의 경지를 그린 한 폭의 茶畵를 연상시킨다.

탕현조는 그의 주요 관심사이자 특기였던 昆曲 외에 지방에서 공연되는 각종 民間小戲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탕현조는 어느 날 江西 지역 민간 연극의 연출자를 만나 차를 마시면서 회포를 나누다가 헤어졌는데, 그 때의 정경을 <看采茶人別>시에 담았다.

粉樓西望淚眼斜, 극장 저 너머 서쪽 하늘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

畏見江船動落霞. 강물에 출렁이는 배 노을마저 흔들어놓나.
四月湘中作茶飲, 춘사월 상강에서 마시던 차,
庭前相憶石榴花. 뜰에 피었던 석류꽃이 기억 속에 새록새록.

萬曆 26년(A.D.1598) 탕현조는 龍游 溪口鎮을 지나면서 봄날 차를 따는 소녀의 모습을 보고 <題溪口店寄勞生希召龍游二首>를 지었다. 그 중 제1수를 보자.

穀雨將春去, 곡우를 지나면서 봄날은 간다.
茶烟滿眼來. 안개 자욱한 차밭이 온통 눈을 채우는데,
如花立溪口, 계구 차밭에 꽃처럼 서 있는 게,
半是采茶回. 차를 따는 소녀들인가 하노라.

溪口는 遂昌과 龍游의 교차점에 있는 아담한 고을인데, 탕현조는 遂昌 가는 길목에 溪口를 지나가야 했다. 그는 안개가 자욱한 길가에서 우연히 차밭에서 차잎을 따는 꽃처럼 청초한 소녀들을 발견하고 수채화 같은 한 편의 시에 담은 것이다.

탕현조가 雁蕩山에 유람차 갔다가 현지의 차농가에 들른 김에 지은 茶詩 <雁山種茶人多阮姓, 偶書所見(안탕산에서 차를 재배하는 농부 가운데 완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之一>를 보면,

一雨雁山茶, 부슬비 내리는 안탕산의 차밭,
天台舊阮家. 천태산의 완씨네 집성촌.
暮雲遲客子, 저녁노을은 나그네의 발길을 더디게 만들고,
秋色見桃花. 질어가는 가을빛 복사꽃에 어린다.
壁繡莓苔直, 절벽을 수놓은 푸르른 이끼,
溪香草樹斜. 구부정한 나무 사이로 골짜기를 휘도는 향긋한 풀내음
風簫誰得見,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空此駐雲霞. 텅빈 공간엔 노을 진 구름만 가득.

탕현조가 살던 그 시절 雁蕩山에 거주하며 차농사를 짓던 사람 중에 유난히 阮氏 姓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는 이 阮氏 姓에서 우연히 劉晨

과 阮肇가 天台山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선녀를 만났다는 전설을 연상하였다. 이 시는 전형적인 ‘觸景絃情’의 경지를 그린 시임을 알 수 있다. 그 시상의 발단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雁蕩山の 심산유곡에서 자라는 차가 전해주는 신비감이다. 武夷山이나 雁蕩山 등 심산유곡에서 자생하는 차는 그 자체의 품질도 우수하거니와 그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인구에 회자하는 많은 전설을 생성하는 매체적인 역할을 하였다. 湯顯조도 雁蕩山の 차를 보고, 그곳에 거주하는 茶人들의 정체성에 신비감을 더하는 시를 짓게 된 것으로 보인다. 雁蕩山을 소재로 한 그의 <雁山迷路> 역시 그런 신비감이 포장된 인상을 주는 시이다.

借問采茶女, 찻잎 따는 여인에게 물었네,
烟霞路幾重. 안개 자욱한 저 대룡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屏山遮不斷, 병풍처럼 산이 둘러있긴 하지만,
前方剪刀峰. 저 앞에 전도봉을 돌아서면 된다네.

雁蕩山에 있는 大龍湫폭포는 중국 四大名瀑의 하나이다. 시 속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剪刀峰과의 거리로 추산해보면 바로 이 폭포 근처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차밭에서 차를 따는 여인에게 길을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湯顯조의 대표작이자 臨川四夢의 하나인 <牡丹亭>에는 도처에서 차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펼쳐진다.²⁾ <牡丹亭> 第八齣 勸農에 보면, 南安 지역 采茶歌舞戲의 한 장면이 극중극 형태로 연출되고 있다.

……【전장】〔노단, 축이 차를 따서 담은 광주리를 들고 등장하며〕
곡우시절을 맞이하여 일년이 창처럼 뽕족하고, 일이 기처럼 퍼지고,
금줄처럼 가느다란 햇차잎을 따노라. 여기에 관리들이 어떤 일이지?
그녀를 녹이려온 학사인가, 그녀를 몹시 그리워한 서생인가, 안개 자

2) 《牡丹亭》에는 무려 26차례나 차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비록 연극 속의 상황설정이긴 하지만 대부분 작자의 직접적인 경험이 없이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점에서 명대 당시의 보편화된 차문화를 반영한 살아있는 문화자료라고 할 수 있다. ‘早茶’, ‘午晌茶’, ‘茶食’, 정혼 때 차를 마시는 풍속인 ‘下茶’(‘茶定’, ‘受茶’라고도 함) 등을 언급한 대목에서 다양하고 생생한 당시의 차문화를 읽을 수 있다.

옥한 대나무숲에 번듯한 기와로다. [外] 거참 멋진 노래로구나. 아서라, 우정의 학사도 아니고, 양선의 서생도 아니다. 이 고을 사또가 격려자 남신 것이다. 뽕잎을 따고, 찻잎을 따는 아녀자들 모습이 꽃을 따는 것보다 더 멋지구나. 이런 노래가 있지. “다 있다는 하늘에는 茶星만 없고, 지하에서는 온갖 화초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지. 한가로운 여인네는 풀싸움을 즐기고, 아무리 멋진 풍광도 차 겨루기만 못하네.” 술 가져오고, 머리에 꽃을 꽂도록 하라. [노단, 축이 머리에 꽃을 꽂고, 술을 마시는 동작을 한다] [다함께] 사또와 함께 취하여 노을을 흘려보내고, 산들바람 맞으면서 꽃을 꽂고 함박웃음을 지으니, 차를 따는 여인들이 너무나도 멋지구나. [퇴장] [생, 말이 무릎을 꿇는 동작을 한다] 사또 나오리, 마을 어르신들이 음식과 차를 마련하여 모시러 왔습니다. [外] 필요 없느니라. 꽃이 있고 술이 있으면 그만이다. 어르신들더러 그 음식을 가져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사또의 격려하는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일러라. 여봐라, 출발하자.3)

이 대목은 비록 짧은 장면이긴 하지만 采茶, 詠茶, 泡茶, 敬茶 등 茶道의 핵심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다. 탕현조가 이 극을 집필하기 직전 南安을 두 차례 방문하였고, 그곳의 風情을 담은 시문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보아 현지에서 采茶戲 공연을 인상 깊게 봐두었다가 극중에 수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내용인즉, 南安태수 杜寶가 성문 밖 淸樂鄉이란 곳으로 놀러나갔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영접을 받는 장면이다. 고을 원로들이 주동이 되어 대거 태수 일행을 영접하는 뜻에서 고을의 민속을 반영한 가무를 연출하는데, 작자의 선지식이나 견문이 없이는 이렇게 생동하는 장면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탕현조의 소박하면서도 친화적인 성품과 탈권위적인 목민관으로서의 경륜이 南安태수 杜寶의 형상에 겹쳐짐을 직감할 수 있다. 명대 당시 강서지역은

3) <牡丹亭> 第八齣 勸農 : “……【前腔】 [老旦、丑持筐采茶上] 乘穀雨, 采新茶一旗半槍金縷芽. 呀, 什麼官員在此? 學士雪炊他, 書生困想他, 竹烟新瓦. [外] 歌的好. 說與他, 不是郵亭學士, 不是陽羨書生, 是本府太爺勸農. 看你婦女們采桑采茶, 勝如采花. 有詩爲證: ‘只因天上少茶星, 地下先開百草精. 閑煞女郎貪鬪草, 風光不似鬪茶清.’ 領了酒, 插花去. [老旦、丑插花, 飲酒介] [合] 官裡醉流霞, 風前笑插花, 采茶人俊煞. [下] [生、末跪介] 稟老爺, 衆父老茶飯伺候. [外] 不消. 餘花餘酒, 父老們領去, 給散小鄉村, 也見官府勸農之意. 叫祇候們起馬.”

撫州, 南昌, 贛南 등 차가 양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민간공연예술 형태의 采茶戲가 광범위하게 유행하고 있었다. 탕현조 역시 그런 민속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회곡 속에 한 장면으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민속과 시, 연극 등의 매체적인 수용과정은 采茶戲를 비롯하여 남방의 국부적인 차문화가 차츰 지역문화의 경계에서 벗어나 전국적이고 전방위적인 인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탕현조는 시인이라기보다 극작가로서 명성을 한 몸이 받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시가 무려 二千二百餘 수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진면목이 그 많은 시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되어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가 남긴 시를 조목조목 여과해 나간다면 그의 감정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시대와 사회를 보는 식견과 사상까지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여러 학자들이 그의 시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터이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가령, 차문화에 관한 탕현조의 인식범주와 명말의 문단이나 무대활동과의 연계성 등은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탕현조가 남긴 몇 편의 茶詩를 통해 그의 고향을 비롯한 주위의 산지가 온통 양질의 차를 생산하는 곳이었던 만큼 그가 차를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탕현조는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의 여유이자 즐거움이라고 토로한 바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차에 관한 시문을 그다지 많이 남기지는 않았다. 탕현조는 형이상학적인 다도의 경지를 담은 茶詩보다는 차의 사회적 기능, 생산성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茶馬>시나 <邊市歌>와 같은 목직한 주제의 사회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의식이 있는 관리로서 차의 문화적 기능, 道樂的 기능보다는 그 차로 파생된 사회적, 경제적 기능에 더 주목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탕현조에게 차는 정서적 동반자이자 국력신장의 방편으로서 전략적 물주였던 셈이다. 차는 허약한 국가재정을 만회할 수 있는 세원이 되고, 변방지역 너머 이민족들과의 호혜무역을 통한 국방물자 조달을 가능케 하는 물목이라는 점을 탕현조는 누구보다도 절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茶政, 茶法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과 제도가 탕현조의 우려처럼 누구를 위해 마련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明代 말엽의 「茶馬互市」는 본래의 생산적인 의도와는 달리 조직을 좀먹는 탐관오리나 제 밥줄만 챙기는 영악한 악덕상인들의 무분별한 착폐, 伏地不動, 安逸無事에 빠져 소명감을 상실한 말단 관리들의 지리멸렬한 행위 등이 겹치면서 외곽에서부터 국력이 급격하게 잠식당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推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변방의 통제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탕현조는 바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신이 느낀 참담한 심정을 충정어린 현실비판의 시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3. 역대 茶政과 ‘茶馬互市’

차에 관한 각종 중국 사료의 기록이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사료의 기록에 따르면 중국차가 해외로 전파되기 시작한 시점은 南北朝시기로 여겨진다. 당시 상인들은 몽골과의 접경지역에서 물물교환 방식으로 터키 등지로 차잎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隋唐시기에는 변방의 무역시장이 활기를 띠고 실크로드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茶馬교역의 방식을 통해 당시로서는 희귀품목에 해당하던 중국차가 回紇, 西域 등을 경유하여 서아시아, 북아시아, 아랍, 러시아, 유럽 각국에까지 널리 퍼져나갔다.⁴⁾

특히 唐代에는 차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한 관료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여 차의 유통구조와 세수정책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자유무역 형태의 茶馬교역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는 보호무역 형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4) 唐 封演의 《封氏見聞記》에 보면, “……始自中地, 流于塞外. 往年回鶻入朝, 大驅名馬市茶而歸, 亦足怪焉([차문화가] 중국 내지에서 비롯되어 국경 너머로 흘러들어갔다. 왕년에 위구르가 입조할 때 양질의 말을 대거 몰고 와서 차와 교역하고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 때 이미 중국 내지와 변방 족속과의 차마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唐 肅宗 至德元年(A.D.756)부터 蒙古의 回紇지역에서 차와 말이 교역품으로 등장하였고, 그 후 지속적으로 대내외적인 차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唐 德宗 貞元九年(A.D.793)부터는 관청에서 아예 茶稅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貞元 말년에 이르러 변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대를 확충하였는데, 기마병들이 탈 말들과 군수품 운송용 말의 확보가 시급한 현안문제가 되었다. 다행히 서북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은 말을 많이 비축하고 있었지만 차가 전혀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륙에서 차를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당 조정과 변방 민족의 쌍방간의 이해득실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변경무역시장을 개설하여 서로 필요한 물품인 차와 말을 맞교환하기 시작하였다.⁵⁾ 이 시기의 「互市」가 후대 본격적인 茶馬교역의 실질적인 효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北宋 때는 주로 陝甘지역에서 茶馬교역이 이루어졌다. 교역시에 필요한 차는 중국 서남지역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충당하였고, 교역 및 징세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榷茶와 茶馬司⁶⁾를 각각 成都와 秦州(지금의 甘肅省 天水)에 두었다. 송 조정은 변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제도를 정비해가면서 대대적으로 ‘茶馬互市’ 정책을 추진하여⁷⁾ 변방 족속, 특히 서남지역의 티베트족을 견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두었고, 부수적으로 군마를 확보하고 군수조달을 위한 재정충당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元代에는 변방정책의 전면적인 조정에 휘말려 茶馬교역을 활용한 군사력 강화, 변방방어정책이 설득력을 잃고 폐지되는 운명을

5) 《新唐書·隱逸列傳·陸羽傳》에 보면, “時回紇入朝, 始驅馬市茶(이 때 위구르가 당 조정을 공식방문하면서 비로소 말을 몰고와서 차와 교역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초기에 물물교환된 말은 주로 위구르지역에서 나는 말 이었고, 중국차는 漢中·安康 등지에서 산출된 소위 陝南茶였다.

6) 茶馬司의 직책은 “掌榷茶之利, 以佐邦用; 凡市馬于四夷, 率以茶易之(차의 독점판매를 통한 이윤을 창출하여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고, 사방 오랑캐와의 말교역에 차를 수단으로 맞바꾸는 일을 관장한다).”(《宋史·職官志》) 이 茶馬司의 성격과 직무가 분명해진 송 太宗 太平興國八年(A.D.983) 무렵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茶馬互市’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7) 가령, 송 神宗 熙寧七年(A.D.1074) 茶馬法을 시행하여 成都에 都大提舉茶馬司를 두어 정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 일례이다.

맞이하였다.

그러다가 명대 초기에 茶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조정에서는 이 제도를 다시 부활함과 동시에 서북지역의 거주민을 통제하는 중점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茶馬정책에 관한 한 명대는 송대보다도 더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⁸⁾ 통계상으로는 한 동안 변방지역에서 활발한 교역이 성사되고, 중국 전역의 차산업 자체가 호황을 맞이하여 空前의 황금기를 구가하였다. 가령, 明太祖 洪武 연간에는 上等의 말 한 필이 찻잎 120근과 교환될 정도로 고가에 거래되었고, 明神宗 萬曆연간에는 上等의 말 한 필에 찻잎 30匁, 中等은 20비, 하등은 15비 등으로 거래될 정도였다. 탕현조는 바로 이런 거액의 자금과 물품이 오고가는 茶馬교역의 현장에서 부작용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애국적인 심정을 담아 시 속에서 거론하게 된 것이다. 명대 기록에 따르면, 당시 변방에서는 대규모의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먼 상인들이 밀무역도 서슴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⁹⁾

清代 초기에는 元代처럼 茶馬교역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변방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私貿易이 성행하게 된 데다가 차의 소비량은 늘어나는 반면 양질의 말 확보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폐단이 발생하였다.¹⁰⁾

8) 明代 楊一清이撰한 《關中奏議》 十卷 가운데 특히 卷一과 卷二의 <馬政類>와 卷三의 <茶馬類>는 楊一清이 弘治十五年 副都御史로서 陝西의 馬政을督理할 때 奏請한 문건들인데, <爲修復茶馬舊制以撫馭番衆安靖地方事(과거에 시행했던 차마정책을 수복하여 변방 이민족 사람들을 제어하고 지역을 안정시킨 일)>, <爲修復茶馬舊制以撫馭邊人安靖地方事(과거에 시행했던 차마정책을 수복하여 변방 사람들을 제어하고 지역을 안정시킨 일)> 등의 글을 통해 당시 명 조정의 ‘茶馬’정책이 얼마나 절실하고 긴박한 것이었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9) 明人 何孟春의 《餘冬序錄摘抄內外篇》을 보면, 歐陽倫이란 자가 사천에서 차를 밀무역하는 운송수단으로 말이 끄는 큰 수레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한번에 무려 50대나 동원하여 차를 운반했다고 하니 그 교역의 규모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0) 《清史稿》를 보면, 陝甘지역에서 番馬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청대前期에는 매년 11,088필 정도였고, 나중에 2000필이 추가로 증가하여 총 13,088필이 교환되었다고 하니 이 말들과 교환할 차는 무려 100만근 이상이 소요되어 섬서 지역의 七府一廳이 모두 동원되어 차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으나 정작 중국에 수입된 말들의 질은 담보하지 못한 채 숫자만 늘

다시 말해서 의미 없는 國富 유출이 점점 심각해진 것이다. 급기야 雍正十三年(A.D.1735) 건디다 못한 청나라 조정은 官營형태의 茶馬교역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변방의 차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륙에서 변방으로 차를 수송하고, 변방으로 들어오는 말의 집산과 목축관리를 하는 루트와 거점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이른바 험준하고 고도가 높은 척박한 산길을 횡단하는 茶馬古道라고 하는 루트가 자연스럽게 개발되어 원시적인 운송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 茶馬古道는 다소 설이 분분하긴 하지만 순전히 물물교환 형태의 茶馬교역이 이루어지던 초기 형태의 陝甘루트, 四川省 雅安을 기점으로 하여 康定·巴塘·昌都를 거쳐 西藏, 네팔, 인도로 이어지는 루트, 雲南 보이차 산지(西雙版納·思茅 등지)에서 大理·麗江 등지를 거쳐 邦達·察隅·昌都·라사 등 西藏의 주요 도시, 멀리는 버마·네팔·인도로까지 이어지는 루트 등 크게 세 갈래의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기본 루트를 중심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샛길이 그물망처럼 나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세 루트의 교역로는 공통적으로 인적이 거의 없고, 교통이 발달할 수 없는 험산준령, 심산유곡, 설원이나 고원지대의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개척된 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차를 수송하는 운송수단은 말이었고, 변방 지리에 익숙한 건장한 마부가 이들 말과 함께 생사를 건 길고 힘든 여정을 소화해 내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은 장사꾼이자 험난한 루트를 개척한 탐험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탕현조의 <茶馬>시도 이런 특수한 인문지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가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茶馬>詩 考析

전술한 바와 같이 <茶馬>시는 湯顯祖의 화려한 六朝 시풍이나 난삽한 宋詩의 풍격과 달리 매우 담백하고 평이한 시어를 구사하며 사실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以詩論事’의 時事的 안목과

어나는 추세였던 것이다.

牧民官으로서의 경륜¹¹⁾이 어우러져서 표출된 것으로 본다. <茶馬>시는 애석하게도 창작년도가 명기되지 않아 현존하는 文史자료만으로는 창작 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¹²⁾ 다만 탕현조가 40세~42세 무렵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萬侍御赴判劍州, 過金陵有贈(만시어¹³⁾가 김주의 지방관으로 부임하면서 금릉을 지나는 차에 선물을 전하면서)>(1590)의 부제에 “君以邊事論政府行(그대를 변방에 보내는 일을 두고 정부를 논한 시)”라고 한 대목이나 시구 가운데 “倍有金縵去, 毫無善馬來(황금 비단을 곱절이나 가져갔는데도 쓸만한 말을 전혀 보내오지 않네)”라고 한 대목으로 미루어 보면 <茶馬>시 역시 이 무렵에 지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또한 동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邊市歌>는 주제나 소재가 <茶馬>시와 매우 흡사하고, 내용 역시 시사적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해 <茶馬>시의 저작시기를 어렵פות이나마 추정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심증만 가지고는 확실한 저작시기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也知善馬不能來, 질이 좋은 말이 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去去金縵可復回. 황금과 비단은 가고 또 가고 반복이 되는구나.
未愁有虜驚和市, 오랑캐가 평화스러운 변방의 시장을 뒤흔들까 미처
근심하기도 전에
且是無人上敵臺. 적진을 향해 나아갈 사람이 아예 없구나.
別有帳中稱寫契, 계약을 맺는답시고 상대 진영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만
解誘邊人作奸細. 회유당한 변방사람 첩자가 되고 마네.
上郡心知虜騎熟, 위사람들이야 오랑캐가 말을 잘 타는 것을 마음으로
만 짐작할 뿐이지만,
西州眼見孤軍綴. 서주 사람들은 줄줄이 고립무원 상태가 된 군사들을

11) 湯顯祖가 浙江 遂昌의 知縣을 맡고 있던 5년 동안 얼마나 선정을 베풀었던지 태형을 받은 부녀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사형을 당한 범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12) 《湯顯祖詩文集·卷二十》(玉茗堂詩之十五)에 실린 [不編年詩一百七十七首] 중 한 수로 실려 있다. 同書 pp.808~809 참조.

13) 明 神宗 때 征拜御史, 南京刑部郎中을 지낸 萬國欽을 가리킴. 《明史·列傳第一百十八》에 그의 약력이 전한다.

직접 목도하고 있다네.
也先種色何紛紜, 아무리 먼저 종마를 번식시키자고 의견이 분분해도
五千餘里瞰胡羣. 수 천리 널린 것이 오랑캐 무리일 뿐이네.

이 시에 대해 《玉茗堂選集》을 輯한 沈際飛는 “邊事弊極矣, 存此以警當事者(변방의 일들이 폐단이 너무 심한 나머지 이 시를 남겨 당사자들에게 경고를 하려 한 것이다).”¹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茶馬>시에서 湯顯조가 당시 변경에서의 互市무역이 關稅의 전횡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아무튼 <茶馬>시가 湯顯조가 현직에 있으면서 애국적인 심경과 당시 혼란스런 정국, 변방정세 등을 아우르면서 지은 시라고 본다면 湯顯조 자신의 정치적 의욕이 넘치고 가장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던 시절에 지은 시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秦晉有茶賈, 楚蜀多茶旗. 섬서와 산서에는 차상이 있고, / 호남과 사천에는 차잎이 많다.

a. ‘秦晉’은 陝西와 山西를 가리키고, ‘楚蜀’은 湖南과 四川을 가리킨다. 한 마디로 茶馬交易이 중국의 남북을 관통하는 통상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명대에 茶馬互市에서 茶葉 경영을 주도하는 상인들은 대부분 陝西지방의 상인, 즉 秦商과 山西지방의 상인, 즉 晉商이었다.¹⁵⁾ 그들이 취급하는 茶葉은 陝西와 漢中에서 산출되는 차엽 뿐만

14) 前揭書, 卷九(玉茗堂詩之四)의 <邊市歌> 評 참조. pp.288~289.

15) 《清史稿·食貨志·茶法》의 기록을 보면, “명나라 때는 차에 관한 법이 세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관차로서, 변방에 저장해 두었다가 말과 바꾸었다. 둘째는 상차로서, 상인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셋째는 공차로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청조에서도 이 제도를 답습하여 섬서 감숙 지역에서는 오랑캐 말과 교역하고, 다른 성에서는 상인들을 초치하고, 허가증을 내주며, 납세를 하도록 하였다(明時茶法有三: 曰官茶, 貯邊易馬; 曰商茶, 給引徵課; 曰貢茶, 則上用也. 清因之, 于陝甘易番馬, 他省則召商發引納課).”

아니라 湖南의 ‘黑茶’와 四川의 ‘蜀茶’까지 교역물품으로 확보하여 다양한 품미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대처하였다. 茶馬互市에 투자하는 茶商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변화가 심한 국경 주변의 정세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예민한 정치적 감각이 절실했기 때문에 넉넉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들에게 주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엄청나게 컸다. 茶馬互市는 차상들에게 관로개척과 부의 창출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달픈 경영이었지만 茶문화의 전신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자산가로서의 자부심이 그들의 行商旅程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b. 茶旗란 ‘旗’라고도 부른다. 차나무에서 갓 자라난 어린잎을 가리킨다. 宋代 葉夢得的《避暑錄話》에 “가장 빼어난 것은 갓 자란 어린잎이다. 작설처럼 갓 싹이 튼 잎을 취해 창이라 부르고, 약간 자라 잎사귀의 모양새를 한 것은 기라 부른다(其精者在嫩芽, 取其初萌如雀舌謂之槍, 稍敷而爲葉者謂之旗).”라고 하였다. 唐代 皮日休의 <奉賀魯望秋日遣懷次韻>에서 “차나무 잎은 비를 맞고 나서 활짝 자라고, 석순은 구름의 습기를 머금고 불쑥 자라 오르네(茶旗經雨展, 石筍帶雲尖).”이라 하였고, 宋代 趙佶의《大觀茶論》에서는 “茶旗는 차나무 잎이 어느 정도 자란 것인데, 찻잎의 맛이 씹쓸하다. 이런 찻잎이 지나치게 많이 자라버리면 처음에는 그 맛이 혀에 남아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茶旗, 乃葉之方敷者, 葉味苦. 旗過老則初雖留舌, 而飲徹反甘矣).”라 하였다. 湯顯祖의 「茶馬互市」에 대한 이해는 총체적으로 역사 인문지리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지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金城洮河間, 行引正參差. 금성과 조하 사이에서는 / 상거래 허가가

라 하여 명대에 이미 공공의 기능을 하는 官茶, 조세의 대상이 된 商茶와 궁중 조달을 위주로 하는 貢茶의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니만

명대 당시 차의 교역을 관장하던 茶馬司가 ‘金城·洮河’ 일대에 설치되었는데, 그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가치소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일보한 고찰을 요한다.

a. 金城의 인문지리 : 상단을 이끌고 오고 가는 일이나 그 노선. 험준한 산맥이나 고원지대를 횡단해야 하는 지리적 난점이 상존하는 길을 나귀에 찾이를 가득 싣고 인적이 거의 없는 험하고 먼 길을 왕래해야 하는 운송의 난관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차상들이 낸 이 길을 새로운 형태의 실크로드라는 뜻에서 茶馬古道라 부른다. 金城은 현재 寧夏回族自治區 區都인 蘭州를 가리킨다. 蘭州를 金城이라 부른 것은 西漢 때부터이다. 蘭州는 黃河 상류의 古城으로, 신석기시대에 彩陶藝術로 빛나는 馬家窯文化를 일구었으며, 중국 청동기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이 蘭州는 夏·商·周 삼대에서 春秋시기에 이르기까지 古雍州의 氏羌牧地였었는데, BC215년 秦始皇 때 대장군 蒙恬의 西征으로 진나라 수중에 떨어진 후 隴西郡의 屬地가 되었다. 난주에 성을 쌓고 西北지역의 군사요새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西漢시기였다. 漢武帝 元狩2년(BC121) 霍去病장군이 匈奴를 정벌하고 개선하는 도중에 蘭州지역에 성을 쌓고 ‘金城’으로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金城의 寓意는 “성의 견고함이 마치 무쇠로 주조해놓은 것 같다(言城之堅, 如金鑄成)”, “견고하기가 마치 철옹성 같아 깨뜨릴 수 없이 튼튼하다(固若金湯, 堅不可摧)”는 수사적 비유가 무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金城’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설이 있고, 축성 당시 금이 발견되어 ‘金城’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혹자는 이 성이 京城인 長安의 서쪽에 위치하여 五行 가운데 ‘金’자로 성명을 삼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韓非子·用人》에 “내부의 환란을 방지하지 않고, 먼 변경에 견고한 성을 구축한다(不謹蕭牆之患, 而固金城于遠境)”, 《管子·度地》에 “(안쪽에 성을 쌓고, 그 바깥으로 성곽을 쌓고, 그 바깥으로 흙으로 성문을 만들고, 그것을 금성이라 명명했다(內爲之城, 城外爲之廓, 廓外爲之土闔, 命之曰金城)”라는 말이 있는 것으

로 미루어 견고한 요새를 구축하였다는 의미에서 ‘金城’이라고 명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賈誼의 《過秦論》에 “금성은 천리(金城千里)”라 하였고, 《漢書·荊同傳》에 “금성은 철옹성이라 공략할 수 없다(金城湯池, 不可攻也)”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사실 지리적으로 蘭州는 산이 둘러싸고 강을 끼고 있는 형세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다가 동쪽으로는 隴原, 서쪽으로는 陽關, 남쪽으로는 巴蜀, 북쪽으로는 朔方이 펼쳐 있어 서북방에 웅거하기 위해 兵家必爭의 요지였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漢昭帝 始元六年(BC81년)에 “변방의 요새가 너무 멀고 광활하고(邊塞闊遠)”, “서쪽 오랑캐를 대적해야(羌番爲敵)”한다는 이유로 金城郡으로 확대, 개편되어 13개 縣을 관할하는 요지가 되었다. 서기 265년, 鮮卑族인 乞伏國仁이 바로 이 金城¹⁶⁾에 西秦政權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도 중원세력과 변방세력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쟁투를 벌이던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b. 洮河의 인문지리 : 洮河는 감숙성에 있는 黃河水系의 중요한 지류 중의 하나로서 감숙성에서는 세 번째로 긴 강이다. 青海省 河南蒙古族自治縣의 西傾山에서 발원하여 甘肅省 碌曲·臨潭·卓尼·岷縣·臨洮 등의 縣을 통과하고, 永靖縣 경내로 들어와 黃河와 합류한다. 岷縣 西寨 이상은 상류로서 계곡이 넓고 지세가 평탄하며, 강 양안으로 초원이 펼쳐진다. 西寨에서 臨洮縣의 海奠峽(倒流河口)까지는 중류로서, 河道가 완곡하고 협곡이 많으며 산림과 초원이 분포하고 짐차 물살이 빨라진다. 海奠峽 이하는 하류로서 계곡은 넓고 모래사장이 많은데다가 강 양안으로 황토구렁이 펼쳐져서 식물이 자라기 어렵고 토사 유실량이 많다. 이 洮河의 流域은 크게 甘南高原과 隴西黃土高原의 둘로 갈라진다. 양자는 대체로 西秦嶺山脈에서 뻗어 나온 白石山·太子山·南屏山을 일자 경계로 하여 南部는 甘南高原, 北部는 隴西黃土高原에 속한다. 甘南高原은 青藏高原의 동북방 변경 부분으로 해발고도가 3500~4000m에 달한다. 甘南高原은 산림이 뒤덮여있고, 대부분 평탄하고 광활한 草灘과 산기슭 草場을 형성하고 있어 목초가 많아 방목에 유리하다. 隴西黃土高原은 黃土高原

16) 현 蘭州市 榆中縣 경내를 가리킨다.

西部에 위치하며, 해발 1700~2400m이다. 황토로 뒤덮여 있고, 구릉의 기복이 심하고 땅이 척박하여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 流域 내 河道가 지나는 길목은 비교적 넓은 河谷盆地를 형성하고 있다. 臨洮盆地와 廣河盆地 등은 넓고 평탄하며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고 수원조건이 좋아 농사에 적합하다.

c. <茶馬>시에서 이 금성과 조하를 언급한 인문지리적 배경은 바로 이 두 지역이 군사적, 산업적인 차원에서 중원세력이 군침을 삼킬 정도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금성과 조하로 연결되는 서북방의 광활한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이자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결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워낙 오지로 멀리 떨어져있는 곳인지라 중앙에서 행정관이 파견되기 전에는 차의 생산관리나 상거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시인은 바로 이런 변경지역의 난맥상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 繡衣來漢中, 烘作相追隨. 어사또가 한중에 오시니, / 제대로 만들어진 차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a. ‘繡衣’는 일명 ‘直指’ 또는 ‘繡衣直指’, ‘繡衣直指使者’, ‘直指使者’, ‘繡衣御史’라고도 하였는데, 정식 관명은 아니다. 漢武帝 天漢二年(B.C.99)에 光祿大夫 范昆, 九卿을 지낸 張德 등에게 각지를 순시하며 정무를 처리하도록 특명을 내렸다. 순시에 나서는 관리들은 繡衣를 입고, 符節¹⁷⁾를 지녔다. 繡衣는 임금으로부터 존경과 충애를 받음을 상징한다. 直指는 《漢書·百官公卿表》의 顏師古注에서 인용한 服虔의 “정사를 지휘하여 수행하는데 아부하거나 사사로움이 없었다(指事而行, 無阿私也).”는 간단한 말에서 그들의 신분이나 역할을 읽어볼 수 있다. 漢荀悅의 《漢紀·武帝紀六》에 보면, “백성들의 힘이 떨어지고, 재물이 고

17) 虎符와 龍節을 가리킨다. 당시 병권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어사의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갈된 데다가 흉년마저 겹쳐 사방에서 도적들이 날뛰는 통에 도로가 불통하고 있어 어사또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수의를 입히고, 부월을 지참케 하여 지방에서 도적들을 척결한 다음에 그만두도록 하였다(民力屈, 財貨竭, 因之以凶年, 羣盜并起, 道路不通, 直指之使始出, 衣繡衣, 持斧鉞, 斬斷于郡國, 然後勝之).”

b. 明清시대 漢中은 茶馬交易의 주요 거점이었다. 明代 당시 漢中에는 茶馬司를 두고, 巡茶御史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다. 漢中은 분지 형태로 陝西省 남부 秦嶺과 巴山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漢江에 접해 있다. 明나라 天順元年(1457년)에 王斌이 농민반란을 일으켜 漢中을 차지한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王都가 된 적은 없었지만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역대 조정에서 고급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c. 烘作: 製茶의 과정 중 열을 가해서 수분을 없애면서, 찻잎을 건조시키는 공정을 烘焙라 하고, 이 烘焙의 과정을 거친 상품화된 찻잎을 ‘烘作’으로 표현한 것이다.

○ 以籠計分率, 半爲軍國資. ‘비’를 계량단위로 산출하여, / 절반은 국고 자금으로 충당하는데,

a. 명대 당시 차엽은 “籠(통발)”를 계량단위로 삼고 있었다. 상인들은 수확한 차를 7근을 한籠에 담아 찌고 말린 다음 茶司로 운반하여 관상이 절반씩 나누었다. 관방에서 확보한 차는 변방의 말과 바꾸고, 상인들이 확보한 차는 변방인들과 직거래를 할 수 있었다.¹⁸⁾ 그러나 차의 상거래는 허가받은 상인에 한정된 것이었고, 밀무역, 밀거래는 엄격히 제

18) 申時行 등이 明 萬曆15년(1587)에 重修한 《明會典·茶課》 참조. “國初招商中茶, 上引五千斤, 中引四千斤, 下引三千斤. 每七斤蒸曬一籠, 運至茶司, 官商對分. 官茶易馬, 商茶給賣(개국 초기 초상중차 Solicit merchants for tea trade, 즉 통상허가를 받은 상인 가운데 상급은 5천근, 중급은 4천근, 하급은 3천근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7근을 한 통발에 담아 찌고 말려 차사로 운반한 다음 관방과 상인이 절반씩 나누었다. 관방에서 확보한 차는 말과 바꾸고, 상인이 확보한 차는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한하였다. 이른바 “引”¹⁹⁾을 획득한 상인들은 茶區에서 차엽을 수매할 권리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절반은 茶馬司의 몫이었다. 이 시에서 운위 한 것처럼 “軍國의 資金”이라는 명분으로 세납해야 했는데, 그 성격은 바로 茶馬司의 茶馬交易에 필요한 경비조달이 주요 목적이었다.

b. 명대에는 차엽이 鹽鐵과 같이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으로 국고를 충당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다. 茶馬互市 정책의 근본 목적이 변방 이민족과 몽골족을 견제하기 위한 군방력 강화에 있긴 했으나 그에 따른 통상무역의 부수적 이익을 노리는 것은 관민이 한결같았다. 官의 입장에서는 세율을 높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民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영리를 위해 공공연하게 밀무역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폐단은 악덕 상인들과 결탁한 변방 이민족의 잇속을 채워주는데 반비례하여 互市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 지지 않자 말의 가격은 폭등하고 차잎의 가격은 하락함과 동시에 중국에 들어오는 말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²⁰⁾ 게다가 좋은 군마는 영악한 상인들에게 넘어가고, 정작 茶馬司는 질이 낮은 말 밖에 확보하지 못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였다.²¹⁾

○ 番馬直三十, 酬篋二十餘. 변방의 말 한 필은 직거래면 차 30근이지만, / 茶市에서의 수가는 20여 비나 되었다네.

19) 명대 당시 상인들이 화물의 운송과 판매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行引’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차잎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리킨다. 상인들이 관청에 가서 허가증을 요청하는 것을 ‘赴官請引’이라 한다.

20) 《大明會典》卷153 洪武30年(1397) 明太祖의 詔書 참조. “近者私茶出境, 互市者少, 馬日貴, 而茶日賤……檄令秦蜀二府發都司官軍……禁私茶出境(근자에 무허가 차잎이 국경을 넘어가서 호시의 거래가 줄어 말값은 나날이 앙등하나 차값은 나날이 하락하니……조시를 내려 명하니 섬서, 사천 지역의 관부에서는 관군을 동원해서……차의 밀무역을 단속하라).”

21) 《明史·食貨志四·茶法》: “番人上駟盡入奸商, 茶馬所市者中下也(변방인이 가진 상품의 말들은 죄다 악덕 상인에게 들어가고, 차마호시에는 중품 하품뿐이었다).”

이 구절은 비록 漢中 지역의 茶馬交易에 있어서 거래 성사를 위한 가격의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한 대목이긴 하지만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馬政, 茶政이 관리들과 상인들의 농간과 협잡, 비리와 부정이 변방인들의 기회주의적 책략과 겹치면서 난맥상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명대 당시 중국의 서북방이나 서남방의 변경에서 일반 상인들이 변방인들과 직거래를 하면 말 한 필당 평균 차 30근이면 충분하던 것이 茶馬互市에서 官番 교환무역을 할 경우 말의 가격이 평상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明太祖 洪武16년(1382)에 永寧茶馬司의 경우 상등의 말 1필당 차 40근, 중등의 말은 1필당 차 30근, 하등의 말은 1필당 차 20근으로 교환되었으나 洪武30년(1394) 섬서 변경 너머의 말값이 중등의 말임도 불구하고 1필당 100근을 호가했고, 明孝宗 弘治16년(1503)에는 무려 390여근을 호가할 정도로 말의 질이나 시대에 따라 가격 편차가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²²⁾ 그나마도 후대로 갈수록 제 값을 주고도 양질의 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져서 군수물자로서의 군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방력 강화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만력 연간을 살았던 탕현조는 바로 이런 변방의 경제질서를 꿰뚫어보고 경계의 메시지를 시구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22) 이상, 《明太祖實錄》 卷156, 卷254 및 《明經世文編》 卷115를 참조. 참고로 《明會典·凡易馬》에 의하면, 成化十五년에 陝西巡茶御史가 招蕃易馬(변방 이민족을 불러들여 말을 교환함)한 기록이 있다. 차 100근을 질이 좋은 말 1필과 교환하였고, 차 80근에 중질의 말 1필과 교환하던 것이 상황이 갈수록 열악해지다가 급기야 正德十年에는 차를 담은 통발의 크기를 조절하여 임시변통을 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以茶百斤易上馬一匹, 八十斤易中馬一匹(차 100근을 질이 좋은 말 1필과 교환한다).”, “正德十年, 以每年招易, 蕃人不辨秤衡, 止訂籠中馬, 籠大則官虧, 小則商病, 令均爲中制: 每一千斤定三百三十籠; 以六斤四兩爲準, 作正茶三斤, 籠繩三斤(정덕10년에는 매년 맞교환을 해왔지만 변방 이민족 사람들은 저울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차를 담은 통발로 계산하여 말과 교환한 점을 고려하여 통발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통발이 크면 그 속에 담는 차의 양이 많아지므로 관청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통발이 작으면 상인들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고루 중간 크기로 통발을 제작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차 1000근을 330개의 통발에 담게 하였고, 6근 4량을 표준으로 하여 정품의 차 3근과 통발의 밧줄 3근이 되도록 하였다).”

○ 配軍與分牧, 所望蕃其鉤. 물물 교환된 말들을 군대에 배속하고 방목하면서, / 마구간에 넘치도록 번식하기를 기대하였건만.

명대 말기 茶馬교역의 주목적은 중국에서 양산되는 찻잎을 차가 재배되지 않는 변방지역의 민족에게 제공하고 대신 변방지역에서 자란 양질의 말들을 확보하여 군마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군마를 관리할 관리들과 군속들은 물자부족과 척박한 기후 탓에 고생이 심했다. 이들을 감독할 상급 기관은 거리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 月餘成百錢, 豈不足青芻. 달포 남짓이면 백량짜리가 될 터인데, / 어찌 푸른 풀이 부족하단 말인가?

○ 奈何令倒死, 在者不能趨. 자칫 잘못되어 죽어 넘어가는 말도 있고, / 목숨이 붙어있는 말들조차 제 몸도 못 가누는데,

○ 倒死亦不聞, 軍吏相爲漁. 죽어 넘어갔다고 해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 아전들은 낚시질만 해대는구나.

a. 이상의 여섯 詩句는 값비싼 차를 주고 받아온 말들을 관리들이 관리를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관리하여 영양실조로 비실대거나 굶어죽는 말마저도 생기는 관임을 직설적으로 지적한 대목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선의 관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변방에서 관리하는 군마는 제대로만 목축하면 단기간에 질 좋은 말이 되어 경제적인 가치가 월등하게 제고되어 국방력 강화는 물론이고 경제력 향상에도 효자노릇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관리들 탓에 허망하게 국력이 새가는 현장을 시인이 직접 목도했거나 관계자의 증언을 들어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黑茶一何美, 羌馬一何殊. 흑차 1근이 아무리 맛이 없기로서니, / 서쪽 오랑캐 말 한 마리만 못할까만

a. 湖南의 黑茶는 지금으로부터 5백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²³⁾ 湖南의 黑茶가 茶馬互市の 교환물품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예초 교역에 쓰이던 차는 주로 漢中과 保寧產 차였었다. 호남산 차가 질이 낮고 짝퉁차도 많아 변방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빈번하여 교역 금지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상대적으로 양산이 되고 치즈 등을 곁들여 마시기에 적당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점차 漢中산 차를 대체하면서 주요 교역품목으로 부상하기에 이른다.²⁴⁾

b. 湖南의 黑茶는 명대 말기 한창 대 서북지역 교역물량이 수만톤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 이 黑茶를 품목으로 한 茶馬교역이 400여년을 이어오면서 변방 경제무역과 국방력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도 확실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거의 2만 5천톤 이상 변방의 소수민족이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有此不珍惜, 倉卒非長驅. 이다지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 창졸간에 장거리를 달리는 말을 찾아보기 어렵네.

탕현조는 갈수록 심해지는 변방의 교역을 둘러싼 비리, 부정부패의 만연에 개탄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악화되는 변방의 치안은 바로 군

23) 明 嘉慶3年(1524) 御史 陳講이 奏疏에서 “商茶低偽, 悉徵黑茶, 產地有限乃爲第上中二品(상품화된 차가 너무 저질이라 몽땅 흑차를 징발했는데, 산지가 제한되어 있어 上上 다음의 上中인 2품뿐이었다).”이라고 한 대목에서 黑茶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다.

24) 《明史·食貨志四·茶法》：“中茶易馬, 惟漢中、保寧, 而湖南產茶, 其值賤, 商人率越境私犯, 惟漢中, 保寧者僅一、二十引……當時御使李南說湖南茶質是低次又有假茶, 番人亦受其害, 主張禁止, 而御史徐僑認爲漢川茶少而值高, 湖南茶多而值下, 湖茶之行, 無妨漢中, 漢茶味甘而薄, 湖茶味苦, 于酥酪爲宜, 主張購, 戶部折衷其議, 以漢茶爲主, 湖茶佐之.”

마조달에 문제가 생겨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不珍惜’과 ‘非長驅’는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 健兒猶餓死, 安知我馬祖. 건강한 아이도 굶어 주려 죽을 판이니, /
내 말이 건재한 지 어찌 알리오?

사회가 피폐되고 인심이 흉흉해지는 상태 속에서는 공공의 힘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거금이 오고가는 변방의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악덕 상인들의 농간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그 비정상적인 교역에 의해 선량한 상인들이나 변방의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음은 중앙정부는 말할 나위 없고, 심지어 변방 근처에 설치한 감독관청에서조차 관리 감독이 소홀하거나 아예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터인지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할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상태라는 점이 당시 탕현조가 목도한 지방 행정의 실태였던 것이다. 명말 당시에는 변방의 말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전투와 운송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다. 명 조정은 초기 집권 때부터 줄곧 변방 경영을 통한 군비 확충과 민족간의 충돌을 저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마 확보라는 절대 명제를 풀어보려 고자 茶馬교역에 힘을 싣고 있었으나 현실과의 괴리는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 羌馬與黃茶, 胡馬求金珠. 황차를 주고 서쪽 오랑캐 말을 구하고, /
금불이로 북방 오랑캐 말을 구한다지만,

명말 변방지역에서 주된 교역품목이었던 羌馬와 胡馬는 질과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서북지역에서 나는 羌馬는 힘이 좋고 동작이 빠른 편이었으나 몽골 초원지역에서 나는 말은 당나귀처럼 다리가 짧고 노둔하여 전투마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그런데 변방 관리와 악덕상

인들이 결탁하여 羌族이 가져오는 말은 값이 저렴하고 질이 나쁜 황차를 주고 교환하고, 몽골족이 가져오는 말은 오히려 비싼 값을 치루고 교환하는 아이러니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던 것이다. 羌族은 질이 나쁜 차를 받고 좋은 말을 내줄 리 없었고, 몽골족은 넉넉한 값을 쳐서주므로 질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고 닥치는대로 말을 내주고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생겼던 것이다. 변방의 馬政이 지리멸렬해져서 관리도 소홀해진 탓에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茶馬교역을 주도했던 조정의 정책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 羌馬有權奇, 胡馬皆駘駘. 서쪽 오랑캐 말은 준마이나, / 북방 오랑캐 말은 모두 둔하기 짝이 없네.

탕현조의 지적대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차마교역이 와해되기 시작한 변방의 문제점의 일차적인 핵심은 국방력 약화이고, 그 다음으로는 변방의 치안이 중앙정부의 통제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었다. 羌馬와 胡馬의 우스꽝스러운 거래는 바로 명조정의 無力과 지방 官商의 부도덕한 행위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 胡羌掠我羌, 不與兵驅除. 오랑캐들은 우리 변방을 넘나들며 약탈을 일삼지만, /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싸움을 할 엄두도 못내는 터.

호시탐탐 변방을 노리던 서북방의 소수민족들이 점차 발호하기 시작하였고, 허술한 변경을 넘나들며 변방에 거주하는 한족의 부락을 덮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해진 明軍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힘을 이미 잃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서북방의 이런 문제는 이 시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동북방의 변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래지 않아 동북방에서 발호한 만주족에 의해 명나라를 멸하고 중원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羌馬亦不來, 胡馬當何如! 서쪽 오랑캐 말이야 오지 않겠지만, / 북방 오랑캐 말로 어찌 감당하리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지역에 따라, 또는 같은 지역이라도 재배, 생산하는 茶農의 기술과 정성에 따라 질이 사뭇 달라지는 것처럼 변방지역에서 방목되는 말 역시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다르고, 관리 여부에 따라 상품가치가 들쭉날쭉하였다. 힘이 좋고, 민첩하고, 지구력이 뛰어난 말은 주로 중국 서부 변경에서 주로 장족에 의해 길들여지는 羌馬가 대표적인 말이었다. 명대의 역대 황제들은 중신들이 건의한 ‘안변책’에 의한 변방 수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변방의 軍政, 馬政이 느슨해지면서 끊임없이 변경을 넘나들며 소요를 일으키던 몽골족을 위시한 변방민족의 발호에 대해 실효적인 대처를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본시 노둔하기로 소문이 난 몽골 초원의 말이지만 이런 말을 타고 기민하게 움직이며 전투를 수행하는 용맹하고 강인한 몽골족은 명대 당시 변방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상대였던 것이다.

5. 나가면서

이상으로 소략하게 <茶馬>시의 試譯과 고증담론을 병행하면서 「茶馬互市」로 대변되는 명대 말기 茶政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자연에서 산출된 차가 생태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던 고대 중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발한 문화재생산이 이루어져서 단순한 기호품 수준에서 벗어나 문학과 예술, 종교와 철학의 심미적 소재와 주제로 확산되고, 급기야 산업의 주체적인 동력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와 거국적인 국방력 강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이 되었다. 명대 말기의 차문화와 차산업은 이미 국제적인 통로로 연결되는 시점에까지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광범하고 치밀하게 전국적인 문화산업망이 구축된 상태였고,

재정적인 약세를 만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물목으로서 이용가치가 격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茶馬互市’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는 자못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외환에 시달리던 명정부가 ‘茶馬’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여 국력증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는 반문의 여지가 있다. 탕현조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도 관민의 입장 차이가 있고, 중앙과 지방(변방)의 차이, 한족과 이민족 간의 민족적 갈등과 기질 차이 등이 엄존하는 상황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국면을 예리한 시각으로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탕현조는 묻는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사회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국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변방의 이민족이 발호하는데도 제대로 방위조차 못하는가? 탕현조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질문 속에 이미 해답을 제시한 것이나 진 배 없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제 위치에서 제 할 일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정부패, 비리,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탕현조의 기본적인 식견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탕현조 스스로 목민관으로서 주민들에게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자 했던 측은지심이 바로 이 <茶馬>시에 우회적으로 담겨있다고 보인다. 명대말기 차는 이미 사대부계층의 여가와 취미를 위한 귀족적인 향유품이 되긴 했지만 취약한 산업구조 속에서 재정을 충당하는데 효자 노릇을 하던 차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관료집단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합리적 대응이 절실한 과제였으며, 민간에 만연한 영리본위의 매점매석, 관상협착 등의 부조리 개선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시대적인 암영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이 <茶馬>시에서 엿보게 된다. 명대 말기부터 ‘茶馬古道’의 화려한 영광은 갈수록 퇴색되고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근현대 중국 변방의 원시적인 형태의 통상물류문화의 원형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참고문헌]

- 郭(明) 楊時喬 撰, 《四庫全書·史部十三·政書類四·軍政之屬·馬政紀》
- (明) 李東陽 等纂, 《明會典·凡易馬》
- (明) 楊一清 撰, 《四庫全書·史部六·詔令奏議類二·奏議之屬·關中奏議》
- 徐朔方 箋校, 《湯顯祖詩文集》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2.6
- 江西省文學藝術研究所編, 《湯顯祖研究論文集》,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5
- 黃文錫 吳鳳雛 著, 《湯顯祖傳》,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6.6
- 徐朔方 著, 《湯顯祖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4
- 徐朔方 著, 《湯顯祖年譜》(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5
- 周淑芸, 《論明朝對西北邊境的經略》, 寧夏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4
- 呂維新, 〈明代茶馬貿易研究〉, 《茶葉機械雜誌》, 1995, 第4期, pp.34~37.
- 何平立, 〈略論明代馬政衰敗及對國防影响〉, 《軍事歷史研究》, 2005, 第1期, pp.98~103.
- 王連連, 王平平, 〈明代民營茶馬互市探析〉,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 第1期(第13卷 總第55期), pp.319~320, 331.
- 馬冠朝, 〈明代茶馬貿易官營體制的理論探析〉, 《寧夏社會科學》, 寧夏大學, 2005.7, 第4期(總第131期), pp.107~109.
- 何雙全·蔣樹森, 〈明清時期甘肅茶馬互市與茶馬古道〉, 《絲綢之路》, 2011, 第2期, (總第195期), pp.5~6.
- 侯德雲, 〈湯顯祖與茶〉, 《中國茶葉》, 2011.7, pp.36~37.
- 周啓成, 〈湯顯祖的文學觀〉, 《東疆學刊》(哲學社會科學版), 1987, 第1, 2期, pp.56~62.

<中文提要>

本论文注重考据译析的研究方法来探讨了明代著名文学家汤显祖所写的<茶马>诗的主要内容, 看透明末北方边境的茶马互市由官商勾结及军兵纪纲松懈露呈乱脉相的来龙去脉。

<茶马>诗的主题和题材, 跟唐宋以来诸多诗人墨客所写的茶诗不同, 注重就事论事的观点, 指摘当时边方地区经济通商国防上的种种矛盾, 官商结托所引起的恶弊。汤显祖身在宦海中曾目睹科场上的弊端, 历尽浮沉, 经尝宦途颠沛, 终辞官归家。汤显祖深谙茶事, 他不仅在剧作中经常提到茶事, 还写过许多茶诗。因汤显祖嗜茶, 故其堂号为“玉茗堂”, 自称为“玉茗堂主人”, “玉茗”为茶的别称, 可见汤显祖爱茶之深。

通过这首诗, 我们可以了解茶马交易的一些实际情况。例如, 诗中“黑茶一何美, 羌马一何殊”就指湖南黑茶, 当时茶叶用“篋”作计量单位, 获得“引”的商人有在茶区收购茶叶的权利, 但有一半要交给茶马司, 用于茶马交易等等。<茶马>诗就抨击茶政背后的社会难脉情况, 透露其平素深患边事, 痛惜以茶马挽回国势之政策彻底失败, 针对贪赃枉法, 横征暴敛, 不恤民生之徒, 有所借鉴。

明代末叶因茶政马政之流弊愈深, 中央政府常年政争所掣, 软弱无能而束手无策, 过去‘茶马古道’的华丽荣光愈褪色萎缩, 近代中国边方原始形态的通商贸易文化随之踪迹落空了。

关键词：茶诗 玉茗 茶马互市 茶政 马政 黑茶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婁燁영화 『頤和園』의 시공간적 의미

김명석*

〈목 차〉

1. 6·4가 남긴 기억 속으로
2. 6·4가 넘겨준 시간 재현하기
 - 1) 플래시백과 독백—유폐된 기억
 - 2) 시공간분할 자막—봉인된 시간
 - 3) 스크린음악과 미장센
3. 6·4가 넘겨준 공간 재현하기
 - 1) 6·4의 기억으로 가는 여정
 - 2)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4. 6·4로 상실한 시공간 회복하기—탈주, 그리고 귀환
5. 맺는 글

1. 6·4가 남긴 기억 속으로

『頤和園』은 婁燁가 2006년 제59회 칸느영화제에 출품하여 처음으로 공개 상영된 작품이다. 婁燁의 이전 영화들이 上海를 다룬데 비해¹⁾ 『頤和園』에서는 北京의 6·4天安門사태라는 현대사적 비극을 소재로 한 것이 차이점이다. 게다가 남녀배우들의 성기까지 노출하는 모험을

* 위덕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kimms@uu.ac.kr)

1) 『周末情人(1993)』, 『搖啊搖, 搖到外婆橋(1995)』, 『風月(1996)』, 『蘇州河(2000)』, 『紫蝴蝶(2003)』 등이다. 上海를 배경으로 한 婁燁영화에 대해서는 박정희, 〈러우이에 영화 속의 ‘상하이’에 대한 서술〉, 《중국인문과학》제38호(중국인문학회, 2008)를 참고할 것.

감행하였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영화는 국내 상영을 금지당했고, 婁燁는 5년간 영화제작 활동은 물론 참여도 못하도록 금지당하는 징계를 당했다. 그것은 당국의 검열을 받지 않고 해외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한 국무원의 〈영화관리조례〉 때문이다²⁾. 그런데 상영금지된 영화라는 호기심 때문인지 영화는 국내외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는 성기노출과 함께 6·4라는 금기시되어온 소재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영화의 제목 ‘頤和園’은 주인공인 余虹과 周偉가 달콤한 사랑을 나누던 데이트 장소이다. 제목만으로는 두 남녀가 젊은날 頤和園에서의 뜨거웠던 사랑을 추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수를 포기한지 오래다. 실상은 6·4라는 과거 시공간과 황폐한 현재 시공간의 불협화음을 당시 시위참가자였던 한 여성의 독백을 통해 들려준다. 그것은 80년대 대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반정부시위에 참여한 뒤, 남은 생 내내 방황과 일탈을 거듭하는 후일담이다. 이야기는 영화 속의 역사인 6·4라는 시공간으로부터 圖們, 深圳, 武漢, 重慶, 北戴河 그리고 독일 베를린의 시공간으로 이어진다. 영화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면서 시간은 하나로 합쳐진다. 周偉는 베를린으로 유학을 간다. 베를린에서 周偉의 기억과 余虹이 구술하는 중국에서의 기억은 평행으로 교차되고 둘이 중국에서 재회함으로써 공간도 합쳐진다.

여느 멜로드라마³⁾가 그렇듯 이들의 사랑은 이내 기회를 놓치고 기억마저 지워진지 오래다. 영화가 余虹과 周偉의 기억을 되살리는 독백을 들려주면서 사랑과 우정, 그리고 집착으로 얽힌 회상이 생경한 ‘날것’으로 펼쳐진다. 카메라가 대중들의 무의식과 기억을 비춰주면서 관객은 6·4가 남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빠져든다. 頤和園에서 6·4가 남긴 상처

2) 2002년 2월 1일 시행된 國務院의 〈電影管理條例〉 제7장 罰則, 제61조 규정에 따르면 ‘비준을 받지 않고 영화필름을 제공하여 해외영화제에 참가하면 국무원 방송영화행정관리부서가 위법활동을 정지’하고 제64조 규정에는 ‘5년 이내에 영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다:
http://baike.baidu.com/view/438212.htm#8_61 참고.

3) 멜로드라마라는 장르 자체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영화 속 남녀청춘들 간의 사랑과 이별을 멜로드라마적 요소로 보고자 한다: 줄고, 〈婁燁의 영화, 『頤和園』 다시 읽기〉, 《국제언어문학》27호(국제언어문학회, 2013) 216쪽 참고.

의 기억이 살아남은 자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6·4는 학살 트라우마가 된다. 그러나 트라우마가 된 그녀의 회상은 이미 변형된 기억일 수밖에 없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余虹의 회고는 6·4를 젊은이들의 치기로 인한 폭동사태로 평가하는 관방의 기억으로 미끄러진다.

관방의 기억으로 왜곡된 6·4라는 시공간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6·4에 대한 평가를 재구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한다. 6·4의 최대과제는 민주화였고, 그것은 관료부패를 고발하고 정치개혁과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러나 6·4가 계엄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고, 다시 냉혹한 현재가 도래된 이후 지금까지 6·4에 대한 재평가는 중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화 속 北京의 역사는 失名되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天安門 안의 대중은 물론 天安門 밖의 관객들 역시 匿名으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婁燁의 카메라는 6·4에 대한 재조명은 애초부터 체념한 듯하다. 카메라가 6·4에 대한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婁燁가 이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 두었던 6·4의 물음에 답하기란 점점 어려워진다.

이 영화는 6·4라는 비극성을 극단적으로 환기시키지는 않는다. 6·4는 영화 속 시간적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주요 전환점이지만 영화는 그 사건에 영접결에 연루되었다가 갈 길 잃은 청춘들의 삶을 보여줄 뿐이다. 6·4 이후 방황과 일탈로 점철된 생존자들의 후일담에는 6·4가 남긴 상처와 분열이 남아있다. 뒤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들의 여정은 중국에서 독일로, 다시 중국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될 뿐이다. 이념의 장벽이 무너진 자유베를린으로 영화의 공간이 이어지면서 관객은 서방에서 중국의 6·4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유해서 영화를 바라보기도 한다.

아무튼 영화가 중국 국내에서 상영 금지된 만큼 전문적인 연구논문을 중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6·4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 오래 전부터

4) 6·4에 대해서는 유장근, 〈영화 『천안문』을 통해 본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시말〉, 《중국근현대사연구》제42집(중국근현대사학회, 2009)와 김정환, 〈저항하는 대중들의 유토피아: 1980년 광주와 1989년 천안문〉, 《문화/과학》통권68호(2011년 겨울호)를 주로 참고했다.

이루어져왔고 영화 『頤和園』에 대한 분석도 이정훈, 김명석 등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⁵⁾. 그러나 영화 속 주인공인 6·4세대의 부채의식에 주목하고 그 시공간적 의미를 고찰해 보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본고에서는 플래시백 등 영화적 장치로 6·4의 기억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6·4의 기억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6·4세대가 상실한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되짚어 볼 것이다. 그것은 北京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베를린이라는 열린 공간으로의 탈주라는 여정이다. 그러나 운명처럼 귀환하는 구도임을 확인하면서 장소회복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실명된 역사, 익명으로 남은 사람들의 기억이 영화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을까? 6·4가 남긴 시간이 婁燁의 미장센 속에서 어떻게 소환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2. 6·4가 넘겨준 시간 재현하기

1) 플래시백과 독백—유폐된 기억

실명되고 익명으로 기억된 사람들의 시대, 영화의 시작은 암전처럼 느껴지는 캄캄한 화면이다. 한참 후 余虹의 일기내용이 스토리라인으로 삽입된다.

한 가지 ……, 그것은 어느 여름날 밤늦게 바람처럼 갑자기 불어와서 막을 수 없게 한다. 불안에 젖은 너의 형체를 따라 다니고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다. 난 그것이 뭔지 모른다. 단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밖에⁶⁾.

余虹의 일기는 자족적인 폐쇄회로 시스템이다. 이 폐쇄회로는 카메라에 의해 공개되고 화면바깥에 余虹의 목소리가 삽입되면서 6·4 이후의 상념을 들려준다. 余虹의 발화는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하는

5) 이 영화의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줄고, 〈婁燁의 영화, 『頤和園』 다시 읽기〉의 제1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편 영화소개에 대해서는 본고 1장에서 이를 요약하여 재인용하기로 했다.

6) 지면관계상 본고에서 원문은 생략하기로 한다.

장치인 셈이다. 목소리의 화자가 영화 속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화면의 인물과 립싱크되지는 않는다. 화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독백은 장면 진행과 시공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독백은 들려주는 사연에 관한 내면적 심정을 소리로 들려주는 보이스오버인 셈이다. 그 소리는 화면 바깥에서 서술자아의 것이었지만 화면 안에 보이는 경험자아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화자는 영화의 허구세계 안과 바깥 모두에 위치하며 독백(모놀로그)을 통해 심리를 표현한다. 때로 余虹의 독백은 지금 여기서 자신이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대사로 들려주기도 하고 연극에서 독백이나 방백처럼 시간변화와 장면전환에 시공간자막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목소리의 삽입을 통해 주인공으로서 1인칭 주인공, 나의 내면세계는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그것이 영화 내내 이어지면서 『頤和園』은 서술자의 강한 주관성을 드러낸다. 이런 독백을 통해 일기내용은 전경화되어 각인된다. 관객은 중심인물인 화자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 관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余虹이라는 여성이 나와 나, 관객 일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관객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안내된다.

독백을 통해 ‘나’의 내면세계가 사실적으로 그려지지만 영화 속 시간과 공간이 서술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플래시백(flashback)⁷⁾으로 인해, 사건이나 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서술은 붕괴된다. 심리적으로 교차된 이미지가 서술 대신 채워지면서 사건 진행과 인물감정의 정보가 압축되어 제시된다. 이처럼 『頤和園』에서 문제적 진실을 시대에 투사하는 방식은 플래시백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대로 투사된다면 6·4세대의 정신적 상처가 ‘창조적 회상’의 방법으로 관객에게 일깨워지게 될 것이다.⁸⁾ 그것은 그의 대학친구들을 선의의 피해

7) 플래시백(flashback)은 이야기의 장면을 잇는 기법 중 하나로서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도중 갑자기 과거의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옛 기억을 떠올리는 느낌, 회상 장면 등으로 흔히 표현된다. 플래시백을 활용한 많은 영화들은 내레이션을 사용한다. 내레이션이란 시나리오 용어로 장면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다. 이때 영화 이야기의 시간, 즉 관객의 시간은 그대로 앞으로 흘러간다. 『頤和園』에서처럼 영화 이야기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에 이 기법이 쓰인다: 오정민,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 나타난 심리적 이미지와 시간, 공간 구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제14집(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150쪽.

자이자 희생자로 비춰지게 한다.

독백으로 삽입되는 특정화자의 목소리로 6·4세대의 기억은 6·4라는 담론의 층위에서 겹쳐진다. 첫장면에서 余虹의 일기내용은 분열적인 언어로 제시되는 플래시백 화면으로 재현된다. 영화 속 나레이터(서술자)는 余虹 자신이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余虹의 일기내용과 함께 시공간적 배경이 자막으로 삽입된다. 그녀는 서술자아로서 스스로를 호명하고 등장인물들의 시공간적 궤적을 펼쳐 보인다. 그녀의 시선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의 여정이 차례로 재현되면서 과거와 과거, 과거와 현재의 기억은 하나로 합쳐진다.

余虹의 인생여정에는 명백하게 갈라지는 세 개의 시간대가 존재한다. 圖們에서 曉軍과 첫사랑의 시간, 北京에서 周偉와 보냈던 시간, 그리고 北京을 떠난 그녀가 결혼하게 되는 전후의 시간이다. 더 구체적으로 北京을 떠난 余虹은 圖們, 深圳에 갔다가 武漢으로 온다. 武漢에서 余虹은 여러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다가 결혼해서 撫寧에 동지를 튼다. 그리고 영화 막바지에는 北戴河에 와서 周偉와 재회한다. 周偉도 마찬가지다. 北京에서 余虹과 보냈던 시간, 그리고 李緄와 베를린으로 유학생생활을 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세 개의 시간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단절적으로 체험되는 세 번째 시간대를 통해 이들이 굴곡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된다.

8) 崔衛平은 공간과 시간 감각의 처리에서 시간의 역행은 시에서 자주 보는 방법인데 『巴山夜雨』, 『蘇州河』에서는 미묘한 시칭각언어로 바뀌어 전달되었다고 한다. 『頤和園』, 『蘇州河』에는 모두 시적 상상력이 내재되어 있는데 『頤和園』을 촬영할 때 이런 시적 걱정이 표출되어 나오기를 기대했다는 것이다. 시간의 역행이란 플래시백이고 시칭각언어는 독백이나 미장센에 해당된다고 볼 때, 『頤和園』에 시적 걱정을 표출하려 기대했다는 데서 그가 ‘창조적 회상’을 이루도록 고민했음을 엿볼 수 있다: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53쪽.

	1단계	2단계	3단계				
余虹	图们: 余虹과 晓军的 첫사랑	北京: 余虹과 周伟의 사랑	① 图们: 余虹과 晓军的 도피	② 深圳: 余虹의 深圳행	③ 武汉: 余虹과 吴刚, 唐 선생의 불륜	④ 北戴河: 余虹과 周伟의 재회	⑤ 抚宁: 余虹의 애정없는 결혼
	1단계	2단계	3단계				
周伟		北京: 余虹과 周伟 의 사랑	베를린: 周伟와 李 缇의 유혹	① 重庆: 周伟의 귀국 옛 친구들과 재회	② 北戴河: 余虹과 周伟의 재회	③ 重庆: 周伟의 거주지	

余虹의 과거 회상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정이다. 과거를 소환하는 플래시백 수법은 그녀의 상처가 현재에도 계속됨을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정신적 상처를 반추하는 이런 여정을 통해 관객은 운명처럼 시대와 부딪힌 개인의 자포자기한 삶과 날것으로 대면하게 된다. 余虹의 회상 속 과거의 장면들은 각각의 샷이지만 그녀의 독백을 통해 독립된 시퀀스의 연속으로 편집되어 연결된다. 회고적으로 이야기되는 그녀의 서술은 화자의 독백으로서 유사자전적이다. 이런 일인칭서술을 통한 독백은 당연히 현재의 서술자아가 끌어간다. 그러나 초점이 맞추어지는 화자는 과거의 경험자아이다. 서술자아는 또한 경험자아로서 지속적으로 개입한다. 余虹의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와의 긴장이나 거리가 공간화된다. 경험자아의 심리는 독백이라는 말하기, 즉 언어화를 통해 서술되면서 서술자아의 지금, 여기도 함께 드러난다. 현재시점에서 화면 안의 과거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표현되는 것이다. 영화의 후반부로 갈수록 지금, 여기와 가까워지고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시간적 거리도 가까워진다. 작중화자의 은유적이고 야누스적인 자의식 또한 余虹의 의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런 余虹의 의식은 때로는 무의식 또는 심층심리까지도 내보이며 경험자아를 전경화한다. 또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서술자아의 현재 상황과 심리까지 그리게 된다. 결국 영화는 과거의 장면들을 보여주기보다는 말하기로 줄거리를 요약해준다고 할 수 있다.

과거회상을 통해 현재를 비추면서 시간은 쌓여가고 영화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과거가 소멸된 시간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녀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래시백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흘러가버린 ‘과

거’ 뿐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현재’, 그리고 ‘현재’를 기억하게 될 ‘미래’까지이다. 이와 관련해 Rey Chow의 말은 주목할 만하다.

영화에 의해 과거가 이미지를 표상되면 그 독특한 효과로서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완결된 것으로서 과거는 다른 시간에 상영되고 있고, 이 다른 시간이라는 것은 보는 과정을 통해 전개된다. 기록(document)으로서의 영화에 수반되는 회고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시선은 동시에 전방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 앞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이미지를 주시하는 시선이기도 하다⁹⁾.

余虹의 독백은 분명 과거의 일을 말하면서도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余虹은 비오는 날 유부남의 집을 나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해 교통사고를 당한다. 곧 병원에 실려간 그녀는 응급실에서 周偉를 찾는다.

周偉, 왜 이때 내 머리 속에서 네 이름이 떠오르지? 너 어디 있지? 우린 정말 헤어지려는 거니? 지금이니? 난 준비가 된 걸까?

다급할 때 余虹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周偉였다. 余虹이 吳剛과 유부남의 품을 오가면서도 周偉를 찾은 것은 과거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周偉가 가장 먼저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周偉와 헤어진 지 오래지만 周偉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잊은 적 없기에 그녀의 이 말은 간절하고 진실된 내면독백이다. 周偉는 과거의 남자지만 余虹이 ‘그’로 말하지 않고 ‘너’라고 하면서 과거와 현재는 혼용된다. ‘너’는 1차적으로 周偉를 지칭하겠지만 그것은 ‘너에 대한 기억’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그 기억은 余虹 자신만의 폐쇄된 의식에 갇혀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余虹에게 드러나는 것은 분열된 의식뿐이다.

이처럼 플래시백에서 감독이 현재의 관점을 가지고 과거로 들어간다는 점에 유념할 만하다. 다시 말해 영화가 제작된 시점(2006년)에서 1980~90년대의 기억을 되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6·4 이후는 영화가 서술되고 있는 현재로 소환되고 1980~90년대라는 과거의

9) Rey Chow 지음,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이산, 2004), 72~73쪽.

사건, 과거의 기억은 현재로 불러 와서 지금 어느 순간처럼 생생하게 서술된다.

플래시백에 접쳐지는 독백은 기억의 공백을 채움으로써 관객들이 애써 외면해 왔던 과거를 부추긴다. 1980~90년대로 시간을 거슬러 오랜 세월 속에서도 박제되지 않은 6월은 관객 앞에 재생된다. 이들의 처참했던 후일담이 바로 그 해 6월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흔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황폐한 현실을 침묵으로 대응해온 살아남은 자들에게 시간은 지워져 버린 삶의 편린들이다. 6·4 이후라는 절대적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카메라는 余虹의 과거가 흔적을 남긴 곳으로 이동한다.

역사비틀기의 수단으로 1989년 6월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의 삶이 큰 역사에 의해 어떻게 휘둘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이다. 눈 밝은 관객이라면 알아차렸겠지만 시위장면에는 실제 기록필름이 삽입되어 있다. 주관적 화자인 余虹을 중심으로 한 시위대의 모습에서 그녀는 기록필름 속 객관적 화자이다. 실제 기록필름이 삽입됨으로써 영화는 개인적인 회상에서 상호 주관적인 기억으로 내연이 확대된다. 역사적 사건을 극화하지 않고 기록필름을 직접 화면에 담아낸 것은 사랑이라는 개인 문제를 통해 사회를 진단하려는 감독의 의도 때문이다. 6·4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역사의 기억문제만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余虹이 벗어나지 못하는 기억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위대의 모습은 사실감을 더하기 위한 기록필름과 함께 편집되어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게 되지만 그날의 상처를 관객에게 충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거친 성애의 장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6·4가 중국의 문예계에서 재현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던 것처럼 성기노출이나 파격적인 베드신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다¹⁰⁾.

周偉와 별다른 이유없이 헤어진 余虹은 일탈을 거듭한다. 순수의 상징인 吳剛의 청혼도 余虹을 정화시킬 힘이 없다. 余虹의 서술은 고통받는 청춘의 관점에서 전개되는 상징적 목소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

10) 베드신과 관련하여 婁燁는 서구영화 제작방식으로는 베드신에서 열정을 제한하게 되지만 자신의 영화는 충동과 격정으로 가득 차있으며 그런 다큐적 열정으로 촬영되기도 한다고 한다: 《當代藝術與投資》3期, 52쪽.

로 침잠하는 내적 독백이기에 그녀는 성찰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6·4를 인식하고 느끼는 주체로서 일인칭 서술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듯하지만 그녀는 수동적인 피해자이자 관찰의 대상으로 머물 뿐이다. 이유없는 일탈이 계속될수록 그녀의 찢겨진 육신과 상처받은 영혼이 드러날 따름이다. 돈의 가치와 메커니즘에 무관심하던 그녀가 사랑보다는 금전적인 이유로 한 남자와 결혼하는 데 이르러 그녀는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재현된다.

이처럼 『頤和園』은 余虹의 일기내용을 독백으로 서술하면서 카메라가 회상장면을 화면화(framing)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플래시백으로 소환된 余虹의 과거가 독백으로 계속 화면화되다가 마지막에는 두 가지 시점이 교차된다. 그것은 자살한 李緄의 묘비명 내용이 제시되면서 과거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李緄의 묘비명 내용을 기술한 자막은 감독 스스로의 내면에 짓눌리고 왜곡된 6·4에 대한 부채를 씻어내기 위한 변명인지 모른다. 婁燁는 상처입은 청춘을 사적으로 관찰하는 주관적 감상을 묘비명으로 대신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유로이 서로 사랑했든지 간에 사람들이 죽는 것은 평등하다. 죽음을 바라는 것은 너의 종말이 아니라 광명을 동경하고 암흑을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

영화는 6·4라는 역사적 사건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묘비명에 감독 자신의 내면을 객관화시켜 간접적인 애도를 표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잦은 편집과 함께 묘비명을 자막으로 삽입한 것은 분명 감독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余虹이 묘비명을 보았을 리 없기에 화자인 서술자의 일기 속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광명을 동경한다는 해설은 6·4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넘어서 역사적 시공간을 바라보는 감독의 열린 시각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 영화는 전지적 작가시점과 余虹의 내면시점의 두 가지 시점이 교차되어 다각화된다고 볼 수 있다.¹¹⁾

11)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카메라는 한 사람의 시점보다는 복수시점을 드러냄으로써 개인의 고백보다는 현실 공간에서의 의미가 중시된다: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 《문학과 영상》2(1)(문학과 영상학회, 2001), 69쪽.

2) 시공간분할 자막—봉인된 시간

하루가 24시간, 1년이 365일인 것처럼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측량 가능한 시간 속에 존재한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영화에는 시공간의 분할을 위한 자막이 여러번 삽입된다. 6·4가 끝나고 각종 기록필름이 영화 속 장면들과 뒤섞이며 다음과 같은 자막이 이어진다.

1989년 北京
 1989년 대학추계 학군단
 1989년 若古, 北京을 떠나 베를린으로 돌아감
 1989년 余虹과 曉軍은 北京을 떠나 圖們으로 돌아감.
 1989년 周偉와 李緄는 北京에 남아 독일로 가는 비자를 기다림
 베를린 1989년
 北京 1990년
 1991년 余虹, 다시 圖們을 떠나 深圳으로 감
 모스크바 1991년
 深圳 1992년
 1994년 若古의 도움 하에 周偉와 李緄는 베를린에 도착
 1995년 余虹과 深圳의 친한 친구 王波가 武漢에 도착
 홍콩 1997년

기록필름 속 시공간자막은 역사의 시간적 연속성을 암시한다. 시점쇼트가 강조되는 듯 6·4와 그 이후가 영상화된다. 시공간자막이 기록되었을 余虹의 일기는 작중화자에게 의미가 부여된 특정한 시공간이다. 순간순간이 측량될 수 있는 이 시공간자막을 통해 시간은 선형적으로 이어지고 관객은 시간 속에서 6·4세대의 슬픈 자화상을 보게 된다. 앞서 6·4 당시 등장인물들의 행적은 余虹의 시각을 통해 묘사되었지만 6·4 이후는 기록영화의 장면처럼 숨가쁘게 펼쳐진다. 베를린장벽의 붕괴, 소련연방의 해체와 함께 뿔뿔이 흩어지는 6·4세대의 청춘들.... 6·4 이후 중국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린 개인의 시간성은 일순간 붕괴되고 역사적 시간이 개인의 시간으로 환원된다. 특히 자막을 통해 시대적 배경

이 제시되는 것은 6·4 이후 놓쳐버린 개인의 시간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余虹의 일기는 영화 속 멜로드라마적 코드인 ‘놓쳐버린 기회’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젊은 날의 치기로 周偉를 떠나보내야 했던 잊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놓쳐버린 기회’이다.

본격적인 이야기 내부로 이끌려온 관객의 눈앞에 연이어 펼쳐지는 시공간의 급변은 앞으로 전개될 후일담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내적 독백을 통해 경험자아의 술회가 관객에게 들려지면서 6·4의 아픔은 관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관객은 방관자가 아니라 화자와 동시대를 살면서 후일담을 함께 보고 들은 참여자로 호명된다.

이후 중국의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余虹의 삶과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난 周偉, 若古, 李緄의 삶이 교차되어 펼쳐진다. 중국에서 余虹의 여정과 베를린으로 간 친구들의 여정은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차편집¹²⁾이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두 시간대의 배분은 불균등하고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각 시퀀스 안의 에피소드는 전체적으로 余虹의 회상을 구성한다. 중국의 여러 도시와 베를린으로 나뉜 삶의 고리들은 재구성되어 시간적 선후관계가 서로 연결된다. 교차 편집되어 분할된 시간대가 공간적 간극에도 잘 연결되면서 갈 길을 잃은 청춘들의 일탈과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보여주게 된다.

자막만으로 시공간의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그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때 그 곳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강조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의 격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6·4의 역사적 의미가 재평가되지 않고 건너뛰어지고 망각되었다는 아쉬움까지 읽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래서 감독은 余虹의 독백으로 영화 속 자막이라는 삽입절을 조율시키며 메시지의 전달 매체로서 역할을 하게 했다. 이후에도 周偉, 余虹의 시공간을 제시하는 자막은 큰 역사와 함께 개인의 작은 역사를 관객에게 알려주면서 余虹

12)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두 행동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는 기법을 교차편집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평행편집은 번갈아 보여주는 두 행동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편집을 말한다: 오정민,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 나타난 심리적 이미지와 시간, 공간 구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제14집(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152-153쪽.

의 목소리와 다른 별도의 장치로 작동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막은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독백은 余虹의 내면시점으로 서로 교차됨으로써 단일한 목소리로 합쳐지지 않는 영화를 만들어낸다. 婁燁는 영화의 끝에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후일담을 서술한 자막을 삽입하고 영화를 마무리한다.

余虹은 이후 그녀가 중경에서 알게 된 撫寧의 젊은이와 撫寧에서 살았다. 그들은 撫寧에서 20여km 떨어진 蘆龍服務區에서 함께 일했는데 2003년 겨울까지였다. 周偉가 마지막으로 北戴河해변에 간 것은 2001년 겨울로 그 뒤 그는 줄곧 重慶에서 살았고 다시는 北京으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若古는 李緄가 죽은 지 두 번째 해에 베를린을 떠났지만 모든 이와 연락이 끊어져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락 두절된 若古와 서로 어긋난 인생을 살고 있는 周偉와 余虹. 이들의 또 다른 후일담은 6·4가 지난 지 오래지만 하강의 시공간으로 몸을 던진 李緄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폐쇄된 시공간에서 머물 뿐, 끝내 열린 시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들려준다. 이 또다른 후일담은 6·4세대가 폐쇄적인 시공간의 하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소외의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

3) 스크린음악과 미장센

『頤和園』의 시공간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는 화면에 첨부된 소리를 통해서이다. 일반적으로 화면은 공간 속에, 소리는 시간 속에 머무르게 된다. 영화의 소리 중 특히 음악은 영화의 시간 차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頤和園』에는 팝음악이나 피아노, 바이올린소리 등이 스크린음악으로 삽입되었는데, 대부분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배경소음으로서 음향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화면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의 반복이 계속되면서 음악소리는 화면 이미지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을 넘어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영화 속에는 혼란스러운 6·4세대의 심리를 들려주는 듯한 바이올린소리가 관객의 청각을 자주 어지럽힌다.

바이올린 소리는 공간 배치, 즉 화면의 급격한 시간과 공간적 진행에 영향을 준다. 바이올린소리로 시퀀스의 연속에 틈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날 때 관객은 시간의 연속과 단절을 자각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간 위치가 변하지 않지만 화면 안과 밖을 넘나드는 미장센이 만들어진 다. 시청각이 함께 전달되면서 영화의 화면은 시공간적 간격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¹³⁾ 그 공백은 주인공과 이 영화를 보고 있을 관객들에게 강요된 망각의 시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관객은 바이올린소리로 과거와 현재가 통합되거나 봉합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자신의 경험과 역사를 반추하게 되는 것이다.

영화 속 바이올린소리에는 무언가 함축하는 다중적 의미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음질이 좁은 주파수대역으로 시공간이 바뀌어도 해소되지 않는 분열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영화에서 ‘음향효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바이올린 소리는 6·4세대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삽입되어 음울하고 어두운 정서를 시종일관 이끌어간다. 6·4라는 잃어버린 시간은 관객의 컷전을 울리는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관객의 기억을 어지럽힌다. 6·4의 생존자로서 피해자들에 대해 느끼는 채무의식으로 극도의 비감 속으로 내몰린 감독의 내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경험자아의 불안한 앞날을 예시하는 듯 기괴하게 때로는 애잔하게 연주되는 바이올린 소리는 살아남은 자들에게 들려주는 레퀴엠이다¹⁴⁾.

영화에서 1989년부터 1997년까지의 세월이 자막의 삽입을 통해 훌쩍 지나갈 때는 팝음악이 삽입된다. 음악이 마치고 사라질 때까지 장면의 시간경과는 다음과 같다.

13) 음악은 박자의 반복, 리듬 패턴의 반복, 같은 멜로디의 반복, 또는 마디, 악구, 악절 단위와 같은 형식적 반복 등 화면이 가지고 있지 않는 ‘반복’을 가지고 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이상윤, 〈영화의 소리가 시공간성 해석에 주는 의미〉, 《음악교육공학》(2012.058.16), 183, 198쪽 참조, 음악의 반복성은 201쪽을 참조함.

14) Rey Chow는 Jacques Attali의 음악론을 통해 陳凱歌의 『黃土地(1984)』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음악은 사회의 발전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이며, 잡음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데 (정치)권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음울하고 어두운 정서를 들려주는 듯한 바이올린소리를 정치권력이 낳은 불협화음으로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내용이다: Rey Chow 지음, 정재서 옮김, 《원시적 열정》(이산, 2004), 143쪽.



1989년 北京→ 北京 1990년→ 모스크바 1991년→ 深圳 1992년→ 홍콩 1997년

팝음악이 이어지면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5개로 나뉘는 역사적 시간대가 삽입된다. 이 숫들의 흐름은 서로간에 내적 연관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몽타주와 공간 몽타주기법¹⁵⁾의 활용으로 제멋대로 분할시켜 연결한 것이다. 이것은 시간 또는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이지만 파노라마처럼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점프컷이다. 화면은 불연속적이지만 관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경험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영화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견히지 않는 어두운 화면인데 이 블랭크 썸은 영화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진다. 어두운 화면은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의미하는 영상이미지라 할 수 있다. 마치 6·4 天安門세대의 암울한 기억, 이들이 결어야 할 어두운 여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余虹은 이 어둠을 즐긴다.¹⁶⁾ 그것은 암전된 캄캄한 의식 속에 감금된 청춘의 기억이다. 종내 어둡게만 비춰지는 화면은 6·4의 봉인된 시간, 윤패된 기억의 음화가 아닐까?

이전 영화에서처럼 婁燁의 카메라는 핸드헬드 영상을 찍는 것처럼 심하게 흔들린다.¹⁷⁾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6·4를 앞두고 거리

15) 몽타주(montage)는 프랑스어로 ‘조립하는 것’을 뜻한다. 샷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닌 충돌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러시아 영화감독 에이젠슈타인(Sergei Eizenshtein)등이 처음 시도했다: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이론》(열화당, 1996), 165-167쪽 참조.

16) 『頤和園』 영화음악의 작곡가 Peyman Yazdanian의 견해인데 婁燁도 여기에 동의한다. 그는 『頤和園』의 화면이 어둡고 음절도 나쁘다는 기술적인 문제를 언급한다. 이에 대해 婁燁는 서구미학적 기준의 영상을 탈피했다고 반박한다: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2010), 51-52쪽.

17) 이것은 『蘇州河(2000)』의 “我的攝影機不撒慌.(내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레이션에서 잘 나타난다. 婁燁는 『蘇州河』를 만들기 전인 1996년 직접 촬영기를 들고 한달동안 蘇州河 강변의 기록영상을 촬영한 바

로 쏟아져 나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이 다큐멘터리 필름과 함께 삽입된 부분이다. 婁燁가 삽입한 6·4 전야의 기록필름은 영화 속 장면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잘 조화되어있다. 6·4 시위를 재현한 핸드헬드 영상과 기록필름의 미장센은 영화의 서사를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면서 다양한 상징을 낳는다. 흔들리는 카메라워킹처럼 영화 속 개인의 시간은 역사적 시간으로 흔들리며 합치된다. 이를 통해 감독은 6·4의 현장을 보여주고 6·4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그 성찰의 끝자락은 실패한 청춘이다. 종내 폐쇄된 시공간에서 머물 뿐, 열린 시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후일담을 볼 때 이들이 6·4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것 같지는 않다.

3. 6·4가 넘겨준 공간 재현하기

1) 6·4의 기억으로 가는 여정

등장인물들이 중국의 여러 도시로 이주하고 또 일부는 베를린으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는 이들의 공간인식과 감독의 현실인식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이주로부터 감독의 현실인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영화 속 공간 설정이 결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공간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세계 뿐 아니라 인물의 개인적, 심리적인 내면 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실 공간 속 실제 경험은 사회적, 집단적 공간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물의 내면 공간으로부터 주체의 자아탐색의 여정을 찾고 그것과 실제 공간의 상관성을 고찰할 수 있다.

영화의 전반부에서 余虹은 北清대학 입학통지서를 받고 열차에 몸을 싣는다. 北京으로 가는 기차 속 그녀의 기대어린 표정이 이후의 그늘진 삶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엿보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어긋난 그녀의 삶은 圖們에서 北京으로 가는 길, 北京에서 다시 圖們으로 가는 길, 深圳에서 武漢, 重慶, 撫寧으로 가는 길이 서로 교차된 여정이다. 이 여정

있다: 婁燁·Norman Brock, Placidus Schelbert, 〈『蘇州河』放談錄〉, 《南京藝術學院學報》(音樂及表演版, 2000)4, 53쪽 참고.

의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막으로 분명히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다른 등장인물들의 경우, 베를린에 도착한 이후 李緹와 周偉가 걷는 베를린의 길, 重慶으로 돌아온 周偉가 余虹을 만나기 위해 달리는 고속도로 등 몇 번의 여정이 어긋난 채 교차된다. 관객은 余虹의 여정이 시공간자막과 함께 제시되면서 그것이 시간의 다른 모습이며, 그 시간은 길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여정은 시간과 겹쳐짐으로써, 시간의 지배를 획득하고 공간으로도 확장된다. 시간과 공간, 그것은 동전의 양면같은 관계이다. 이들의 여정은 물리적 거리로서의 시공간이자 세대적 기억의 시공간이다. 시간은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되고 역사 자신의 본원적 지위까지 할 당받으면서 여정에는 삶의 의미가 재구성된다. 이들의 여정은 역사의 공간으로 확장되지만 婁燁는 6·4라는 역사적 사건과 종내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다시 말해 6·4의 트라우마는 이들의 여정이 이어지는 주요 동인이지만 당시 시위장면을 담은 기록필름을 삽입할 뿐, 학살의 현장을 재현하지는 않는다. 영화가 이 비극적 세계의 현장을 극화했다면 史實에 충실한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¹⁸⁾ 이들의 여정은 역사적 시간으로 환원되지만 6·4의 비극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잊고 산지 오래된 6·4와 그 이후의 기억을 떠올릴 뿐이다. 등장인물들의 자포자기한 행동과 분열적인 삶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까지 생각이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余虹은 고향 圖們을 떠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장소’로서의 ‘집’을 상실한 채 떠돈다. 그녀가 떠도는 공간은 北京에서 圖們, 深圳, 武漢, 重慶, 撫寧으로 이어지는 도시공간이지만 어디에도 터전을 잡고 살지 못한다. 그녀는 공간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 그녀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지도 못하고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기숙사에서 余虹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자.

18) 한국의 경우지만 역사영화로서 『부활의 노래(1990)』, 『꽃잎(1996)』, 『박하사탕(1999)』, 『화려한 휴가(2007)』 등이 5.18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와 비교해 볼 만하다: 〈婁燁영화, 『頤和園』 다시 읽기〉, 223쪽 참고.

빈틈없는 고층빌딩숲 속에 내 집을 찾을 수 없네. 사람들이 오가는 붐비는 복잡한 거리를 헤치며 세상 끝까지 왔네. 삶의 무게가 날 무겁게 짓누르지만... 위로 올라가려 애쓰네.

그녀의 노래는 자본의 위력 아래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주거권 박탈에 대한 호소였다. 마치 고향에서 추방된 것처럼 집을 잃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장소상실’¹⁹⁾의 경험은 전일적인 근대화과정의 결과이다. 구체적으로는 6·4의 상처를 보살필 겨를도 없이 이루어진 고도성장의 결과이다. 근대화가 이루어진 도시공간에서 개인이 유기적인 관계를 상실하게 되면서 장소상실의 경험은 더욱 가속화된다.

자유롭고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서 그녀는 환멸과 빈부의 소외감을 느낄 뿐이다. 그녀는 기형적이고 괴리감 넘치는 공간을 전전한다. 벌거벗은 생명처럼 물신주의적 ‘욕망의 거리’를 떠돌던 余虹은 탈주를 꿈꾼다. 그녀의 탈주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이는 섹스로 표출된다. 뒤편과 화장실에서 갖는 섹스, 그것은 억압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런 이율배반의 역설로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탈정치화되어 있다. 6·4를 앞두고 北京市내로 뛰어들지만 그곳 역시 축제의 거리일 뿐이다. 반면 北京을 떠난 그녀가 직장인으로서 체험한 도시 武漢, 重慶은 피로와 공복에 지친 물신화된 공간이다.

한편 余虹의 직장동료들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듯하다. 그것을 정상적이라 함은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에 의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주거공간은 국가라는 확대가족의 가부장제에 의한 것이기에 국가가 설정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부장제는 자칫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근대성을 재현하기 쉽다. 이때 개인의 삶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자아상실까지 불러올 수 있다. 영화에서도 도시

19) 에드워드 켈프의 ‘placelessness’라는 이 개념은 ‘공간’과 개인의 관계에 집중한 개념인 ‘장소’를 상실하고 부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의 공간이 그 장소감과 장소성을 상실해 가는 현상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주거권 박탈의 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장소상실은 불가피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찰하면서 기술산업시대에 걸맞는 장소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6·4의 기억을 지워버린 억압에서 해방되는 대안적 공간을 찾기 위해 ‘장소상실’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기로 한다: 손희정, 〈집, 정주와 변주의 공간〉, 《대중서사연구》제25호(대중서사학회, 2011), 46~47쪽.

에서 위장된 안정의 세계를 사는 ‘나’의 사회적 자아상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余虹이 빠져있는 성, 사랑, 에로티시즘 등 감성의 세계(私)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영역으로, 그녀가 적응하지 못하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직장(公)은 남성의 영역으로 이원화된다.²⁰⁾ 余虹의 삶은 北京에서 圖們, 深圳, 武漢, 重慶, 撫寧으로 이어진다. 불구의 거리를 떠도는 余虹은 타지에서도 무기력하고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이어간다. 도시가 지닌 알 수 없는 괴기한 힘이 余虹을 퇴행과 칩거로 이끌었을까? 자포자기한 余虹에게 도시는 단절과 소외의 세계일뿐이다. 잠시나마 吳剛과의 사랑, 유부남과의 로맨스를 경험하지만 그것은 위장된 행복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주거공간이 유의미한 공간은 아니다. 특히 ‘나’는 일상적인 주거공간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벗어나 있다. ‘나’라는 개인의 퇴행과 칩거를 통해 婁燁는 고도성장이 낳은 주거성의 모순을 드러낸다. 그러나 장소상실의 모순으로부터 6·4의 그림자를 찾는 것은 관객의 몫이다. 과연 자포자기한 일탈 속에 국가폭력, 더 깊숙이 젠더문제까지 영화 속에 찾아내는 일을 관객이 할 수 있을까?

89년 周偉와 헤어진 뒤의 삶을 회고하는 현재에도 余虹은 시종일관 周偉의 존재감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다가 영화의 막바지에 余虹은 ‘장소상실’이 낳은 단절과 소외의 세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맺음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그녀는 극적으로 周偉와 재회하고 北戴河의 해변을 걷는다. 두 사람이 해변을 걷는 모습은 대학시절 함께 頤和園 昆明湖를 거닐며 데이트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청춘과 사랑이 시작된 캠퍼스와 데이트장소인 頤和園은 출발공간이다. 한편 생명의 始原인 바다는 불멸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 감각의 세계를 초월한 그곳은 영원을 제공하는 낙원의 공간이다. 파도가 밀려왔다 멈추고 다시 빠져나가기 반복하는 바다는 움직임과 멈춤, 유한과 무한, 소리와 침묵이 뒤엉킨 신화적 공간이다. 이들은 단절되고 소외된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 재생의 공간에서 절대사랑을 완성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영화 초반부 頤和園은

20) 이영자,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제9권2호(한국여성개발원, 1991), 94쪽.

재생의 문을 열어주는 초월공간이자 도착공간인 바다로 그 모습을 바꾼다. 그러나 그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다른 남자와 애정없는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바다를 도착공간으로 해서 余虹의 여정은 끝나게 된다.

2)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余虹은 北清大學에 온 뒤 기숙사에서 지내게 된다. 대학캠퍼스는 청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공간이다. 北京의 영역 내부에 위치해 있는 대학은 잘 보호되어진 공간이다. 사랑과 보호의 공간인 대학 ‘안’에서는 청춘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가 있다. 대학은 순수한 청년들의 내부공간으로서 외부공간(사회)과 나뉘어져 있다. 차별하게 구슬되는 余虹의 내러티브는 안(사적 공간)과 밖(공적 공간)의 불협화음을 들려준다. 영화 속 대학이 갖는 형상은 마치 모태적 자궁을 연상케 한다. 이 자궁 속에서 학생들은 태아의 상태로 은신해 있다. 이들에게 기숙사는 생존의 공간이며 삶의 공간이다. 영화 속 기숙사는 바깥의 밝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어두운 공간이다.²¹⁾ 또한 외부의 거시적 역사와도 단절되어 있다. 격절된 기숙사의 안과 밖은 서로 다른 공간이다. 대학 ‘밖’이 감시의 공간이고 지옥같은 폭력의 공간이기에 더 대조적이다.

6인1실의 열악한 여건이지만 다른 방 친구들은 서로 왕래하며 재미있게 지낸다. 그러나 北京으로 유학온 余虹은 적응하지 못하고 기숙사에서 특이한 아이로 지목당해 외톨이처럼 지낸다. 그녀는 무기력하고 현실에 무감각한 자아상실의 인물이다. 집단 속의 한 개인으로서 그녀는 사적 공간인 기숙사 안과 공적 공간인 기숙사 밖에서 소외되고 방황한다. 余虹이 차지하고 있는 방은 어두침침한 동굴과 같은 곳이다.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워준 기숙사 침대 위는 사적 공간이다. 열악한 대학의 교육환경, 기숙사 여건 하에서 남녀학생들이 벌이는 불장난은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을 찾으려는 욕구의 표출이다. 다른 방 학생들이 6·4를 앞두고 거리로 몰려나갔을 때도 ‘나’는 이성친구는 물론 동성친구, 교수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적 일탈을 즐긴다. 대학을 떠난 뒤에도 余虹

21) 중국은 밤에도 최소한의 전등만 켜고 있는 집이 많은데 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영화 속 기숙사도 마찬가지다.

의 섹스는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그녀가 北京을 떠나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것은 정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목민의 삶이다. ‘장소상실’이라는 복잡한 결을 가진 그녀의 여정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일탈로 점철되어 있다. 余虹이 쾌락을 위해, 나르시시즘적 도취에 젖어 섹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섹스는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이다.²²⁾ 섹스는 그녀 개인에게 존재양식으로서 의미있는 기호이다.

婁燁는 1989년 北京의 비극을 간접적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그때의 민주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일탈하는 청년들의 추태를 함께 보여준다. 닫힌 공간에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일탈을 즐기는 이들은 자아를 상실한 존재이다. 이들이 거리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유혈진압을 피해 도망칠 곳은 대학 기숙사밖에 없지만 대학당국은 이들의 일탈에 책임을 묻는다. 기숙사는 해방구가 아니라 대학당국의 통제를 받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대학이 난장판이 되었더라도 규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周偉와 李緄가 기숙사 빈 방에서 관계를 갖다가 경비에 들켜 징계를 받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영화 속 진정한 청춘의 해방구로 재현되는 곳은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이다. 나이트클럽에서 余虹은 周偉를 처음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금새 사랑에 빠진다. 이들의 사랑은 담배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억눌린 욕망은 섹스로 표출된다.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애정,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학생들 사이에 때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저 황무지를 건너면 그대 가슴에 밤이 오리라.”

“우리는 모두 동지 맞지? 신 앞에선 모두가 평등해. 그러니까 노동자를 보호해야 면목이 있는 거지. 농부들도 그렇고, 너같은 지식인도 그렇고.”

나이트클럽이라는 공간에서 이들은 ‘동지’라는 공생공존의 공동체를 상상한다. 기숙사 바깥에는 6월의 시위가 벌어지지만 이런 시국도 청춘이 지금 당면한 고민과 문제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빠져나가 둘만의 대화를 나눈다. 서로 이견이 있음에도

22)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2010), 49쪽.

6·4의 정신이 퇴화되지 않고 보듬어지는 것은 바로 나이트클럽이 해방 구이기 때문이다. 나이트클럽은 文革이 끝나고 방황하는 청춘남녀들에게 낙원같은 공간이다. 어울리지 않을 것같은 곳에서의 시국토론..., 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고민한다.²³⁾ 닫혀지고 격리된 기숙사에서 소외되었던 余虹이 周偉와 頤和園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를 갖는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녀가 기숙사라는 경계를 넘어 외부현실과 접속하는 순간 그녀의 정체성에 변화가 일어난다. 열린 공간으로 전이된 余虹은 비로소 자아의 편협한 경계를 허물게 된다.²⁴⁾ 대학이나 기숙사가 닫힌 공간이라는 것은 교내 길바닥에 쓰러질 때 余虹의 내레이션에서 잘 드러난다.

넷째, 오늘 하루 종일 수영장에 있었는데 끔찍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 몸을 가눌 수 없었고 글을 계속 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대로 했다. 눈을 꼭 감았다. 그랬더니 식은땀이 흐르면서 자꾸 눕고 싶어졌다. 그저 눕고 싶을 뿐... 그때 누웠어야 하는데 난 수영장 물속에 기어들어가 가장자리 물이 얇은 쪽에 앉았다. 숨이 점점 약해지고 꼭 죽을 것만 같았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섯째, 北清大學 학생들이 天安門으로 몰려갔다.

23) 이들이 유학 중 잠시 귀국한 若古와 베를린장벽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선술집도 비슷한 공간이다.

24) 푸코는 고정시키는 일련의 관계들을 의심하고 장소의 헤게모니적 조건들을 전복하는 현실 속 장소를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른다. 푸코는 기숙사를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라고 한다. 청소년기나 생리기간처럼 위기의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해 지정된 공간 혹은 신성한 공간이기에 그렇다. 『頤和園』에서 또 다른 헤테로토피아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나이트클럽이 있다. 나이트클럽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서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일탈을 행하는 곳이며 헤게모니적 조건을 전복하는 현실적 공간이다. 자신들만의 판타지 공간을 구축하면서 현실로부터 탈각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당당히 주거권을 요구하는 공간이다: 〈집, 정주와 변주의 공간〉, 63~65쪽 참고. 한편 대학시절 나이트클럽과 비슷한 성격의 공간이 있다면 세월이 흐른 뒤, 余虹이 유부남 唐선생을 만나는 카라오케다. 그런데 카라오케는 대학시절의 순수함과 거리가 멀다. 나누는 대화도 청춘의 해방구였던 곳에서의 대화와는 격이 다르다. 余虹은 카라오케에서 노래를 부르다 유부남을 만나서 함께 춤을 추고 나와서 식사까지 한다. 그러다 임신해서 낙태를 하게 된다.

그녀는 수영장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하지만 영화 속에서 실제 쓰러져 누운 곳은 흰 꽃가루가 어지러진 길바닥이다. 캠퍼스 안에 갇혀 있다 나온 그녀에게 광장공포증이라도 생긴 것일까? 드러눕는 길바닥을 수영장 가장자리로 착각하는 그녀의 정신상태는 온전해 보이지 않는다.

6·4의 전야, 진압을 위해 인민해방군이 투입된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진 余虹을 찾으러 周偉와 冬冬이 나선다. 가까스로 余虹을 찾아 데려오지만 6·4의 비극은 터널에 올리는 총성과 함께 막을 내린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화를 외치던 청춘들의 꿈은 좌절되고 周偉의 방에 삼삼오오 모이지만 이내 조기겨울방학에 들어간다. 그리고 강제적인 학군단훈련에 동원되면서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余虹은 圖們으로, 周偉와 李緄는 베를린으로 떠남으로써 비극의 공간과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진다.

6·4가 미완의 혁명으로 막을 내리고, 여러 도시를 전전하지만 余虹은 닫힌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가 武漢, 重慶에서 만난 여러 남자들과 몸을 섞는 것은 닫힌 공간을 벗어나 유연한 관계를 맺기 위한 몸부림이다. 닫힌 삶에서 벗어나려는 욕망, 그 상승적 의지가 생동할수록 바깥으로 향한 그녀의 전진적 외출은 계속된다. 흥미로운 것은 余虹과 周偉가 헤어진 뒤 재회하게 되는 계기가 가상공간을 통해서라는 점이다. 바로 周偉의 이메일을 통해 서로 연락이 닿는 것이다. 인터넷은 탈중심화된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상공간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가상공간을 통해 현실공간에서 재회하고 北戴河의 바닷가를 거닌다. 그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새로운 전이를 보여준다. 이들의 만남은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양자가 혼종된 방식으로 가능해진 셈이다.

다시 영화의 마지막장면. 지난날 나이트클럽에서 젊음을 발산하다 6·4의 현장으로 뛰어든 余虹의 기억이 기록필름으로 재생된다. 대학시절 나이트클럽의 장면은 청춘과 관객들을 위해 투입시킨 슬픈 난장의 마당이다. 그 시절은 단지 추억에 불과하지만 이를 열기설기 연결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은 자신이 살아남았음을 인지하고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과거의 시공간으로 이끄는 마지막 장면에서 개인적 시간과 공간의 재료가 집약되면서 미시적인 개인사와 거시적인 민중의 역사가 플라쥬처럼 겹쳐진다. 관객이 그 시공간을 잘 해석해낼 수 있다

면 역사의 시간 속에 편입되게 될 것이다. 기록화면 속에서 등장인물들의 개별적인 실존을 발견한다면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6·4는 공식적인 역사였지만 개인의 삶은 역사적 시간에서 배제되어 왔다. 공식적인 역사에서 배제된 이들의 존재는 개인의 시공간 속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婁燁가 기록필름을 통해 이를 복원한 것은 상실한 그 때 그 시절의 시공간을 회복하고픈 바람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상한 세월 속에 색 바랜 화면으로 불러온 청춘들의 모습. 영화 속 후일담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진다.

4. 6·4로 상실한 시공간 회복하기—탈주, 그리고 귀환

앞서 2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4 이후의 시공간은 자막으로 분할되어 제시되었다. 중국의 여러 도시를 전전하는 개인의 여정과 동서양의 최근세사가 그야말로 숨가쁘게 펼쳐졌다. 婁燁는 6·4 이후의 최근세사를 크게 중국과 서구로 나누어 자막과 함께 기록필름을 평행편집해 보여주었다. 특히 베를린장벽의 붕괴(1989년), 소련연방의 해체(1991년), 홍콩반환(1997년) 등은 동서냉전체제로 나뉘었던 공간이 자본주의적으로 재편됨을 보여준다. 이런 공간의 재편은 시대의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평행편집과 달리 등장인물들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베를린으로 흩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행동은 순차적으로 교차 서술된다. 두 군데서 진행되는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다.²⁵⁾ 중국이 제3세계적 공간이라면 베를린은 제1세계적 공간이다. 중국의 거리샷과 베를린 거리샷, 두 도시는 완전히 대조되는 세계지만 비슷한 속도의 카메라 이동에 의하여 대비된다. 나레이터인 余虹의 회고 속에 두 도시가 혼용되면서 중국과 독일은 순차적으로 교차되며 평행선상에서 구현된다. 이렇게 상이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비교와 대조는 충돌이 아니라 일대일 대칭구조 상에서 이루어진다.

25) 앞서 2장 2절에서는 두 여정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교차편집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영화 속 6·4세대의 트라우마가 北京에서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데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李緹와 周偉는 6·4의 비극을 겪고 난 뒤, 若古의 도움으로 도망치듯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그것은 비극의 현장에서 몸을 숨기는 망명과도 같다. 중국이라는 영토에서 정주하지 못하던 이들이 새로운 공간과 유연한 관계를 맺고자 유목민처럼 짐을 짊어질 일까? 영화 속 점프컷으로 이어지는 베를린 유학생활의 장면들을 볼 때 이들은 국적에 얽매이지 않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듯하다. 周偉가 폴란드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는 장소를 상실한 이방인들의 디아스포라²⁶⁾가 잘 나타난다.

周偉: 重慶에 있는 친구가 일자리를 알아봐준대. 여기서 내가 이방인 같고 붕 뜬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
 폴란드 친구: 돌아간다고 나아질까? 중국에선 모든 게 명쾌하냐고?
 周偉: 바르샤바는 어때?
 폴란드친구: 그냥 그렇지 뭐. 北京은 어떠냐?
 周偉: 거기도 그냥 그래.
 폴란드친구: 여자친구 있니?
 周偉: 그래. ... 아주 멀리.²⁷⁾
 폴란드친구: 중국에?
 周偉: 아마도.
 폴란드친구: 그런데 여긴 어디지? 베를린인가?

영화 속 베를린은 중국사회의 억압과 폭력을 드러내기 위해 소환되고 北京과 대조되면서 6·4라는 잃어버린 시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은유로 차용된다. 이들은 동서의 장벽이 붕괴되는 것을 목도하고 일상처럼 진행되는 시위의 현장을 경험한다. 베를린 시위행진은 국적과 시공, 성별을 초월하는 사상적 유대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베를린 시내의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자아의 표출 양상은 급변한다. 길이라는 공간으로 나온 이들은 해방

26)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산을 뜻하는 그리스어로 최근에는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27) 周偉가 말한 여자친구는 아마 余虹일 것이다. 여기서 周偉도 余虹과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순간을 맞는다.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으로 거리의 시위에 동참하는 것은 상실한 자아의 회복을 위함이며 비상을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6·4의 기억 속, 시위대에 합류해 트럭에 올라타던 모습에서도 해방을 맞은 이들의 밝은 표정이 비추어진 적 있다. 이때도 거리 진출의 통로는 길이었다. 길은 수직적인 보행을 전제로 한 공간이다. 길을 통해 폐쇄된 자아의 공간인 기숙사에서 외부의 열린 공간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일지라도 부정적 현실공간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탈출은 때로 더 큰 좌절과 실패를 안겨주기도 한다.

구체적인 목적지를 잃어버린 세 사람은 사람들로 들끓는 복잡한 혼돈의 공간을 벗어나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간다. 영화 속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그곳은 자신들이 거주하며 친구들을 초청하기도 하는 아파트로 여겨진다. 폐쇄된 중국 대학의 기숙사와 달리 그곳은 디아스포라를 고민하던 유학생들을 외부로 연결시키고 생명력을 환기시키는 공간이었다. 수직적인 건물의 옥상은 지상에서 천상을 향하는 수직상승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 수직축의 매개공간은 자아의 인식, 비상에의 꿈을 상기시킨다. 수평공간인 베를린 거리에서 수직공간인 옥상으로의 보행은 더 높고 신성한 곳을 향하는 상승적 행위이다. 그러나 무작정 함께 걷던 시위행렬이 지향하는 바와 도피성 유학의 현실 사이에 좌절했을까? 박탈과 유기의 공간이며 장소상실의 공간인 중국으로 周偉가 귀국한다는데 삶의 의미를 잃고만 것일까? 아니면 베를린 거리의 시위에서 6·4의 참극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날개 꺾인 영혼, 李緄은 옥상에서 비상하지 못하고 뒤돌아선 채 몸을 던지고 만다. 폐쇄의 공포를 벗어나 거리의 행진에 몸을 맡긴 그녀는 또 다른 공포증, 6·4의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했던 것이다.²⁸⁾

28) 그녀의 자살에 6·4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고 보면, 그것은 天安門광장에서 시작되어 베를린의 거리에서도 겪은 광장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광장공포증은 낮은 거리나 사람들이 밀집한 광장이나 공공의 장소 등에 나가게 되면 심한 공포감에 휩싸이는 공황장애를 일컫는다. 따라서 기숙사에서 余虹이나 베를린에서 李緄의 공황장애도 광장공포증에 포함시킬 수 있다: Naver 지식백과 참조.

세상과의 하직을 택한 그녀의 결정에 남은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몇일 뒤 두 사람은 현지의 외국인 친구들과 옥상에서 추도식을 치른다. 죽기 직전 참여했던 시위행렬의 필름을 상영하며 햇불을 들고 와인을 나누는 친구들. 높은 옥상 위에서는 베를린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李緄의 이런 행보는 과거 余虹이 周偉와 헤어지고 난 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장면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옥상에 올라간 余虹을 본 李緄가 놀라서 소리지르며 옥상으로 뛰어올라간다. 余虹이 실연의 슬픔 끝에 자살을 생각했던 것 같은 이 장면은 李緄의 투신장면과 겹쳐진다. 이처럼 베를린은 北京과 전혀 다른 두 개의 상반된 공간이지만 때로 겹쳐지기도 한다. 물론 北京에서의 체험과 베를린에서의 체험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6·4 당시 北京電影學院을 다녔던 婁燁의 현실인식 속에서 北京은 6·4의 참극, 즉 죽음을 수사적으로 의미할 터이다. 영화 속에서 北京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 억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자 결과이다. 베를린에서 등장인물들은 그것이 전복되는 양상을 목도하게 되고 관객 역시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진 6·4(1989년) 이후를 환기하며 두 장소를 비교해보게 된다.

婁燁는 6·4세대 개인의 상처를 공적인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인 거리두기를 견지한다. 베를린으로 유학간 周偉가 취업을 위해 귀국하기로 결정하고, 절망을 느낀 李緄가 목숨을 끊는 대목에서도 거리두기가 잘 드러난다. 周偉가 결국 중국으로 돌아오는 결말에서 볼 때 베를린은 이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일 따름이다. 돌아온 周偉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余虹을 만난다. 이들에게 6·4는 젊은 날의 치기에 불과하다. 6·4는 뜨거웠던 사랑만큼이나 허무한 이별의 기억으로 남아 바닷가의 파도 속에 휩쓸려간다. 결국 마지막에 기록필름으로 삽입된 영화 속 공식적인 역사는 후경으로, 개인사의 배경으로 모습을 감출 뿐이다. 감독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는 6·4의 실패를 거울삼아 역사란 모름지기 위에서 아래로 전해진다는 통념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영화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며 周偉와 余虹, 若古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5. 맺는 글

婁燁의 『頤和園』은 6·4天安門사태라는 금기시된 소재를 배경으로 했다. 영화가 중국 국내에서 상영 금지당하면서 6·4 이후 시공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못하고 잊혀져왔다. 영화는 余虹이라는 주인공의 독백으로 구술되는 일기를 텍스트로 하고 있다. 일기의 내용은 플래시백이라는 장치를 통해 전경화된다. 영화에는 전지적 작가시점과 余虹의 내면시점의 두 가지 시점이 교차되어있다. 일례로 감독은 자살한 李縉의 묘비명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직접 개입한다. 또 영화 속에는 余虹등 등장인물들의 여정이나 6·4 이후 최근세사가 시공간 자막으로 제시된다. 6·4 이후 이들의 후일담은 폐쇄적인 시공간의 하강구조에서 머물 뿐, 종내 열린 시공간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에는 혼란스러운 6·4세대의 심리를 들려주는 듯한 바이올린소리가 관객의 청각을 어지럽힌다. 또 6·4 이후 8년이라는 세월 동안 5개로 나뉘는 역사적 시간대에 팝음악이 삽입되기도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영화 내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화면이다. 이 블랭크썸은 6·4세대의 암울한 기억, 이들이 곁어야 할 어두운 여정을 보여주는 듯하다. 余虹은 고향 圖們을 떠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장소’로서의 ‘집’을 상실한 채 떠돈다. ‘장소상실’의 경험은 6·4의 상처를 보살필 겨를도 없이 이루어진 고도성장의 결과이며 주거성의 모순을 함축하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의 이면에는 6·4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기숙사라는 닫힌 공간에서 남녀학생들이 벌이는 불장난은 자유롭고 개방된 공간을 찾으려는 욕구의 표출이다.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섹스는 억압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독특한 방식이며 존재양식이다.

영화 속 진정한 청춘의 해방구로 재현되는 곳은 나이트클럽이다. 그들은 나이트클럽에서 시국토론을 벌이고 사회변혁의 가능성을 고민한다. 기숙사에서 소외되었던 余虹이 周偉와 頤和園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데이트를 갖는 것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6·4

가 비극적인 종언을 맞으면서 이들은 헤어지고 닫힌 공간 속으로 유폐된다. 李緄와 周偉는 6·4의 비극을 겪고 난 뒤 도망치듯 독일로 유학을 떠난다. 周偉가 귀국하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余虹과 극적으로 연락이 닿는다. 北戴河라는 현실공간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거닌다. 이 또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새로운 전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화 속에는 등장인물들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베를린으로 흩어지면서 두 장소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교차 서술된다. 중국이 제3세계적 공간이라면 베를린은 제1세계적 공간이다. 영화 속에서 北京이라는 공간은 정치, 사회, 경제적 억압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자 결과이다. 한편 베를린은 6·4라는 잃어버린 시공간을 회복하기 위한 은유로서 중국사회의 억압과 폭력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 영화는 6·4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나고 갈 곳을 잃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장소의 상실을 보여주고 회복의 가능성을 꿈꾼다. 그러나 6·4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李緄가 베를린에서 자살하고, 귀국한 周偉와 余虹이 바닷가에서 해후하는 결말로 상실한 시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또 다른 후일담으로 볼 때 먼 미래에도 장소상실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李緄와 周偉가 꿈꾼 중국에는 없는 장소, 베를린은 말 그대로 유토피아²⁹⁾지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전망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장소회복이 가능하려면, 공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애착형성의 계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훗날 6·4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6·4의 현장이 시민의 눈앞에 제대로 재현되고 해방구였던 天安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곳은 해방광장으

29) 유토피아는 어원상 ‘자리가 없는(u-topia)’ 공간의 건설이다. 더 지속될 수 없는 삶을 바꾸려는 사회변혁의 이상을 담고 있다. 본고의 장소상실과 관련 짓자면 유토피아는 ‘무장소성’을 담보로 한다고 할 수 있다. 89년 天安門에서 학생들이 계엄군과 대치해 구성한 ‘해방광장’은 유토피아 즉 현실에는 ‘없는 장소’였다: 김정환, 〈저항하는 대중들의 유토피아: 1980년 광주와 1989년 천안문〉, 《문화/과학》통권68호, 2011년 겨울호, 129-130쪽 참고. 이 ‘없는 장소’의 회복을 위해 본고에서는 현실적 대안(헤테로토피아)에 주목하는 것이다.

로 자리매김 될 것이다. 그것은 6·4의 시공간을 은폐하던 논리를 해체하고 장소를 회복하여 탈구축하는 일이다. 이 때 6·4세대는 찰나의 역사 속에서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연속성을 가진 시공간의 주체가 된다. 이들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다면 개인의 역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청춘은 한순간의 치기가 아니라 가장 찬란한 역사적 시간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참고문헌]

[영화]

婁燁 감독, 『頤和園』(2006)

Richard Gordon, Carma Hinton 감독, 『태평천국의 문(Gate of Heavenly Peace)』(1995)

張元, 段錦川 감독, 『廣場』(1994)

[논문 및 단행본]

강유정, 〈혁명 전야에 타오르는 도발적 섹스, 그리고 금기에 대한 욕망〉, 《신동아》585호(2008.06)

김명석, 〈婁燁의 영화, 『頤和園』 다시 읽기〉, 《국제언어문학》27호(국제언어문학회, 2013)

김선아, 〈민족/영화: 코리안 뉴 웨이브에서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까지의 민족, 시간, 성차〉, 《대중서사연구》제13호(대중서사학회, 2005.06)

김소영, 〈성찰과 비전을 가진 정치영화, 『여름궁전』〉, 《시네21》(2006.11.08)

김수연, 〈『비정성시』와 『박하사탕』의 멜로드라마적 기억〉, 《대중서사연구》제14호(대중서사학회, 2005)

김시무, 〈현대사의 아픔,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제도권 영화들〉, 《공연과 리뷰》58(현대미학사, 2007)

김정환, 〈저항하는 대중들의 유토피아: 1980년 광주와 1989년 천안

- 문〉, 《문화/과학》통권68호(2011년 겨울호)
- 김종현, 〈기억과 재현의 영상 이미지〉, 《민주주의와 인권》제3권제2호(전남대 5.18연구소, 2003)
- 陶鍵, 〈婁燁:紀實影像中的都市靈魂〉, 《電影評價》2期(浙江大學, 2010)
- 婁燁·Norman Brock, Placidus Schelbert, 〈『蘇州河』放談錄〉, 《南京藝術學院學報-音樂及表演版》4(2000)
- 박정희, 〈러우이에 영화 속의 ‘上海’에 대한 서술〉, 《중국인문과학》제38호(중국인문학회, 2008)
-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 지식인〉,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창비, 2008)
- 徐元紹, 〈“出走”與“尋找”之間〉, 《山東文學》(2009년5期)
- 聶偉, 〈從/後5黃土地60到/後賈樟柯0時代第六代電影美學與產業發展略論〉, 《上海大學學報》(2006년11月)
- 孫曉靜, 〈一個時代的疼痛—『春風深醉的夜晚』〉, 《大舞臺》6期(湖北省武漢大學, 2011)
- 손희정, 〈집, 정주와 변주의 공간〉, 《대중서사연구》제25호(대중서사학회, 2011)
- 안시환, 〈미칠듯한 사랑 『여름궁전』〉, 《시네21 리뷰》(2007.09.12)
- 안영은, 〈정치적 상징에서 시대적 기호로—天安門과 毛澤東형상의 재현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제53집(중국학연구회, 2010)
- 楊立群, 〈簡析電影『紫蝴蝶』中的婁燁印記〉, 《大舞臺》(2011년9期)
- 聯合報編輯部編, 《天安門一九八九》(臺北: 聯經出版社業公司, 1989)
- 오정민, 〈영화, 『히로시마 내 사랑』에 나타난 심리적 이미지와 시간, 공간 구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제14집(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05)
- 왕단 외, 장영석·안치영 옮김, 〈원탁토론—중국의 앞날〉, 《고쳐하는 중국》(길, 2006)
- 유장근, 〈영화 『천안문』을 통해 본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시말〉, 《중국근현대사연구》제42집(중국근현대사학회, 2009)

- 이상윤, 〈영화의 소리가 시공간성 해석에 주는 의미〉, 《음악교육공학》(2012.058.16)
- 이영자, 〈자본주의와 성〉, 《여성연구》제9권2호(한국여성개발원, 1991)
- 이정훈, 〈頤和園의 黃昏, '6·4 천안문세대'의 '青春'을 위한 追念〉, 《중국현대문학》(중국현대문학학회, 2009)
- 張獻民, 〈技術主義『看不見的影像』之十一:『蘇州河』〉, 《書城》(2003年10期)
- 張獻民, 〈花之惡-96年以來大陸獨立電影的回顧〉, 《當代藝術與投資》(2009年6期)
- 조 은, 〈침묵과 기억의 역사화: 여성·문화·이데올로기〉, 《창작과 비평》(2001년 여름호)
- 황인성, 〈Popular Memory연구의 이론 및 방법론적 전망에 관한 논의〉, 《언론문화연구》제17집(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2001)
- 김용수, 《영화에서의 몽타주이론》(열화당, 1996)
- 나카지마 미네오 지음, 강표 역, 《중국의 비극-천안문 사건과 그 진상》(인간사, 1989)
- 모리스 마이스너 저,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2》(이산, 2004)
- 빌헬름 라이히 저, 황선길 역, 《파시즘의 대중심리》(그린비, 2006)
- 왕후이 저, 이옥연 외 옮김,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창비, 2003)
- 張獻民, 《當代藝術與投資》3期(夢工作室, 2010)
- 程青松、黃鷗, 《我的摄影机不撒谎》(北京:中国友谊出版公司, 2002)
- 황영미, 〈일인칭 소설의 영화화〉, 《문학과 영상》2(1)(문학과 영상학회, 2001)

[기타]

http://baike.baidu.com/view/438212.htm#8_61

<http://cafe.naver.com/eurekapic/198>

<http://www.tianya.cn>
<http://bbs.tianya.cn/post-filmtv-160964-1.shtml>.
<http://www.newsmth.net/nForum/#!article/Movie/1103003>
<http://www.guardian.co.uk/film/2006/may/18/cannes2006.cannesfilmfestival?INTCMP=SRCH>
<http://www.newsmth.net/nForum/#!article/Movie/1103003>
http://www.52rd.com/bbs/Archive_Thread.asp?SID=114559&TID=2

〈中文提要〉

娄烨的影片『颐和园』在中国国内被禁播，因为它不仅以六四为题材创作，而违反国务院所定的〈电影管理条例〉。有人将它视为政治片，有人视为爱情片，也有人在现代史的脉络阅读它。无论如何，在韩国关于六四的研究不少，而尚未有瞩目到影片的主人公——六四一代负罪感，考察其时空意味的试图。本文论述通过影片内部的闪回镜头与独白等被忘却已久的六四的记忆如何再现，也论述被忘却的时空通过字幕，电影音乐与场面调度等如何汇合。

人物的旅程由图们、深圳、武汉、重庆、北戴河至德国柏林继续相衔，由此可发现六四一代已丧失的时空，也可试探回复的可能性。它是由封闭性空间——北京脱身走向开放性空间——柏林的旅程。它是必然回归的构图，本文由此还考察何为六四，此事件留下的课题。他们的后半辈子是，各自分崩离析过平凡的日子。因此，他们不见得不远将来解决“无地方性”。李缙与周伟做梦想的在中国不存在的地方——柏林实际上是乌托邦，因此不能成为可能展望的未来。那么，如现实上要实现“地方恢复”与空间结成新关系，就需要什么过程？

至今对六四的普遍的悲观看法蔓延到了社会，但总有查明六四的真相，恢复牺牲者的名誉的一天。如市民眼前照实再现六四的现场，再看到一时的解放区——天安门景象，它能够被重新评价为解放广场。这是解构隐蔽六四时空的逻辑，恢复、再构建地方的进程。

關鍵詞： 姜燁 『頤和園』 六四 閃回鏡頭 獨白 字幕
電影音樂 封閉性空間 開放性空間 地方恢復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장양(張揚)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여정과 현실의 간극 고찰

박춘식*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장양의 로드무비
3. 여정과 현실의 간극
 - 1) <낙엽귀근(落葉歸根)>의 농민공 라오자오(老趙)
 - 2) <노인요양원(飛越老人院)>의 노인 라오거(老葛)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제6세대 감독인 장위엔(張元), 로예(婁燁), 왕샤오화이(王小帥), 지아장커(賈樟柯) 등의 영화들이 한때 ‘지하영화’로 불렸던 배경에는 중국의 사회현상들에 대한 이들의 비판의식과 여기에 대한 존중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장양(張揚)¹⁾은 예외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평가의 중심에는 처음부터 ‘지하’가 아닌 ‘지상’에서, 사회에 내재된 모순과 병폐에 대한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강사

1) 이름 張‘揚’은 張‘楊’으로도 쓰인다. 1967년 베이징에서 출생. 1988년 광저우(廣州) 중산대학(中山大學) 중문과를 졸업한 후, 중앙연극대학(中央戲劇學院) 연출과(導演系)에 입학하였다. 1992년 졸업한 뒤, 베이징영화제작소(北京電影制片廠) 소속 감독으로 배치되었다. 1997년 <애정마라탕(愛情麻辣燙)>을 처녀작으로, <샤워(洗澡)>(1999), <태양화(太陽花)>(2001), <어제(昨天)>(2002), <해바라기(向日葵)>(2005), <낙엽귀근(落葉歸根)>(2007), <삼중 충돌(無人駕駛)>(2010), <노인요양원(飛越老人院)>(2012)을 연출하였다.

심도 있는 성찰보다는, 보통사람의 소소한 일상과 인간사의 갈등을 상업적으로 풀어낸 데에서 기인한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예술과 상업의 경계”²⁾를 탐색해왔으며, 또 어떤 면에서는 “주선율³⁾과 상업의 경계”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장양 영화에 있어 상업성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주제의식의 대부분은 가족에 회복, 사랑, 인간애 등의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은 부자간의 단절된 관계에서 기인한다. 그의 아버지 장화선(張華勛)은 1980년대 <신비한 부처(神秘的大佛)>와 <무림지(武林誌)>를 연출한 영화감독으로 이들 부자지간은 항상 갈등을 빚어왔으며, 장양이 광조우 소재의 중산대학을 선택한 것도 베이징에서 거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였다. 영화 <해바라기(向日葵)>에서 그림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사실은 영화로 갈등을 맺은 장양 부자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샤워(洗澡)>⁵⁾에서도

2) “그의 영화는 줄곧 예술과 상업의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他的電影一直以來都兼顧了藝術與商業的雙重元素。) 易立競, <張楊: 只拍忠於自我的電影>, 《中國導演訪談錄》(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268쪽.

3) 주선율 영화에는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영화와 ‘사회의 공공적 규범을 표방’하는 두 가지의 영화가 있다.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주선율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었고, 사회의 부조리, 자기희생, 집단주의, 민족주의, 전통문화 등을 고취하기 위한 주제의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박춘식, <주선율 영화의 궤적 분석>, 《중국어문학》53(2009), 242쪽.

4) “장양이 가는 길은 대중과 친화하는 주선율 창작의 길을 가고 있다. 그가 왕샤오화이, 지아장커 등과 다른 점은 소외계층과 비천한 삶, 잔혹한 청춘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관방이 선전하고 있는 주선율영화와 다른 점은 위정자의 공적과 은덕의 찬양에 힘쓰지 않는다는 점이다.”(張揚走的是一條親民的主旋律創作之路。他既不同於王小帥、賈樟柯等人，聚焦重點不在弱勢群體、卑微生命和殘酷青春之上，也有別於官方正宣的主旋律影片，不刻意地歌功頌德和樹碑立傳。) 三錯, <《落葉歸根》: 崇高名義下的低俗秀場>, 宋健君主編, 《青春電影手冊, 第一輯》(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8), 78쪽.

5) <샤워(洗澡)>, <어제(昨天)>, <해바라기(向日葵)>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여 양자의 갈등이 주요 줄거리가 되므로 영화계에서는 이 셋을 장양의 ‘부자삼부곡(父子三部曲)’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장양은 이 세 작품 중에서 <어제>는 빼고 <샤워>와 <해바라기>만 부자의 감정을 드러내었다고 한다. 유미경, <장양의 영화 『해바라기(向日葵)』 읽기 : ‘부자’갈등을 중심으

부자간의 갈등은 그대로 녹아있다.

<낙엽귀근(落葉歸根, Getting Home)>(2007)과 <노인요양원(飛越老人院, Full Circle)>(2012)에서도 부자간의 갈등과 가족애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며, 농민공, 노인 등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자신의 영화를 통해 환기 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경찰과 가족애를 통한 봉합으로 서둘러 결론을 맺어버린다. <낙엽귀근>에서는 갑작스레 경찰이 등장하여 라오자오의 여정의 이유인 친구의 시체를 화장하고, 또 친절하게 경찰차로 목적지인 친구의 집에 데려다 주면서 영화는 자연스레 갈등이 해소된다. <노인요양원>에서는 라오거 부자간의 이십년 묵은 갈등이 TV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가슴에 있는 응어리가 눈 녹듯이 풀려버린다. 부자 갈등의 이유는 몇 장면의 대사로 제시되고, 아들의 응어리는 ‘주택’ 말고는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사실 영화의 극적인 부분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해바라기>에서도 나타난다. 부자간의 지독한 갈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실종과 남겨진 테이프의 음성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그러하다. <해바라기>가 두 편의 영화와 비슷하게 갈등을 해소하지만 평단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의 무게는 다르다. 여기에는 두 편의 영화에서 주인공인 이들의 ‘농민공’과 ‘노인’의 신분에서 기인한다.

이 글은 장양의 영화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을 연구대상⁶⁾으로 하였다. 두 편의 영화는 로드무비 장르를 이용하여 농민공과 노인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상업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영화와 대별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첫째, 사실적으로 다뤄지던 농민공이 상업성과 맞물려 코미디의 성격으로 분화하고, 다시 로드무비와 혼합되는 과정을 조망하면서 장양영화에서 로드무비와 코미디의 결합이 하나

로>, 《중국어문학논집》68(2011), 306쪽.

6) 장양의 영화를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병민, <영화 『어제(昨天)』에 대한 정신분석적 탐색>, 《중국어문학논집》65(2010) / 유미경, <장양의 영화 『해바라기(向日葵)』 읽기: ‘부자’갈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68(2011)

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로드무비와 코미디의 결합으로 인해 영화에서 나타나는 여정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상업적으로 변주하여 활용하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성찰보다는 공적영역(경찰)과 가족애의 신화성을 동원한 결말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의 과정들은 장양 영화가 소시민의 정과 사랑을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봉합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과잉과 지배이데올로기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음을 밝혀내는 것이기도 하다.

2. 장양의 로드무비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가 되면서 도시에 농민공들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농민공을 소재로 한 영화가 산발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도에 이르러 농민공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다수의 농민공 영화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농민공의 신분이 하나의 영화적 서사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인 <안양의 고아(安陽嬰兒)>(2001), <북경 자전거(十七歲的單車)>(2001), <맹정(盲井)>(2003), <미꾸라지도 물고기다(泥鰱也是魚)>(2006), <스틸라이프(三峽好人)>(2006) 등에서는 농민공의 노동생활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면서, 그들의 도시생활과 정신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영화들은 농민공을 도시에서 표류하는 타자로, 그리고 열린 결말로써 마무리를 지으며 현재에도 그들의 유랑은 진행형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장양의 <낙엽귀근>에서 라오자오의 행색은 농민공이나, 자아와 세상의 대립은 그의 농민공 신분에서 기인하지 않는다. 영화의 분위기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이는 전작인 <애정마라탕>, <샤위>, <해바라기> 등에서 나타나는 분위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영화에서 감지되는 코미디와 로드무비 장르는 기존의 영화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낙엽귀근>보다 일 년 앞서 개봉된 닝하오(寧浩)의 코미디 영화 <크

레이지 스톤(瘋狂的石頭)>(2006)은 300만 인민폐를 투자하여 2300만 인민폐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중소자본⁷⁾의 코미디영화가 급속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2006년에 상영된 코미디 영화는 8편으로 전체 영화의 9.4%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2009년에 이르러서는 2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⁸⁾ 관객을 대상으로 영화 장르에 대한 중복선택에서 코미디가 56.94%로 1위이며, 애정영화 48.63%, 액션영화 42.25% 순으로 호응이 높았는데⁹⁾, 중소자본으로 영화에 코미디를 가미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으로 인식되었다. 장양의 <낙엽귀근>이 <크레이지 스톤>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크레이지 스톤>의 흥행 이전, 2000년대 중반 중국영화계에서 대작의 흥행에서 생존하기 위한 중소자본의 코미디 영화 제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장양도 이러한 자장아래 놓여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자본의 코미디 공식에는 상업성과 생존이 개입된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코미디 장르에서 농민공을 비롯한 사회의 저층이 주류 서사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이 이야기는 비참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설날에 상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세편의 요소를 고려하였다. 설날부터 사람들에게 비극을 보게 하는 건 좋지 않다.”¹⁰⁾는 장양의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2300만 인민폐의 제작비로, 농민공의 잔혹한 현실보다는 상업성을 고려해 코미디를 혼합한 의도가 엿보인다. 음력설에 맞추어 개봉하는 ‘설날 영화’를 일컫는 ‘하세편’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성의 추구이며, 주로 코미디 혹은 무협 블록버스터의 성격을 띤다. 대륙 하세편의 첫 작품인 <갑방을방(甲方乙方)>(1997)을 연출한 펑샤오강(馮小剛) 감독의 영화적 기반이 하세편이며, 장이모우(張藝謀), 천카이거(陳凱歌) 감독 등의 영화

7) 대자본 영화는 제작비가 1억 인민폐 이상 투입된 영화, 중자본은 1억에서 1000만, 소자본은 1000만 인민폐 이하의 영화를 일컫는다. 강내영, <전환기 중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특징 연구>, 《영화연구》48(2011), 25쪽.

8) 饒曙光, <喜劇電影與產業化發展>, 《大眾電影》9(2013), 1쪽.

9) 陳樂一 외 3명, <我國電影消費問卷調查分析報告>, 《北京電影學院學報》6(2010), 53쪽.

10) “其實整個故事是一件非常悲壯的事情。但是由於這個電影想在賀歲檔上映，就得照顧一些賀歲的元素。大過年的，你給人家看一個悲劇總是不好的。” 張文雄，張揚，<《落葉歸根》趙本山千裏“背屍”>, 《大眾電影》21(2006), 28쪽.

가 주로 설날에 맞추어 상영되는 것도 관객동원력을 의식한 것에서 연유한다. 설날을 특정하여 관객의 호응이 가장 높은 코미디 장르를 선보이는 것은 상업적 측면을 극대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장르는 경제적인 요인으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장르를 계속 제작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구축하고, 포섭된 관객들을 중심으로 관객의 층을 더 넓혀 나가기 위해 약간의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하는 실험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영화의 장르는 사회적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이 선호하지 않는 장르는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선택과 호응에서 장르는 변화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농민공 영화에 코미디가 혼합된 것인지, 코미디 영화에 농민공 신분이 들어온 것인지는 영화의 소재와 장르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민공이 희화화되어 나타나는 점, 즉 코미디 영화에 수렴된 농민공 형상은 상업성의 결과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농민공과 코미디 장르의 조우, 또 이러한 조우에 다시 투입한 로드무비는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양의 코믹로드무비 영화들은 장르라기보다는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하나의 ‘사이클’¹¹⁾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사이클의 강력한 동력은 장양의 상업성에 대한 추구라고 볼 수 있겠다.

3. 여정과 현실의 간극

1) <낙엽귀근(落葉歸根)>의 농민공 라오자오(老趙)

영화 <낙엽귀근>의 이야기의 원형은 2005년 1월 3일 《南方周末》에 실린 <민공이 천리를 시체를 메고 귀향한 것에 대한 조사(民工千裏背屍返鄉調查)>의 기사이다. 푸젠(福建)에서 함께 일하던 한 농민공이

11) “사이클이란 특정한 영화 제작사나 어느 한 감독이 비슷한 양식의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을 때 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영화 장르에 비해서 파급 효과의 범위와 지속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사이클이라는 것이다.” 조진희, 《영화의 재구성》(서울: 한나래, 2007), 185쪽.

고향 친구와 술을 마시다 고혈압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고향친구 네 명이 그를 만취자와 병자로 위장해 기차와 버스로 고향 후난(湖南)으로 시체를 운반하던 중, 광저우(廣州)의 한 기차역에서 경찰의 검문에 걸린 내용이었다.

영화에서는 네 명의 고향친구가 라오자오 한명으로 축소되고, 이동 공간은 기차 대신에 도로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영화의 제목 <낙엽귀근>에서 보듯이 영화의 동력은 ‘歸根’하고픈 ‘귀향의지’이다. ‘귀향’은 돌아가고픈 고향의 공간과 가족의 존재를 나타내며, 자신의 정체성이 그곳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농민공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공간은 정주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삶을 나타내며, 도시에서 그들의 위치는 영원한 타자의 신분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 <낙엽귀근>을 관통하는 것은 귀향의지가 유발하는 가족애의 추구이다.

<낙엽귀근>은 라오자오가 사망한 친구 라오리우(老劉)를 선전(深圳)에서 고향 충칭(重慶)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에피소드처럼 나열하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라오자오가 처음으로 만나는 인물은 ‘강도’다. 강도가 윗도리를 벗어 의리를 배신한 대가로 동료에게 등에 강제로 새겨진 ‘가짜 의리(假仗義)’를 보여주면서 라오자오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것은, 적어도 라오자오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친구 라오리우의 시신을 고향으로 잘 운반하거나, 혹은 그 약속에 대한 그의 의지는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오자오가 시신을 운반하는데 있어 영화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라오자오에게 있어 여정의 의미는 친구의 시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임무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의 신분이나 혹은 그의 신분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미망을 고찰하는데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안상혁은 <낙엽귀근>이 “의리, 애정, 죽음, 젊음, 부부의 정, 믿음, 모성에 등의 인간적 덕목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¹²⁾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라오자오에게 조력을 하는지, 대립을 하는지의 측면에

12) 안상혁, 한성구, 《중국 6세대영화, 삶의 본질을 말하다》(서울: 성균관 대학교, 2008), 103쪽.

서 분석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인간의 덕목을 압축하여 이 영화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 라오자오의 조력자(①-⑨)와 대립자(⑩-⑮)는 아래와 같다.

조력자	대립자
① 병원에 경운기로 태워준 농부	⑩ 라오자오를 내리게 하는 버스의 승객들
② 결혼하기로 한 여자에게 실연당한 트럭기사	⑪ 여관 같은 방의 도둑
③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노인	⑫ 고장 난 차를 밀어주자 도망가던 기사
④ 티베트로 자전거여행을 가는 청년	⑬ 바가지를 씌우던 식당 주인과 패거리들
⑤ 아내 얼굴의 흉터로 사람을 피해 양봉을 하면서 사는 가족	⑭ 가짜 돈을 위로금으로 준 공사관 현장감독
⑥ 미장원에서 일하는 동향의 아가씨와 그녀를 사랑하는 경찰	⑮ 매혈업자
⑦ 폐품과 매혈로 대학생 아들의 학비를 대는 중년 여자	
⑧ 라오자오를 도와 친구의 집을 찾는 경찰	
⑨ 버스를 터는 노상강도	

조력하는 인물들은 결혼을 원하거나(②, ⑥, ⑦), 현재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⑤), 가족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인물(③)로 구성이 되어 가족의 중요함을 은연중에 설파하는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립하는 인물들은 주로 금전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업화의 물질주의에 함몰된 몰가치로 묘사된다. 그 중 ‘⑨ 버스를 터는 노상강도’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라오자오의 ‘의리’에 감복하면서 조력자로 이동하고 있다. 주로 부정적인 인물들은 당대 중국 사회를 가장

핍진하게 구성하는 사실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농민공들의 생존환경을 은폐하고 외면하는 장양의 의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그 보도는 사실 두 농민공이 처한 생존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영화를 만들 때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현실을 반영하여 농민공의 고통과 생존의 궁핍함에 대해 중점을 두기는 싫었다. 또한 여정의 비참함 혹은 고단함의 느낌으로 쓸 생각도 없었다. 최초의 시나리오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시체를 병원에서) 몰래 가져 나왔고, 그들이 일하는 도시에서의 장면, 어떻게 여정에 오르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 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의 생존상황에 대한 관조로 바뀌는 것 같았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¹³⁾

다소 장황하지만 장양의 발언을 인용한 이유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공의 신분을 영화감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부터 농민공의 신분보다는 사실이지만 기발한 이야기와 운구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그의 빈궁한 처지에 주목하였다. 친구의 시신과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겪는 우여곡절과 그것이 코미디를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될 때 증폭되는 희극적인 효과를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세편(賀歲片)’의 운용과 맞물린다.

한편 장양은 <낙엽귀근>의 제작을 결정하고, 라오자오 배역으로 자오 번산(趙本山)¹⁴⁾을 염두¹⁵⁾에 두고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는데, 중국인들에

13) “那個報道其實是在講這兩個民工打工的生存境遇。但我做這個電影的時候，不想做這樣一個東西。我並不是要把側重點放在反映現實，反映民工疾苦、生存窘迫上。我不是想寫他一路上的悲，或者說用苦哈哈的感覺去做。我們原先有一稿劇本是這麼寫的，寫了他怎麼死，怎麼把那個屍體偷出來，還有在他們打工的城市裏的一組戲等等，然後才是怎麼上路。但我覺得那麼做就變成了特別現實的東西，變成了關於那種人的生存狀態，和對那種人的觀照。如果那樣，我覺得它不是我想要的東西。”張揚，〈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影：張揚訪談〉，《電影藝術》2(2007)，49~50쪽.

14) 1957년 랴오닝성(遼寧省) 티에링시(鐵嶺市)에서 출생. 중국 동북 만담의 국가급 무형문화재(人間文化財) 보유자로 소품에도 능하다. 국가 1급 배우이자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일찍이 중국 대표 국영방송국(CCTV)의 춘제완후이(春節晚會)에서 소품 공연으로 15년간 연속으로 일등상을 수상하

게 자오번산은 ‘코미디의 왕(喜劇之王)’으로 불리기도 한다. 자오번산의 기표에는 중국 배우 중 가장 희극적이면서도 촌스럽다는 기의가 동시에 섞여있다. “가장 높게 보아도 절반이 장양의 세계이며, 가장 낮게 보아도 절반이 자오번산의 세계이다.”¹⁶⁾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관객에게는 장양의 <낙엽귀근>보다는 자오번산의 <낙엽귀근>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 포스터에서 타이어를 굴리는 라오자오의 자오번산 아래로 출연배우 여덟 명, 송단단(宋丹丹), 귀더강(郭德綱), 순하이잉(孫海英), 리우진산(劉金山), 후쥘(胡軍), 귀타오(郭濤), 썬아위(夏雨), 라오판(廖凡)의 사진을 배치하는 것은 상업영화에서 나타나는 스타마케팅이며, 이러한 스타진용은 <노인요양원>을 비롯한 그의 모든 영화에서 나타난다.

앞서 감독 장양에 대한 평가에서 보듯이, 그는 철저한 상업주의 신봉자이지만,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한다는 점과 공적인물의 등장은 주선율의 영역과도 겹친다. <낙엽귀근>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 즉 매혈을 단속하는 경찰과 수용소 관리, 라오자오를 도와 친구의 집을 찾아가는 경찰이 등장하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상징한다. 한국이나 할리우드에서는 종종 무능하고 나태한 국가나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상징되는 인물이지만, 중국에서는 충성과 공정, 집단, 희생, 책임 등의 국가이데올로기¹⁷⁾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갈등을

였다. 중국인민들의 광범위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민과 노동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百度百科 참조.

15)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 자오번산을 고려하였다. 나는 중국의 배우들 중에서 오직 그만이 농민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한다.……자오번산은 일반 노동자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유머감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다.”(其實這個電影從一開始寫的時候，就按照趙本山寫的。我覺得中國演員裏，只有他真正像一個農民的样子。……趙本山是一個普通勞動者，同時他也是一個具有強烈幽默感的演員。) 易立競，〈張楊：只拍忠於自我的電影〉，《中國導演訪談錄》(桂林：廣西師範大學出版社，2009)，270쪽.

16) “最多有一半是張揚的世界，至少有一半是趙本山的世界。” 三錯，〈《落葉歸根》：崇高名義下的低俗秀場〉，宋健君 主編，〈青春電影手冊，第一輯〉(北京：中國廣播電視出版社，2008)，78쪽.

17) “所以有學者評價警察影像電視劇中的中國刑警形象為“一種標準的國家形象”，國家形象與大眾英雄的復合體是目前警察影像中警察的典型寫照。他們忠誠、公正、理性，集國家法律與警察尊嚴於一體，同時恪守職責、大勇大智、犧牲奉獻，集仁義與智勇於一身，從而體現出中國影視藝術作為一種國家意識形態的本質特征。” 彭耀春，〈新中國警察影像行走回望〉，《電影文學》1(2010)，10쪽.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라오자오는 탈진으로 쓰러진다. 경찰이 시체를 화장하고, 450위안을 들여 유골함을 사주고, 도착한 라오리우의 집에서 가족이 7시간 걸리는 이창시(宜昌市)로 이사를 간 것을 알고는 다시 길을 나서는 경찰의 모습은 현실 속 경찰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티베트를 가는 청년의 등장도 그러하다. 시나리오 검열을 할 때, 긍정적 인물이 적다는 이유로 경찰과 청년을 넣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¹⁸⁾ 경찰이 서사의 결말을 봉합한다는 것은 검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발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한편 양봉하는 사람의 아들이 교과서의 시를 읽는 장면과, 풍요롭고 정리된 경작지를 달리는 트럭을 카메라가 쫓아가면서 라오자오가 다시 시를 읊는 장면은 현대 중국에 대한 예찬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나의 조국이 바다라면, 나는 한 마리의 물고기다. 헤엄을 치고
또 치니 얼마나 즐거운가!
만약에 나의 조국이 큰 길이라면, 나는 한 대의 차다. 운전하고 또 운
전하니 얼마나 즐거운가!
만약에 나의 조국이 큰 나무라면, 나는 한 잎의 나뭇잎이다. 흔들리고
또 흔들리니 얼마나 즐거운가!¹⁹⁾

또한 매혈을 하다 잡혀온 수용소에서 라오자오와 중년의 여자가 나누는 대화와 수용소의 관리가 부랑자를 상대로 연설을 하는 장면, 식사와 목욕을 하는 장면 등은 국가정책에 대한 홍보로 이어진다.

라오자오: 우리 여기서 못나가는 거죠?

18) “電影局審查劇本的時候，也提了一些要求。就是負面人物太多，正面人物太少。電影局希望有那麼幾個正面人物在裏面，平衡一下這種人和人之間的關係。……開拍前，我們做了最後一稿調整，加了兩個人物：一個是夏雨扮演的那個騎車走西藏的小夥子，一個是孫海英所演的警察。夏雨那個人物我加上後挺喜歡的，這個人物本身也是我們旅程中最常見到的。”張楊，〈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影：張楊訪談〉，《電影藝術》2(2007)，51쪽.

19) 如果我的祖國是一片大海，我就是一條小魚，我遊啊遊，我真快樂！ / 如果我的祖國是一條大路，我就是一輛汽車，我開啊開，我真快樂！ / 如果我的祖國是一棵大樹，我就是一片樹葉，我搖呀搖，我真快樂！

중년여자: 지금 여기는 ‘수용소’라 안 부르고, ‘구조센터’라고 불러요.
지금의 정책은 오가는 건 자유예요.²⁰⁾

우리는 벌써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관련부처에 연락을 했어요. 공짜로 여러분들을 차에 태워 데려다 줄 겁니다. 특히 애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어린나이에 도시에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 공부하도록 하세요.²¹⁾

기존의 농민공²²⁾들은 사회의 치안을 어지럽히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이들을 강제로 구금하여 교육하거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등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심했었다. 2003년 6월 국무원은 1982년부터 시행해오던 <도시 유랑걸인 수용 이송 방법(城市流浪乞討人員收容遣送辦法)>을 폐기하고, <도시생활 무의탁 유랑걸인 구조관리방법(城市生活無著的流浪乞討人員救助管理辦法)>을 공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의 ‘조화로운 사회’가 있다. <낙엽귀근>은 이러한 정책으로 운영한 ‘구조센터’를 영화에 끌어들이 농민공에 대해 달라진 국가의 정책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민공에 대한 성찰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한계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로드무비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주인공의 성장, 정체성의 발견, 인생에 대한 성찰 등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정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내면서 영화는 자연스레 비판과 풍자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스틸라이프>에서 보듯이 아내와 일거리를 찾아 부유하는 한산밍(韓三明)의 여정을 따라 현대 중국이 직면한 양극화와 위태한 노동자의 삶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코믹로드무비인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 등의 영화는 주인공이 마주한 현실의 고단함은 외면하고 공적영역과 가족애로 극복하는 결말을 해

20) 我們是不是走不了? 現在這裏不叫“收容所”了, 改叫“救助中心”。現在的政策是來去自由。

21) 我們已經和你們家鄉的有關部門取得聯系, 免費提供車票把你們送回去, 特別是你們這些帶小孩的, 小小的年紀就成了城市的盲流, 趕緊回去讀書啊, 是不?

22) 1980년대 호구제를 이용한 인구이동 통제가 유명무실화 되면서, 농민들이 도시로 유입되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는데, 이를 ‘맹류(盲流)’라고 지칭하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1990년대부터 ‘농민공’으로 일컬어졌다.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조와 확산으로 연결된다. 영화가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들의 신분에 대한 고민의 여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양이 이에 대한 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듯하다.

이것은 일종의 블랙코미디이다. 나는 영화를 비통하게 찍고 싶지 않았다. 소시민 라오자오의 고생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통해서 농민의 소박함과 고집스러움의 열정을 두드러지게 하고 싶었다. (강조점 필자)²³⁾

그의 발언에서 보듯이 농민공에 대한 부담은 ‘블랙코미디’의 단어를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블랙코미디는 영화에서 ‘타이어’²⁴⁾로 재현된다. 블랙코미디가 단순히 비극적인 것을 희극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장양은 알고 있지 않을까? 장양의 고민은 코믹로드무비에 친구의 시체를 짊어지고 고향으로 가는 농민공의 기사에서 흥미로운 영화의 서사를 떠올렸지만, 이와 동시에 농민공의 신분이 주는 압박에 대한 해답을 ‘타이어(블랙코미디)’라는 핑계에서 찾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의 코믹로드무비는 ‘블랙코미디’에서 ‘코미디’만 가져왔지, ‘블랙’의 비판의식까지 가져온 것은 아니다. 비극을 희극으로 승화하는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이 존재해야한다. 장양은 농민공을 희화화하고 노인을 낭만적 판타지로 포장하면서 상업성에 공을 들였지만, 정작 이들이 지니고 있는 고민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그의 영화가 지닌 한계로 지적된다.

23) “這是一種黑色幽默。我不想把電影拍成悲悲切切的樣子。我希望通過老趙這個小人物來表現一種積極樂觀，苦中作樂的態度，突出農民身上的質樸和執著的勁頭。”
http://ent.sina.com.cn/x/2007-01-09/08221402467.html, (2013, 2, 18)

24) “雖然一開始堅持把它定位為黑色幽默的風格，但具體是什麼樣的感覺我一直在找。直到寫“大輪胎”那場戲時，我覺得找到了這個感覺，找到了整部電影的氣質。這個電影應該有很浪漫的氣息在裏面。”張揚，〈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影：張揚訪談〉，《電影藝術》2(2007)，50쪽.

2) <노인요양원(飛越老人院)>의 노인 라오거(老葛)

현재 중국에서 노령화의 증가 속도는 심각하다. 2011년 말 중국 60세 이상의 노년인구는 1.85억 명으로 총 인구의 13.7%를 차지하며, 2013년에는 2억을, 2033년에는 4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20년간은 매년 천만 명의 노년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⁵⁾ 노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문제의 출현은 가족과 사회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노령화를 대비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하고, 양로사업과 실버산업을 촉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광고를 통해 효와 가족의 가치를 환기시키면서 가족의 노인부양을 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 18조를 통해 부모를 괘시하거나 홀대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 것(常回家看看)’을 규정²⁶⁾하고 있다. ‘常回家看看’은 1999년 중국 대표 국영방송국(CCTV)의 춘제완후이(春節晚會, 설날 특집 프로그램)에서 처음 발표된 곡으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고 있다. 이후 2007년 5월 베이징 방송국에서는 이 노래의 제목으로 33부작 TV드라마를 제작하였다.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자(常回家看看)’의 유행은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부채의식이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면서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한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입김도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설날이 되면 전파를 타던 이 노래가 2013년 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국가적인 이슈로 전환되었음을 알리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화계에서 노인을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영화의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이 젊은층

25) 白雲, <他們給天空撒下一片絢爛——銀幕內外的“老齡化社會”>, 《新天地》8(2012), 7쪽.

26) 흔히 ‘常回家看看’ 법으로 불린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29364&cp=nv> (2013, 7, 1)

이다 보니, 이들 세대와 연관되거나 혹은 선호하는 장르의 제작에 머물고 있다. 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노인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기획과 동시에 흥행실패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장양의 <노인요양원>은 단순히 그의 노인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이슈로 전환된 ‘노인의 고령화’를 스크린으로 끌어들이는 그의 적절한 시류의 포착²⁷⁾에 있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장양의 <노인요양원>은 영화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영화가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과 평가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²⁸⁾.

<노인요양원>에서 나타나는 주된 공간은 두 군데이다. 한 곳은 영화의 중반까지 제시되는 ‘관산요양원(關山老人院)’이며, 또 다른 곳은 요양원을 떠나 TV프로그램 <슈퍼체인지(超級變變變)> 공연 참가를 위해 텐진(天津)으로 가기까지 여정의 공간이다. 요양원이란 공간에 대한 정의는 영화의 오프닝에서 바로 나타난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가 요양원

27) “이 이야기는 시나리오 작가 친구들과 <낙엽귀근>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원을 벗어나 바다를 보러가는 것이었다. 당시 순간적으로 이 이야기는 나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주제에 주목하여 영화를 찍으려는 사람은 없다.” (這個故事，是和幾個編劇朋友在聊《落葉歸根》劇本的時候，突然產生的一個想法，就是覺得應該有一個關於老人院的故事，一幫老頭、老太太從這個老人院跑出去看大海。當時的一瞬間，我就覺得這個故事非我莫屬。現在在國內還沒有人去關注這樣一個話題，去拍攝這樣的一個電影。) 張楊，〈堅守或飛越之途——張楊訪談〉，《電影藝術》4(2012)，53쪽.

28) 2012년 5월 18일 베이징대학 영상극연구센터(北大影視戲劇研究中心)에서 尹鴻, 夏學鑾, 刈間文俊, 李道新 등의 영화전문가와 감독 장양이 참석한 가운데 <研討《飛越老人院》, 關注社會老齡化> 제목의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영화가 현재 사회의 노령화 문제를 예술의 초점으로, 노인이 갈망하는 자유와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의 소리를 남김없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강렬한 리얼리즘 정신과 온화한 인문의 정서를 가지고, 영화예술의 사회적 관심과 사회문제의 예술적 표현을 위하여 좋은 본모기를 세웠다.” (專家普遍認為，該片以當前社會的老齡化問題為藝術焦點，傾訴了老人渴盼自由、渴盼理解的心靈之聲，具有強烈的現實精神和溫暖的人性情懷，為電影藝術的社會關懷和社會問題的藝術化表達樹立了很好的樣板。) <http://www.art.pku.edu.cn/xydt/xykx/29031.htm>, (2013, 2, 18)

의 대문 틈을 통해 정면을 바라보는데 문이 닫히는 장면, 라오거가 요양원에 오면서 육중한 대문의 앞에서 서 있는 모습과 틈이 난 대문을 통해 조심스레 요양원의 안을 살피는 장면에서 그러하다. 요양원의 이미지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물러 날 곳이 없는, 삶의 마지막 공간이다. 그러기에 요양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이며, 노인들이 이곳을 벗어나고자하는 하나의 동기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나타나는 요양원의 공간은 시종 밝고 즐겁다. 장양은 요양원을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는 삶과 죽음의 경계로 나타나는 현실적인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양원 안에서 만큼은 현실적인 공간을 판타지의 공간으로 치환한다. 이러한 판타지의 공간이 이질적이지만 불편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공간에 대한 암시가 카메라의 구도에 의해 심심찮게 포착되고, 감독이 현실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안도감에서 유발된다. 또한 판타지가 제거된 사실적인 요양원이 104분의 러닝타임동안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불편한 진실) 때문이기도 하며, 오프닝에서 라오조우의 공연 이전에 잠깐 동안 늙고 나약하고 병들은 노인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이러한 것의 반증으로 짐작된다.

그런 점에서 같은 시기에 노인을 소재로 한 쉬안화(許鞍華)의 <심플 라이프(桃姐)>(2012)는 하나의 예시가 된다. 중풍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타오제(桃姐), 그리고 그런 그녀를 문병 가는 로저. (밖의) 세상에 있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에 대한 ‘몰이해’가 요양원(죽음)/세상(삶) 등으로 대별되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서로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에서는 서로에 대한 소통은 적어도 여정의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이뤄지지 않는다. 장양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만들어 내는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들의 단절에 더욱 공을 들였다. 보호자에게 텐진에 가는 것을 표결로 부치는 장면에서 보호자와 노인들은 커튼과 문에 의해서 분할되어있고, 카메라는 이들을 항상 스크린의 양 극단에 배치한다. 생사의 경계인 요양원에 선 노인들, 자식들과 이루어질 수 없는 단절의 복구는 적어도 요양원에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다. 그러나 이런 돌파구의 부재는 여정을 떠나는 계기가 되며, 여정의 과정에서 라오거와 자식과의 화해는 현실에서 예정된 것으로 암시된다. 이러한 믿음의 근원은 카메라의 구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던 현실의 공간에서 기인한다. 즉, 장양이 요양원의 공간을 판타지로 재현하더라도 결국은 판타지를 깨고 현실의 공간으로 돌아와 자식과의 화해를 한다는 믿음이 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양원 밖의 현실에서도 판타지는 지속되며, 이들의 화해에는 ‘참새’의 대사를 통해 나타나는 감정의 과잉이 자리하게 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늙었지. 아버지와 아들이 나무아래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물었어. “저 나무위에 있는 게 뭐지?” 아들이 말하길 “그건 참새예요.” 좀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어. “저 나무위에 있는 게 뭐지?” 아들이 신문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냈지. “아버지 어디 아파요? 내가 벌써 말해줬잖아요. 그건 참새라고!” 아버지가 일기를 꺼내서 아들에게 말했어. 네가 세 살 때 널 안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네가 나에게 “나무 위에 있는 게 뭐죠?”하고 물었지. 내가 말했지 “그건 참새야.” 네가 또 물었어. “저 나무위에 있는 게 뭐죠?” “그건 참새야.” 그랬어. 그가 나에게 몇 십번을 물어도, 나는 매번 너무 반가워서 귀찮아하지 않고 말해줬어, “그건 참새야. 날아다니는 참새라고. 기억했어?” 아들이 듣고 울었지.²⁹⁾

텐진을 가던 중 몽고의 초원에서 밤을 보내면서 라오거가 들려주는 ‘참새 이야기’를 들은 손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통화를 하도록 하나 라오거는 눈물을 삼키며 아들과 한마디 대화도 시도하지 못한다. 이후

29) 有那麼一對父子，父親老了，父親和兒子坐在大樹下的一條凳子上，兒子看著報，父親就問他，‘那樹上是什麼？’兒子說‘那是麻雀’，過了一會兒，這父親又問他‘那樹上是什麼呀？’兒子有些不耐煩了，‘那是麻雀！’第三次，父親又問兒子，‘這個樹上都是些什麼呀？’這兒子把報紙一扔，生氣了，‘你是不是有病啊，我都告訴你了，那是麻雀！’父親掏出一本日記本，跟他說，你三歲的時候我就抱著你，也坐在這，你問我‘那樹上是什麼呀？’我說‘那是麻雀’，你又問我，‘那樹上是什麼呀？’‘那是麻雀’就這樣。他問了我幾十遍呢。每次我都高興的不得了，我都不厭其煩的跟他說，‘那叫麻雀，會飛的小麻雀。記住了嗎？’這兒子聽了，他哭了。

TV의 <슈퍼체인지>에 출연한 라오조우가 일본에 시집간 딸과 연락이 끊긴지 8년이 되었는데, 죽기 전에 찾고 싶다며 흐느끼자 TV를 시청하던 라오거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자간 갈등의 해소를 암시한다. 영화의 전반에서 라오거 부자의 조우는 몇 차례 나타나는데 그치며, 여정의 과정에서도 이들 부자의 내면에 대한 포착보다는 ‘참새이야기’와 감정의 과잉에 기탁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로드무비는 여정의 과정에서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만나게 되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어떤 자각이나 의미, 이해, 소통을 터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라오거와 아들이 서로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들은 여정의 선상에 동일하게 놓여야한다. 그러나 라오거와 아들은 여정에서 만날 수 없으며, 아들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공익영화의 이미지다. 수확을 맞이한 트랙터와 같이 달리고, 들판에 가득한 해바라기, 초원을 달리는 말의 군집, 초원에서의 피크닉, 몽고바오에서 맞이하는 파티, 텐진에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고속전철과 고층빌딩. 이 중에 가장 압권인 것은 요양원 원장과 노인의 자식이 노인들의 버스를 쫓으면서 나누는 대화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자(常回家看看)’는 정부 구호의 되새김이다.

우리들 부모님은 지금 연세가 일흔 정도 되시죠? 만약에 이십년을 사실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 기준으로 말하죠. 전 매년 설날에 며칠만 부모님에게서 지내요. 사실 5,6일 정도예요. 그러나 매일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은 두세 시간 정도죠. 5,6일이면 열 몇 시간이죠. 이십년이면 이백 시간이 좀 넘는데, 생각해보니 무섭네요. 항상 이십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산해보니,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지 십 며칠 밖에 안 되네요.³⁰⁾

30) 我們的父母現在都有70歲左右了吧，我們假定他們還能活20年，以我來說吧。我每年只有春節那幾天能回家過，其實也就是五六天，但是，每天真正跟父母在一起的時間，也就是兩三個小時，五六天是十幾個小時，二十年是兩百多個小時，想想就覺得可怕，總覺得20年還很長，可是這麼算下來，我們跟父母在一起的時間就只剩下有十幾天了。

사실 현대 중국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은 고스란히 신혼부부와 그들 부모의 몫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요양원>에서 부자간 반목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주택’ 문제는 가장 시대적인 화두이기도 하다. 오프닝에서 라오거가 사별한 후처의 집에서 나오면서 그 자식에게 넘겨주는 집 열쇠, 라오거의 결혼한 손자부부가 무주택으로 인해 각자 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 라오거와 아들간의 갈등의 원인인 주택, 요양원의 실성한 라오진(老金)이 아들에게 집을 못주겠다고 외치는 장면이 그러하다. 그러나 주택(집)에는 적어도 ‘재산’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 장양이 지적하는 재산적인 가치에는 압축성장의 그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발전된 중국의 이미지만 제시된다. 둘째, 주택은 물질적인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가족애’의 공간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보금자리이지만, 영화에서는 애초부터 배제되어 있다. “나는 돌아갈 집도 하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나?”³¹⁾라는 탄식을 쏟아내는 라오거의 말에는 가정에 대한 회한이 담겨있지만, 영화에서는 더 이상 공명을 일으키지 못한다.

라오거가 가지고 다니는 난 화분은 노인의 ‘가족’과 ‘소외’를 상징한다. 그의 말대로 후처와 사별한 다음날 그리고 자식이 양로원에 찾아온 날 화분은 깨어지고, 라오조우의 배려로 난은 다시 쇠로 된 화분으로 옮겨진다. 라오거는 새로운 가족(요양원)의 품으로 들어갔으며, 자식과의 화해는 난에서 피는 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과 앞서 언급한 카메라의 구도는 정작 영화의 서사와 조화를 맺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 전반부 요양원의 판타지가 요양원 밖을 나온 후에도 지속이 되면서, 즉 판타지에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요양원 노인들이 큰 가족을 이루면서 활기차게 사는 요양원의 판타지는 희화화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31) 我是一個無家可歸的無路可走的人了，你說我活著我還有個什麼意思啊。

4. 나오는 말

장양의 로드무비인 <낙엽귀근>과 <노인요양원>은 코미디와 판타지를 끌어들이면서 상업성을 강화하였지만, 그의 영화 특유의 따뜻한 감성은 변함없이 나타난다. <낙엽귀근>의 라오자오는 소시민들과 경찰의 도움으로 친구의 시체를 고향까지 가져가고, <노인요양원>의 라오거는 아들과 화해하면서 마무리 된다. 그러나 기존의 그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일반적인 소시민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두 편의 영화에 접근한다면,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여정은 현실과의 사이에서 간극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간극을 들여다봄으로써, 장양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농민공과 노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농민공과 노인을 서사로 소환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놓지 않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들을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고 있는 고민과 삶은 외면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싶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은 영화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들 신분에서 유발되는 문제의식은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다. <낙엽귀근>에서는 농민공 라오리우가 생전에 라오자오와 함께 일하던 공사판의 공간과 그들의 고민이, <노인요양원>에서는 그들이 요양원에 오기까지 자식과의 불화와 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조력자의 등장과 감정의 과잉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낙엽귀근>에서는 경찰이, <노인요양원>에서 부자간의 갈등에는 손자가 개입하면서 해소된다. 그리고 ‘참새 이야기’와 TV에서 공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감정의 과잉이 형성된다. 현실의 삶에서 항상 타자이자 객체인 이들은 정작 영화에서도 자기 삶의 문제에 주체로 우뚝 서지 못한다. 또한 <노인요양원>에서 라오거 부자간 갈등의 해소가 감정의 과잉에 기탁하는 것은 개연성의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영화의 완성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

셋째, 여정의 과정이 현실과 이질적이며, 친정부적인 이미지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나타난다. 그들은 왜 여정을 떠났는가? 여정의 정착지는 어디인가? 다른 질문이지만 동일한 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두 편의 영화에 던진다면,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는 답을 얻게 된다. 농민공과 노인의 삶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여정의 동기와 목적지가 떠오르기 때문이며, 이는 장양이 담아내는 여정이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현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정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장면들은 이 영화의 정체성이 사회적 약자를 통해 투영되는 사회적 모순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정부를 위한 계몽적 입장에 선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사회부랑자를 위한 ‘구조센터’와 ‘자주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 것(常回家看看)’의 국가 시책을 전시하는 것과 공적인물(경찰, 공무원)의 등장이 그러하다. 또한 <낙엽귀근>의 라오자오가 시를 읊으면서 나타나는 대지의 평온한 이미지와 <노인요양원>에서 텐진을 가는 도중 포착되는 발전된 현대 중국의 이미지가 그러하다.

결론적으로 장양의 로드무비에서 나타나는 코미디와 사회적 약자의 소환은 상업성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영화의 숙명을 상기한다면, 단지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장양에 대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양의 영화가 안고 있는 상술한 세 가지 문제는 사회적 약자에 상업적이고 정서적인 소비로만 접근한 데서 파생된 문제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장양은 상업성에 종속된 영화의 속성만 고려하고, 영화에서 발현되는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참고문헌]

안상혁, 한성구, 《중국 6세대영화, 삶의 본질을 말하다》, 서울: 성균관대학교, 2008

- 조진희, 《영화의 재구성》, 서울: 한나래, 2007
- 강내영, <전환기 중국 영화산업의 새로운 동향과 특징 연구>, 《영화연구》48, 2011
- 박춘식, <주선율 영화의 궤적 분석>, 《중국어문학》53, 2009
- 이병민, <영화 『어제(昨天)』에 대한 정신분석적 탐색>, 《중국어문학논집》65, 2010
- 유미경, <장양의 영화 『해바라기(向日葵)』 읽기 : ‘부자’갈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68, 2011
- 宋健君 主編, 《青春電影手冊, 第一輯》, 北京: 中國廣播電視出版社, 2008
- 易立競, <張楊: 只拍忠於自我的電影>, 《中國導演訪談錄》,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9
- 白雲, <他們給天空撒下一片絢爛——銀幕內外的“老齡化社會”>, 《新天地》8, 2012
- 陳樂一 외 3명, <我國電影消費問卷調查分析報告>, 《北京電影學院學報》6, 2010
- 程波, 劉賀萌, <從認同危機到倫理困境——20世紀90年代以來中國電影中的“農民工形象”研究>, 《浙江傳媒學院學報》3, 2011
- 侯雨昕, <淺談公路電影在中國的發展空間>, 《大眾文藝》9, 2010
- 劉帆, <結與解·小概率事件·諷刺性幽默——近年國產黑色喜劇的敘事分析>, 《北京電影學院學報》2, 2010
- 彭耀春, <新中國警察影像行走回望>, 《電影文學》1, 2010
- 饒曙光, <喜劇電影與產業化發展>, 《大眾電影》9, 2013
- 楊井峰, <浪費了一個好題材——評《飛越老人院》>, 《新天地》7, 2012
- 趙硯傑, <淺析中國公路電影>, 《華章》Z1, 2008
- 張楊, <拍給更多人看的公路電影: 張楊訪談>, 《電影藝術》2, 2007
- 張楊, <堅守或飛越之途——張楊訪談>, 《電影藝術》4, 2012
- 張文雄, 張揚, <《落葉歸根》趙本山千裏“背屍”>, 《大眾電影》21, 2006
- <http://ent.sina.com.cn/m/c/2007-02-02/16471436943.html> (2013, 2, 18)

<http://ent.sina.com.cn/x/2007-01-09/08221402467.html> (2013, 2, 18)

<http://www.art.pku.edu.cn/xydt/xykx/29031.htm> (2013, 2, 18)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29364&cp=nv> (2013, 7, 1)

〈Abstract〉

This writing had research subject as Zhang Yang's movies titled <Getting Home(落葉歸根)>(2007) and <Full Circle (飛越老人院)>(2012). Two pieces of movies are roughly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movies in a sense of having commercially consumed a social issue, which is caused by migrant workers and aging, with the use of road-movie genre. This study was progressed a research with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First, it considered the process that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such as migrant workers proceed with being included in the mainstream narrative. It clarified that the combination of road movie and comedy is proceeding with solidifying position as one new trend while illuminating the process that migrant workers, who had been addressed realistically, are divided into a character of comedy and are again mixed with road movie.

Second, a gap could be confirmed to be created between journey and reality shown in a movie due to the combination of road movie and comedy. And it examined how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were commercially played a variation to be applied.

At the same time, it could confirm that there is reality outside journey in a sense that therapy of being mobilized by family love is proposed as solution rather than complaining about and

206 • 中國學 第45輯(2013.8)

reflecting on reality with which socially underprivileged people are faced.

Key words : Zhang Yang, Road Movie, Journey, Reality, Getting Home, Full Circle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A Selected Bibliography of Daoism

Park, Min-Woong*

〈목 차〉

I. Works in Chinese and Japanese
II. Works in Western Languages
List of Serials in the Bibliography

I. Works in Chinese and Japanese

- Aoki Gorō 青木五朗. "Kaku Shō Sōshichu shisen" 郭象莊子註試權. *Kyōto kyōiku daigaku kiyō* 京都教育大学紀要 55 (1979): 196-202.
- . "Shōshi Kaku Shō chu no shinshi mondai ni tsuite" 莊子郭象註のに真世問題ついて. *Kyōto kyōiku daigaku kokubungaku kaishi* 京都教育大学紀要 14 (1979): 27-35.
- Chen Guofu 陳國符. *Dao zang yuanliu kao* 道藏源流考. Rev. ed. 2 vols. Beijing: Zhonghua shuju, 1962.
- Chen Shoushi 陳守實. "Cao Cao yu Tian shi dao" 曹操與天師道. *Zhongguo shi yanjiu* 中國史研究 no. 3 (Sept. 1979): 81-90.
- Chen Yingning 陳櫻寧. *Daojiao yu yangsheng* 道教与养生. Beijing: Huawen. 2000.
- Chen Yuan 陳垣, Chen Zhichao 陳智超, and Zeng Qingying 曾慶英, eds. *Daojia jinshi lue* 道家金石略. Beijing: Wenwu,

* 서경대학교 중어학과 교수

1988.

Dao zang ji yao 道藏輯要. Compiled by He Longxiang 賀龍驤.
Collected by Peng Hanran 彭瀚然. Chengdu: Er xian an
二仙菴, 1906.¹⁾

Fu Qinjia 傅勤家. *Zhongguo daojiao shi* 中國道教史. Taibai:
Shangwu yinshu guan, 1970.

Fujiwara Takao 藤原高男. "Rōshikai ni okeru chūgenha no
kōei" 老子解における重玄派の後裔. In *Ikeda Suetoshi
hakase koshi kinen Tōyōgaku ronshū* 池田未利博士古希記
念東洋学論集, 657-72. Tokyo: Tōhō gakkai, 1980.

---. "Kō Kan Rōshi chu kō" 顧歡老子注考. *Kangibunka* 漢魏文
化 3 (1962): 19-29.

Fujiyoshi Jikai 藤吉慈海. "Zazen to zabō ni tsuite" 坐禪と坐忘
について. In *Zenshū sōshū no tenkai* 禪淨雙修の産開.
Tokyo, 1974.

Fukui Fumimasa 福井文雅. *Hannya shingyō no rekishiteki
kenkyū* 盤若心經の歴史的研究. Tokyo: Shunjusha, 1987.

Fukunaga Mitsuji 福永光司. "Kaku Shō no Sōshi kaishaku" 郭象
の莊子解釋. *Tetsugaku kenkyū* 哲学研究 37 (1954):
108-24 and 167-77.

---. "Kaku Shō no Sōshi chu to Kō Shu no Sōshi chu" 郭象の
莊子註と向秀の莊子註. *Tōhō gakuhō* 東方学報 36 (1964):
187-215.

---. "'No-Mind' in *Chuang-tzu* and Ch'an Buddhism." *Zinbun*

1) This is the largest collections of Daoist writing outside of *Tao zang*, which contains 287 texts (245 *ce*) reproduced by photolithography from originals in the Er xian an in Chengdu. Of these, 114 are not in *Zhengtong Dao zang* 正統道藏. As for those which are in both compilations, this edition is useful for its variant readings. On the predecessors of this work and its organization, see Liu Ts'un-yan, "The Compilation and Historical Value of the Tao-tsang," *Essays on the Sources for Chinese History*, ed. by Donald Leslie et al.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3), 107-110.

- 12 (1969): 9-45.
- . "Dōkyō ni okeru kagami to ken" 道教における鏡と劍.
Tōhō gakuhō 東方學報 45 (1973): 59-120.
- Fukui Kōjun 福井康順. *Dōkyō no kisoteki kenkyū* 道教の基礎的研究. Tokyo, 1957.²⁾
- . "Rōshi Sōjichū kō - kōsen o shudai toshite" 老子想爾注考
 - 校箋を主題として. *Waseda daigaku daigakuin bungakukenkyūka kiyō* 早稻田大學大學院 文學研究科紀要 13 (1967): 1-20.
- Ge Hong 葛洪 (283-343). *Bao pu zi* 抱朴子 (The Master Who Embraces Simplicity). In *Xin bian Zhuzi jicheng* 新編諸子集成 (Newly Edited Integer of Philosophers). Taibei: Shijie shuju, 1978.
- Hachiya Kunio 蜂屋邦夫. "Sōshi shōyoyū hen o meguru Kaku Shō to Shi Ton no kaishaku" 莊子逍遙遊篇をめぐつて郭象と支遁の解釋. *Hikaku bunka kenkyū* 比較文化研究 8 (1967): 59-98.
- He Changqun 賀昌羣. "Lun Huang jin nongmin qiyi de kouhao" 論黃巾農民起義的口號. *Lishi yanjiu* 歷史研究 no. 6 (1959): 33-40.
- Horiike Nobuo 堀池信夫. "Sōshi no shisō to Kaku Shō no shisō" 莊子の思想と郭向の思想. *Kambun gakkai kaiho* 漢文學會會報 31 (1972): 63-75.
- Huang Zhongqin 黃仲琴. "Zhang Jue" 張角. *Lingnan xuebao* 嶺南學報 6.4 (June 1966): 140-58.
- Kamata Shigeo 鎌田茂雄. "Dōkyō kyōri no keisei ni oyoboshita bukkyōshisō no eikyō" 道教教理の形成におよぼした佛教思想の影響. *Tōyō bunko kenkyūjo kiyō* 東洋文化研究紀要 31 (1963): 165-240.

2) This contains information on fundamental Daoism.

- . "Dōsei shisō no keisei katei" 道性思想の形成過程. *Tōyō bunko kenkyūjo kiyō* 東洋文化研究紀要 34 (1966): 61-154.
- Kamitsuka Yoshiko 神塚淑子. "Go Un no shōgai to shisō" 吳筠の生涯と思想. *Tōhō shūkyō* 東方宗教 54 (1979): 33-51.
- . "Shiba Shōtei Zabōron ni tsuite" 司馬承禎 坐忘論について. *Tōyō bunka* 東方文化 62 (1982): 213-42.
- Kusuyama Haruki 楠山春樹. *Rōshi densetsu no kenkyū* 老子傳説の研究. Tokyo: Sōbunsha, 1979.
- Li Fengmao 李豐楙. "Liu chao dao jiao yu you xian shi de fazhan" 六朝道教與遊仙詩的發展. *Zhonghua xueyuan* 中華學苑 28 (1983): 97-118.
- . *Liu chao Sui Tang xian dao lei xiaoshuo yanjiu* 六朝隋唐仙道類小說研究. Taipei: Xuesheng shuju, 1986.
- Li Ling 李零. *Zhongguo fangshu kao* 中國方術考. Beijing: Renmin Zhongguo, 1993.
- Lou Yulie 樓宇烈. "Yuanshi dao jiao - Wu dou mi dao he Taiping dao" 原始道教 - 五斗米道和太平道. *Wen shi zhishi* 文史知識 no. 4 (1984): 64.
- Nakajima Ryūzō 中島隆藏. "Kaku Shō no shisō ni tsuite" 郭象の思想について. *Shūkan tōyōgaku* 集刊東洋学 24 (1970): 43-60.
- . *Dōkyō gishu sakuin* 道教義樞索引. Manuscript, private distribution, 1984.
- . "Taijō gyōhō innenkyō ni okeru ōhōron" 太上業報因緣經における應報論. In *Makio Ryōkai hakase shoju kinen ronshū Chūgoku no shūkyō to kagaku* 牧尾良海博士頌壽記念論集 中國の宗教思想と科學, 335-54. Tokyo: Kokusho kankōkai, 1984.
- Nakano Tōru 中野通. "Kaku Shō ni okeru zabō" 郭象における坐忘. *Tōhō shūkyō* 東方宗教 75 (1990): 1-19.

- Nomura Shigeo 野村茂夫. "Sōshi no muyō no yō o megutte"
 莊子の無用の用をめぐる. *Tōhō shūkyō* 東方宗教 35
 (1970): 36-48.
- Ōfuchi Ninji 大淵忍爾. "Chūgoku ni okeru minzokuteki shūkyō
 no seiritsu" 中國における民族的宗教の成立. *Rekishī gaku
 kenkyū* 歴史學研究 181 (1955).
- . *Dōkyō shi no kenkyū* 道教史の研究. Okayama, 1964.
- . "Gotobei dō no kyōhō ni tsuite (*Rōshi Sōjichū* o chūshin
 toshite)" 五斗米道の教法について (老子想爾注を中心として).
Tōhō gakuho 東方學報 49.3 (1966): 318-46; 49.4 (1996):
 523-55.
- . "*Rōshi Sōjichū* no seiritsu" 老子想爾注の成立 (The
 composition of the *Xiang'er Commentary on Laozi*).
Okayama shigaku 岡山史學 19 (1967): 9-31.
- . "*Taiheikyō* no shisō ni tsuite" 太平經の思想について. *Tōyō
 gakuho* 東洋學報 28.4 (1941): 145-68.
- . *Tonkō dōkei: Zuroku hen* 敦煌道經圖錄篇. Tokyo: Kokubu
 shoten, 1979.
- Qing Xitai 卿希泰. *Zhongguo daojiao shi* 中國道教史. Chengdu:
 Sichuan renmin, 1988.
- Rao Zongyi 饒宗頤. *Laozi Xiang'er zhu jiao jian* 老子想爾注校箋.
 Hong Kong, 1956. Rpt. Shanghai: Wenyi, 1992.
- Ren Jiyu 任繼愈. *Zhongguo daojiao shi* 中國道教史. Shanghai:
 Renmin, 1990.
- , and Zhong Zhaopeng 鐘肇鵬, eds. *Daozang tiyao* 道藏提
 要. Beijing: Zhongguo shehui kexue chubanshe, 1991.
- Seki Masao 關雅夫. "Kaku Shō no Sōshi chu ni mirareru
 shizen to sonohoka" 郭象の莊子註に見られる自然とその他.
Niigata daigaku jimbun kagaku kenkyū 新潟大学人文科学研究
 28 (1965): 31-71.
- . "Kaku Shō, Sei Gen'ei no Sōshi kaishaku" 郭象,成玄英の

莊子解釋. *Niigata daigaku kokubun gakkai shi* 新潟大学国文学会誌 18 (1974): 50-59.

Tang Junyi 唐君毅. *Zhongguo zhexue yuanlun: Daolun pian* 中國哲學原論：道論篇. Taipei: Xuesheng shuju, 1966.

Tao Hongjing 陶弘景 (456-536). *Deng zhen yin jue* 登真隱訣. H-Y 421.³⁾

Wang Ming 王明. *Daojia he daojiao sixiang yanjiu* 道家和道教思想研究 (A Study of the Thought of Philosophical and Religious Daoism). Chongqing: Zhongguo shehui kexue chubanshe, 1984.

---. *Taiping jing he jiao* 太平經合校. Beijing: Zhonghua shuju, 1960.

Wang Zongyu 王宗昱. *Daojiao yishu yanjiu* 道教義樞研究. Shanghai: Shanghai wenhua, 2001.

Xiong Deji 熊德基. "Taiping jing de zuozhe he sixiang ji qi yu Huang jin he Tain shi dao de guanxi" 太平經的作者和思想及其與黃巾和天師道的關係. *Lishi yanjiu* 歷史研究 no. 4 (1962): 8-25.

Yoshioka Yoshitoyo 吉岡義豊. *Dōkyō kyōten shiron* 道教經典史論. Tokyo: Dōkyō kankokai, 1955.

---. *Dōkyō no jittai* 道教の實態 (The Actual State of Daoism). 1941. Tokyo, 1975.

---. *Dōkyō to Bukkyō* 道教と佛教. 3 vols. Tokyo: Nippon gakujitsu shinkokai, 1958, 1959, 1976.

3) This number indicates the sequence of a work in *Dao zang* 道藏 according to *Dao zang zimu yinde* 道藏子目引得 (Combined indices to the authors and titles of books in two collections of Taoist literature). Compiled by Weng Dujian 翁獨健. Harvard-Yenching Sinological Index Series, no. 25. Beijing, 1936. Reprint. Taipei: Chengwen Publishing Co., 1966. Besides its use as an index, this work also contains valuable information on authorship and chronology in its "Author Index" and "Bibliographical Records" on pages 115-40 and 141-216, respectively.

- . *Eisei e no negai* 永生への願い. Kyoto, 1971.
- Yu Songqing 喻松青. "Daojiao de qiyuan he xingcheng" 道教的起源和形成. *Lishi yanjiu* 歷史研究 (May 1963): 147-65.
- Zhang Junfang 張君房 (fl. 1008-25), comp. *Yunji qiqian* 雲笈七籤 (The Bookcase of the Clouds with the Seven Labels). H-Y 1026.⁴⁾
- Zheng Suchun 鄭素春. *Quanzhen jiao yu da Menggu guo dishi* 全真教與大蒙古國帝室. Taipei: Xuesheng shuju, 1987.
- Zhengtong Dao zang* 正統道藏 (Daoist Canon). 1444 or 1445. 1924-26. Taipei: Yiwen yinshu guan, 1962.⁵⁾
- Zheng Zhiming 鄭志明. *Zhongguo shehui yu zongjiao* 中國社會

4) A Daoist encyclopedia. This work is important because it was put together carefully and because if a work is included, we then know that it comes from before about 1016. There is an index by Kristopher Schipper. See note 3.

5) The emperor Chengzu 成祖 (r. 1402-24) in 1407 ordered the compilation of Daoist texts into a set. Under the next two emperors not much was done, however. When Yingzong 英宗 (r. 1435-49, 1457-64) came to the throne, the project was resumed. *Zhengtong Dao zang* was first printed in 1444 or 1445. It included 5305 *juan* (480 *han*). During the Wanli 萬曆 period (1573-1620) a supplement was compiled: *Wanli xu Dao zang jing* 萬曆續道藏經. Compiled by the patriarch Zhang Guoxiang 張國祥. 180 *juan* (32 *han*). 1607.

The printing blocks for these were almost completely preserved in Beijing until the Boxer Rebellion, when they were burned by foreign troops. Despite the fact that the works may have been fairly widely disseminated in Ming and Qing times, only two nearly complete copies survived the last century or so. One of these was formerly housed in the Bai yun guan 白雲觀 in Beijing. It is lacking several *juan*. The other copy, less complete, is in the *Toshoryō* 圖書寮, the Japanese Imperial Household Library. It was the Bai yun guan copy that Shangwu used to make its photolithographic reproduction. Note that the original was bound in sutra, or concertina, style, so the pagination is somewhat different from most traditional texts. Also note that a collection called *Dao zang juyao* 道藏舉要, which contains important texts from *Zhengtong Dao zang* and the Wanli supplement, was printed from the same plates. Thus, if one has access to the full *Zhengtong Dao zang*, there is no reason to use *Dao zang juyao*.

與宗教 (Chinese Society and Religion). Taipei: Xuesheng shuju, 1986.

Zhou Shaoxian 周紹賢. "Daojiao Chengli zhi yuan wei ji qi jiaoyi" 道教成立之原委及其教義. *Guoli Zhengzhi daxue xuebao* 國立政治大學學報 29 (May 1974): 39-60.

---. "Huang Lao sixiang zai Xi Han" 黃老思想在西漢. *Guoli Zhengzhi daxue xuebao* 國立政治大學學報 26 (Dec. 1972): 85-102.

Zhuang Hongyi 莊宏誼. *Mingdai daojiao Zhengyi pai* 明代道教正一派. Taipei: Xuesheng shuju, 1986.

II. Works in Western Languages

Adamek, Wendy. *The Mystique of Transmission: On an Early Chan History and Its Contex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Arthur, Shawn. "Life Without Grains: Bigu and the Daoist Body." In *Daoist Body Cultivation*. Edited by Livia Kohn, 91-122.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6.

---. "Eating Your Way to Immortality: Early Daoist Self-Cultivation Diets." *Journal of Daoist Studies* 2 (2009): 32-63.

Assandri, Friederike. "Laozi's Eclipse and Comeback: The Narrative Frame of the Benji jing." *Journal of Daoist Studies* 1 (2008): 1-27.

---. *Beyond the Daode jing: Twofold Mystery in Tang Daoism*.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9.

Austin, James. *Zen and the Brain: Toward an Understanding of Meditation and Consciousness*. Cambridge, Mass.: MIT Press, 1998.

---. *Zen-Brain Reflections: Reviewing Recent Developments*

- in Meditation and States of Consciousness*. Cambridge, Mass.: MIT Press, 2006.
- Barret, T. H. "On the Transmission of the *Shen Tzu* and of the *Yang-shen yao-chi*."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 (1980): 168-76.
- Beck, B. J. Mansvelt. "The Date of the *Taiping jing*." *T'oung Pao* 66 (1980): 150-82.
- Benn, Charles D. "Taoism as Ideology in the Reign of Emperor Hsüan-tsung." Ph.D. Dis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1977.
- . *The Cavern Mystery Transmission: A Taoist Ordination Rite of A.D. 711*.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1.
- Bokenkamp, Stephen R. "Sources of the *Ling-pao* Scriptures." *Tantric and Taoist Studies in Honour of R. A. Stein; Melanges chinois et bouddhiques* 21 (1983): 2.435-87.
- . "Taoist Literature, Part I: Through the T'ang Dynasty." In Nienhauser, *The Indiana Companion to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 . "The Peach Flower Font and the Grotto Passage."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6 (1986): 65-79.
- . "Time After Time: Taoist Apocalyptic History and the Founding of the T'ang Dynasty." *Asia Major* 7.1 (1994): 59-88.
- . *Early Daoist Scriptures*. With a contribution by Peter Nickers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 *Ancestors and Anxiety: Daoism and the Birth of Rebirth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Boltz, Judith Magee. "Taoist Literature, Part II: Five Dynasties to the Ming." In Nienhauser, *The Indiana Companion to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 . *A Survey of Taoist Literature: Tenth to Seventeen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China Research Monograph 32, 1987.
- Bumbacher, Stephan Peter. *The Fragments of the Daoxue zhuan*. Frankfurt: Peter Lang, 2000.
- Cahill, Suzanne. "Practice Makes Perfect: Paths to Transcendence for Women in Medieval China." *Taoist Resources* 2.2 (1990): 23-42.
- . *Divine Traces of the Daoist Sisterhood*.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6.
- Cedzich, Ursula-Angelika. "Corpse Deliverance, Substitute Bodies, Name Change, and Feigned Death: Aspects of Metamorphosis and Immortality in Early Medieval China."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9 (2001): 1-68.
- Ch'en, Kenneth.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Buddh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
- Chen Guofu and Tenney L. Davis, trans. "Inner Chapters of *Pao-p'u-tzu*."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74.10 (Dec. 1941).
- Chen, William Y. *A Guide to Tao Tsang chi yao*. Stony Brook: Institute for the Advanced Study of World Religions, 1987.
- Cline, Erin M. "Mirrors, Minds, and Metaphors."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154-76.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Crandall, Michael M. "On Walking Without Touching the Ground: 'Play' in the Inner Chapters of the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 Mair, 99-121.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Creel, Herrlee G. "On Two Aspects of Early Taoism." *Silver Jubilee Volume of the Zinbun kagaku kenkyūsyō, Kyoto University* (1954): 43-53. Rpt. Creel, *What is Taoism and Other Studies*. 37-47.
- . "What is Taois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6.3 (1956): 139-52. Rpt. Creel, *What is Taoism and Other Studies*. 1-24.
- . *What is Taoism and Other Studies in Chinese Cultural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 Dalai Lama. *How to Practice: The Way to a Meaningful Life*. New York: Pocket Books, 2002.
- Davis, Tenney L. "The Chinese Beginnings of Alchemy." *Endeavor* 2 (1943).
- De Meyer, Jan. *Wu Yun's Way: Life and Works of an Eighth-Century Daoist Master*. Leiden: E. Brill, 2006.
- Demiéville, Paul. "Enigmes taoistes." *Silver Jubilee Volume of the Zinbun kagaku kenkyūsyō, Kyoto University* (1954): 54-60.
- DeWoskin, Kenneth J. *Doctors, Diviners, and Magicians of Ancient China: Biographies of Fang-shi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 Duyvendak, J. J. L. "Le Taoisme sous le T'ang." *Actes 21e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Paris, 1949: 272.
- Engelhardt, Ute. *Die klassische Tradition der Qi-Übungen. Eine Darstellung anhand des Tang-zeitlichen Textes Fuqi jingyi lun von Sima Chengzhen*. Wiesbaden: Franz Steiner, 1987.
- . "Qi for Life: Longevity in the Tang." In *Taoist Meditation and Longevity Techniques*. Edited by Livia Kohn, 263-94.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Publications, 1989.

---. "Zur Bedeutung der Atmung im Qigong." *Chinesische Medizin* 1 (1996): 17-23.

Eskildsen, Stephen. *Asceticism in Early Taoist Relig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 *The Teachings and Practices of the Early Quanzhen Taoist Master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4.

---. "Mystical Ascent and Out-of-Body Experience in Medieval Daoism."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35 (2007): 36-62.

---. "Neidan Methods for Opening the Gate of Heaven." In *Internal Alchemy: Self, Society, and the Quest for Immortality*. Edited by Livia Kohn and Robin R. Wang, 87-104.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9.

---. "Death, Immortality, and Spirit Liberation in Northern Song Daoism: The Hagiographical Accounts of Zhao Daoyi." In *The People and the Dao: New Studies in Chinese Religions in Honour of Daniel L. Overmyer*. Edited by Philip Clart and Paul Crowe, 389-418. St. Augustin/Nettetal: Steyler Verlag, Monumenta Serica Monograph LX, 2009.

Esposito, Monica. "The Daozang Jiyao Project: Mutations of a Canon." *Daoism: Religion, History and Society* 1 (2009): 95-156.

Fung Yu-lan. *A History of Chinese Philosophy*. Vol. 1, *The Period of the Philosophers (from the Beginnings to ca. 100 B.C.)*. Translated by Derk Bodde. 2nd e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2.

---. *Chuang Tzu: A New Selected Translation with an Exposition of the Philosophy of Kuo Hsiang*. New York:

- Paradigm, 1964.
- Girardot, Norman. "Part of the Way: Four Studies on Taoism." *History of Religions* 11.3 (1972): 319-37.
- . *Myth and Meaning in Early Daoism: The Theme of Chaos (Hundun)*.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09.
- Graham, A. C. *The Book of Lieh-tzu*. London: A. Murray, 1960.
- . "The Date and Compilation of the Liehtzyy." *Asia Major* 2. ser., 8 (1961): 139-98.
- . "Chuang-tzu's Essay on 'Seeing Things As Equal'." *History of Religions* 9 (1969): 137-59.
- . "How Much of Chuang-tzu Did Chuang-tzu Write?" *Studies in Classical Chinese Though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s Supplement* 35 (1980): 459-501.
- . *Chuang-tzu: The Seven Inner Chapters and Other Writings from the Book of Chuang-tzu*. London: Allan & Unwin, 1981.
- . "Daoist Spontaneity and the Dichotomy of 'Is' and 'Ought'."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3-22.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Gulik, R. H. van. *Sexual Life in Ancient China: A Preliminary Survey of Chinese Sex and Society from ca. 1500 B.C. till 1644 A. D.* Leiden: E. J. Brill, 1961.
- Hansen, Chad. "A Dao of 'Dao' in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23-55.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Hendrichske, Barbara. *The Scripture on Great Peace: The Taiping jing and the Beginnings of Dao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 Hou Ching-lang. *Monnaies d'offrande et la notion de tresorerie dans la religion chinoise*. Paris: Collège de France, Institut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975.
- Hsiao Kung-chun. *A History of Chinese Political Thought*. Vol. 1, *From the Beginnings to the Sixth Century A. D.* Translated by F. W. Mo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 Kaltenmark, Max. *Lao tseu et le taoisme*. Paris, 1964.
- . *Lao tzu and Taoism*. Trans. Roger Greav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⁶⁾
- . "Notes sur lePen-tsi king. Personnages figurant dans lesutra." In *Contributions aux etudes de Touen-houang*. Edited by Michel Soymié, 2:91-98. Paris-Geneva: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79.
- . "The Ideology of theT'ai-p'ing-ching ." In *Facets of Taoism*. Edited by Holmes Welch and Anna Seidel, 19-5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Kandel, Barbara. "A Visit to the China Taoist Association."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Bulletin* 8 (Fall 1980): 1-4.
- Kirkland, J. Russell. "Taoists of the High T'ang: An Inquiry into the Perceived Significance of Eminent Taoists in Medieval Chinese Society." Ph.D. Diss.,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1986.
- . "Huang Ling-Wei: A Taoist Priestess in T'ang China."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19 (1991): 47-73.
- Kjellberg, Paul, and Philip J. Ivanhoe, eds. *Essays on Skepticism, Relativism, and Ethics in the Zhuangzi*.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6) This is one of the best general introduction for Dao.

- Knaul, Livia. "Lost *Chuang-tzu* Passages."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10 (1982): 53-79.
- . "The Winged Life: Kuo Hsiang's Mystical Philosophy." *Journal of Chinese Studies* 2.1 (1985): 17-41.
- . "Kuo Hsiang and the *Chuang-tzu*."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2.4 (1985): 429-47.
- . "The Habit of Perfection." *Cahiers d'Extrême-Asie* 1 (1985): 71-85.
- . "*Chuang-tzu* and the Chinese Ancestry of Ch'an Buddhism."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3.3 (1986): 411-28.
- Kohn, Livia. *Seven Steps to the Tao: Sima Chengzhen's Zuowanglun*. St. Augustin/Nettetal: Monumenta Serica Monograph XX, 1987.
- . "The Teaching of T'ien-yin-tzu."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15 (1987): 1-28.
- . "Guarding the One: Concentrative Meditation in Taoism." In *Taoist Meditation and Longevity Techniques*. Edited by Livia Kohn, 123-56.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Publications, 1989.
- . "Taoist Insight Meditation: The Tang Practice of Neiguan." In *Taoist Meditation and Longevity Techniques*. Edited by Livia Kohn, 191-222.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Publications, 1989.
- . "The Mother of the Tao." *Taoist Resources* 1.2 (1989): 37-113.
- . "Eternal Life in Taoist Mysticis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0 (1990): 622-40.
- . "Transcending Personality: From Ordinary to Immortal Life." *Taoist Resources* 2.2 (1990): 1-22.

- . "Taoist Visions of the Body."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8 (1991): 227-52.
- . *Early Chinese Mysticism: Philosophy and Soteriology in the Taoist Trad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 *The Taoist Experience: An Antholog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 "Quiet Sitting with Master Yinshi: Medicine and Religion in Modern China." *Zen Buddhism Today* 10 (1993): 79-95.
- . *Laughing at the Tao: Debates among Buddhists and Taoists in Medieval Chin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 "Yin Xi: The Master at the Beginning of the Scripture."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25 (1997): 83-139.
- . *God of the Dao: Lord Lao in History and Myth*.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1998.
- . "Mind and Eyes: Sensory and Spiritual Experience in Taoist Mysticism." *Monumenta Serica* 46 (1998): 129-56.
- . "Steal Holy Food and Come Back as a Viper: Conceptions of Karma and Rebirth in Medieval Daoism." *Early Medieval China* 4 (1998): 1-48.
- . *Daoism and Chinese Culture*. Cambridge: Three Pines Press, 2001.
- . *Monastic Life in Medieval Daois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 . *Cosmos and Community: The Ethical Dimension of Daoism*. Cambridge, Mass.: Three Pines Press, 2004.
- . *The Daoist Monastic Manual: A Translation of the*

- Fengdao keji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 *Daoist Mystical Philosophy: The Scripture of Western Ascension*.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7.
- . *Meditation Works: In the Daoist, Buddhist, and Hindu Traditions*.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8.
- . *Chinese Healing Exercises: The Tradition of Daoyi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 . *Readings in Chinese Mysticism*. Dunedin, Fla: Three Pines Press, 2009.
- . *Daoist Dietetics: Food for Immortality*.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 "Body and Identity." In *Riding the Wind with Liezi*. Edited by Jeffrey Dippmann and Ronnie Littlejohn. New York: Oxford Univesrity Press, 2010.
- and Russell Kirkland. "Daoism in the Tang (618-907)." In *Daoism Handbook*. Edited by Livia Kohn, 339-83. Leiden: E. Brill, 2000.
- and Robin R. Wang. *Internal Alchemy: Self, Society, and the Quest for Immortality*.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9.
- Komjathy, Louis. *Title Index to Daoist Collections*. Cambridge, Mass.: Three Pines Press, 2002.
- . *Cultivating Perfection: Mysticism and Self-Transformation in Quanzhen Daoism*. Leiden: E. Brill, 2007.
- . *Handbooks for Daoist Practice*. Hong Kong: Yuen Yuen Institute, 2008.
- . "Mapping the Daoist Body (1): TheNeijing tu in History." *Journal of Daoist Studies* 1 (2008): 67-92.
- . "Mapping the Daoist Body (2): The Text of the Neijing

- tu." *Journal of Daoist Studies* 2 (2009): 64-108.
- Kroll, Paul W. "In the Halls of the Azure Lad."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5.1 (Jan.-March 1985): 75-94.
- . "Li Po's 'Rhapsody on the Great P'eng Bird.'" *Journal of Chinese Religion* 12 (1984): 1-17.
- . "Li Po's Transcendent Di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06.1 (Jan.-Mar. 1986): 99-117.
- . "Notes on Three Taoist Figures of the T'ang Dynasty." *Bulletin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9 (1981): 19-41.
- Lagerwey, John. *Wu-shang pi-yao: Somme taoïste du VI^e siècle*. Paris: Publications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81.⁷⁾
- . "Deux écrits taoïstes anciens." *Cahiers d'Extrême-Asie* 14 (2004): 131-72.
- Littlejohn, Ronnie. "Kongzi in the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177-94.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Liu Ts'un-yan. "The Compilation and Historical Value of the Tao-tsang." *Essays on the Sources for Chinese History*. Edited by Donald Leslie et al., 104-19.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73.⁸⁾
- Loon, Piet van der. *Taoist Books in the Libraries of the Sung Period*. London: Oxford Oriental Institute, 1984.
- Loewe, Michael. *Ways to Paradise: The Chinese Quest for Immortalit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9.
- Mair, Victor H. ed.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7) This offers a summary in each section which is very systematic.

8) This gives a short information, but a good introduction.

- Maspero, Henri. *Le Taoïsme et les religions chinoise*. Paris: Gallimard, 1971.
- . *Taoism and Chinese Religion*. Translated by Frank A. Kierman, Jr. Amherst: Univeristy of Massachusetts Press, 1981.
- Miller, James. *The Way of Highest Clarity: Nature, Vision and Revelation in Medieval Daoism*. Magdalena, NM: Three Pines Press, 2008.
- Mollier, Christine. "Les cuisines de Laozi et du Buddha." *Cahiers d'Extrême-Asie* 11 (2000): 45-90.
- . *Buddhism and Taoism Face to Face: Scripture, Ritual, and Iconographic Ex- change in Medieval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8.
- Ngo Van Xuyet. *Divination, magie et politique dans la Chine ancienn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6.⁹⁾
- Nienhauser, William H. Jr. et al., eds. *The Indiana Companion to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Ofuchi Ninji. "The Formation of the Taoist Canon." In *Facets of Taoism*. Edited by Holmes Welch and Anna K Seidel, 253-26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Oshima, Harold H. "A Metaphorical Analysis of the Concept of Mind in the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62-82.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Pregadio, Fabrizio. *Great Clarity: Daoism and Alchemy in Early Mediev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9) This deals with early relationship between divination and magic.

- , ed. *The Encyclopedia of Taoism*. London: Routledge, 2008.
- Reiter, Florian C. "The Soothsayer Hao Ta-t'ung (1140-1212) and His Encounter with Ch'üan-chen Taoism." *Oriens Extremus* 28 (1981): 198-205.
- Robinet, Isabelle. "Les randonnées extatiques des Taoïstes dans les astres." *Monumenta Serica* 32 (1976): 159-273.
- . *Les commentaires du Tao to king jusqu'au VIIe siècle*. Paris: Mémoires de l'Institut des Hautes Etudes Chinoises 5, 1977.
- . "Metamorphosis and Deliverance of the Corpse in Taoism." *History of Religions* 19 (1979): 37-70.
- . *Meditation taoïste*. Paris, 1979.
- . "La Révélation du Shang-qing dans l'histoire du Taoïsme." Diss., University of Paris, 1981.
- . "Kouo Siang ou le monde comme absolu." *T'oung Pao* 69 (1983): 87-112.
- . "Chuang-tzu et le taoïsme religieux."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11 (1983): 59-109.
- . *La révélation du Shangqing dans l'histoire du Taoïsme*. 2 vols. Paris: Publications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84.
- . "Visualization and Ecstatic Flight in Shangqing Taoism." In *Taoist Meditation and Longevity Techniques*. Edited by Livia Kohn, 157-90.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Publications, 1989.
- . *Taoist Meditation*. Translated by Norman Girardot and Julian Pa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 *Taoism: Growth of a Religion*. Translated by Phyllis

- Brook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 Roth, Harold D. "Evidence for Stages of Meditation in Early Taoism."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60 (1997): 295-314.
- . "Mysticism in the *Laozi* ." In *Essays on Religious and Philosophical Aspects of the Laozi*. Edited by P. J. Ivanhoe and M. Csikszentmihalyi, 1998.
- . *Original Tao: Inward Training and the Foundations of Taoist Mystic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 "Bimodal Mystical Experience in the "Qiwulun" Chapter of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195-211.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Saso, Michael. *The Teachings of Taoist Master Chua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8.
- . "The *Zhuangzi neipian*: A Daoist Meditation."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137-53.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Schafer, Edward H. 1965. "The Idea of Created Nature in T'ang Literature." *Philosophy East and West* 15 (1965): 153-60.
- . *Pacing the Void: T'ang Approaches to the Star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 "The Restoration of the Shrine of Wei Hua-ts'un at Lin-ch'uan in the Eighth Century." *Journal of Oriental Studies* 15 (1977): 124-38.
- . "The Jade Woman of Greatest Mystery." *History of Religions* 17 (Feb.-May 1978): 387-98.

- . "A T'ang Taoist Mirror." *Early China* 4 (1979): 387-98.
- . *Mao Shan in T'ang Times*.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Monograph 1. 1980.
- . "Wu Yün's 'Cantos on Pacing the Voi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1 (1981): 377-415.
- . "Wu Yün's 吳筠 Stanzas on 'Saunters in Sylphdom' 遊仙詩." *Monumenta Serica* 35 (1981-83): 309-45.
- . *Mirages on the sea of time: the Taoist poetry of Ts'ao T'a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Schipper, Kristopher. *L'Emperor Wou des Han dans la legende taoiste; Han Wou-ti nei tchouan*. Pari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69.
- . "The Taoist Body." *History of Religions* 17 (Feb.-May 1978): 355-86.
- . "Le Calendrier de Jade: Note sur le *Laozi zhongjing*." *Nachricht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125 (1979): 75-80.
- . *Le Corps Taoiste: corps physique - corps social*. Paris: Fayard, 1982.
- . "Taoist Ordination Ranks in the Tunhuang Manuscripts." In *Religion und Philosophie in Ostasien: Festschrift für Hans Steininger*. Edited by. G. Naundorf, K. H. Pohl, and H. H. Schmidt. 127-48. Würzburg: Königshausen and Neumann, 1985.
- and Franciscus Verellen, eds.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zang*. 3 vo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Seidel, Anna. "Buying One's Way to Heaven: The Celestial Treasury in Chinese Religions." *History of Religions* 17

(Feb.-May 1978): 419-32.¹⁰⁾

---. *La Divinisation de Lao-tseu dans le taoisme des Han*. Paris: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69.

---. "The Image of the Perfect Ruler in Early Taoist Messianism: Lao-tzu and Li Hung." *History of Religions* 9.2/3 (Nov.-Feb. 1969-70): 216-47.

Sivin, Nathan. *Chinese Alchemy: Preliminary Stud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On the Word 'Taoist' as a Source of Perplex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lations of Science and Religion in Traditional China." *History of Religions* 17 (Feb.-May 1978): 303-30.

Sommer, Deborah. "Concepts of the Body in the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dited by Victor H. Mair, 212-27.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Soymié, M. and F. Litschi. "Bibliographie de taoisme: etudes dans le langues occidentales." *Dōkyō kenkyū* 道教研究 3 (1968): 1-72; 4 (1971): 1-66 (Soymié alone).

Stein, R. A. "Remarques sur les mouvements du taoisme politico-religieux au Ile siecle ap. J.-C." *T'oung Pao* 50 (1963): 1-78.

Strickmann, Michel. "The Mao Shan Revelations: Taoism and the Aristocracy." *T'oung Pao* 63.1 (1977): 1-64.

---. "On the Alchemy of T'ao Hung-ching." In *Facets of Taoism*. Edited by Holmes Welch and Anna Seidel, 123-9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History, Anthropology, and Chinese Religion." *Harvard*

10) Review of Hou, *Monnaies d'offrande et la notion de tresorerie dans la religion chinoise*.

- Journal of Asiatic Studies* 40.1 (June 1980): 201-48.¹¹⁾
- . *Le Taoïsme du Mao Chan: chronique d'une révélation*. Mémoires de l'Institut des Hautes Etudes Chinoises 17. Paris: Collège du France, 1981.
- . "Taoism, History of." *Encyclopaedia Britannica*. 15th ed. Switkin, Walter. *Immortality: A Taoist Text of Macrobiotics*. San Francisco: H. S. Dakin Company, 1987.
- Verellen, Franciscus. "Evidential Miracles in Support of Taoism: The Inversion of a Buddhist Apologetic Tradition in Tang China." *T'oung Pao* 78 (1992): 217-63.
- Wang, Stephen Shih-tsung. "Tsaun Jyr's Poems of Mythical Excurs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 1962.
- Ware, James R., trans. *Alchemy, Medicine, Religion in the China of A. D. 320: The Nei P'ien of Ko Hung (Po-p'u tzu)*. Cambridge: M. I. T. Press, 1966.¹²⁾
- Ware, James. "The Wei shu and the Sui shu on Taois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53 (1933): 215-50; 54 (1934): 290-94.
- Watson, Burton. *The Complete Works of Chuang-tzu*.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8.
- Welch, Holmes. *The Parting of the Way*. Rev. ed. Boston, 1965.
- and Anna Seidel, eds. *Facets of Taoism*.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11) This is a review of Saso, *The Teachings of Taoist Master Chuang*.

12) A complete translation of the *neipian* 內篇 of *Baopu zu* 抱朴子. Many mistakes are found.

- Yearley, Lee. "The Perfected Person in the Radical *Zhuangzi*." In *Experimental Essays on Zhuangzi*. Eited by Victor H. Mair, 122-36. Dunedin, FL: Three Pines Press, 2010.
- Yu, D. "Present-day Taoist Studies." *Religious Studies Review* 3.4 (Oct. 1077): 220-39.
- Yü Ying-shih. "Life and Immortality in the Mind of Han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5 (1965): 80-122.
- . "O Soul, Come Back: A Study of the Changing Conceptions of the Soul and Afterlife in Pre-Buddhist China."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7 (1987): 363-95.
- Ziporyn, Brook. *The Penumbra Unbound: The Neo-Taoist Philosophy of Guo Xia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3.
- . *Zhuangzi: The Essential Writings with Selections from Traditional Commentarie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2009.
- Zürcher, Erik. "Buddhist Influence on Early Taoism - A Survey of Scriptural Evidence." *T'oung Pao* 66 (1980): 84-147.

List of Serials in the Bibliography

Dōkyō kenkyū 道教研究

Guoli Zhengzhi daxue xuebao 國立政治大學學報

Ikeda Suetoshi hakase koshi kinen Tōyōgaku ronshū 池田未利
博士古希記念東洋学論集

Kambun gakkai kaiho 漢文學會會報

Kangibunka 漢魏文化

Kyōto kyōiku daigaku kiyō 京都教育大学紀要

Lishi yanjiu 歷史研究

Lingnan xuebao 嶺南學報

Niigata daigaku jimbun kagaku kenkyū 新潟大学人文科学研究

Niigata daigaku kokubun gakkai shi 新潟大学国文学会誌

Okayama shigaku 岡山史學

Rekishi gaku kenkyū 歷史學研究

Shūkan tōyōgaku 集刊東洋学

Tetsugaku kenkyū 哲学研究

Tōhō gakuhō 東方學報

Tōhō shūkyō 東方宗教

Tōyō bunka 東方文化

Tōyō bunko kenkyūjo kiyō 東洋文化研究紀要

Tōyō gakuhō 東洋學報

Waseda daigaku daigakuin bungakukenyūka kiyō 早稻田大學大
學院 文學研究科紀要

Wen shi zhishi 文史知識

Zhongguo shi yanjiu 中國史研究

Zhonghua xueyuan 中華學苑

Asia Major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Bulletin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Chinesische Medizin

Cahiers d'Extrême-Asie

Daoism: Religion, History and Society

Early China

Early Medieval China
Endeavor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History of Religion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Journal of Chinese Religions
Journal of Chinese Studie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Journal of Daoist Studies
Journal of Oriental Studie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Monumenta Serica
Oriens Extremus
Philosophy East and Wes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Sciences
Religious Studies Review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Bulletin
Taoist Resources
T'oung Pao
Zen Buddhism Today

〈한글제요〉

본 서지목록(Bibliography)은 1950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는 시기에 발행되어 학계에 주목받고 있는 도가사상과 도교에 관련된 동, 서양의 대표적인 저서와 학위논문, 단편 논문 및 각종 학술잡지 가운데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간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서 발표된 자료가 빠지는 등 비록 완벽한 형태로 집대성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이 자료가 참고문헌(Reference) 목록으로서 도

처에 산재한 도가사상과 도교에 관련한 학술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학문적 데이터베이스(Database)의 역할을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Daoism(Taoism), Daoist(Taoist), Chinese Religion, Bibliography, Reference, Database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중국의 물류정책 추세와 대내외 물류통합*

공재형** · 손성문***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의 국내물류 정책 추세
3. 중국의 국제물류 정책 추세
4. 중국의 대내외 물류통합 전략
5. 나오며

1. 들어가며

현재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은 시장경제를 촉진하는 세계화이다. 세계화가 진행 될수록 사람·재화·자본·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시대가 되어, 국경이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기적적인 고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제조업 활성화, 중국의 자국개발확장, 외자유치 우대정책 등의 성공으로 2010년도에 이미 국내총생산액(GDP)이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이 큰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경제의 상징으로 각광받는 연해지역의 발전은 중국 전체경제를 견인해왔다.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 높은 기술력

* 본 연구는 2012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국제무역물류연구소 객원연구원(주저자),
(kijihi0@hanmail.net)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자상거래무역학과 부교수(교신저자),
(bearson@gntech.ac.kr)

의 엔지니어가 풍부함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경제침체는 전세계로 확대되어 소비와 수요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수출지향적 발전모델로서는 더 이상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노동비용의 상승, 원자재가격의 폭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 폐지 등의 영향으로 투자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의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산업경쟁력의 유지가 향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특히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의 ASEAN 주요국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중국정부는 내수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아직 산업구조가 전환중인 상태에서 선진국이 위안화 절상까지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임으로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산업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은 비용이 다소 높은 연해지역에서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은 노동력이 저렴한 중국 내륙지역에서 생산 그리고 연해지역 남부에서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쇠퇴산업을 인근 또는 중국 내륙의 후발지역으로 이전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맞이하는 “환조전략”¹⁾을 추진하고 있다. 연해지역의 발전모델을 내륙지역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해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전환활동과 관련된 물류연계망의 구축과 그에 따른 교통인프라건설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측면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을 연결하는 물류기반시스템의 재편과 효과적인 물류발전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해외에서 자원과 부품 등을 수입하고, 가공한 제품을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것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이러한 중국 비즈니스의 기본구조가 자국시장의 발달에 따라 점차 변화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상품판매가 급증하고, 큰 발전가능성을 지닌 거대한 규모의 내수시장에 시장수요를 채우기 위한 개발·생산·판매거점으로서 중

1) 새장 속의 새를 대체한다.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도태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요성을 더함으로써 전세계 기업이 중국으로의 직접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외국계 제조기업에게 적합한 정도의 수준 높은 물류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중국 전역을 커버 가능한 규모로 고품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판매유통망 및 물류수송망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경제발전 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중국의 대내전략과 외자유치라는 대외전략상의 고려사항을 근거로 두개의 전략을 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물류인프라 정비와 복합일관운송시스템 구축은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중국의 물류환경에 대해 시기별로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중국의 물류정책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경제시대에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물류정책 추세에 주목하여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향후전략으로서의 대내외물류통합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중국의 국내물류 정책 추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하기 전(1949-1978년)에 중국은 집권도가 높은 계획경제관리체제에 있었으며, 국가전체 경제의 운영은 엄격한 계획관리 하에 있었으며 현대적인 “물류”의 개념은 중국에 도입되지도 않았었다. 따라서 물자의 조달·수송·보관·포장·공·배송 등 “물류”의 각 단계에 대해서는 계획된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기업이 자율경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계획경제체제하에 구축된 물류관리방식은 사회의 요구에 맞지 않았고 경제발전을 방해했다. 정부가 당시 사회물자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부족을 조정하며 사회의 공급을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업무가 종적으로 각각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중복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생산·유통·판매 등 각 프

로세스가 상호연계 되지 않아 재고량이 많은 물자의 회전속도는 느리고 자금소요도 비교적 많았다. 자원할당 및 공급체계의 구축은 행정구역에 따라 행해지고 있었으며, 물류활동의 주요목표는 국가의 지령에 의한 계획할당지표의 확실한 실행이고, 물류의 경제효과는 부차적인 목표로 여겨지고 있었다. 물류활동의 영역은 상품의 창고보관과 수송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물류프로세스는 상호연계가 안되어 경제효과는 낮았다.²⁾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물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2년 상업부(현재 상무부)에 의한 통지 "상품물류(배송)센터 발전건설에 관한 의견"에서 부터이다. 중국에 물류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아직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의 물류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있어 산업으로서 중국의 물류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다. 하지만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1953년부터 중국정부는 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교통관련 인프라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로인프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광대한 국토를 가진 중국의 교통·수송 인프라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후 서부대개발과 동북경제 진흥으로 도로망이나 항공수송망이 급속히 정비되어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정비수준은 국토면적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지역간의 서비스격차는 크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물류를 처리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국내화물운송은 각 기업의 물류부문이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물류전문사업자가 발전하여 있지 않았었다. 물류관련사업을 다루는 기업이 보유한 차량, 창고 등 하드웨어는 고도화가 지연되어 있었고, 적재·취급부실이나 빈번한 교통사고의 발생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중국상무유통그룹 유통·물류 정책실 (2006) "한중일 물류 보고서 (한중일 유통 및 물류에 관한 공동 보고서) 중국편, p 157.

표-1 중국 현대물류 발전촉진 정책 및 방침

년 도	정책 및 의견
2001	"중국 제10차 5개년 계획"
	"중국 현대물류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
	"운수기업 발전 종합 물류서비스 추진 관련 의견"
	"물류술어"
2002	"중국 컨테이너 운수산업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
	"외상투자 물류기업 시범사업 설립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04	"중국 현대물류산업 발전추진에 관한 의견"
	"중장기 철도망 계획"
	"도로운송조례"
2006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
	"전국 연해항구 분포 계획"
	GB/T 20523-2006"기업물류비용 구성과 계산"
	"물류술어"수정판
2007	"서비스산업의 가속발전에 관한 의견"
	"종합교통망 중장기 발전계획"
	"식량 현대물류 발전계획"
	"전국 내하항로와 항만 분포 계획"
	"전국 도로 주요 분포 계획"
	"현대 교통산업의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
	"도로화물 운송스테이션 야드 관리규정"
2008	"새로운 중장기 철도망 계획"수정.조정
	"중국 도로교통 관리조례"수정판
	"중국 수로운송 관리조례"수정판
	"물류단지 분류와 기본요구"
	"중국 유통영역의 현대물류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택배시장 관리방법"
2009	"중국 수로운수 서비스업 관리규정"
	"농촌 우정물류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
	"물류산업의 구조조정 진흥계획"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
2010	"농산물 냉연물류 발전계획"
2012	"유통체제 개혁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
	"중국 수로운송 관리조례"수정판

자료: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통부 등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물류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표-1과 같이 정부기관에서 촉진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먼저 2001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분기회의에서 채택된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0차 5개년 계획요강"³⁾에서 현대물류를 힘차게 발전하는 새로운 서비스업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지침서로서 물류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주목된다. 그리고 "중국 현대물류 발전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⁴⁾ 공포에서, 물류의 중요성, 정부의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물류산업에 대해 각 지방이 시장을 폐쇄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폐쇄, 독점을 타파해 나가는 것과 물류인프라를 건설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WTO 가입 후의 물류산업의 정책목표, 법규, 인허가를 결정했으며, 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TPL(Third Party Logistics)의 도입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중국물류방식을 가리키는 "국가표준물류조건"⁵⁾을 발표하여 물류, SCM, TPL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물류활동의 기본적인 개념, 작업, 기술장비, 관리 등의 기술용어를 정의했다.

2004년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부·위원회⁶⁾가 "중국 현대물류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그 주요내용인 ①현대물류 발전에 유용·양호한 환경조성, ②현실에 맞게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 ③기초적인 업무를 강화하고 현대물류 발전의 버팀목을 제공, ④현대물류 업무에 대한 계획을 강화하고 관리를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한다는 요청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상무부 등 13개 정부부처와 중국물류채구연합회, 중국교통운수협회가 "전국 현대물류 업무부서간 연합회"를 시작하였다. 연합회의 주요기능은 물류발전정책을 제시하는 "전국 현대물류 발전계획"과 연계하는 것과 중요한 문제를 연구·해결하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중국 물류발전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협력체제가 중

3) 5개년 계획은 중국정부가 만든 5년마다의 행동계획으로 그 안에는, 정책, 경제, 산업, 사회 등 모든 국책에 대한 5년간의 목표가 정해져있다.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 시작, 2006~2010년은 제11차 5개년 계획기간.

4)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협작부, 중국민용항공총국 등 관계 6개 부처 연명으로 발표한 물류개혁정책이다.

5) 중국 물질유통협회 물류기술경제위원회 등[2001] "중국 인민공화국 국가표준물류술어"Logistics Terms, GB/T18354-2001 국가질량감독검험역총국

6)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철도부, 교통부, 정보산업부,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중국민용항공총국 등

양정부 측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요강에서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물류산업"의 발전 촉진을 위해서 ①기업의 물류 아웃소싱, ②물류전문기업 육성, ③물류표준의 제정, ④물류인프라의 재편·통합 같은 목표를 명기했다. 또한, 물류배송은 "판매활동을 지원하는 물류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상업서비스업으로 제시되었다. 같은 해 교통부가 제정한 "전국 연해항구 분포계획"이 공포되고 전국 연해 150여 항구를 5개 항만군으로 나누어 8개의 이동시스템을 구성하고 각 중추항구를 지정해 합리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려 했다. 또한 중국 물질유통협회 물류기술경제위원회는 2006년 "물류술어"수정판을 공포하고, 국가표준화위원회 등에서 "기업물류비용 구성과 계산"지표가 나와 중국 물류산업의 표준화가 더욱 진전되었다.

2007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서비스업의 가속발전에 관련 의견"에서 제조서비스를 위해 운수업 우선, 물류의 전문화·사회화 서비스수준의 향상, TPL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명시했다. 같은 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도 "종합교통망 중장기 발전계획"과 "식량 현대물류 발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교통부는 "현대 교통산업의 발전촉진에 관한 의견", "전국 내하항로와 항만 분포계획", "전국 도로 주요 분포계획"을 발표를 통해 교통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또한 제조업을 위한 서비스 제공, 운송업의 우선 발전, 물류측면의 전문화, 사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TPL산업의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명기하였다.

2008년 상무부는 "중국 유통영역의 현대물류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을 내고, 국무원은 도로·수로 운송관리 조례의 수정판을, 표준화기술위원회도 물류단지류와 기본요구 표준화에 의견을, 교통부는 택배업체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물류전문화, 현대화를 지시하고 있다.

같은 해, 국무원은 2003년에 공포된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기반으로 개정계획을 공개했다. 2008년 개정된 계획은 2020년까지 철도의 총 영업거리 12만km이상, 복선화율 50% 이상, 전철화율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간선은 여객과 화물의 분리를 도모한다고 되어있다. 철도망 정비의 진전에 맞춰 철도차량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

면 또한 새로운 중국철도 황금기를 향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같은 해, 도로 및 수로 운송관리 조례의 수정판도 나왔다.

2009년 "중국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대외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제안하였다. 무역에 관해서는, 현재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강화라는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외자의 적극적인 도입방법으로 금융, 물류, 교육, 의료, 스포츠 등의 서비스업 국제화를 도모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같은 해 중국경제의 침체기 탈출을 견인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10대 중요산업 진흥계획⁷⁾을 내놓았는데 그 중 물류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인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⁸⁾이 포함됐다.

그 내용을 보면 물류산업은 운송, 보관, 화물운송 대리, 정보 등 각 산업과 결합된 서비스산업 관련분야가 넓고 직원도 많으며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물류산업의 수준이 낮아 국민경제 발전의 효율성과 이익향상을 크게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4가지 점을 들었다. ①물류시장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물류기업과 생산기업, 상업무역회사와 협력을 촉진하고 물류서비스의 사회화와 전문화를 추진, ②기업개편 합병을 가속시켜 높은 서비스수준과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현대물류기업들을 육성, ③에너지, 광산, 자동차, 농산품, 의약품 등 중점분야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물류 및 보세물류 발전을 가속, ④물류산업의 인프라건설을 강화하고 물류표준화·정보화수준 향상⁹⁾ 등이다. 또한 중국의 현황을 감안하여 계획에 "물류산업의 지역별 사업 분포를 최적화 하겠다"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에 표-2에서처럼 "9대 물류지역", "10대 유통경로"로 전국적으로 지역산업 분포를 제어, 전국물류 Node 21개 도시와 지역물류 Node 17개 도시

7) 자동차, 철강, 섬유, 장비 제조, 선박, 전자정보, 석유화학, 경공업, 비철금속, 물류산업의 10대 중요산업 진흥계획이다.

8)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9] 8호 국무원 물류산업 조정·진흥 계획의 통지 등 추천

9) 중국인민망, 2009년 2월, <http://j.people.com.cn/94476/6601593.html>

를 지정하였다.

표-2. 중국 물류산업 조정 및 진흥규획

9대 물류지역		10대 유통경로
물류 지역	중심지	동북 지역 - 관내 지구
화북	북경, 천진	동부 - 남북 지역
동북	심양, 대련	중부 지역 - 남북 지역
산둥 반도	청도	동부 연해 지역 - 서북 지역
장강 삼각주	상하이, 난징, 닝보	동부 연해 지구 - 서남 지역
동남 연해	하문	서북 지구 - 서남 지역
주강 삼각주	광주, 심천	서남 지역 - 바다
중부	무한, 정주	장강 - 운하
서북	서안, 란주, 우루무치	석탄
서남	충칭, 청두, 난닝	수출입

전국물류 Node 21개 도시	지역 물류 Node 17개 도시
북경, 천진, 심양, 대련, 청도, 제남, 상해, 난징, 닝보, 항저우, 하문, 광주, 심천, 정주, 무한, 충칭, 청두, 난닝, 서안, 란주, 우루무치	하얼빈, 장춘, 바오터우, 우루무치, 석가장, 당산, 태원, 함비, 복주, 난창, 창사, 곤명, 귀양, 해구, 서닝, 은천, 라사

자료: "2009 중국 사업연도보고(계열-물류)", "물류산업 조정과 진흥규획 통지" 중국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국무원 사이트 등을 참고

2012년 8월 국무원은 "유통체제 개혁을 통한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3자물류 발전을 강조했고, 연이어 유통비용 절감 10조항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상무부는 현대물류기술의 응용과 공동배송 종합시범을 실시하고, 창고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지도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철도부, 교통운수부 등 여러 부문에서 물류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물류관련분야에 대한 민간투자의 유지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산업의 근대화, 경제 사회 및 시장요구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물류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 중국의 국제물류 정책 추세

1988년 덩샤오핑이 제시한 선부론¹⁰⁾ 전략구상 이후, 1992년 남순강화¹¹⁾를 계기로 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노선이 확정됐다. 경제개혁·개방을 계기로, 2001년 WTO에 가입과 함께 외자도입 붐이 일어 내자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은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위탁생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생산영역과 시장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지속된 경제의 급성장을 거쳐 중국의 경제력은 GDP기준으로 2005년에 영국과 프랑스, 2007년 독일을 넘어 마침내 2010년 3분기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이 불과 6,100달러¹²⁾로 선진국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가공무역이 발전해 수출형 제조업의 생산량과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어 있는 반면, 중국 제조가공업의 실태는 글로벌공급체인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다. 또한 높은 에너지소비는 심각한 오염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저급산업의 중복건설은 생산능력 과잉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낙후 내륙지역은 물론 연해지역 중에서도 종합적인 산업집적도가 낮기 때문에 체인의 기능도 아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9년에 발표된 중국 10대 산업조정 진흥규획¹³⁾은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재편과 진흥을 주요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해서 10대 산업조정 진흥규획은 전략적으로 새로운 발전산업의 육성

10) 먼저 연해지역을 발전시켜 먼저 발전한 연해지역은 서부개발을 지원한다는 전략구상이다.

11) 1992년 무한, 심천, 주해, 상해를 시찰하고 개혁·개방 견지와 경제성장의 가속을 주장한 설법이다.

12) 일인당 GDP는 38,354위안. 중국국가통계국, [2013] '201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보고'를 참고하여 산출.

13) 2009년, 국무원: ① 경공업, ② 자동차산업, ③ 선박산업, ④ 유색금속산업, ⑤ 설비제조업, ⑥ 섬유산업, ⑦ 물류산업, ⑧ 전자정보산업, ⑨ 석유화학산업, ⑩ 철강산업 등 10대 산업 진흥규획이다.

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등 중국 경제·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술·재료·장비의 사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생산능력 과잉 문제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하이테크, 서비스업, 에너지절약, 환경에 기여하는 기술과 설비를 장려하고, 반면 기술수준이 낮고 경제·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제한하여 수출지향과 내수지향의 공존공영모델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점차 국제분업·지역분업을 개선하고 기존의 노동집약도가 높은 오염 산업에서 기술집약도가 높은 효율산업으로 모델을 바꾸고, 내수확대를 위해 산업구조를 다양화, 고도화시키고, 보완성을 가지는 새로운 패턴의 혁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서부내륙의 진흥을 위한 첨단산업을 촉진하면서, 연안부에서는 권장되지 않는 업종도 내륙에서는 권장 대상으로 두고 있다¹⁴⁾. 그리고 2007년판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¹⁵⁾과 연계되어 향후 외자투자 기획 및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경제의 이중구조 해소와 수출경쟁력 향상, 균형 잡힌 경제발전모델의 구축을 위해 2010년 10월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서 대외개방 수준을 향상하여 "무역은 수출중심에서 수출과 수입을 동등하게 중시, 투자는 중국의 외자도입 중시에서 외자도입과 대외투자를 동등하게 중시, 양 중시에서 양과 질을 중시"라는 전환을 내걸고 있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고 각종 소유제기업의 대외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는 방안이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진출은 양적확대는 물론 질적향상을 추진하고 대상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 보다 선진국에 진출하자는 것이다.

14)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 목록"수정 (2008),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령(제4호) 참고.

15) 2007년 10월 31일 공포,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개정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령 제57호, 신목록 장려류는 351항목(이전목록에는 257항목에서 93항목이나 크게 증가)과, 제한류 87항목 금지류 40항목(항목이 이전목록보다 각각 9항목 5항목 증가했다. ① 장려·촉진 목록: 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산업; 중서부지역 진출; 교통운수업; 서비스업; 금융·문화 오락산업(미디어) 제한 완화. ② 제제한 목록: 중요광물자원, 전통적인 제조업; 수출지향 산업; 부동산. 참고: 중국 상무부 사이트 등 참조.

그림-1. 외자 대중국 투자 추이



자료: CEIC (www.ceicdata.com)

그림-1과 같이 외자도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대내 직접투자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인해 저변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입제품에서 국내산으로 전환이 진전되어, 무역흑자가 매년 누적돼 국가 외환보유액도 급증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중국정부는 외국 직접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진출 전략의 실시를 가속하기 위해 2004년 7월 상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1"을 발표하고, 그 후 2005년 10월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2", 2007년 1월 상무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3"을 공포하고, 3개의 목록을 통해 중국과 경제적인 우방, 주요 교역·전략적 파트너국가와 중국의 대외투자 장려분야 등 종합적으로 협상 대상 전체 127개국(지역영역)을 선정하였다.¹⁶⁾ 또한 투자분야를 선택할 때, 농·림·목·어업, 광업, 제조, 서비스업 및 기타 신흥산업 등을 세세하게 나누어 산업별 분포를 간소화하고 해외에서 전략적이지 않는 투자와 내부의 충돌을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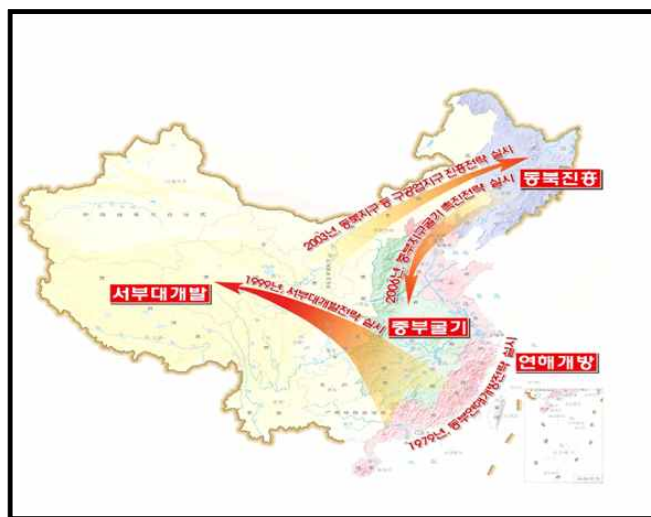
16) 상무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4-2005 2007에 3차례에 걸쳐 "대외년 국가별 산업지도 목록"(대외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http://www.sdpc.gov.cn/zcfb/zcfbtz/2007tongzhi/t20070227_118707.htm

는 효과도 보이고 있다.

기업의 대외직접투자 촉진을 지시하기 위해 상무부는 2009년 "해외 투자 관리방법"을 공포했다.

그림-2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의 전개과정



자료: 중국 국토전략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제315호

한편 그림-2에서 나타내는 경제발전정책의 전개과정에 따르면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것은 먼저 국가급 경제특구이고 다음으로 연해지역의 타지역이며 마지막으로 중서부 내륙지역이다. 현 단계에서는 연해의 남북경제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해 선두그룹 중에서도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 경제중심지가 동부연해 지역의 주강 삼각주, 장강 삼각주에서 푸둥신구(浦東新區), 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저장성 저우산신구(舟山新區)로 중심이 이동하고 국가급 경제개발구가 정부로부터 국가의 다음세대 경제엔진의 역할로 중국경제를 견인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엔진 추진이론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지역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동부연해의 타지역에 파급시켜 중국 전체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으로, 중국

내륙지역을 진흥하기 위해 내륙지방에 국가급 경제개발구 충칭 량장신구(兩江新區)를 설치했다. 이어 최근(2012년 8월)에는 간쑤성 란저우신구(蘭州新區)까지 지정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엔진이 탄생하며 경제발전을 내륙으로 파급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전국적인 균형발전 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가 넓은 중국은 정책적으로 발전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동부연해부와 서부내륙부의 경제격차는 더욱 확대되면서 경제력으로 말하면 연해는 "선진국"그리고 내륙은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렇게 중국경제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력의 격차 영향으로 연해에 비해 내륙지역은 교통분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비 상황도 크게 늦어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은 물류운송에 있어서 연해와 내륙의 격차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연해지역의 외자·내자 기업은 내수판매를 확대하고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 ASEAN지역으로의 이전보다 중국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이 유리하다고 중국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생산기업의 내륙지역 이전을 위해서는 중국 전역으로의 유통은 물론 해외까지 원활한 범세계적 수준의 종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운송과 국제운송루트가 연결되는 연해부 도시에서 산업구조의 혁신을 추진하여 표준화된 일반상품의 생산거점을 내륙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내수확대 진흥정책 하에서 중서부내륙에서 생산한 것을 연해까지 반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게 된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려고하는 기업은 직접 물류망을 구축할만한 여유는 없다. 전체시스템의 컨트롤과 핵심역량에 집중하고 고객만족과 저비용 오퍼레이션을 실현하기 위해 물류업무는 전문물류회사(TPL)와 계약을 맺고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외국계기업의 중국진출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에는 수준 높은 물류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물류지원 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최근 외국계 대형 물류기업도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보이고 있다. 외국계 물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규제완화의 진전과 함께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다. 외국계 물류기업은 진출 시 먼저 외국계 제조·유통업체의 요청을 받고 진출한 경우가 많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자국계 물류기

업이 외국계 제조·유통업의 물류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배경이지만, 외국계 물류기업도 당초 그 활동을 제한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국의 자국계 물류기업에 위탁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4. 중국의 대내·외 물류통합 전략

중국은 자국을 세계시장과 연결하고 국제경쟁을 자국에 끌어들이므로써 산업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하였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지역단위 개방을 중심으로 단계와 수준을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로 인해 중국은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구성되어졌다. 개방의 진전에 따라 하나의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각 지역 간의 경쟁 속에서 지역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경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방향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에서 세금우대정책, 저임금 등의 유인책으로 선진국들의 자본 및 기술이전이 진행되면서, 동부연해지역은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 경제발전을 크게 견인 해왔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설비, 원자재, 반제품 등의 물동량이 많이 발생하여, 운송산업이 큰 발전을 이루어 중국의 국제물류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일정수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점차 소비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물류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어 세계의 물류센터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고, 교통의 중요 노드가 동부연해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송되어 온 화물들은 먼저 해안항만의 중계·보세창고에 적입 후 주변의 가공공장, 생산업체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로 인해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경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정부의 우대정책과 해외직접투자의 혜택을 받은 동부연해부와 그렇지 못한 내륙지역의 경제격차가 확대되어 이중경제구조가 병존하게 되었다.

또한 연해지역 산업집적지의 환경오염과 에너지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우대가 점차 없어짐에 따라 토지비용과 노동비용의 상승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잠재되어있는 내륙 지역으로 기존산업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연해지역에서 도태된 산업의 새로운 집적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연해부와 내륙부 모두에 대해 경제발전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의 교통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간 국제적인 분업시스템 구축과 물류네트워크를 만들어 높은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버논의 다국적기업의 라이프사이클 이론에서 ‘신제품이 점차 보급품이 되는 단계에 이르면 중심지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라고 주장하였듯이 글로벌 경영전략 또는 현지시장 확보 목적으로 중국에 생산거점 이동이 최근에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동부연해 경제개발구에서 주변 또는 중서부 내륙으로의 전개가 많아지고, 노동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륙의 원자재·부품 등 화물의 운송과 내륙에서 완성된 제품 및 원자재의 수송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상운송과 철도 또는 트럭을 조합, 복합일관 운송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산업입지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중국정부는 내륙부의 발전을 위해 산업입지의 우위를 높이려 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천시(연해부 경제특구와 동등한 우대 정책) 지리(교통 네트워크의 완비), 인화(저렴하고 충분한 노동력)의 경쟁력만이 내자기업 투자의 두 번째 열풍을 이끌고 내륙 경제발전과 산업진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고려하고 있다. 만약 중국의 이러한 물류전략이 실현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운송서비스를 구축 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SCM 네트워크망과 연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과제는 거시적 측면에서 복합일관수송 전략물류에 관련된 발전정책의 실시, 기초인프라의 혁신과 개선,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와 보급이다. 또한 미시적 측면에서 물류관리 부문에서 수송모드 간 통합, 화주와 물류기업간 계약을 둘러싼 서비스 수준의 협력 등 여러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중국 전역에 걸친 복합일관

운송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국의 규제문제가 해결된다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나오면서

중국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미래의 물류수요 증가 및 기업물류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응하여 자원과 제품의 원활한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은 물류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경제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인프라 문제를 극복하고,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른 부문의 제도와 법체제의 미비를 정비·개선하고 연결 수송시스템 기능을 향상시키며,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에 이르는 합리적인 복합일관수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중국의 핵심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연해에 몇 개의 경제·교통 거점이 구축됐지만, 그 경제적 파급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륙으로 허브&스포크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교통거점의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환경부하가 적은 글로벌공급망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시책의 개선, 인프라건설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시각으로 복합일관운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면, 중국의 대외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내 선진화된 통합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한 복합일관운송과 같은 통합물류서비스 부족은 한국 물류산업 및 기업들에는 중국 시장 진출의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물류시장의 외자진입과 관련해 2012년 중국정부는 내륙수운외자 진입금지 규정을 발표하는 한편, 국내 택배업에서는 글로벌 택배업체 두 곳에 영업허가를 내어주는 등 물류시장은 여전히 외자 제한과 개방이 병존해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제휴로 현지 물류기업과 협력관계를 마련해 중국 물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준 높은 통합물류서비스의 수급불균

형을 활용하여 중국 진출과 기반 확충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물류산업이 급성장하는 중국 물류산업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중국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침투하는 전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중국물류기업이 외국계 물류업체에 요구하는 협력조건이 해외네트워크의 확보, 재정의 지원, 선진 관리기법의 도입 등 중국 물류기업들이 지니지 못한 부분의 보완적인 기능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출 초기에는 한국 제조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및 부품, 소비재 분야 물류를 위한 IT기반의 첨단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전문물류서비스를 강화하고 IT기반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자재의 공급부터 제품의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일관된 물류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에 대한 공급부족 현상은 우리나라 물류기업에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해외시장 진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천규, 이상준, 《중국 국토전략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201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은행국 남개대학 현대물류연구센터, 《중국 현대물류 발전보고》, 중국: 물자출판사, 2009
 중국 물질유통협회 물류기술경제위원회 등, 《중국 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물류술어》, 2001
 국가 질량감독 검험 역총국, 《Logistics Terms, GB/T18354-2001》
 중국 물류 표준화 기술위원회, 《물류 술어》(중국국가표준, 2006)
 중국 상무유통그룹 유통·물류 정책실, 《한중일 물류 보고서(한중일 유통 및 물류에 관한 공동 보고서) 중국편》, 2006
 중국 교통부, 《국가 도로운송 분포 계획》, 《전국 내하항 도로와 항구 분포 계획》, 2007
 중국 상무부·외교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 년 국가별 산업지도 목록

- », 2007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개정판, 상무부, 2007
- 중국 국무원, 《전국민용공항 분포 계획》, 2008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서부지역 외상투자우세산업 목록》수정판, 상무부, 2008
- 중국 국가통계국, 《신중국 60년 통계자료 彙編(1949~2008)》, 중국: 통계출판사, 2009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물류산업 조정·진흥계획》, 2009
- 중국 국가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 《2009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 통계 공보》, 2009
- 중국철도부, 《중국 철도사업 년도보고》, 2009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물류산업 조정·진흥 계획》, 2009
- CEIC http://www.ceicdata.com/google/CEIC_Japan.html (2010.09)
-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2010.05)
- 중국 교통운수부 <http://www.moc.gov.cn> (2010.03)
- 중국 철도부 http://www.china-mor.gov.cn/tllwjs/tlwgh_5.html (2010.02)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http://www.safe.gov.cn/model_safe/index.html (2010.08)
- 중국 민용항공국 <http://www.caac.gov.cn> (2010.03)
- 중국 정부 <http://www.gov.cn> (2010.04)

<Abstract>

China's switched to a market economy system, the economy was growing rapidly.

Recently, using the traditional export-oriented economic model to the global recession, economic growth in China reached a limit. Also the Development of Chinese economy has generated the local income gap especially between the coastal zones and

the inland districts.

China by taking advantage of the coastal zones and the inland districts, each with and trie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trend of China's logistics policy analysi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logistics integration strateg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주제어 : 중국 물류정책 물류 물류통합 중국물류

Key words : China, logistics policy, logistics, logistics integration, Chinese logistics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金明俊* · 金成哲**

〈목 차〉

- I. 서론
- II.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현황
- I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IV. 연구방법론
- V. 실증분석
- VI. 결론 및 시사점

1. 서 론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은 해외로 대량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해외 여러 국가와 지역에 대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를 하기 시작했다.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으로만 인식되던 중국이 최근 들어 세계의 공장에서 글로벌 자금의 큰손으로 그 역할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단순히 생산자였던 수동적 세계경제 객체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자라는 능동적 세계경제 주체로 탈바꿈하는 것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1)

다국적기업들이 여전히 중국시장에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보이는 상황

* 제1저자, 中國人民大學 國際關係學院 박사수료(tigerfromkorea@gmail.com)

** 교신저자,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조교수(sungchul@deu.ac.kr)

에서 해외투자자본의 유입과는 반대로 중국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지만 그동안 중국 관련 FDI 연구들은 주로 다국적기업들의 중국시장 투자에 초점을 두어왔다. 최근 연구들(한병섭, 김병구, 2008; 陈恩, 王方方, 2011)을 살펴보면 주로 중국의 경제성장, 외환보유고, 제도변화 등 투자국 내부요인과 동기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내외부요인이 상호 연관되지만 한국의 중국자본유치전략 수립차원에서 내부요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외부요인 즉 투자대상국의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대상국의 어떤 요인이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2009년 상하이차의 쌍용차인수사태 이후 주춤했던 중국기업의 대한국투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영분야에서 연구되어야 할 새로운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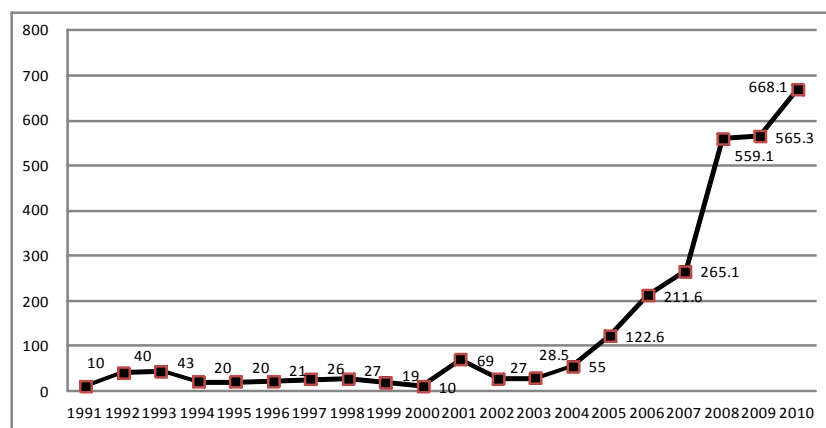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투자하는 상황과 중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대진대출(大進大出)의 상황에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천연자원 등을 고루 갖춘 중국이 왜 대외직접투자에 나서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배경에서 중국경제의 부상을 비롯한 경험상 알 수 있는 내부요인을 제외한 투자대상국의 어떤 요인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해외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기업이 중국자본 유치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차별성을 제시하였고, 제2장에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 대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이론과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국내외 주요 문헌들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가설과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과 자료출처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II.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현황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의 대외투자는 2000년까지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 대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走出去(나가자)정책에 힘입어 2002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2009년 역대 최고 수준대비 21.7% 성장하여 688.1억달러에 달하였고, 누적액은 3172.1억달러에 이르렀다. 2010년 연간 대외투자액이 처음으로 일본(562.6억달러), 영국(110.2억달러) 등 전통 대외투자대국을 넘어섰으며,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연평균 49.9% 성장하였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늦게 시작되었지만 이미 투자 누적액기준 세계 5위가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으로는 최대의 대외직접투자국이 되었다.

<그림 1> 2001-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금액 추이(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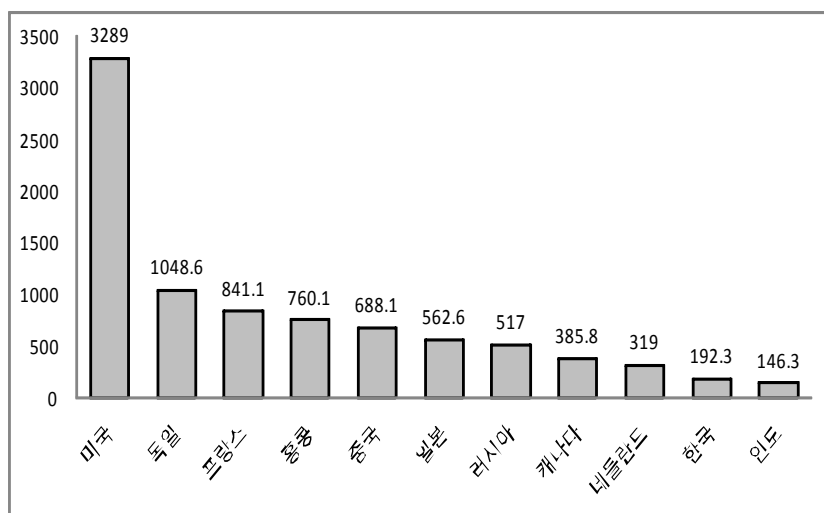


자료: 商務部 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UNCTAD에서 발간한“2011년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글로벌 해외투자 총액은 1.32만억달러이고, 누적기준 20.4만억달러에 달

한다. 이를 기초로 201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연간, 누적기준 각각 5.2%, 1.6%차지하는 것으로 5위, 17위를 기록한다. 이는 중국이 후발주자로서 누적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간 투자액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1위인 미국과 비교할 때 21%에 머물지만 2위인 독일의 66%에 해당하고 3위인 프랑스의 82%에 해당하며 4위인 홍콩의 91%에 접근해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몇 년 사이 독일을 따라잡고 미국에 이어 2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2010년 주요 대외투자국 투자금액 비교(단위: 억달러)



자료: 2010년 중국 대외투자금액은 상무부통계, 기타 국가의 투자금액은 UNCTAD에서 발간한 “2011년 세계투자보고서”를 인용

2010년 기준 중국의 연간 투자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나라가 9개이고, 이들 9개 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84%로 상당히 집중되어 있으며, 상위 20개 국가의 전체 대외투자액의 92.4%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대외투자의 절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0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의 주요 대상국을 살펴보면 홍콩은 385.05억 달러로서 56%를 차지하여 절반이상의 투자가 홍콩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투자업종으로는 상무서비스업, 금융업, 도매유통업, 교통운수업, 부동산업, 제조업 등이다. 2, 3, 4위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군도, 룩셈부르크인데 각각 8.9%, 5.1%, 4.7% 차지하며, 주로 비즈니스서비스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맨군도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호주, 미국, 캐나다는 각각 2.5%, 1.9%, 1.6% 차지하며 주로 채광업, 제조업,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자연자원과 소비시장, 기술 등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에 대한 투자는 2010년 지리(Geely, 吉利)자동차가 볼보자동차 인수한 것을 비롯해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전력, 물, 가스 등 공공서비스와 도소매업에 집중되고 있다.

〈표 1〉 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상위 20개 국가(지역)

순 위	국가 (지역)	금액 (억달러)	비중%	주요 업종
1	홍콩	385.05	56.0%	상무서비스, 금융, 도소매, 교통운수, 부동산, 제조
2	버진 아일랜드	61.20	8.9%	상무서비스업
3	케이맨군도	34.96	5.1%	상무서비스업
4	룩셈부르크	32.07	4.7%	상무서비스업
5	호주	17.02	2.5%	채광, 부동산, 제조
6	스위덴	13.67	2.0%	제조
7	미국	13.08	1.9%	제조, 상무서비스, 건축, 채광, 도소매
8	캐나다	11.12	1.6%	채광, 도소매, 제조, 상무서비스
9	싱가포르	11.19	1.6%	전력/가스/물 생산공급, 전문기술서비스, 채광, 상무서비스, 도소매
10	미얀마	8.76	1.3%	

11	태국	7.00	1.0%	
12	러시아연방	5.68	0.8%	
13	이란	5.11	0.7%	
14	브라질	4.87	0.7%	
15	캄보디아	4.67	0.7%	
16	투르크메니스탄	4.51	0.7%	
17	독일	4.12	0.6%	
18	남아공	4.11	0.6%	
19	헝가리	3.70	0.5%	
20	아랍에미리트	3.48	0.5%	
	합계	635.68	92.4%	

자료: 商務部 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바탕으로 작성

2010년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투자가 448.9억달러로 지난해 보다 11.1% 증가해 65.3%에 달해 6개 대륙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로 홍콩,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이란 등에 집중되었다. 아프리카에 투자는 21.1억달러로, 3.1%를 차지하는데 주로 채광업 등 천연자원 획득에 집중되어 있다. 주로 남아공,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 알제리, 나이지리아, 케냐 등에 투자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67.6억 달러로 가장 높은 101.6%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투자에서 9.8%를 차지한다. 주요 투자처로는 룩셈부르크, 스웨덴, 러시아, 독일, 헝가리, 영국, 노르웨이 등이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투자는 105.4억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15.3%를 차지하며, 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군도, 브라질, 페루 등에 집중되었다. 북미에 대한 투자는 26.2억달러로 전체 투자에서 3.8%로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되었다. 대양주에 대한 투자는 18.9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주로 호주, 뉴질랜드, 사모아 등에 집중되었다.

〈표 2〉 2010년 중국 대외직접투자 대륙별 구성현황

대륙	금액(억달러)	증가율(%)	비율(%)
아시아	448.9	11.1	65.3
아프리카	21.1	46.8	3.1
유럽	67.6	101.6	9.8
라틴아메리카	105.4	43.8	15.3
북미	26.2	72.2	3.8
대양주	18.9	-23.8	2.7
합계	668.1		100.0

자료: 商務部 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바탕으로 작성

I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국제기업들은 왜 해외직접투자²⁾를 선택할까? 국제경영학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라고 한다. 팽선봉, 최성일(2011)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는 매우 다양하며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국내 투자에 비해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일반적으로 시장지향, 생산효율지향, 천연자원지향,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 등 4가지로 구분한다(임성훈, 2010). 해외직접투자 동기와 결정요인은 아주 다른 것이 아니며 동기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중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며, 투자국입장에서 내부요인이라고 한다. 다국적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단지 현지시장의 크기, 현지에서의

2)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인직접투자 혹은 해외직접투자자로 원래는 유입, 유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인 동시에 중국이 전통적인 투자유치국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투자를 FDI라고 많은 연구에서 표현해왔고 본 논문에서도 동일하다. ODI(outward direct investment) 혹은 OFDI는 대외직접투자자로 중국기업입장에서 외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생산효율성, 현지에서 존재하는 천연자원만은 아닐 것이다. 노사관계의 안전성, 시장거래의 투명성, 정치적 안전성, 파견 경영자들의 현지 생활 여건 등도 투자입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이다.

그 외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유치기업 또는 대상국(Host Country)의 입장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근대화, 고용확대, 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경쟁력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국(Home Country)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국 및 주변국의 판매시장개척, 필요자원 확보,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 이용, 투자대상국의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의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기업의 이윤창출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측면에서의 직접투자 결정요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책적 요인, 사업편의 등이 있다. 정책적요인은 현지국의 사회정치적 안정도, 현지정부의 기업정책, 민영화정책, 현지국의 투자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이 해당하며, 법제도와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투자환경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사업편의는 현지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활동, 조세감면, 현금보조금과 같은 투자인센티브, 파견 경영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외국인학교 운영, 외국인 전용 주거지, 회계투명성과 관료주의와 같은 기업경영환경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들 3가지 요인은 투자결정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제기업은 투자입지를 선정할 때 경제적 요인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Guisinger S. 1992).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다른 요인의 조건을 따져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경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또는 사업편의 요인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는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요인		측정 항목
경제요	시장수요	시장규모, 소득수준, 시장성장성, 수입장법, 지역시장접근성, 소비자특성과 선호도
	생산효율성	숙련 및 비숙련공의 생산성, 부품 및 원자재

인		비용, 교통/통신/공공설비 사용요금, 금융비용
	자원부존도	석유, 가스, 광물, 원재료, 농지, 관광자원
	전략적자산습득	기술수준, 경영노하우, 브랜드, 유통채널
정책요인	사회정치적안정	국가위협도, 사회정서
	노사안정	노조 설립현황, 노조성향
	민영화정책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정책
	법률체계	지적재산권, 노동법, 조세행정, 기업신설 규정
	국제협약	조세협약, 투자협정, FTA
사업편의	투자촉진활동	이미지제고 및 마케팅/홍보활동
	투자인센티브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생활편의환경	외국인학교, 주거, 문화생활, 치안
	기업경영환경	회계투명성, 관료주의, 부정부패
	사후투자관리	민원/고충처리

자료: 임성훈, 전략적 외국인투자마케팅, 학현사, p.8. 2004 재작성

2. 중국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선행연구

다국적기업의 중국시장투자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관련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동기 규명, 대외투자 현황 제시, 중국정부의 대외직접투자 관련 제도 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중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주된 이유 중, 첫째는 중국의 대외직접투자가 늦게 시작되었고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외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학계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셋째는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화섭(2004)의 연구에서 중국기업들이 대외투자를 하게 된 배경을 경제환경, 산업정책, 기업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관련 정책을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현상과 정책에 대한 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문형(2005)은 중국 상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 대외직접투자의 특징을 규명했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신규 설립 방식보다는 인수합병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투자업종은 제조업보다는 석유 등 자원개발과 무역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하

였다. 고용수, 유재현(2006)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급증 원인과 투자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급증 원인으로 자원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중국 정부의 대외 영향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수(2006)는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정책적 배경과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실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하이얼전자의 글로벌 전략 사례를 통해 글로벌화가 갖는 의미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백권호, 서석홍(2006)은 중국기업 대외직접투자의 발전과정과 규모, 업종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의 투자 사례를 통해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동기를 규명하였다. 정상은(2006)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의 전략적 동기와 해외진출 추이, 업종별 투자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기관의 보고서 분석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한병섭, 김병구(2008a)의 연구에서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내부(투자국)요인을 체계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외부요인인 투자대상국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유사한 연구로 한병섭, 김병구(2008b)는 동기를 중심으로 투자국의 입장에서 시기별 변화와 지역별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Cai(1999)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현상을 투자지역, 투자형태, 투자경로, 투자동기 등을 분석하였으며, 중국정부의 대외투자 정책을 도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Wong & Chan(2003)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정책의 시기별 변화 흐름과 특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투자패턴 상의 특성과 투자 동기를 설명하였다. 이들의 논문은 시기별 투자제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단순한 기술 통계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Wu & Chen(2001)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발전을 시기별로 구분한 후 각 시기별 특징을 서술하고 있으며, 대외직접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패턴을 제시하였다. Wu(2005)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푸쉬(Push)요인과 풀(Pull)요인을 제시하였는데 대외투자유인 요인으로 해외시장개척, 수출장벽극복, 선진기술습득, 천연자원획득 등을 제시하였다. Deng(2004)도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동기와 특징규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중국기업들이 대외직접투자를 행하는 동기로

자원추구, 기술추구, 시장추구, 다각화추구, 전략적 자산추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Child & Rodrigues(2005)는 시장추구형 대외투자라는 중국기업의 국제화패턴과 동기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과 브랜드 자산획득을 위한 투자를 행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Buckley et al.(2007)은 불완전한 자본시장, 특정 소유권우위, 제도요인 등 3가지 특정요인을 결합하여 볼 때, 투자대상국의 정치위험, 시장규모, 환율위험, 지리접근 및 문화접근 등 요인이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Cheng & Qian(2009)의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ODI의 특징을 검정하였다. 투자대상국을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나누어 각각 검정한 결과 서로 다른 발전 단계의 그룹에 영향을 주는 변수 특징도 다르고, 두 그룹 모두 자원추구 동기였지만 ODI가 개도국에 대해서만 수출견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lentino(2010)는 중국과 인도의 ODI의 각종 동기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다. Fung, Herrero & Siu(2009)은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간의 OFDI의 각종 동기와 영향요인을 비교하여 중국과 대만은 기술획득에 관심이 많은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천연자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에서 Cheng & Ma(2007)는 중력모형의 일반형식을 이용하여 중국 OFDI의 3년 데이터를 실증분석 하였다. 程惠芳과 阮翔(2004)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이 32개 국가와 지역에 대한 ODI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의 합,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양국간 무역흐름이 ODI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거리요인과 투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何本芳과 张祥(2009)은 역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중국의 2004~2005년 대외직접투자의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 무역총액, 노동원가, 거리와 국가유형 등 이 중국의 ODI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전의 문헌연구를 통해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선행연구들이 계량모형을 통한 통계분석보다는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한 기술적 통계 서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가 언론 및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부터이기 때문에 계량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어렵고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단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와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통계분석대신에 현상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실증연구의 축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중국의 대외투자 관련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현상설명수준에 그쳤던 주장들을 통계분석을 통해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IV. 연구방법론

1. 가설설정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결정요인에 관한 가설을 설정 한다.

시장추구형 직접투자는 투자대상국의 국내시장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크면 클수록 증가한다고 본다.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대상국 시장규모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시장규모가 클수록 더 큰 동기를 부여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입지를 선정할 때 투자지역의 시장규모는 단연 중요한 요인이 된다.(Buckley et al, 2007).

가설1 :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클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은 해외 천연자원획득을 통해 산업활동을 위한 원재료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원재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기업 대외직접투자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가 바로 천연자원 확보이다(Deng, 2004). 중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천연자원 특히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석유, 목재 등과 같은 자원의 일인당 보유량은 낮은 수준이며, 이들 자원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로 이들 주요 천연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으며,

고성장유지의 필수적 요소인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에 대한 자원개발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설2 : 투자대상국의 천연자원부존도가 높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FDI 입지를 선정할 때 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를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개방도가 클수록 시장환경이 국제표준에 부합되어 사업하기에 용이할 것이므로 투자할 매력이 있게 될 것이다. 시장개방정도는 투자기업의 정치적 위험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2013년에 발생한 개성공단운영중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개방정도가 낮은 국가에 대한 투자는 인원억류, 재산몰수 등 정치적 위험을 상습시켜 기업들이 투자를 회피하게 한다.

가설3 : 투자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가 높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임금수준을 효율성 추구 변수로 채택하고 있지만 연구대상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의 많은 부분이 저임금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투자대상국의 저임금수준이 기업의 투자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팽선봉, 최성일, 2011). 남한기업이 개성공단투자에서 섬유, 봉제, 신발, 전기전자 등 노동집약 산업이 주를 이루는 것 또한 북한의 저임금이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이다.

가설4 : 투자대상국의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개도국기업들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선진기업의

기술력획득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Deng, 2004). 최근 외국기업들의 對중국직접투자시 첨단기술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선진지식자산 획득을 위한 해외투자도 빠르게 확대 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미국과 유럽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선진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영기법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전략적 자산은 글로벌 브랜드, 해외 생산망 및 유통망 구축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신설투자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진국기업들의 역량을 흡수해 나가고 있다.

가설5 : 투자대상국의 지식자산보유정도가 높을수록 중국기업의 대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사실상 인민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명목 수준으로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있었다.(Hall, 2004). 낮거나 저평가된 환율은 수출을 촉진시키지만 대외직접투자는 저하시킨다.(Kohlhagen, 1977; Logue & Willet, 1977). 본국 환율이 평가 절상됨에 따라 외환으로 된 자산이 싸지기 때문에 대외직접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질 것이다. 2005년이후 인민폐의 대미환율이 느린 속도로 평가절상 되어왔으며 지금도 미국으로부터 평가절상의 압력을 받고 있다 .

가설6 : 인민폐의 대미 환율이 평가절상 될수록 중국기업의 대외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2. 연구모형 및 자료설명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있어 투자대상국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이미 설정한 가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와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수는 전기($t-1$)의 자료를 사용하여 log값을 구한 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begin{aligned} \lnodi_{i,t} = & c + \beta_1 \ln gdp_{i,t-1} + \beta_2 \ln nr_{i,t-1} + \beta_3 \ln open_{i,t-1} + \beta_4 \ln wage_{i,t-1} \\ & + \beta_5 \ln tech_{i,t-1} + \beta_6 \ln rate_{i,t-1} + \beta_7 regi_i + \beta_8 deve_i + \alpha_i + \epsilon_{i,t} \quad (1) \end{aligned}$$

$\lnodi_{i,t}$: 종속변수로 중국이 t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ln gdp_{i,t-1}$: t-1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의 GDP

$\ln nr_{i,t-1}$: t-1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의 자연자원 부존도

$\ln open_{i,t-1}$: t-1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의 대외개방정도

$\ln wage_{i,t-1}$: t-1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의 평균소득

$\ln tech_{i,t-1}$: t-1년도 i 국가 혹은 지역의 지식자산 보유정도

$\ln rate_{i,t-1}$: t-1년도 i 국가 혹은 지역과 중국화폐의 상대(대미) 환율

$regi_i$: i 국가 혹은 지역이 속한 대륙

$deve_i$: i 국가 혹은 지역의 발전단계

α_i : 특정 국가 혹은 지역과 상관된 미관찰 요소

$\epsilon_{i,t}$: 잔차항

본 논문에서 설명변수 자료는 2007~2009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종속변수인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데이터는 2008~2010년³⁾ 103개 국가와 지역에 투자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ODI 금액, i 국가가 소속된 대륙의 구분은 “2010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통계공보”기준으로 아시아는 1, 아프리카는 2, 유럽은 3, 중남미 4, 북미 5, 오세아니아 0으로 표시하였다. GDP, 자연자원부존도, 환율은 세계은행 WDI database, 무역총액 수치는 중국국가통계국이 발간한 “WTO국제무역통계연감2010”으로 측정하였다. 각 나라의 임금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각국 통계를 활용하였고, 지식자산은 세계특허기구(WIPO)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발전단계는 OECD회원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하여 1로 표시하고, 비회원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여 0으로 표시하였다.

3) 본 논문에서 2007-2010년 중국 ODI금액을 실증샘플로 선택한 것은 ODI 통계가 2007년부터 금융업종 데이터도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업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지만 중국 금융업의 대외 투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로서 O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대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 4> 변수설명

구분	요인	변수명	측정항목
설명 변수	시장규모 ¹⁾	GDP	투자대상국의 GDP규모
	자연자원 ¹⁾	NR	광물, 석유 수출금액이 전체 수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가개방도 ²⁾	OPEN	투자상대국과의 무역총액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
	노동환경 ³⁾	WAGE	투자대상국 근로자 평균임금수준
	지식자산 ⁴⁾	TECH	투자대상국 특허출원 건수
	금융위험 ¹⁾	RATE	투자대상국 통화 달러환율 대 러 민배 달러환율 비율
통제 변수	지역 ⁵⁾	REGI	6대륙간 차이
	발전단계	DEVE	OECD회원국 선진국 분류
종속 변수	대외직접투자 ⁵⁾	ODI	투자국 대외직접투자 금액

자료: 1) World bank WDI database 2) WTO국제무역통계연감
3)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4)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5) 2010년중국대외직접투자공보

3. 분석방법

연구모형에서 α_i 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이므로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OLS(Ordinary Least Square, 최소자승법)회귀분석의 경우 회귀계수의 추정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α_i 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인 추정방법으로 모든 변수의 그룹 내 평균치를 낸 다음 추정하는 것을 고정효과모형(FE, Fixed Effect Model)이라고 한다. 만약 α_i 이 설명변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면 임의효과모형(RE, 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할 수 있다. 현실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Hausman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이 두 모형 가운데서 하나를 거절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추정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경우 α_i 와 설명변수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의효과모형이 더 유효하다. 고정효과모형과 OLS모형추정과 비교할 때 고정효과

추정모형의 F값을 기준으로 개체효과가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다. 임의 효과모형과 OLS모형추정과 비교할 때 BP검정에서 P값으로 개체효과가 유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OLS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의하지 않는 변수를 제외하고 모형을 간이화 시킨다. 다시 간이화된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검정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F값, Hausman 검정, P값을 기준으로 세 모형에 대한 비교분석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

모형의 내생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eng & Qian(2009)의 방법을 참조하여 설명변수보다 1년 지난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한병섭, 김병구(2008a)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투자유출에 대한 분석방법에서는 해외투자유출과 결정요인들 간의 시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동시점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가 없거나 환율 등과 같이 시차가 1년 이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변수들 간의 시차를 0으로 놓고 분석하기도 한다(Grosse & Trevino, 1996).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수준은 설명변수들의 시차가 고려된 값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Driffield & Munday, 2000), Hill & Munday(1994)의 연구에서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1~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많은 사례를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시점에 따라 값을 달리하는 변수들의 경우(t-1)기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시차를 주었다.

V. 실증분석

1. 기초통계

기술통계분석은 측정단위가 서로 다른 변수들의 통계량이나 표준화값을 계산하는데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빈도분석은 이산적인 자료를 다루는데 이용되는 반면에 기술통계분석은 연속적인 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측정단위가 다르면서 연속적인 특성

을 갖고 있으므로 기술통계량분석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에 관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ln OFDI$ 에 있어 평균은 7.409이며 표준편차는 2.409로 나타난 것을 비롯해 <표 5>과 같다.

<표 5>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최소치	최대치	표준편차
$\ln OFDI$	7.409	0	15.167	2.409
$\ln GDP$	24.266	19.907	30.075	2.210
$\ln NR$	1.238	-5.159	4.447	1.238
$\ln OPEN$	-11.820	-13.974	-7.661	1.118
$\ln WAGE$	1.137	-2.686	7.748	2.792
$\ln TECH$	1.234	0.651	6.845	1.637
$\ln RATE$	1.665	-3.207	3.978	0.936
$DEVE$	0.233	0	1	0.423
$REGI$	2.117	0	4	1.092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인 GDP, NR, OPEN, WAGE, TECH, RATE과 종속변수인 OFDI의 상관계수가 각각 0.732, 0.498, 0.425, -0.511, 0.526, -0.654이며 유의확률 값을 볼 때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DP와 WAGE, TECH간 상관계수가 0.440, 0.39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가 의심되므로 분산팽창요인(VIF)을 통하여 다시 검증한 결과 기준 값인 10이하이기 때문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상관계수 분석

	OFDI	GDP	NR	OPEN	WAGE	TECH	RATE
OFDI	1						
GDP	0.732**	1					
NR	0.498***	0.244	1				
OPEN	0.425**	0.312	0.213	1			

WAGE	-0.511**	0.440**	0.231	0.127	1		
TECH	0.526**	0.398*	0.356	0.230	0.324	1	
RATE	-0.564*	0.112	0.242	0.124	0.249	0.37	1

* $P \leq 0.10$, ** $P \leq 0.05$, *** $P \leq 0.01$

2. 실증분석 결과

중국기업의 대외직접투자 결정모형의 추정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델(1)에서 전체 변수에 대한 추정결과 t값에 대한 유의확률값이 유의수준 0.10에서 볼 때 $\ln WAGE$ (평균임금), $\ln RATE$ (환율)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균임금, 환율 요인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간이화하여 모델(2)를 추정한 결과 모델(1)에서 얻은 기본 추정결과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R^2 과 F값은 모델(1)보다 크게 나왔다. 모델(3)과 모델(4)는 각각 간이화한 이후의 고정효과모델과 임의효과모델로서 Hausman검정결과 임의효과모델과 고정효과모델의 계수가 시스템적인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효과모델이 좀 더 설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BP검정의 P값으로 볼 때 모델(1)에 대하여 임의효과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델(4)을 통해 얻은 결과가 기타 모델보다 안정적이고 설명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델(4)를 채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모델(1)에서 평균임금, 환율, 모델(4)에서 천연자원부존도 요인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는 매몰비용모델이론의 결과와 일치하다. 매몰비용모델은 기업차원에서 3가지 함의가 있는데, 즉 다국적 경영의 불확실성, 매몰비용의 부담, 동태적인 회귀예측이다. 결론적으로 매몰비용의 존재로 환율의 변화가 해외경영의 영향정도는 제한적이고, 무역과 투자가 외부영향을 쉽게 받지 않아 현저한 증가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7> 모델별 분석결과

	(1)OLS 추정	(2)간이 OLS추정	(3)FE	(4)RE
상수	2.288 (0.635)	5.787** (2.533)	-6.842 (-0.516)	4.798* (1.658)
LnGDP	0.508*** (5.981)	0.513*** (6.901)	1.049* (1.826)	0.541*** (5.418)
LnNR	0.143* (1.712)	0.157** (2.018)	-0.399 (-1.407)	0.111 (1.103)
LnOPEN	0.865*** (5.249)	0.836*** (5.847)	0.905*** (2.645)	0.814*** (4.829)
LnWAGE	0.089 (0.503)			
LnTECH	0.317** (0.952)	0.313*** (4.503)	0.449** (2.666)	0.641*** (3.454)
LnRATE	0.047 (0.632)			
REGI	-0.479*** (-3.280)	-0.483** (-3.648)		-0.417*** (-2.194)
DEVE	-0.786* (-1.767)	-0.964*** (-2.653)		-1.074** (-2.201)
R ²	0.357	0.365	0.066	
F값	12.834	24.528	3.211	
Hausman 검정 P값				0.254
BP 검정 P값				0.002

*P≤0.10, **P≤0.05, ***P≤0.01; 괄호안의 수치는 t값

모형(4)의 추정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가 여전히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주요 요인이다. 기타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대상국의 GDP가 1%증가하면 투자대상국에 대한 ODI는 0.54% 증가하는 것으로 영향이 뚜렷하다. 투자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와 ODI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개방정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한 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타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대상국의 시장개방정도가 1%증가할 때마다 중국의 ODI는 0.8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의 지식자산보유정도

와 ODI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중국기업이 기술추구형 투자를 선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타 요인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대상국의 지식자산이 1%증가하면 투자대상국에 대한 ODI는 0.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연자원부존도가 임의효과모델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은 천연자원부존도는 중국 ODI의 주요 영향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내용	회귀방향	결과
1	시장규모 ↑ → 대외직접투자 ↑	+	채택
2	천연자원부존도 ↑ → 대외직접투자 ↑	ns	기각
3	시장개방정도 ↑ → 대외직접투자 ↑	+	채택
4	임금수준 ↓ → 대외직접투자 ↑	ns	기각
5	지식자산보유정도 ↑ → 대외직접투자 ↑	+	채택
6	인민폐환율평가절상 ↑ → 대외직접투자 ↑	ns	기각

ns : not significant

VI. 결론 및 시사점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는 점차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대외직접투자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논문은 2007~2010년 중국이 103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한 데이터를 실증분석 한 결과 해외의 많은 이론과 경험가설이 중국이 실행하는 대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데 상당부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중국이 대외직접투자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 및 잠재력, 시장개방정도 및 기술발전수준 등이다. 이는 최근 중국기업이 대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국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와 시장개방정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기술도입을 위해 시장을 내주는 방법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지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목표성과에 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기업들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지식자산이 풍부한 국가, 특히 선진국을 향한 지식자산 추구형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자원부존정도, 평균임금수준,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는 전통 FDI 결정요인이론 및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을 얻었다.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동기가 천연자원추구형에서 시장추구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천연자원추구형 투자도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진행되지만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결정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기업은 투자 위험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환율 등 금융위험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평균임금수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중국의 임금수준이 올랐다고는 하나 동부 연안지역의 경우이고, 중서부지역의 경우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중국자체가 저임금국가로서 저임금을 추구하려는 업종의 경우 굳이 해외투자를 할 필요 없이 국내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홍콩과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큰 것도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을 신규투자유치대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기업은 시장 확보와 기술획득을 위해 대외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건수와 규모면에서 크게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한국의 시장규모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시장규모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시장규모는 중국기업들에 있어 매력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FTA체결 등을 통해 한국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기업이 제주도에 투자하여 중국인들의 돈을 벌게 하는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것이 좋은 사례이다. 셋째, 중국자본에 대한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상하이차 쌍용차인수사태’도 언론이 주도하는 ‘먹튀’논란 속에서 실패로 막을 내렸다. 한중양국 노사문화충돌, 국민감정 악화, 투자 약속불이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파산에 대해 ‘기술유출’, ‘먹튀’

등 일부 편파적인 보도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투자는 주로 인수합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기업은 기업분석과 산업분석을 비롯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기업의 국외 생산제품과 경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존 중국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고 세계에서 경쟁했지만, 점차 중국기업은 세계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고 전세계 범위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으나, 여러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의 대외투자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투자결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둘째, 지역별, 산업별 구분 없이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기에 지역별 특성 및 개별산업특성을 반영한 투자특성을 파악 할 수 없었다. 셋째, 분석 대상 데이터의 기간이 짧아 기간별 차이를 살펴볼지 못했다. 넷째, 자유무역지역 혹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그 실체와 수익구조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첫째, 투자 결정요인을 대륙별, 국가별,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분석기간을 늘려 시간대별 시계열분석을 하고자 한다. 셋째, 개별기업의 투자사례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다 실무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용수·유재현, 〈중국 대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해외경제정보》, 제2006-79호, 서울: 한국은행, 2006
- 김화섭(200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과 시사점〉, 《Issue Paper》, 서울: 산업연구원, 2004-154
- 박상수,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전략에 대한 일고: 정책과 실태, 하이얼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36, 2006
- 백권호·서석홍, 〈중국기업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평가〉, 《중국학연구》35, 2006

- 이문형, 〈해외투자로 일석오조효과 노리는 중국〉, 《KIET 산업경제》8, 서울: 산업연구원, 2005
- 임성훈, 《전략적 외국인투자 마케팅》, 학현사, 2004
- 임성훈, 《표준 국제경영 1.0》, 학현사, 2010
- 정상은(2006), 〈중국기업의走出去 전략분석〉, 《중소연구》통권109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6 봄
- 팽선봉, 최성일, 〈중국 서부지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1990~2007 기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15:3, 2001.12
- 한병섭·김병구a,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중국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12:1, 2008.3
- 한병섭·김병구b, 〈FDI동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투자동기의 시기별 변화와 지역별 차이 규명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13:1, 2008.5
- Buckley p. j., Clegg J., Cross a.r. et. al, "The Determinants of Chines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8:4(2007)
- Cai K.G.,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Novel Dimension of China's Integration into the Regional and Global Economy," The China Quarterly, No.160(Dec 1999)
- Cheng L., Ma Z., "China's Outward FDI: Past and Future," China: Hong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2007)
- Cheung Y. W., Qian X. W., "The Empirics of China's Outward Investment," Pacific Economic Review, 4:3(2009)
- Child J. and Rodrigues S.B.,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ese Firms: A Case for Theoretical Extension?,"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3(2005)
- Deng P., "Outward investment by Chinese MNCs: motivations and implications," Business Horizons, 47:3(2004)
- Driffield N. & Munday M., "Industrial Performance, Agglomeration, and Foreign Manufacturing Investment in the UK," Journal of

-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1:1(2000)
- Fung k. c., Herrero A. G., Siu A., "A Comparative Empirical Examination of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Four Asian Economies: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and Taipei China," Asian Development Review, 26:2(2009)
- Guisinger S., "Rhetoric and Reality in International Business: A Note on the Effectiveness of Incentives", Transnational Corporations, 1,2 (August 1992)
- Hall T., "Controlling for risk: an analysis of China's system of foreign exchange and exchange rate management," Columbia Journal of Asian Law, 17:2(2004)
- Hill S. & Munday M.,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FDI in the UK, London: McMillan.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1994)
- Kohlhagen S.W., "The effects of exchange-rate adjustment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Comment," in P.B.Clark, D.E. Logue and R. Sweeney (eds.) The Effects of Exchange Rate Adjustmen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1977)
- Tolentino P. E., "Home Country Macroeconomic Factors and Outward FDI of China and India,"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16:2(2010)
- Wong J. and Chan S., "China's Outward Direct Investment: Expanding Worldwide,"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1:2(2003)
- Wu F., "Corporate China Goes Global," World Economics, 6:4 (Oct-Dec 2005)
- 陈恩、王方方,〈中国对外直接投资影响因素的实证分析〉,《商业经济与管理》238:8, 2011.8
- 程惠芳、阮翔,〈用引力模型分析中国对外直接投资的区位选择〉,《世界经济》11, 2004
- 何本芳、张祥,〈我国企业对外直接投资区位选择模型探索〉,《财贸经济

»2, 2009

商務部等, 2010年度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http://www.mofcom.gov.cn>

<Abstract>

This paper to empirical examine the date from 2007 to 2010 China's ODI in 103 countries, found that a lot of overseas theory and experience hypotheses to explain China's ODI is not suitable for a large part.

China's outward FDI to the investing countr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and potential of the markets, the open level of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China's enterprises towards the presence of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risks that are not realize. The average wage level, the exchange rate of the traditional FDI determinants influenced th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findings conflict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 China to take advantage of new investment source need to target strategies. Second, the extension of Korea's market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open for the Chinese capital in Korea. Fourth, the response to M&A of China's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ifth, we should be prepared that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d products by China's enterprises.

Key Words : China's Enterprises, Host Countries, Determinants of ODI, Strategic implications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 적용

김형근*

〈 목 차 〉

1. 서론
2. 중국 물류산업과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5. 결론

1. 들어가며

중국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다. 거칠 것 없이 달려가는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 최대국을 넘본다. 2012년에는 8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총생산(GDP)을 기록하였다. 이 금액은 세계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 GDP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이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7배나 큰 규모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의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교역규모는 3조 8,9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1,927만 대로서 2009년 이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으며(생산대수 기준),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경제의 성장은 기회이자 위기일수 있다. 중국의

* 신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kimhg@silla.ac.kr)

경제 규모가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여 우리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는 반면에 중국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대거 중국에 진출하여 빠르게 기술 전수가 되어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우리와 수출 품목이 유사해진다면 우리의 최대 수출경쟁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

한 국가의 물류산업을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신선한 피를 온몸 곳곳까지 연결해주는 혈관과 같다. 제 아무리 강력한 심장과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온몸 깊숙한 곳까지 피가 통하지 않는다면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다. 물류산업이 국가경제 깊숙한 곳까지 피를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여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경제부흥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던가? 마찬가지로 중국도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간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물류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WTO 가입 당시 공약사항에 따라 2005년부터 외국기업에게 물류시장 진출을 허용하였다. 수많은 외국 물류기업들이 중국 물류시장을 노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중국의 물류시장에 눈독들이고 있다. 물류산업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산업이므로 경제성장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물류산업은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 개발잠재력이 높은 기초 인프라인 항만·공항·철도 등의 보유로 전략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아웃소싱 증가, 물류의 범위가 수송 및 보관에서 조립 및 가공 등의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중국 물류산업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정작 중국 물류산업에 대한 심층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물류산업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에서 본 연구자는 항

1) 심재희, 〈한국과 중국의 선박제품별 교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59호, 2011.

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물류산업이 국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더 나아가 물류산업의 감응도계수와 영향력계수를 파악하여 전체 산업 중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파악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경제분석기법은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²⁾를 이용하여 산업간의 상호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산업연관모델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온티에프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거시계량경제모델과 함께 20세기에 만들어진 가장 뛰어난 경제 분석 도구 중 하나이다. 거시계량경제모델은 주로 경제 활동의 부가가치 부분(국민소득계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산업연관모델은 거시계량경제모델에서 제외되어 있는 다산업부문(多産業部門)간 상호 의존관계를 통해 경제의 순환구조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산업연관모델과 거시계량모델은 그물의 눈과 같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 경제를 분석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중국 물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그 중요성 및 전망에 대해 기술한 후 그것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할 것이다.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인 산업연관분석의 개념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델에 대하여 부연할 것이다. 4장에서는 중국 물류산업의 생산유발 분석과 부가가치계수 분석을 통한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 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중국 물류산업과 선행연구

중국 물류 산업에 대한 거시 지표를 보면, 2010년 사회 물류비 총액

2) 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국민경제 내에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산업연관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첫째, 산업 상호간의 중간재 거래부분, 둘째, 각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투입부분, 셋째, 각 산업부문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에게로의 판매부분의 세가지로 구분 기록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산업연관분석해설》(서울:한국은행, 2007), 20쪽.

은 약 20조 달러(125조 위안)로 추정되고 있다. 2010년 중국 정부의 교통, 운수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규모는 330억 달러에 달해, 중앙정부 예산 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사회 물류는 연평균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산업도 연평균 13%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물류시장 개방의 역사는 길지 않다. 중국의 물류시장은 2004년에 들어서면서 유통업 분야가 대외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고, 2005년 해외 물류기업의 독자 진출이 허용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 경제가 발전되고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중국 내 로컬 물류업체들도 과거 중소기업의 영세한 경영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기업과도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 의한 경제사회의 발전은 물류산업의 성장에 있어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등 중공업이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노동집약형 산업이 충칭, 시안 등 내륙지방으로의 이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제품, 자재의 이동 및 유통물동량이 증가될 것이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물류 인프라도 함께 병행하여 발전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2급, 3급 이하의 도시³⁾수 증가 및 중서부 지역 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교통 인프라 건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A.T 커니(A.T Kearney)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물류산업의 발전단계를 아래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1단계 시작은 정부 독점에서 개방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며, 2단계 축적은 시장에 물류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기이다. 3단계 집중은 업종 간 구

3) 김용준(2011)은 중국의 도시를 1, 2, 3급으로 구분하였는데, 1급 도시는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도시로서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과 같은 대도시를 말하며, 2급 도시는 인구가 500만~1,000만명인 우한, 난통 등 도시를, 3급 도시는 상주인구가 500만명 이하인 도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명을 상회하므로 1급 도시이고, 부산의 경우는 상주인구가 350만명 정도이므로 3급 도시에 해당한다.

조조정 및 재통합 발생되어 집중도가 증가하며, 마지막 4단계 연맹은 대형 물류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조성되는 시기이다. 현재 중국의 물류산업은 2단계인 축적에 위치하고 있지만, 2015년에는 3단계인 집중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현재의 중국 물류 산업은 시장집중도가 낮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종류가 단순하고 차별성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향후 5년간 물류산업의 지속적인 재편을 통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와 서비스역량을 갖춘 물류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초대형 중국계 물류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경제모델로서 내수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주요 국가정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하에 중국 내수시장 중심의 전략이 추진되면서 이와 관련된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구축 및 소비시장의 확대는 물류산업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물류산업에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의 각종 기법과 분류부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물류산업의 산업연관분석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장영태 외(2006)의 연구⁴⁾는 해운산업(외항해운/해양산업/조선/항만)에 행하여졌던 연구를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세세히 정리하고, 1990년, 1995년, 2000년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외항운송부문과 연안 및 내륙수상부문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중간투입률, 부가가치율, 생산유발효과, 전후방연쇄효과를 계량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고, 이태우 외(2006)의 연구⁵⁾에서는 앞선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연구범위를 운송부문별로 확장하여 철도여객, 철도화물, 도로여객, 도로화물, 연안 및 내륙수상운송, 외항, 항공운송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오성동 외(2003)는 해

4) 장영태·이태우·김승곤·신성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제22-2권, 2006.

5) 이태우·장영태·신성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운송부문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상호 비교 분석>, 《해운항만경제학회》 제51권, 2006.

운산업과 관련 서비스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연관관계와 파급효과를 계측⁶⁾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업연관표내 분류상의 한계로 인하여 해운산업을 외항운송부문으로 정의하였으나, 산업연관표내의 분류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분석부문을 외생부문으로 처리하지 못해 정확한 파급효과 계측에 한계점을 나타냈다. 광승준 외(2002)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란 연구주제⁷⁾로 한국 해양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외생화 방법을 이용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순수파급효과를 계측하였고, 기존의 수요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 계측인 수요유도형 모형뿐만 아니라, 공급유도형 모형을 사용하여 공급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도 계측하였다. 중국에서의 산업연관분석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伍健波(2009)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국통계연감의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여 각 산업 부문간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분석을 통하여 현재 중국의 각 산업별간의 관련도 변화를 예측한 후 정부에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郝晓燕·巩芳(2011)은 2007년 중국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유제품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산업의 구조적 효과, 파급효과,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투입산출표내의 135개 산업분류 중 유제품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분석을 통해 중국 유제품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경제 기타 산업부문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李惠·王辉·石伟(2011)는 2002년과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의 135개 산업분류를 비교하여 관광업과 기타 관련산업의 연관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완전소비계수와 직접소비계수의 분석을 통해 관광업과 연관된 산업의 소비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도 분석하였다. 金真(2011)은 2007년 하남성이 발표한 투입산출표 산업분류를 다시 수정하여 1차, 2차, 3차산업과 물류산업으로 재분류를 시행하여 하남성의 물류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6) 오성동·기성래,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해운물류학회》, 제39권, 2003.

7) 광승준·유승훈·장정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상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7-1권, 2002.

3. 연구방법

1. 산업연관표 기본구조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를 산업별로 세분하여 산업간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로 이루어지는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지출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즉 산업연관분석은 국민 경제의 파급구조분석, 경제예측 등 보다 깊이 있는 경제분석을 위해서는 국민경제를 여러 산업부문으로 세분하여 어느 산업의 최종수요 변동이 각 산업의 생산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유용한 분석도구이다(한국은행, 2008; 강광하, 2000).

아래 <그림 1>과 같이 세로방향(열)은 각 산업의 비용구성 즉 투입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원료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중간투입과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는 부가가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합계를 총투입액이라 한다. 반면에 가로방향(행)은 각 산업의 생산물의 판매 즉 분배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는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생산 활동에 재화나 서비스가 중간 원료로 사용되는 중간수요와 소비재, 자본재, 수출 등의 최종수요로 나누어지며 이를 합한 것이 총수요액이다. 그리고 여기서 수입을 뺀 것이 바로 총산출액이며 이는 총투입액과 항상 일치한다(한국은행, 008). 즉, 그림-1에서 ID_i 를 중간수요부분, Y_i 를 최종수요부분, M_i 를 수입, X_i 를 국내 총산출액, X_j 를 총투입, C_i 를 소비, I_i 를 투자, E_i 를 수출, Π_j 를 중간투입, V_j 를 부가가치라고 하면, $ID_i = \sum_{j=1}^n X_{ij}$, $Y_i = C_i + I_i + E_i$, 그리고 $\Pi_j = \sum_{i=1}^n X_{ij}$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아래의 식이 도출되며, $X_i = X_j$ 이다.

$$X_i = ID_i + Y_i - M_i$$

$$X_j = \Pi_j + V_j$$

<그림 1>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연 / 행		내생부문			외생부문				수입(공제)	총산출액	
		1	j	n	중간 수요	소비	투자	수출			최종 수요
내 생 부 문	1	X11	X1j	X1n	ID1	C1	I1	E1	Y1	M1	X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Xi1	Xij	Xin	IDi	Ci	Ii	Ei	Yi	Mi	X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	Xn1	Xnj	Xnn	ID1	Cn	In	En	Yn	Mn	Xn
	중간 투입계	II1	IIj	IIn							
외생 부문	부가 가치계	V1	Vj	Vn							
총투입액		X1	Xj	Xn							

자료출처 : 『산업연관분석해설』, 한국은행(2008)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한편 산업연관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산업 상호간 거래인 중간수요와 중간투입을 기록하는 부분을 내생부문, 최종수요와 부가가치를 기록하는 부분인 외생부문이라 한다(한국은행, 2008). 이러한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물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연관표로부터 투입계수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도출되는 생산유발계수 등 각종 분석계수를 이용한 경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1) 투입계수

투입계수는 각 산업부문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 중간투입액을 그 산업의 총투입액(=총 산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각 부문 생산물 1단위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재료의 투입비율을 나타낸다. 즉, 투입계수는 i 산업 부문 생산물 1단위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각 산업 부문 생산물의 크기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한국은행, 2008).

$$a_{ij} = \frac{X_{ij}}{X_j}$$

단, X_{ij} : i 산업부문의 중간투입액

X_j : j 산업의 총투입액

a_{ij} : 투입계수

(2)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는 어느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의 크기를 나타내며, 보통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국내생산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계측하기 위하여 국산과 수입이 구분된 $(I - Ad)^{-1}$ 형의 생산유발계수행렬이 사용된다. 이때 X 를 총산출벡터, Ad 를 국산투입계수행렬, Yd 를 최종수요벡터라고 하면, $AdX + Yd = X$ 의 수급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X 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은 $(I - Ad)^{-1}$ 형의 생산유발계수표를 얻을 수 있다(한국은행, 2008).

$$\begin{aligned} X - A^d X &= Y \\ (I - A^d) X &= Y^d \\ X &= (I - A^d)^{-1} Y^d \end{aligned}$$

(3) 영향력계수

영향력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전체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즉 후방연쇄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계수로 해당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 합계를 전체 산업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그 산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을 가리키며, 반대로 영향력계수가 1보다 작은 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생산유발계수가 큰 산업일수록 그 산업의 영향력계수는 1보다 크다.

(4) 감응도계수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단 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를 의미하며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체 산업 평균으로 나눈 값이다. 감응도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경제 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반면, 1보다 작은 산업은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제품이 각 산업부문에서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크다(한국은행, 1987, 2004).

(5) 부가가치 유발계수

부가가치계수는 산업별 부가가치계수를 대각항으로 하는 대각행렬과 생산유발계수 행렬의 곱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구할 수 있다. 즉 부가가치 벡터를 V , 부가가치계수행렬을 $\hat{A}^v$ 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 - Ad)^{-1}Y^d$ 을 대입하면 $V = \hat{A}^v(I - Ad)^{-1}$ 을 부가가치유발계수행렬이라 하면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전체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

2. 중국의 산업연관표(2007년)

(1) 중국 산업연관표 상의 영향력계수 활용

각 산업의 생산유발계수(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의 열(列)합계를 전산업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영향력계수가 크면 자본재를 생산하는 산업도 동시에 생산량이 많았음을 뜻하므로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철강이나 전기·전자 등과 같이 생산유발 효과가 큰 산업부문일수록 계수도 커지게 된다.

$$F_j = \frac{\sum_{i=1}^n \overline{b_{ij}}}{\frac{1}{n} \sum_{i=1}^n \sum_{j=1}^n \overline{b_{ij}}}$$

중국국가통계국은 2007년 투입산출표를 발표하면서 위 수식을 활용하여 영향력계수 상위 20개 산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표 1>의 영향력계수 상위 5개 산업을 살펴보면 컴퓨터 제조업, 문화, 사무용품 제조업, 통신설비 제조업, 가정용 시청각설비 제조업으로 모두가 제조업임을 알 수 있다.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교통운수 및 창고업은 상위 20위에 랭크되지 않았다. 물류산업이 특정 부문 생산에 중간재로 많이 투입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물류산업의 영향력계수가 상위에 랭크되지 않은 까닭은 재화의 최종 생산 후 최종 유통과 저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해당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물류산업은 그 재화에 대한 최종수요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 중 영향력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표

순위	투입산출부문	영향력계수
1	컴퓨터 제조업	1.368
2	문화, 사무용품 제조업	1.347
3	통신설비 제조업	1.338
4	레이더 및 방송설비 제조업	1.330
5	가정용 시청각설비 제조업	1.299
6	자동차 제조업	1.286
7	가정용 전력 및 비전력 기구 제조업	1.276
8	전력 전송 및 통제설비 제조업	1.275
9	전자소재 부품 제조업	1.271
10	전선, 광케이블 및 시공기자재 제조업	1.265
11	플라스틱 제조업	1.247
12	전기기계 제조업	1.241
13	기타 전기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240
14	기타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1.238
15	기중기 운수 설비 제조업	1.238
16	철도 운수 설비 제조업	1.220
17	전문 화학상품 제조업	1.218
18	농수산업 전용 기계 제조업	1.211
19	도료, 염색 등 유사상품 제조업	1.205
20	화학섬유 제조업	1.203

자료출처 :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 『2007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中国统计出版社, 第15页.

(2) 중국 산업연관표 상의 감응도계수 활용

감응도 계수는 모든 산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각각 1 단위씩 발생할 때 어떤 산업이 받는 영향, 즉 전방연쇄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계수로서 그 산업의 생산유발계수의 행 합계를 전 산업의 평균으로 나누어 구한다. 일반적으로 석유제품과 같이 그 제품 각 산업 부문에 중간재로 널리 사용되는 산업일수록 감응도계수가 높다.

$$E_i = \frac{\sum_{j=1}^n \overline{b_{ij}}}{\frac{1}{n} \sum_{i=1}^n \sum_{j=1}^n \overline{b_{ij}}}$$

중국국가통계국은 2007년 투입산출표를 발표하면서 위 수식을 활용하여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 중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표

순위	투입산출부문	감응도계수
1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업	6.767
2	석유 및 핵연료 가공업	4.171
3	석유, 가스 채굴업	4.042
4	농업	3.794
5	전자소재부품 제조업	3.731
6	철강압연 가공업	3.497
7	기초화학 연료 제조업	3.276
8	유색금속제련 및 합금제조업	2.611
9	도소매업	2.590
10	석탄개발 및 세정업	2.423
11	금속 제품업	2.395
12	금융업	2.349
13	기타 통용설비 제조업	2.335
14	플라스틱 제조업	2.250
15	자동차 제조업	2.109
16	제지업	2.057
17	합성소재 제조업	2.005
18	전문 화학용품 제조업	1.978
19	유색금속 압연 가공업	1.876
20	도로운수업	1.650

자료출처 :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 『2007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中国统计出版社, 第16页.

위 <표 2>의 감응도계수 상위 5개 산업을 살펴보면 전력, 난방 생산 및 공급업, 석유 및 핵연료 가공업, 석유, 가스 채굴업, 농업, 전자소재 부품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농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방산업들이 모두 포진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에서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는 ‘도로운수업’이 20위에 랭크되었다. 도로운수업의 감응도계수는 1.650으로서 1보다 큰 산업에 속하여 경제 여건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즉 경제가 활성화되어 제조업 등 생산관련 산업이 호황일 경우 물류산업도 같이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반면, 경기가 침체되면 물류산업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산업에 비해 불황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후방 연관효과의 계수 크기를 가늠하여 산업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⁸⁾ 전후방 연관효과⁹⁾가 모두 높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동시에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도 크다. 이러한 유형을 중간 수요적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방연관효과는 높고 후방연관효과가 낮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만,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는 큰 산업으로 이를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방연관효과가 높고 전방연관효과가 낮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는 작은 산업으로 이를 최종 수요적 제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후방연관효과가 모두 낮으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타산업으로부터 받는 감응도가 모두 작은 산업으로서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표 2>의 결과를 놓고 보면 중국의 물류산업은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중국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생산유발 분석

8) 최정석·김용준, <중국 유통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서울:국제지역연구, 2010

9) 전방연관효과는 감응도계수의 높낮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며, 후방연관효과는 영향력계수의 높낮이를 가지고 판단함.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에서 제시된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상위 20개 산업 분류 중 물류산업의 중요성과 연관 관계가 높은 산업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물류산업 타 산업에 의한 생산유발 또는 물류산업으로 인한 생산유발의 규모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기업 및 가계의 PC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 PC 제조업체는 증산체제를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생산유발 효과는 먼저 PC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등의 원재료 부문으로 파급되고, 더 나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화학공업 부문과 회로류 등 광산 채굴산업으로 점차 파급되어갈 것이다¹⁰⁾.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생산유발 분석은 이와 같이 어떤 부문의 최종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그 수요가 과부족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각 내생부문의 생산활동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래 <표 3>은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 기본표를 토대로 하여 아래 수식에 대입하여 얻은 값이다. 그 중 생산유발액이 높은 22개 산업을 추려서 아래와 같은 목록으로 제시한다.

$$\begin{aligned}
 \begin{bmatrix} X_1 \\ X_2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b_{11}b_{12} \cdots b_{1n} \\ b_{21}b_{22} \cdots b_{2n} \\ \vdots \\ b_{n1}b_{n2} \cdots b_{nn} \end{bmatrix} \\
 &\times \left\{ \begin{bmatrix} 1-m_1 & 0 & \cdots & 0 \\ 0 & 1-m_2 & \cdots & 0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0 & 0 & \cdots & 1-m_n \end{bmatrix} \times \begin{bmatrix} C_{s_1} & C_{p_1} & C_{g_1} & I_{g_1} & I_{p_1} & J_1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vdots \\ C_{s_n} & C_{p_n} & C_{g_n} & I_{g_n} & I_{p_n} & J_n \end{bmatrix} + \begin{bmatrix} E_1 \\ \vdots \\ E_n \end{bmatrix} \right\} \\
 &= \begin{bmatrix} G_{11} & G_{12} & \cdots & G_{16} & G_{17}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vdots \\ G_{n1} & G_{n2} & \cdots & G_{n6} & G_{n7} \end{bmatrix}
 \end{aligned}$$

10) 정봉민, <산업연관분석방법에 의한 해운·항만서비스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 추정>, 《로지스틱스연구》, 제12-2권, 2004.

〈표 3〉 최종수요 산업별 생산유발액

단위 : 만 위안

산업분류	민간소비 지출	정부소비 지출	공공+민간 투자	재고순증	수출	생산유발 액계
농림수산업	11514919 391	71571959 9	76820614 6.5	13392457 0.9	18304320 06	14963201 713
석탄채굴업	57135205 74	33717534 6.3	39736856 8.3	53514215 16	89001270 2	73915914 06
석유 및 천연가스채굴업	90780096 27	54650049 5.1	62746244 1.7	85250750 02	14243863 86	11761609 700
금속채굴업	38520846 97	21032341 9.4	28794571 7	38190674 71	60597622 2	49945207 31
비금속광물 및 기타채굴업	99122078 9.3	57025788 25	67976337 24	9192808.1 92	15490576 0	12803214 83
식품제조 및 담배가공업	83893205 91	53331552 5.4	56183879 8.4	97793346 63	13336469 44	10915915 206
방직업	30320877 63	18028682 1.5	19262134 5.2	29455240 44	65144253 5	40858937 05
의류, 피혁 등 기타제조업	15384551 98	10047620 5.4	10765226 7.4	15466747 05	31381613 4	20758665 52
목재가공 및 가구제조업	14275973 85	10187347 1.1	11580674 8.2	13648003 71	25053770 5	19094633 13
제지, 인쇄 및 문화체육용품제조업	50261530 44	35047070 2.6	34955247 3.3	48258770 43	83264122 7	66070762 18
석유가공, 정제/핵연료가공업	10432125 008	63965392 6.2	73309220 5.6	98121345 87	16589608 05	13561953 291
화학공업	23093411 218	14400937 68	16007867 49	23026573 3.2	38089563 18	30173513 787
비금속광물제품업	25545455 25	14259439 6.3	18393540 0.6	22900249 25	39845818 4	33024337 55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16209371 821	90757231 1.7	12533320 85	15890473 9.1	26237474 58	21152928 414
금속제품업	36757847 83	21618140 8.2	28616605 5.7	35856792 34	62949775 6	48434867 96
일반, 전문설비제조업	63582744 46	37429303 4.7	60991927 1.5	62268975 68	10470645 03	84518202 31
교통운수설비제조업	41902118 61	26154217 7.7	40624715 8.6	45750423 34	68525468 9	55890063 10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48533133 32	29138101 2.2	40750673 7	47342264 01	84096902 1	64405123 67
교통운수 및 창고업	8501026 880	5439415 19.6	6083416 93.9	8114830 9.28	1389700 342	1112415 8746
우편업	22653419 3.5	17900789 67	15876664 54	2132944.7 72	36245791 5	29869038 4
정보전달, 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산업	18336688 93	12209238 1.9	14240143 2.2	17226023 68	29545406 7	24108427 98
도소매업	44201430 47	27562508 4.4	33633243 2.2	43542554 6	74843568 8	58240788 06

자료출처 :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 『2007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中国统计出版社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화학공업의 최종 생산유발액은 301조 7천억 위안에 달했으며 농림수산업의 경우는 149조 6천억 위안, 석유 및 가스 채굴업은 117조 6천억 위안에 달했다. 물류산업의 경우는 위 표에서 ‘교통운수 및 창고업’을 기준으로 111조 2천 415억 위안에 달했다. 그 중 민간소비지출 부문에서 85조 102억 위안, 정부소비지출부문에서 5조 4천 394억 위안, 공공 및 민간투자 부문에서 6조 834억 위안이 생산유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물류산업의 생산유발의 대부분은 민간소비지출 부문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물류산업의 공공 인프라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되며, 향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물류산업 육성정책이 제 구실을 한다면 정부소비지출과 공공 및 민간투자 부문에서 대량의 생산유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부가가치유발 분석

부가가치란 총산출에서 중간재 투입부문을 제외하고 생산활동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로서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와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산업연관표 상의 부가가치는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GDP)의 개념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부가가치유발계수란 해당산업에서 1단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표 4> 2007년 중국산업연관표 산업별 부가가치유발 계수

순위	산업	부가가치율	순위	산업	부가가치율
1	부동산업	0.83381	22	위생/사회보장 및 복지	0.34319
2	폐품/폐기물 처리업	0.80874	23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업	0.32309
3	금융업	0.68945	24	전력, 난방생산공급	0.27980
4	도소매업	0.60114	25	비금속광물제품업	0.27471
5	정보전달,컴퓨터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산업	0.60026	26	공예품 및 기타제조업	0.24950

6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9745	27	식품제조 및 담배가공업	0.24356
7	농림수산업	0.58616	28	제지, 인쇄 및 문화체육용품제조업	0.23820
8	교육	0.55951	29	목재가공 및 가구제조업	0.23767
9	공공관리 및 사회조직	0.54909	30	건축업	0.23139
10	종합기술서비스업	0.53758	31	일반, 전문설비제조업	0.23089
11	수력/환경/공공설비관리업	0.51449	32	의류, 피혁 등 기타제조업	0.22307
12	우편업	0.49050	33	의료기기 및 문화용품기계제조업	0.21163
13	상하수도공급	0.46492	34	금속제품업	0.20824
14	교통운수 및 창고업	0.46134	35	화학공업	0.20312
15	석탄채굴업	0.45920	36	도시가스공급	0.20035
16	주민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0.45892	37	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	0.19524
17	연구/실험개발업	0.43615	38	방직업	0.19505
18	문화, 체육, 오락업	0.42993	39	교통운수설비제조업	0.19477
19	비금속광물 및 기타 채굴업	0.39221	40	석유가공, 정제/핵연료가공업	0.17804
20	숙박 및 요식업	0.37574	41	전기기계 및 기자재제조업	0.17042
21	금속채굴업	0.35183	42	통신설비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0.16527

자료출처 : 中国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2009), 『2007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中国统计出版社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분석

위의 <표 4>의 결과와 같이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상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부동산업으로 0.83381이었으며 이어서 폐품/폐기물 처리업이 0.80874, 금융업 0.68945 순이었다. 이 의미는 각 산업에 1단위를 생산함에 있어 부동산업의 경우 83%의 부가가치를 올린 것을 의미하며, 폐품/폐기물업의 경우는 80%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류산업을 대표하는 ‘교통운수 및 창고업’의 경우는 부가가치율이 0.46134를 기록하였다. 이는 부동산업에 비해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로 아직까지 중국에서의 물류산업은 낮은 인건비를 활용한 낮은 수준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향후 인건비 상승과 전문물류 인력의 구인난, 내륙지역 개발로 인한 농민공의 귀향으로 값싼 노동력의 부재 등 요인이 사라진다면 중국 물류산업은 당분간 구인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IT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달된 제조업을 접목시킨 물류설비 도입과 자동화/무인화 시스템이 활용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단순한 수송 및 보관에서 조립 및 가공 등의 부문으로 물류분야가 확대된다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물류산업의 부가가치율은 향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결 론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세계가 주목하는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현재의 G2가 G1으로 부상하는데 걸릴 시간이 10년 안팎이 될 것이라 것이 유수의 연구기관의 중론이다. 본 연구는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중국에서의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2007년 발행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물류산업과 관련 있는 산업들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통해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해 보고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전체 산업 중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또한 물류산업의 생산유발분석과 부가가치유발 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류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생산유발액을 산출하여 본 결과 2007년의 경우 111조 2천 415억 위안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85조 102억 위안이 민간소비지출 부문에서 생산유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의 분석도 시도하여 얻은 결론은 현재까지는 중국 물류산업의 부가가치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83%에 달하는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율에 비해 절반 수준인 46%에 그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까지 중국의 물류산업이 단순 수송 및 보관에 그치고 있는 것에 기

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뒤집어 생각하면 현재 중국 물류산업이 낮은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등 초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소비지출, 공공 및 민간 시설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 물류관련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활용한 자료가 2007년 중국 산업연관표이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경제의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는 향후 새롭게 발간되는 자료와 수치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부족한 연구 부분은 관련 후속 연구자들과 함께 보완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승준·유승훈·장정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해상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7-1권, 2002
- 심재희, <한국과 중국의 선박제품별 교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59호, 2011
- 오성동·기성래, <해운산업과 관련산업의 경제적 효과분석-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해운물류학회》 제39권, 2003
- 이태우·장영태·신성호,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운송부문별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의 상호 비교 분석>, 《해운항만경제학회》 제51권, 2006
- 장영태·이태우·김승곤·신성호,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의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부문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제22-2권, 2006
- 정봉민, <산업연관분석방법에 의한 해운·항만서비스 가격변동의 물가파급효과 추정>, 《로지스틱스연구》 제12-2권, 2004
- 최정석·김용준, <중국 유통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

14-3권, 2010

중국 교통운수부 <http://www.moc.gov.cn> (2013.07)

중국 국가통계국 <http://www.stats.gov.cn> (2013.05)

중국 전자정부 <http://www.gov.cn> (2013.07)

강광하, 《산업연관분석론》, 서울: 연암사, 2000

김용준, 《차이나마케팅》, 서울: 박영사, 2011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08

国家统计局国民经济核算司, <2007年中国投入产出表>, 北京: 中国统计出版社, 2010

金真, <能源业与物流业的协同发展:基于河南省投入产出表的实证>, 《统计与决策》, 2011年, 第4期

李惠·王辉·石伟, <我国旅游业与其相关产业的关联分析-基于投入产出表的分析>, 《现代商贸工业》, 2011年, 第2期

伍健波, <基于投入产出表的产业关联度分析>, 《中国集体经济》, 2009年, 第33期

<Abstract>

This paper to empirical examine the date from 2007 to 2010 China's ODI in 103 countries, found that a lot of overseas theory and experience hypotheses to explain China's ODI is not suitable for a large part.

China's outward FDI to the investing countries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size and potential of the markets, the open level of market, such as the degre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China's enterprises towards the presence of exchange and other financial risks that are not realize. The average wage level, the exchange rate of the traditional FDI determinants influenced th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findings conflict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are as follow: First, China to take advantage of new investment source need to target strategies. Second, the extension of Korea's market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investment environment should be open for the Chinese capital in Korea. Fourth, the response to M&A of China's enterprises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Fifth, we should be prepared that compete with foreign manufactured products by China's enterprises.

Key Words : China's Enterprises, Host Countries,
Determinants of ODI, Strategic implications

투 고 일 : 2013.6.30

심 사 일 : 2013.7.2~8.20

게재확정일 : 2013.8.22

《中國學》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3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년 3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4월 30일, 8월 31일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2) 원고 마감 시기: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을 원고 마감일로 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월	4월	8월	12월
원고마감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3월 10일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3월 20일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4월 10일	8월 10일	12월 10일
원고 수정 및 반송	4월 17일	8월 17일	12월 17일
수정 원고 재심사	4월 20일	8월 20일	12월 2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4월 27일	8월 27일	12월 27일
《중국학》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 게재 여부는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 전 기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6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0만원(연구비 수혜논문은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인쇄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고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定한다.

-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議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理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약간 명·運營委員 약간 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理事 약간 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한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 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理事에 한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の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理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委員長은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되, 編輯理事를 겸하며,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研究理事, 編輯委員長, 學術理事를 포함한 5인 이상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研究理事를 겸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連임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研究倫理 規程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6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7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다.

第28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9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30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개정 2009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편집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3월 31일 심사를 마감하고,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 심사 마감,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30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은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
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
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
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심사위원 3인의 평가결과가 평균 80점 이상을 득한 논문을 게재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
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
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
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
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 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
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명시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 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적합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부적합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논문투고 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계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련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5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 가. 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2월 28일, 8월 31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 나. 심사의뢰: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다. 심사기간: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라. 게재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31일, 8월 31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1월 30일로 한다.
-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1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 바. 수정원고마감: 4월 30일 발행분은 3월 17일,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17일로 한다.
- 사. 게재최종결정: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0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0일로 한다.
- 아. 편집·인쇄: 4월 30일 발행분은 4월 27일, 8월 31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31일 발행분은 12월 27일 이전에 완료한다.
- 자. 발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5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	바탕	바탕	바탕
	한자	SimSun	SimSun	SimSun
	장평	95	95	95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 (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저,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위원회▷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

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데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학회의 학회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전을 처리함에 있

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와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

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年三刊 中國學 第 45 輯

2013년 8월 25일 인쇄

2013년 8월 31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李 哲 理

發行處：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 631-701)

慶南大學校 中國學部 內

TEL : 055-249-2143

FAX : 0505-999-2138

E-mail : dochtkim@kyungnam.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424-9977

ISSN 1229-9618